

# 서울시 다문화가족 생활실태분석을 통한 정착 및 사회통합지원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 강희영(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위촉연구원 : 권용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 발 간 사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다문화사회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왜 다문화사회이며 다문화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 다문화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구는 서울시 다문화 가족의 생활실태 분석에 1차적인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연구를 통해 서울에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다문화가족이 살고 있으며 서울의 다문화가족이 빠른 속도로 분화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중도입국 청소년은 분화하는 다문화가족의 중심에 서있으나 가족과 사회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위기에 처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결혼이주자의 전형성과 다소 차이가 있는 ‘조선족’으로 불리는 중국계와 결혼이주·혼인귀화 남성의 경우 서울 거주 비율은 높으나, 기존의 다문화 정책대상에서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시 다문화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은 연구과정 곳곳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분화되고 있는 서울시 다문화 가족의 욕구와 수요를 반영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전해주시신 분들과 바쁘신 중에도 자문을 해주신 전문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연구진의 노고에도 고마움을 표하며, 모쪼록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완성된 이 보고서가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정착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3년 12월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이숙진

# Contents

## I 서론 \_ 0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 배경 .....	3
2) 연구 목적 .....	5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6
1) 연구 내용 .....	6
2) 연구 방법 .....	7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	8

## II 선행연구 및 정책 현황 분석 \_ 11

1. 선행연구 검토 .....	13
1) 다문화가족 연구의 경향 .....	13
2)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연구 .....	14
3) 서울시의 다문화가족 및 중도입국 청소년 정책 연구 .....	15
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	17
3. 서울시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 및 주요사업 .....	19
1) 다문화가족 관련 주요 사업 .....	20
2)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사업 .....	21

4. 다문화 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베를린의 사례 .....	22
5. 서울시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체계 .....	24
1) 가족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24
2) 취·창업 지원 .....	25
3)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	26
6. 분석 및 시사점 .....	28

### III 2012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분석 \_ 31

1. 2009년 조사와의 차이 .....	34
2. 2012년 조사에 나타난 도시 다문화가족의 특성 .....	36
3.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현황 .....	40
4. 서울시 다문화가족 : 가구 특성 .....	46
5.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결혼이민·귀화자 및 배우자 .....	59
1) 결혼이민·귀화자 및 배우자의 일반적 특성 .....	59
2) 가족의 형성과 유지 .....	63
3) 가족의 분화 .....	77
4) 부부갈등 .....	93
6. 다문화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결혼이민·귀화자 및 배우자 .....	95
1) 생존을 위한 경제활동 .....	95
2) 공존을 위한 사회 참여 .....	116

7. 다문화가족의 자녀 : 중도입국청소년 .....	127
1) 중도입국청소년의 실태 .....	129
2) 소속 없는 삶과 공적 활동에서 겪는 어려움 .....	132
3) 가족생활과 일상의 고민 .....	143
8.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 서비스 이용실태 .....	149
1)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	150
2) 중도입국청소년 .....	162
9. 분석 및 시사점 .....	169
1) 다문화가족의 분화와 가구의 특성 .....	169
2) 서울시 결혼이민·혼인귀화자와 배우자 .....	171
3) 자녀 세대 .....	173
4) 지원체계 이용 .....	176

## IV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요구 분석: FGI조사 결과 \_ 179

1. 핵심과제 발굴 FGI 분석 .....	181
1) 취업·경제활동 분야 .....	181
2) 지원체계 관련 분야 .....	190
2. 중점지원 대상 FGI 분석 .....	207
1) 중도입국자녀 FGI .....	207
2)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 여성 .....	219
3. 분석 및 시사점 .....	226

**V**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정착 및 사회통합 지원 방안 \_ 229

1. 서울시 다문화 정책의 방향 .....	231
1) 다문화 가족 정책 .....	232
2) 다문화 사회 정책 .....	232
2. 분야별 지원 정책 과제 .....	234
1) 경제 분야 : 취·창업 지원 .....	234
2) 지원체계 관련 분야 .....	235
3) 기타 .....	236
3. 다문화 사회 구성원을 위한 정책 .....	237
1) 한국계 중국 출신인 .....	238
2)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여성 .....	239
3) 중도입국청소년 .....	241

참고문헌 \_ 245

영문초록(Abstract) \_ 247

부    록 \_ 249

1.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차별경험 관련 통계표 .....	251
2. 다문화가족 자녀의 차별경험 관련 통계표 .....	260

# 표 목차

▣ 표 II-1 ▣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	18
▣ 표 II-2 ▣ 다행복 서울플랜 .....	21
▣ 표 II-3 ▣ 서울시 중도입국 다문화자녀 종합지원책 .....	22
▣ 표 II-4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 .....	25
▣ 표 II-5 ▣ 2013 서울시 교육청 다문화 관련 대안학교 현황 .....	27
▣ 표 III-1 ▣ 서울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분석 개요 .....	33
▣ 표 III-2 ▣ 다문화가족 구성 변화 추이 .....	35
▣ 표 III-3 ▣ 거주지역별로 본 다문화가족의 가족구성 .....	36
▣ 표 III-4 ▣ 거주지역별 다문화가족 자녀 수 .....	37
▣ 표 III-5 ▣ 거주지역별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 .....	37
▣ 표 III-6 ▣ 외국성장 자녀의 수 .....	38
▣ 표 III-7 ▣ 거주지역별 정부지원 수혜율 .....	38
▣ 표 III-8 ▣ 다문화가족의 월평균 가구소득별 분포 .....	39
▣ 표 III-9 ▣ 다문화가족의 주택점유 형태 .....	39
▣ 표 III-10 ▣ 거주지역별 주택위치 현황 .....	40
▣ 표 III-11 ▣ 시도별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현황 .....	41
▣ 표 III-12 ▣ 시도별 다문화가족 자녀 분포 .....	42
▣ 표 III-13 ▣ 서울 거주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현황 .....	43
▣ 표 III-14 ▣ 서울 자치구별 외국인 주민 자녀 분포 .....	44
▣ 표 III-15 ▣ 전국 대비 서울 거주 다문화 가족 구성원 .....	46
▣ 표 III-16 ▣ 서울시 다문화가족 분포 .....	47
▣ 표 III-17 ▣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출신국적별 다문화가족 .....	48
▣ 표 III-18 ▣ 다문화가족의 구성 .....	49
▣ 표 III-19 ▣ 다문화가족의 자녀 수 .....	50
▣ 표 III-20 ▣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별 분포 .....	51
▣ 표 III-21 ▣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재학 상태 .....	52
▣ 표 III-22 ▣ 만 9세 미만 다문화가족 자녀의 낮 시간 보살핌 방법 .....	53
▣ 표 III-23 ▣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의 어려움 .....	54
▣ 표 III-24 ▣ 다문화가족의 외국 성장 자녀 수 .....	55
▣ 표 III-25 ▣ 다문화가족 거주 주택 종류 .....	56
▣ 표 III-26 ▣ 다문화가족의 월평균 가구 소득 .....	58



■ 표 III-27	■ 결혼이민·귀화자 및 배우자의 성별 분포(전국, 서울)	59
■ 표 III-28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혼인상태 비교(전국, 서울)	60
■ 표 III-29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연령별 분포	61
■ 표 III-30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배우자의 연령별 분포	62
■ 표 III-31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교육수준별 분포	62
■ 표 III-32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배우자의 교육수준별 분포	63
■ 표 III-33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배우자의 만남 경로(전국)	64
■ 표 III-34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배우자 만남 경로(서울)	65
■ 표 III-35	■ 결혼이민·귀화자 등 배우자의 상대방 만남 경로(서울)	66
■ 표 III-36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혼인상태	68
■ 표 III-37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가족관계 만족도(전국, 서울)	69
■ 표 III-38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가족관계 만족도(서울)	71
■ 표 III-39	■ 가족관계 만족도(2012년 실태조사, 2012년 사회조사)	72
■ 표 III-40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배우자의 가족관계 만족도	73
■ 표 III-41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가족 내 역할에 대한 인식(전국)	74
■ 표 III-42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가족 내 역할에 대한 인식(서울)	75
■ 표 III-43	■ 결혼이민·귀화자 등 배우자의 가족 내 역할에 대한 인식(서울)	76
■ 표 III-44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초혼 여부(전국)	77
■ 표 III-45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초혼 여부(서울)	78
■ 표 III-46	■ 결혼이민·귀화자 등 배우자의 초혼 여부(서울)	79
■ 표 III-47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 유무(전국)	80
■ 표 III-48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 유무(서울)	81
■ 표 III-49	■ 결혼이민·귀화자 등 상대방의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 유무(서울)	82
■ 표 III-50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배우자 동거 여부(서울)	83
■ 표 III-51	■ 배우자의 결혼이민·귀화자 등과 동거 여부(서울)	84
■ 표 III-52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이혼·사별까지의 기간(전국)	85
■ 표 III-53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결혼 후 이혼·사별까지의 기간(서울)	86
■ 표 III-54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이혼·별거 이유(전국)	87
■ 표 III-55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이혼·별거 이유(서울)	88
■ 표 III-56	■ 결혼이민·귀화자 등 배우자의 이혼·별거 이유(서울)	89
■ 표 III-57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이혼·별거 후 자녀 양육자(서울)	89
■ 표 III-58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이혼·별거 후 양육비 수령 여부(서울)	91

# Table Contents

표 III-59	결혼이민·귀화자 등 배우자의 이혼·별거 후 양육비 수령 여부 (서울) ..	92
표 III-60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이혼·별거 후 자녀가 한국에 있는지 여부(서울)	92
표 III-61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부부갈등 여부 및 부부갈등 사유(복수응답) : 전국	93
표 III-62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부부갈등 여부 및 부부갈등 사유(복수응답) : 서울	94
표 III-63	전국 대비 서울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취업 여부 .....	95
표 III-64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취업 여부(서울) .....	96
표 III-65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배우자의 취업 여부(전국, 서울) .....	97
표 III-66	전국 대비 서울 거주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직업 .....	98
표 III-67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직업(서울) .....	99
표 III-68	결혼이민·귀화자 등 배우자의 직업(서울) .....	100
표 III-69	결혼이민·귀화자 등과 일반국민의 직업 비교 .....	100
표 III-70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종사상 지위(전국, 서울) .....	101
표 III-71	결혼이민·귀화자 등 배우자의 종사상 지위(서울) .....	102
표 III-72	배우자의 종사상 지위(전국, 서울) .....	103
표 III-73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구직경로(전국) .....	103
표 III-74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구직경로(서울) .....	105
표 III-75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일하면서 느낀 어려움(전국) .....	106
표 III-76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일하면서 느낀 어려움(서울) .....	107
표 III-77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월평균 임금(2009년, 2012년) .....	108
표 III-78	결혼이민·귀화자 등이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이유(서울) .....	109
표 III-79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한국에서 일자리 탐색의 어려움(서울) .....	110
표 III-80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앞으로 취업 의사 유무(서울) .....	112
표 III-81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모국에서 일한 경험(서울) .....	113
표 III-82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모국에서의 직업(서울) .....	115
표 III-83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사회적 네트워크 : 어려운 일 의논 .....	116
표 III-84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사회적 네트워크 : 여가/취미를 함께 하는 사람	117
표 III-85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사회적 네트워크 : 일자리, 자녀교육(전국, 서울)	118
표 III-86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자녀 학교의 학부모 모임 참여 경험 유무 .....	120
표 III-87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지역 내 활동 참여 경험 .....	122
표 III-88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참여하고 싶은 모임 유무 및 종류(복수 응답) ..	124
표 III-89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모임이나 활동 참여 시 어려운 점(복수 응답) ..	126
표 III-90	다문화가족 자녀의 외국계 부모 출신국적 및 귀화 여부(서울) .....	128

표 III-91	9~24세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별 분포	129
표 III-92	외국성장자녀가 주로 체류한 국가에서의 교육정도(전국)	130
표 III-93	외국성장자녀가 주로 체류한 국가에서의 교육정도(서울)	131
표 III-94	다문화 가족 학생의 출신국별 부모 현황	132
표 III-95	시도별 다문화가정 학생 세부현황(2012년)	133
표 III-96	학교급별 다문화가족 학생 분포(서울)	134
표 III-97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 중단 사유(서울)	135
표 III-98	다문화가족자녀의 학업 중단 사유(전국)	136
표 III-99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공부에서의 어려움(전국)	136
표 III-100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공부에서의 어려움(서울)	137
표 III-101	15세 이상 다문화가족자녀가 지난 1주일간 일을 했는지의 여부	138
표 III-102	15세 이상 다문화가족 자녀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서울)	139
표 III-103	15세 이상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임금(서울)	139
표 III-104	15세 이상 다문화가족 자녀가 일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어려움(서울)	140
표 III-105	15세 이상 다문화가족 자녀가 일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어려움(전국)	141
표 III-106	15세 이상 다문화가족자녀가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서울)	142
표 III-107	15세 이상 다문화가족자녀가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전국)	143
표 III-108	다문화가족자녀의 가족관계 만족도(서울)	144
표 III-109	다문화가족자녀의 가족관계 만족도(전국)	145
표 III-110	13세 이상 다문화가족 자녀의 고민 시 대화 상대(서울)	146
표 III-111	13세 이상 다문화가족 자녀의 고민 시 대화 상대(전국)	146
표 III-112	13세 이상 다문화가족자녀의 고민(복수응답, 서울)	147
표 III-113	13세 이상 다문화가족자녀의 고민(복수응답, 전국)	148
표 III-114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교육 및 지원서비스 수혜 경험(복수응답, 전국·서울)	150
표 III-115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받은 적 있는 교육 및 지원서비스 종류(복수응답)	152
표 III-116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교육 및 지원 필요도(전국 대비 서울)	153
표 III-117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교육 및 지원 필요도	154
표 III-118	관련 시설 및 교육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지율	155
표 III-119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관련 지원 시설 인지율	157
표 III-12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지 경로	158
표 III-121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지 여부 및 인지 경로	159
표 III-122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관련 시설 및 교육지원 서비스 이용률	160

# Table Contents

■ 표 III-123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지원 시설 이용률 .....	161
■ 표 III-124	■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 서비스 인지율 및 이용경험(전국) .....	163
■ 표 III-125	■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 서비스 인지율 및 이용경험(서울) .....	164
■ 표 III-126	■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및 지원 수혜 경험(복수응답, 전국) .....	166
■ 표 III-127	■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및 지원 수혜 경험(복수응답, 서울) .....	167
■ 표 III-128	■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및 지원 요구(전국) .....	168
■ 표 III-129	■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및 지원 요구(서울) .....	168
■ 표 IV-1	■ FGI 참여자 일반 특성(취업·경제 활동분야) .....	183
■ 표 IV-2	■ FGI 참여자 일반 특성(지원체계 관련 분야 관계자) .....	191
■ 표 IV-3	■ FGI 참여자 일반 특성(중도입국 자녀) .....	209
■ 표 IV-4	■ FGI 참여자 일반 특성(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 여성) .....	221
■ 부록 표-1	■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다문화 수용성: 한국 문화 수용 .....	251
■ 부록 표-2	■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사회적 차별 경험 .....	252
■ 부록 표-3	■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거나 동네에서 차별받은 정도 .....	253
■ 부록 표-4	■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상점, 음식점, 은행 등에서 차별받은 정도 .....	254
■ 부록 표-5	■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공공기관(동사무소, 경찰서 등)에서 차별받은 정도 .....	255
■ 부록 표-6	■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직장/일터에서 차별받은 정도 .....	256
■ 부록 표-7	■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차별받은 정도 .....	257
■ 부록 표-8	■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차별시정 요구 경험 .....	258
■ 부록 표-9	■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차별하지 말라고 요구하지 않은 이유(복수 응답) .....	259
■ 부록 표-10	■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여부 .....	260
■ 부록 표-11	■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경험 (복수응답) .....	261
■ 부록 표-12	■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폭력 대응방법 (복수응답) .....	262
■ 부록 표-13	■ 다문화가족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당한 경험 .....	263
■ 부록 표-14	■ 다문화가족 자녀를 차별하거나 무시한 사람: 친구 .....	264
■ 부록 표-15	■ 다문화가족 자녀를 차별하거나 무시한 사람: 교사 .....	265
■ 부록 표-16	■ 다문화가족 자녀를 차별하거나 무시한 사람: 친척 .....	266
■ 부록 표-17	■ 다문화가족 자녀를 차별하거나 무시한 사람: 이웃 .....	267
■ 부록 표-18	■ 다문화가족 자녀를 차별하거나 무시한 사람: 모르는 사람 .....	268
■ 부록 표-19	■ 다문화가족 자녀가 차별받았을 때 대응 방법 (복수응답) .....	269

# 연구요약

## □ 연구 배경

- 한국에서 일상을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외국인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1991년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하면서 부티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정부의 외국인 정책이 다문화정책으로 이어지게 된 배경에는 국제결혼이민여성의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이 자리 잡고 있으며, 다문화 정책은 국제결혼이민여성과 그 가족을 우선에 두고 추진되어 옴.
- 다문화를 통해 분화될 수 있는 여러 의제 가운데 다문화가족이 그 중심에서 있는 가운데 ‘다문화’에 대한 정의나 해석이 분분하며, 다문화정책의 기조에 대한 합의와 방향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공적인 담론과 사회적 합의를 결여한 부처차원의 파편적인 사업 수행의 총합이라고 보는 해석(홍기원, 2007)과 함께 정책 대상이나 정책 내용에 따라 동질화, 분리, 통합 정책의 기조들이 임의적으로 채택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 또한 지적(김영란 외, 2013)되고 있음.
- 한국 가족 구조에서 큰 관심을 받으며 성장해온 다문화 가족은 2011년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한편 거주 기간이 길어지고 그 구성원들이 다양해지고 있음. 또한 전체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음에도 다문화가족 관련 법 등의 개정으로 2012년 조사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범주가 확장되었고, 기존 안전행정부의 외국인주민조사에서 외국인 주민 자녀를 18세까지로 본 데 반해 9-24세 자녀를 조사 범주에 포함 시킴으로써 다문화가족 자녀 세대가 청년층으로 확대된 특징이 있음.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 중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 부모를 따라 입국한 자녀들은 현재 연구자나 기관별로 각기 다른 방식의 집계를 하고 있어 그 규모에

1)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1년도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혼인 건수 2만2천265건으로, 2010년 2만6천274건에 비해 4천9건 감소하였다.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로 지금까지의 사회 구성원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 이들의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보완이 필요함.

-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에 따라 이전과는 다른 삶을 경험하는 이들,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개인적 지지망을 잃고 한국에서 살아가게 된 이들의 문제는 가족 정책과 더불어 폭 넓은 사회 정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정책과 함께 다문화가족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이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시민들을 포괄하는 다문화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임. 특히 단순한 적응을 넘어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이라는 의제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문화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에 대한 논의가 다문화가족 논의와 함께 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여 받고 있음.

#### □ 연구 목적

- 서울 거주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파악하고, 서울시 다문화 가족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함.
- 다문화 가족의 유형과 생애주기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족 정책의 핵심 과제와 세부 과제를 발굴함.
- 전국적인 조사 결과와 서울의 현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다문화가족의 정착 및 사회통합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안함.

#### □ 연구 방법

- 문헌연구 및 통계분석 : 다문화가족 실태 관련 국내외 문헌조사 및 정책을 분석함 .
- 데이터베이스 분석 :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중 서울시 거주자 부분을 추출하여 분석을 실시함.

## 서울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분석 개요

- 분석자료 : 2012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12. 7. 10.~7. 31.
  - 조사대상 :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귀화자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귀화자의 가구, 배우자, 자녀(9~24세)
  - 응답인원 : 15,341가구(※표본조사)
  - 주 관 : 여성가족부(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계청)

- 분석대상 : 서울시 거주 다문화대상자의 가구, 배우자, 자녀(9~24세)

구분	가구	결혼이민·귀화자	배우자	자녀
조사내용	(10개 항목) 가구 구성원, 자녀 보살핌, 월평균 소득	(112개 항목) 혼인 상태, 가족만족도, 경제활동 등	(53개 항목) 혼인 상태, 가족만족도, 경제활동 등	(71개 항목) 한국어 사용, 학교폭력 등
전국	266,547	283,224	234,505	66,536
서울	68,890 (25.8%)	71,553 (25.3%)	54,987 (23.4%)	11,787 (17.7%)

- 분석방법 : SPSS 20.0

- FGI(Focus Group Interview) 실시: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요구와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종사자, 결혼이민여성 취·창업 프로그램 이수자 및 관련 종사자, 중도입국 자녀 지원기관 관계자와 당사자,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참여자로 하여 실시
- 전문가 조사 : 다문화가족의 다양성에 주목한 심층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정책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함

### □ 연구 내용

-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에 기반하여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착과 사회통합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 우선 현재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와 정책동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 기존 정책의 합의를 보완점을 도출함. 실태분석에 기반하여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특징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한 요구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정책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II 장에서는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 사례들을 검토하고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정부 정책을 검토함. 이어 서울시의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 현황을 검토하고 기존 연구 및 정책의 시사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 정책의 흐름을 파악하고, 변화 성장하는 다문화가족과 다문화사회에 발맞추어 향후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함.
- III 장에서는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에 기반하여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특징을 분석함. 다문화가족의 실태는 가구와 구성원으로 나누어 보는데 이 연구에서는 결혼이민·귀화자 등 당사자와 그 배우자를 함께 분석하고, 9-24세 자녀 세대를 외국성장청소년을 중심으로 별도로 분석해 서울시의 특성을 분석함.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전국조사 결과의 차이점이 두드러진 분야와 대상 집단을 추출함으로써 서울 거주 다문화 가족의 실정에 맞는 정책 과제 개발의 방향을 설정함.
- IV 장에서는 서울시 특성이 두드러진 부분에 대한 대상별, 분야별 정책 지원과 관련된 FGI를 통해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요구를 분석함.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관계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정책 수요를 도출하고, 정책 수요 특화집단으로 중도입국자녀, 폭력 피해 이주 여성 등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심화된 정책 수요를 파악함.
- V 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에 따른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함. 즉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관계자와 다문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정책 과제를 토대로 향후 정책 개선점을 제안하고, 서울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문화사회를 위한 다문화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함.



## □ 정책 과제

### ○ 서울시 다문화 가족 정책의 방향

-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문제를 단지 ‘다문화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다문화 사회의 위계문제, 여성의 문제, 가족문제가 다층적으로 얽힌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파악하고자 함.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접근을 단지 가족과 결혼이민·혼인귀화자 여성뿐만이 아닌 그 가족, 이웃을 포함하는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정책발굴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다문화가족 자체를 한국에서 소수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일반 다른 소수 가족의 문제와 같이 가야될 문제임. 즉 각각의 다른 가족들을 별도의 정책 범주에서 다루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빠른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해당자들을 하나의 지원체계 안으로 묶어 특수집단화 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통합의 관점이 필요함.

- 여러 가족의 형태와 더불어 가는 다양한 가족 정책의 차원에서 다문화 가족이 함께 갈 때 일반의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폭도 넓어질 것임.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 논의가 있는 만큼 하나의 가족지원 체계 안에서 “따로 또 같이”의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면 ‘다문화’라는 낙인을 피하면서 통합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이때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지원체계가 각각의 가족들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영해 가야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다양한 가족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로 현재의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이 나아갈 때 다문화는 사회의 다양한 정책 안에서 통합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임.

### ○ 다문화가족 및 사회 정책

-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족 프로그램을 보다 지속성을 갖는 정기적인 프로그램으로 활성화하고, 가족들의 생활시간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함. 특히 문화 이해 교육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자로 당사자만을 선정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임. 결혼이

민·혼인 귀화 여성의 가정폭력 실태에서 남성 배우자뿐 아니라 남편의 가족이 가해자로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는 가족 단위의 접근과 함께 다문화 자체가 차별 내지 낙인으로 기능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생각할 때 지역사회 단위, 마을 단위로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장기적인 교육 내지 문화 만들기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한국인의 인식개선에 대해서는 다문화 가족원들의 인식개선과 더불어 정책 입안자, 아동, 청소년 문제까지 포괄하는 방식을 제안함. 각급 학교에서 다문화가족 아이들을 정책 수혜대상자로 접근하여 아이들이 열외로 대우하는 관행으로부터 편견이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해 지역사회, 학교 단위의 섬세한 접근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다문화가족 자녀 세대의 자존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서울시 소재 각 대학에서 유학 중인 다양한 국가로부터의 유학생과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연계된 프로그램의 고안도 고려할 수 있음. 스스로 역할 모델을 삼을 수 있는 성인집단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다문화를 ‘낙인’이 아닌 또 다른 가능성으로 인식하게 될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임. 어떤 대상을 특정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차별로 인식되고 있다면 다문화 프로그램을 가족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인력개발기관 등에도 다문화 감수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 만한 강사나 직원대상 인식교육 등이 필요함. 따라서 다문화 정책이 단순히 ‘가족’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다문화가족 자체가 하나의 수혜 집단이 아닌 참여의 집단으로 전환해 갈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분야별 정책 과제

- 결혼이주 및 혼인 귀화 등 당사자의 입국 전 학력과 경력에 대한 조사에 기반한 수요 조사가 프로그램 진행의 선행 과제임.
- 한국 거주 기간이 긴 결혼이민·혼인 귀화자를 적극적으로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강사로 양성해 갈 것을 제안. 입국 초기 이민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에 기존의 이민·귀화자들이 단순한 멘토가 아닌 프로그램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둘 것을 제안함. 이를 통해 초기 입국자는 한국어 능력 여하에 관계없이 생활의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이며, 향후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모델링을 이민·귀화자 출신 강사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현재의 기능 안에서도 자녀 양육과 관련한 요구, 가정폭력 등의 상황에 대한 개입 요구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가족원 전반을 아우르는 가족지원 체계로의 전문성을 확실히 하는 방향성을 잡을 필요가 있음. 한국어 교육과 함께 거주 기간이 긴 결혼이주·혼인귀화자 강사 인력을 중심으로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의 초기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한국인 가족 구성원에 대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어 간다면 센터의 역할은 보다 분명한 전문성을 띠게 될 것임.
- 취업욕구가 높은 이들에 대해서는 여성인력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활동이 모색되어야 함. 기존의 인력개발 기관과의 관계에서는 다문화가족 센터가 가진 '다문화 이해도'에 대한 노하우를 각 연계 기관에 전수하고 타 기관 종사자들과의 연계 활동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요구를 단순히 특정 지원체계가 전담하는 것이 아닌 한국 사회 구성원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원체계 전반이 함께 하는 쪽으로 가야함.
- 건강이나 제반 어려움을 지원해 줄 프로그램의 안내를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재 모든 종류의 지원체계 중 유일하게 90% 이상 이용률을 보이는 주민센터의 정보 안내의 충실화 및 활성화가 사회적 소외를 방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할 수행. 장기적으로 여성들의 자조적 커뮤니티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고안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 다문화사회 구성원을 위한 정책

- 한국계 중국 출신인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사적 네트워크와 커뮤니티를 성장시켜 간다면 전담지원체계를 통한 정착이나 사회통합보다 한 단계 질적으로 성장한 사례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임. 즉 정부나 선주 한국인의 주도에 의한 접근이 아닌 당사자들 안에서 발생한 네트워

- 크, 커뮤니티의 성장을 서울시가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주민의 자발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 안에서 당사자들의 요구에 충실한 자조적인 형태의 커뮤니티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보다 생생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임. 더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나 제도 등의 안내를 공적 전담 체계만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들 소규모 커뮤니티 안에서도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정보전달의 통로를 다양하게 열어 두어야 함을 제안함.
- 20세 이상 중도입국 청소년 중 중등교육이수를 원하는 이들의 원활한 중등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현행 학사 이상 과정의 유학생(D-2)이나, 대학 어학 프로그램 수강자 등을 대상(D-4)으로 한 학생비자 취득 대상을 대학 이하 각급 학교 재학으로 확대할 필요성 있음.
  - 서울시 차원에서 종합대책이 마련되었다고는 하지만, 전문취업기관(시립기술교육원) 연계 지원의 경우,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높은 취업욕구와 맞물려 있으므로 현장의 전담 지원 기관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안이 마련되어야 함.
  - 각급 학교의 자원봉사에 중도입국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모색되어야 함. 이는 FGI 과정에서 드러난 중도입국청소년의 일상이 사회적 관계 맺기보다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 보았을 때에도 필요한 조치임.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가정폭력 이해 교육과 함께 가족 구성원의 전반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고려해야 할 시점임.
  - 가정폭력 피해 이혼 이주 여성의 경우 현재의 수준에서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되는 임대 아파트에 세대주가 아닌 결혼이주 여성 특히 미성년 자녀가 세대주인 여성과 그 자녀가 입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I

##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 배경

한국에서 일상을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외국인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1991년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하면서 부터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03.8) 제정을 시작으로, 여성결혼이민자 사회통합지원대책(2006.4)에 이어 외국인 정책 기본방향과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7.5), 다문화가족지원법(2008.2) 등 관련법을 제정해 왔다. 정부의 외국인 정책이 다문화정책으로 이어지게 된 배경에는 국제결혼이민여성의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이 자리 잡고 있으며, 다문화 정책은 국제결혼이민여성과 그 가족을 우선에 두고 추진되어 왔다.

다문화를 통해 분화될 수 있는 여러 의제 가운데 다문화가족이 그 중심에 서 있는 가운데 ‘다문화’에 대한 정의나 해석이 분분하며, 다문화정책의 기초에 대한 합의와 방향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조차 ‘다문화’라는 용어가 일관성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설규주, 2012),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공적인 담론과 사회적 합의를 결여한 부처차원의 파편적인 사업 수행의 총합이라고 보는 해석(홍기원, 2007)과 함께 정책 대상이나 정책 내용에 따라 동질화, 분리, 통합 정책의 기초들이 임의적으로 채택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 또한 지적(김영란 외, 2013)되고 있다.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결여한 채 ‘다문화가족’이라는 인구학적 특성, 법적 정의에 기반한 범주만으로는 그 가족의 실제적인 현황과 요구를 파악하는 데에 제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문화 사회론이 제기된 이래 한국 가족 구조에서 큰 관심을 받으며 성장해온 다문화 가족은 2011년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성장세가 둔화<sup>2)</sup>되고 있는 한편 거주 기간이 길어지고 그 구성원들이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전체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음에도 다문화가족 관련 법 등의 개정으로 2012년 조사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범주가 확장되었고, 기존 안전행정부의 외국인주민조사에서 외국인 주민 자녀를 18세까지로 본 데 반해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서는 9-24세 자녀를 조사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다문화가족 자녀 세대가 청년층으로 확대된 특징이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 중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 부모를 따라 입국한 자녀들은 현재 연구자나 기관별로 각기 다른 방식의 집계를 하고 있어 그 규모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로 지금까지의 사회 구성원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 이들의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에 따라 이전과는 다른 삶을 경험하는 이들,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개인적 지지망을 잃고 한국에서 살아가게 된 이들의 문제는 가족 정책과 더불어 폭 넓은 사회 정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정책과 함께 다문화가족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이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시민들을 포괄하는 다문화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단순한 적응을 넘어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이라는 의제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문화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에 대한 논의가 다문화가족 논의와 함께 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여 받고 있다.

이 연구는 2012년 여성가족부의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의 서울 지역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1차적으로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국 현황과 차이가 나는 도시 다문화가족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서울시의 정책과제를 발굴한다. 나아가 다문화가족원들이 다문화 서울을 구성하는 주체로서 서울시민으로 더불어 살아갈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1년도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혼인 건수 2만2천265건으로, 2010년 2만6천274건에 비해 4천9건 감소하였다.



## 2) 연구 목적

기존 정책 대상의 현황 파악이 선행되는 이유는 그들의 현황과 요구가 구체적으로 분석될 때 정책의 근거가 확고해질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정책 확대와 다변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족의 정착과 사회통합지원방안 마련에 이르기 위한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 거주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파악하고, 서울시 다문화 가족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2012년 전국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 거주 다문화 가족의 인구학적 및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고, 도시 거주 다문화가족의 특성에 따른 서울시의 정책 과제 개발에 초점을 둘 것이다.

둘째, 다문화 가족의 유형과 생애주기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족정책의 핵심 과제와 세부 과제를 발굴한다.

한국 거주 기간이 늘어감에 따라 등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가족 현황을 분석하고 그 요구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나아가 결혼이주자, 귀화자 등과 그 배우자, 자녀 세대에 대한 통계 자료 분석을 통해 각 집단별 특성을 파악하고, 다문화가족의 성장과 구성원의 다변화를 고려한 지원 방안을 제시해 갈 것이다.

셋째, 전국적인 조사 결과와 서울의 현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다문화가족의 정착 및 사회통합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안한다.

초기 정책이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국제결혼이민여성의 한국 사회 적응과 생존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 연구는 서울 시민으로서의 공존과 자존을 모색하는 사회통합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의 정책이 인구학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정도의 집단<sup>3)</sup>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다문화’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에 관련된 정책 대응을 뒤로 미루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에 주목하여 이 연구는 구성원 전반을 고려해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는 서울시민 일반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 대안 발굴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3)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및 기타 귀화자,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의 2세대 등

‘다문화’ 논의는 2000년대 한국 사회 이슈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다문화’ 자체 보다는 정책 대상에 대한 정의 등 가족의 범주에서 지원책이 마련되면서 전반적인 사회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은 이미 정책적 지원에 대한 일반의 반발<sup>4)</sup>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의 ‘다문화’ 구성원들이 통합의 길에 들어 서기 위해서는 교류와 협력, 공존의 가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족의 정착과 함께 다양한 사회구성원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사회통합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받기 위한 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 연구 내용

이 연구는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에 기반하여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착과 사회통합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와 정책동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 기존 정책의 함의와 보완점을 도출한다. 또한 실태분석에 기반하여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특징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한 요구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정책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 되어 있다.

II 장에서는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 사례들을 검토하고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정책을 검토한다. 이어 서울시의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의 현황을 검토하고 기존 연구 및 정책의 시사점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 정책의 흐름을 파악하고, 변화 성장하는 다문화가족과 다문화사회에 발맞추어 향후 정책이

---

4) 2012년 총선에서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인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자, 이에 대한 반감이 인터넷 등을 통해 확산되었고, 한 인터넷 카페는 2013년 3월 보건복지부의 외국인 의료비 지원, 특히 불법체류자의 의료 지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다문화정책에 대한 거부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808000167&md=20130811003928\\_AT](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808000167&md=20130811003928_AT), 2013.09.21. 검색).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게 될 것이다.

III장에서는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에 기반하여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특징을 분석한다. 다문화가족의 실태는 가구와 구성원으로 나누어 살펴보게 될 것이다. 2012년 전국 실태조사에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을 크게 결혼이민자 및 혼인 등 귀화자 집단, 그 배우자 집단, 9-24세 자녀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결혼이민·귀화자 등 당사자와 그 배우자를 함께 분석하고, 9-24세 자녀 세대를 외국성장청소년을 중심으로 별도로 분석해 서울시의 특성을 분석한다. 이어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전국조사 결과의 차이점이 두드러진 분야와 대상 집단을 추출함으로써 서울 거주 다문화가족의 실태에 맞는 정책 과제 개발의 방향을 설정한다.

IV장에서는 서울시 특성이 두드러진 부분에 대한 대상별, 분야별 정책 지원과 관련된 FGI를 통해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요구를 분석한다. 특히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관계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정책 수요를 도출하고, 정책 수요 특화 집단으로 중도입국자녀, 폭력 피해 이주 여성 등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심화된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자 한다.

V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에 따른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즉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관계자와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정책 과제를 토대로 향후 정책 개선점을 제안하고, 서울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문화사회를 위한 다문화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 2) 연구 방법

기존 다문화가족 연구의 흐름과 그 연장선상에서 이 연구의 위치를 자리매김하고, 연구의 의의를 찾기 위해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을 검토한다. 또한 서울시 차원의 정책 연구인만큼 기존의 국가정책과 서울시의 정책을 분석해 정책의 특징을 파악하고, 정책의 방향성 제시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2012년 전국조사 자료 중 서울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다문화가구,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등, 결혼이민자·혼인이민자 등의 배우자, 9-24세 자녀로 분류해 각 집단의 특성을 분석한 전국조사의 방식에 따라 각 집단 별 서울 거주자들의 특성이 전국조사 결과와 대비되어 드러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중 서울시 DB 분석에 기반하여 서울시 거주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파악할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하나, 전국조사의 결과가 구별 분석이 불가능하게 설계되어 있는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안정행정부의 외국인 주민현황 통계, 교육부의 다문화가정 자녀 관련 통계 등을 보충자료로 사용하였다.

통계 분석이라고 하는 거시적인 접근과 함께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요구와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FGI 참여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종사자, 결혼이민여성 취·창업 프로그램 이수자<sup>5)</sup> 및 관련 종사자, 중도입국 자녀 지원기관 관계자와 당사자,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참여자로 하여 실시하였다. 이들을 참여자로 선정한 이유는 자치구 별 다문화가족의 특성 및 지원체계 이용현황 파악,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특성으로 지적되어 온 경제·취업 분야 관련 지원 정책 도출과 함께 다문화가족이 갖는 특수성에 더하여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연구체계는 현황파악의 단계, 정책 체계화의 단계, 정책 지원방안 도출의 단계로 구성한다. 현황 파악의 단계에서는 기존 문헌 조사와 통계자료 등을 통해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의 체계화 단계에서는 현황 파악에 기초하여 정책의 수요를 파악해 연구자와 현장 전문가 등의 자문 및 FGI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2012 여성가족부의 전국실태조사에 기반하여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특

---

5) 취·창업 프로그램 참여 여성 중 일부는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을 통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실태를 함께 분석하였다.

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지원방안을 도출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 조사의 결과와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실태를 비교하여 전국, 동부, 읍면부 별 특징을 비교한 2012년 조사에서 나아가 거대도시 서울의 다문화가족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다문화가족의 변화 추이에 주목하여 다문화가족의 현 상황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미래상을 도출함으로써 다문화사회의 분화에 따른 서울시의 장기적인 정책을 도출해 갈 기반을 마련해 간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전국 조사에 나타난 현 상황의 분석과 미래상을 조망함으로써 수적인 성장이 주춤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의 질적 성장의 계기가 어떻게 마련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전국 조사와 서울시 현황을 비교하여 서울시의 특징이 두드러진 부분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부 차원의 일반적인 지원정책에 더하여 서울시의 특화된 정책 지원 분야가 어디인지를 찾아내고 그에 따른 지원 방안을 도출해 갈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실질적 정책 지원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갈 것이다. 기존 다문화가족에 초점을 둔 과제 발굴에서 나아가 다문화사회 구성원으로서 서울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과제 발굴에 주안점을 두어 ‘다문화가족’만의 ‘다문화’가 아닌 서울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다문화’ 정책을 제안해 갈 것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만,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결과로 파악할 수 없는 각 자치구별 현황 분석을 위해서는 서울의 권역별, 자치구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애초 시도하였던 자치구 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한 FGI 등 질적 연구가 일부 자치구와 시설이용자에 대해 한정적으로 실시되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다. 이로 인해 보편적 다문화정책의 접근이 어떻게 지역별 특성에 따른 접근으로 전환되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물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의 특성으로 인해 센터 이용자를 통해서 지역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으며 다문화가족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거주지 외에도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함을 상기할 때 모든 지역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대표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 III

## 선행연구 및 정책 현황 분석

1. 선행연구 검토
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3. 서울시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 및 주요사업
4. 다문화 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베를린의 사례
5. 서울시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체계
6. 분석 및 시사점





# II

## 선행연구 및 정책 현황 분석

### 1. 선행연구 검토

#### 1) 다문화가족 연구의 경향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2005년 보건복지부의 국제결혼이주여성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중앙 부처와 지자체에서 다양하게 진행<sup>6)</sup>되면서 전수조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고, 여성가족부는 2009년에 이어,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는 지역차원에서의 연구<sup>7)</sup>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 연구는 다문화가족 현황과 가족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정책 욕구를 분석하는 등 결혼이주여성의 국내생활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결혼을 통해 입국한 이주여성의 국내 적응 문제가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결혼이주여성 개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경향이 변화되면서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생활, 경제생활 및 취업 실태, 사회적 차별, 정체성, 정책수요 등 결혼이주여성가족을 둘러싼 연구의 주제별 접근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 또한 전체 결혼이주여성 뿐만 아니라 일부 지방자

6) 여성가족부(2006), 농림부(2007) 등 중앙부처와 경상북도(2005), 전라북도(2006), 충청남도(2007, 2010), 경기도(2008), 서울시(2008)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7) 광주(김경신, 2008), 경기(박계규 외, 2010; 정기선 외, 2007), 경북(정일선, 2006), 부산(김현지 외, 2010), 서울(장명선 외, 2008, 2010), 인천(홍미희 외, 2008), 전북(조경옥 외, 2010), 충남(김영주, 2006; 김영주 외, 2009)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치단체의 결혼이주여성 가족실태 등 세분화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정기선 외, 2007; 이순형 외, 2006; 설동훈 외, 2005, 2006).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가 확산되면서 정부의 이주정책에 대한 태도 역시 주류사회의 성원들과 차이가 없어지게 하는 동화주의에서 이민자들의 문화를 지켜가도록 하는 다문화주의로 바뀌어야 된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음과 동시에 국민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연구(황정미, 2010; 안상수, 2012; 장지원, 2012; 민무숙, 2012) 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초기의 연구가 결혼이민자라는 한국 사회에 새로이 등장한 집단에 초점을 두었다면 점차 다문화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 전반으로 연구의 대상이 확장되어 온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 2)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연구

초기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생활실태 및 그들의 보건·의료 욕구를 파악하여 정책지원 방안과 결혼이민자의 가족과 아동의 생활실태에 초점을 둔 연구(설동훈, 2005)가 수행되었다. 일반 다문화가족과 해체가족을 대상으로 그 특성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가족단위 복지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김유경 외, 2008)와 함께, 결혼이주여성 가족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통합 지원서비스 운영현황을 분석한 연구(김이선 외, 2007)는 한국어 교육, 가족 및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 사회문화적 통합 지원서비스 등 현황을 분석하여 여성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서비스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와 다문화지원기관의 특성에 주목한 연구(이숙진·김안나, 2013)는 이주여성이 행위자이자 주체로서 사회통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문화사업의 목표와 프로그램 운영방식, 이주여성과의 관계 맺기 유형, 집중되는 임파워먼트 유형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 가족의 경제생활 및 취업과 관련된 연구(김영혜 외, 2009; 심인선, 2008; 이해경, 2005; 윤형숙, 2004; 강유진, 1999)를 비롯한 취업실태 및 욕구분석(정기선 외, 2007), 이주여성 자활능력 강화(부산인적자원개발원, 2007), 취업지원(김승권 외, 2010; 김영혜 외, 2009) 등에 관한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높은 취업 욕구에 주목한 성과물들이다. 결혼이주여성가족의 가족생활 관련 연구(설동훈 외, 2006,

2005; 한영현 외, 2006; 박재규 외, 2005; 정일선 외, 2004), 자녀양육 관련 연구(김유경 외, 2008; 설동훈 외 2006, 2005; 정기선 외, 2007), 여성이민자의 건강과 보건의료 관련 연구(김유경 외, 2008; 설동훈 외, 2006, 2005), 복지욕구 관련 연구(김유경 외, 2008; 설동훈 외, 2006, 2005; 정기선 외, 2007; 김영주 외, 2006; 박재규 외, 2005) 등 다문화가족의 성장과 분화에 발 맞추어 삶의 다양한 국면을 다룬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연구들은 한국어 능력, 사회적지지, 남편의 정서적 지지감이 높고, 가족의 정보적 지지와 사회서비스 관계자의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한국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내고 있다. 결혼생활에 대한 영향 또한 유사하게 나타나나 특징적인 점으로는 부부가사분담이 높을수록, 부부관계 프로그램에 참여할수록, 결혼중개소 사전 정보의 일치가 높을수록 결혼 생활에 긍정적이며, 지원 서비스를 받은 집단이 자아 존중감, 결혼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효과적인 서비스 개발과 참여가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에 대한 연구들은 20대의 다문화지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지원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위험지각이 높고, 여성이 남성보다 위험인식을 크게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 3) 서울시의 다문화가족 및 중도입국 청소년 정책 연구

서울시 다문화가족에 대한 2010년 실태조사에서는 전국 조사 결과에 비추어 서울 다문화가족의 특성이 두드러진 분야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책 제언으로 구성되었다. 2010년 서울시 실태조사 보고서에 드러난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특징은 전국 대비 높은 이혼율, 주거 불안정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교육 수준 낮고, 이혼·사별한 경우 보다 열악한 상황임이 지적되었는데, 서울 거주 결혼이민자의 사회,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의 취약성과 중첩된 사회적 배제의 경험을 완화시킬 공동체의 형성과 강화, 차별에 대한 제재조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이 지적되었다.

또한 남녀 모두 재혼인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점이 지적되었는데, 이러한 결과가 2012년 조사에서 서울의 중도입국자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

어졌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가족 구성의 특징은 무자녀 비율이 높고, 평균 자녀 수가 전국 대비 적다는 점으로 이는 2012년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울거주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높은 취업 욕구 또한 2010년 실태조사에 이어 2012년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경제적인 취약성이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거주 결혼이민자의 경우 자녀의 연령에 관계없이 자녀 양육과 관련된 비용 면에서 부담을 느낀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는 한편으로 50대 이상 연령층의 이혼·사별 여성이 의료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음과 동시에 교육 수준이 낮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사회적 자본의 범위가 협소하고 강도가 낮으며, 사별한 결혼 이민자의 경우는 취미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한국어교육, 한국 사회적응교육, 가족상담 및 교육 경험이 전국대비 적고, 임신 출산, 양육 및 학습지원을 받은 경험도 전국의 절반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결혼이민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서비스 시행으로 결혼이민자의 서비스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 주체로 성원권을 가진 시민으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거버넌스의 실현과 함께 다문화가족 포럼단 활성화, 한울타리홈페이지를 활용한 정책 모니터링, 정책 환류시스템 구축, 이주민시민대표자기구 등의 창구 마련이 제안되었다.

2011년 중도입국청소년 연구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들 대부분이 10대 중·후반으로 한국어를 배우거나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이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진로 상담 등을 통해 연령에 맞는 정규 학교입학이나 취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당사자들이 방문동거(F1), 여행 등 다양한 비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에 주목하여 2010년 현재 법무부에 귀화를 신청한 21세 이하 청소년의 규모(5,726명)를 바탕으로 그 중 34%가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중도입국청소년의 국적은 중국(91.3%)이 대부분인데, 문제는 학령기 중도입국 청소년의 초중고 재학률은 21.7%로 특히 고등학교 재학생은 대상자의 3.1%에 불과해 이들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다.

이에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으로 서울시-서울시교육청-서울

시출입국관리사무소 업무협약으로 현황파악과 한국생활 정보제공 등 입국초기 지원 강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외국인청소년카드제도 도입, 중도입국청소년 후견인제도, 청소년 인턴십 도입 등이 제안되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에서 제안된 사항을 바탕으로 서울시 거주 다문화가족과 중도입국 자녀에 초점을 두고 기존의 정책적 제안이 되었던 다문화가족의 분화와 경제적 어려움, 중도입국자녀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정책 연구의 연속성 차원에서 접근해 갈 것임을 밝힌다.

## 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2010년부터 2012년 기간 동안 1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었다. 1차 기본 계획은 결혼이주 여성의 입국 전 현지 사전교육, 국제결혼 중개업관리, 입국 후 한국어 교육, 통·번역 지원, 자녀 출산 이후 보육료 지원과 언어발달 교육, 자녀 생활 지원 등 단계별 계획에 초점을 두고 마련되었다.

2차 기본계획은 1차 기본계획의 연속성을 담보하면서 자녀세대의 성장, 취업 욕구 증가라는 다문화가족의 수요 및 여건 변화, 사회전반의 다문화 수용성을 확대해야 할 상황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다문화가족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었음을 수립 배경 및 경과를 통해 밝히고 있다. 2차 계획은 1차 계획의 한계를 가족의 시각에서 볼 때 가족의 해체와 관련된 예방, 사후 정책의 미비로, 가족원에 대한 부분에서는 한국인 배우자,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 이해제고 미흡과 취학자녀 지원 부족, 결혼 이민 당사자에 대한 정책에서는 이민자의 역량강화 및 취업지원 요구에 대한 대응 부족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사회적 관심 증대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야기된 점,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및 역할 강화 필요성을 향후 과제로 제시하였다. 결국 큰 범주에서 다문화가족의 변화에 따른 정책의 방향성 정립과 일반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강화와 다문화가족정책 총괄·조정 및 민-관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2차년도

기본 계획의 과제라 볼 수 있다.

향후 5년간 13개 중앙행정기관, 법원 및 지자체가 6대 영역 86개 세부과제를 추진해 나가게 되는데, 그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II -1】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b>비전</b>	<b>활기찬 다문화 가족, 함께하는 사회</b>	
<b>목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li> <li>•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li> </ul>	
<b>정책과제 (86)</b>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방 문화·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li> <li>•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및 사회적 지지환경 조성</li> </ul>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발달 지원(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 지원</li> <li>• 한국어 능력 향상</li> <li>• 학교생활 초기적응 지원</li> <li>• 기초학력 향상 및 진학지도 강화</li> <li>• 공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 제고</li> </ul>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국 전 결혼의 진정성 확보</li> <li>• 한국생활 초기 적응 지원</li> <li>• 소외계층 지원 강화</li> <li>• 피해자 보호</li> </ul>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대</li> <li>• 직업교육훈련 지원</li> <li>• 결혼이민자 역량 개발</li> <li>• 사회참여 확대</li> </ul>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종·문화 차별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li> <li>• 다양한 인종·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 조성</li> <li>• 대상별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li> <li>• 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 제고</li> <li>• 다문화가족의 입영에 따른 병영 환경 조성</li> </ul>
	정책추진체계 정비(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 지원대상 확대 및 효과성 제고</li> <li>• 다문화가족정책 총괄 추진력 강화</li> <li>•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li> </ul>

### 3. 서울시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 및 주요사업

2012년 8월 발표된 서울시의 “다행복 서울 플랜”은 다문화가족의 증가로 인한 다양한 욕구 및 수요의 급증에 따라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09년 5월 제정된 서울시의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 4조를 통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의 내용이 다문화가족의 유지에 집중하고 있고, 이혼 등 다문화가족의 분화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 있어 여성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김재민 외, 2012)이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다행복 플랜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서울시의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한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자녀 수 증가와 수도권 집중 거주 현상에 부응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발굴이 시급하다.
- 결혼이민여성의 생활 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부족에 따른 결혼이민자 자립역량강화, 인권보호 및 생활적응 지원을 위한 종합적 체계적 지원 필요하다.
-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자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 의식에 따른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취학 전(5세-7세), 취학자녀, 중도입국자녀 등 대상별 맞춤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 다문화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사회구성원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부정적 인식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지역 내 참여활동 유도, 시민과 소통 강화함으로써 우리 사회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향후 선진적 다문화사회 진입을 위한 기반 마련 필요하다.

서울시의 다행복 플랜은 ‘다문화가족이 함께 만드는 다행복 서울’이라는 정책 비전 하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다문화 자녀 교육지원, 건강한 다문화가족 관계 강화, 건전한 다문화사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1) 다문화가족 관련 주요 사업

다행복 서울 플랜은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지원 강화, 다문화자녀 및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교육지원, 위기다문화가족 예방 및 인권보호 지원,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강화, 생활밀착형 정보제공 강화, 사회인식개선, 다문화가족 지원추진체계 정비의 7대 핵심과제로 이루어져있다. 다문화가족 취·창업 중점기관 운영 등 자립지원, 전문학습지 방문학습, 방과 후 한국어교실 운영 등 다문화자녀 교육지도, 스마트폰 앱 'My Seoul' 개발·보급, 다국어 동화집시리즈 발간 등 생활정착과 문화마을공동체, 학부모커뮤니티, 자조모임 등 사회인식개선 제고 등의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세부 사업은 다음과 같다.



【 표 II-2 】 다행복 서울플랜

핵심 과제	세부 추진사업
결혼이민여성 정착 및 자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찾아가는 다(多) 행복교실” 운영</li> <li>•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li> <li>• 결혼이민여성 취·창업 증점기관 운영</li> <li>• 사회적기업 “다(多)행복 카페” 운영</li> <li>• 결혼이민여성 학위취득 지원 (외 3)</li> </ul>
건강한 다문화자녀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학 자녀 학습도우미 운영</li> <li>• 다(多)행복 부모커뮤니티 추진</li> <li>• 방문학습지 지원 (외 2)</li> </ul>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도입국 자녀 모집·발굴</li> <li>• 한국어 교육</li> <li>• 심리·정서 지원</li> <li>• 가족관계 향상 지원 (외 3)</li> </ul>
위기다문화가정 예방 및 인권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多)행복 상담센터” 설치·운영</li> <li>• 가족폭력 예방프로그램 실시 강화</li> </ul>
건강한 가족관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공모</li> <li>• “다(多)행복 봉사단” 구성·운영</li> <li>• 일촌 맺기 멘토링 사업 활성화</li> <li>• 다문화가족 외갓집 방문</li> </ul>
생활밀착형 정보제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주기별 동화집 시리즈 발간</li> <li>•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종합정보물 제작</li> <li>• 한울타리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li> </ul>
사회인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다문화가족 명칭 공모</li> <li>• 서울 인식개선 엑스포 개최</li> <li>•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지원사업 확대</li> </ul>
다문화가족지원 추진체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니터링단(무지개포럼단) 활성화</li> <li>•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내실화</li> </ul>

## 2)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사업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과 관련한 정책은 다행복 플랜에 앞서 2012년 7월 발표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어 교육 등 7개 분야 22개 사업을 설정해 「중도입국 다문화자녀 종합지원책」을 마련하고 한국어 교육, 학교생활 적응, 심리·정서지원 등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 표 II -3 】 서울시 중도입국 다문화자녀 종합지원책

구분	세부사업명
중도입국자녀 모집·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elcome Kit 홍보물 제작·배부</li> <li>• 교통비 지원</li> </ul>
한국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 및 한국문화이해 교육</li> <li>• 한국어 교재 및 교구 개발</li> <li>• 한국어능력시험(TOPIK)대비반 운영</li> </ul>
심리·정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아정체감 등 심리·정서프로그램</li> <li>• 전문상담 및 치료 지원</li> </ul>
가족관계 향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상담</li> <li>•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배부</li> </ul>
학력인증 교육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학교(위탁형 대안학교)운영</li> <li>• 검정고시 준비반 운영</li> </ul>
진로 및 취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리어코칭 실시</li> <li>• 자격증 강좌 운영</li> <li>• 전문취업기관(시립기술교육원) 연계 지원</li> </ul>
사회통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수련관 특화프로그램 개설·운영</li> <li>• 찾아가는 특기적성교실 운영</li> <li>• 역사문화체험 행사 운영</li> <li>• 학교순회 다문화 이해 교육</li> <li>• 중도입국 자녀 부모 자조모임 지원</li> <li>• 학습지원 멘토링제 운영</li> <li>• 중도입국자녀 워크숍·포럼 개최</li> <li>•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li> </ul>

#### 4. 다문화 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베를린의 사례

현재 서울시의 다문화 관련 사업은 주로 대상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25개 자치구의 특성에 맞는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을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물론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중 대림동의 다문화 마을공동체 주민사랑방 ‘커다란 숲’이나 2013년 2차 우리마을프로젝트 선정된 강북구의 “다문화가정 사랑방” 등의 사업은 마을 단위의 화합과 공존을 모색하는 사회통합적인 다문화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지원 내용에서

외국인 밀집지 문제해결 및 화합·공존을 위한 사업 진행비, 인건비, 업무 추진비 등을 지원하고 있어 전반적인 도시 인프라 구축 보다는 구성원들의 인식개선의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다문화화를 존중하는 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한 베를린시의 “사회통합적인 도시를 위한 지역운영(Neighborhood Management)”과 “베를린 통합정책(Intergration Policy in Berlin 2007~2011)”의 사례<sup>8)</sup>는 서울시가 대상별 다문화 정책을 펴는 데에서 나아가 다문화적인 사회통합 도시 기반 조성을 어떻게 해 나아갈 것인지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사회통합적인 도시를 위한 지역운영 전략의 핵심은 참여와 연계에 있다. 애초 베를린 시민의 생활 수준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특별한 개발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역의 취약 계층 주민들과 함께 하는 마을 경영을 통해 소수자들의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는 프로젝트로 진행되었는데, 이민자 밀집지역과 사회경제적 생활수준이 낮은 지역이 대부분 일치된다는 점이 발견된 이후 이민자 통합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선정된 지역에서는 관리, 고용훈련, 자금조성, 주민발의 등 사회적 역량과 직업능력 자문 등 분야의 전문가로 꾸려진 지역운영팀이 구성되는데, 팀별로 지자체와 도시개발부 담당자를 각각 1명씩 임명하는 형태로 구성되며 사무소와 행정기관 간 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지역운영팀은 자치구나 주택건설공사의 지원으로 해당 지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주민활동과 협력의 공간으로 활용한다. 지역이나 자치구 및 연방주 관련인사들이 모두 참여하여 지속적인 협력과 의사결정을 하고 지속적인 평가를 위해 모든 관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개발부가 주재하는 회의를 매달 개최한다.

지역운영 프로그램의 참여와 연계구조는 지역조직과 기관의 주민 네트워킹, 특별한 문제해결 자원의 개발, 주민역량 강화와 조직화되지 않았던 주민활동의 활성화, 지역 활동가들과 지역사업체의 참여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지역운영팀의 구체적

8) 사례는 정윤희(2010)의 논문 “독일, 베를린의 다문화 정책사례”와 서울복지재단 블로그의 기사 “통합을 넘어 포용을 지향하는 베를린 시의 다문화 정책”의 내용을 발췌 정리하여 작성하였다.  
(<http://blog.naver.com/swf1004?Redirect=Log&logNo=130142407508> 2012.12.24. 검색)

인 업무는 지역주민과 이해 관계자들의 지역개발 프로그램 참여 및 기여 유도, 다양한 단체 및 참여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의식 고양 프로젝트의 개발과 지원에 있다. 즉 도시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동시에 사회적 통합이라는 새로운 측면을 도시 계획에 도입함으로써 그 누구도 거주지로 인해 사회적 혜택으로부터 제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에 기반한 사회통합적인 도시개발 전략이다.

지역운영 전략은 베를린 통합정책의 주요전략으로 포함되었는데, 통합정책의 목표는 다양성을 키우는 동시에 통합을 강화하는 데에 있다. 경제, 환경, 사회, 정치참여 등의 분야에서 이민자 통합정책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기본전략은 “1)베를린의 국제적인 매력과 문화 다양성 개발 2)노동시장참여를 통한 통합 3)교육을 통한 통합 : 베를린의 미래인 아이들의 재능을 인식하고 강화한다 4)도시화합을 통한 통합: 참여로 지역문제를 해결한다 5)문화 간 교류를 통한 통합 6)시민사회 참여 및 강화를 위한 통합 7)난민 대상 통합정책”으로 정리될 수 있다.

서울시의 마을 공동체 사업은 주민들의 자발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장점이 있는 한편으로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결여되어 있다. 이에 도시의 공간적 소외 현상을 극복하고, 사회적 분리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지역의 젊은 이민자를 중심으로 삶의 기회를 높이고자 하는 베를린의 사례는 다문화 사회의 전개에 따른 이질성의 심화가 지역문제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도시정책의 역할과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5. 서울시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체계

### 1) 가족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를 제외한 24개구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24개 센터 중 서울 중구 센터가 2013년 9월 문을 열어 가장 최근에 설치되었으며, 2013년 현재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서울지역 거점 센터의 역할을

말고 있다. 서울시 외국인다문화과 내부 자료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이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즉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위해 한국어교육, 방문교육, 통번역, 언어발달, 언어영재 교실 운영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을 도모하는 데 그 기본적인 역할이 있다는 설명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은 센터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개 아래 표와 같다.

【 표 II-4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 기본사업 : 한국어교육, 다문화 가족통합교육, 취업연계 지원, 개인·가족 상담 등
  - 방문교육 :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
  - 언어발달 교실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
  - 언어영재 교실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수업
  - 통·번역 서비스 :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지원
  - ※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방법
  - 각 자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하여 회원 가입한 후 이용할 수 있음
  - 회원가입 시에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며,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월요일~금요일, 09:00~18:00 운영

## 2) 취·창업 지원

서울 거주 다문화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가 많고 취업률이 저조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서울시는 2010년부터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취·창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2년에는 이중 언어 상품판매원 양성과정, 호텔 룸어텐던트 양성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99명의 결혼이민여성에게 전문 취·창업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3년에는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해 뷰티케어 어시스턴트 양성과정, 일반사무원 양성과정, 결혼이민여성 맞춤 실전 피부미용관리사, 호텔 룸어텐던트 양성 및 일자리 연계,

BtoB 오픈마켓창업 & SNS마케팅, 이중 언어 가사서비스 전문가 양성과정, 판매서비스 종사자 양성과정 등 7개의 취·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sup>9)</sup>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뷰티케어 어시스턴트 양성과정’은 피부관리와 네일아트에 대한 이론수업과 관련업체 현장실습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고 있다. 한편 북부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하는 ‘호텔 룸어텐던트 양성과정’은 기획초기부터 구인업체와 협약체결로 맞춤형 전문 직업교육이라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본격적인 사업은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는데, 서울시는 교육수료 후에는 취업상담과 취업지원 알선 등 실질적인 취·창업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함께 할 예정임을 발표하였고, 이는 이 연구의 진행과정에서도 확인된 바이다. 아울러 맞춤형 취·창업 교육의 확대 운영과 실제적 취업 등 일자리 연계를 위해 서울시 다문화가족 취·창업 중점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거주 밀집지역인 서남권내 여성인력개발기관인 서부여성발전센터를 지난 5월 서울시 다문화가족 취·창업 중점기관으로 지정하고, 다문화가족 맞춤형 종합 취·창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구직을 알선하는 등 실제적 일자리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 3)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지구촌학교(초등학교), 다에다문화학교(중학교), 서울시작다문화학교(중·고 통합) 등 3교의 예비학교를 운영해 왔고, 2013년에는 6개소가 확대되었다.

---

9)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의 5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북부여성발전센터, 서부여성발전센터 2곳의 여성발전센터가 운영기관으로 참여하였다.

【 표 II-5 】 2013 서울시 교육청 다문화 관련 대안학교 현황

학교명	과정	학급	주소	전화번호	대상 학생	시작 년도	비고
다에다문화학교	중	3	강남구 논현동	3445-5045	다문화가정, 중도입국학생	2011	다문화, 한국어교육
지구촌학교	초·중	2	구로구 오류동	6910-1004	다문화가정, 중도입국학생	2012	다문화, 예체능교육
구로다에 다문화학교	중	1	구로구 구로동	864-5045	다문화가정, 중도입국학생	2013	다문화, 한국어교육
서울시작 다문화학교	중	1	강남구 삼성동	070-4351-7066	다문화가정, 중도입국학생	2013	다문화, 한국어교육
서울초원학교	고	2	성북구 월곡동	3292-1677	다문화, 일반부적응	2013	다문화교육, 외국어
서울다솜학교 <sup>10)</sup>	고	6	중구 다산로	070-8685-7650	예비학교 및 정규고교과정	2012	학력인정 대안학교

자료: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 2013년 위탁형 대안학교 지정 현황 참조

이외에 강북구의 꿈동이 예비학교(초등입학 전 자녀), 여성가족부에서 업무 위탁을 받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서 운영 중인 무지개청소년센터(종로구 소재)의 경우도 서울 지역 거주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다. 또한 LG 사랑의다문화학교에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함께 진행 중인 언어인재과정도 다문화가족 청소년(초등4학년~중학1학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서울 시작다문화학교는 학생·학부모들과 학교생활 적응, 편입학 상담 등을 통해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자녀의 원활한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고 있는데, 2012년 4월부터 12월말까지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자녀 68명의 정규학교 편입학을 지원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지원을 받은 청소년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대다수가 중국계인 특성이 반영되어 국적별로는 90% 이상이(62명) 중국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과테말라, 베트남 각 2명, 일본, 필리핀 각 1명 등이며 학교급 별로는 중학교 40명, 초등학교 24명, 고등학교 4명 등이다. 이들 중

10) 다솜학교는 국내 최초의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고등학교 학력인정 공립대안학교로 위 5개교가 위탁형 대안학교인 것과는 차이가 있으며, 2013년도부터 예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다솜학교 홈페이지 <http://www.sds.hs.kr> 참조)

한국어가 미숙한 학생(약 40명)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정·운영하는 다문화 예비학교와 연계하여 6개월 과정으로 한국어 및 한국문화 중심의 집중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초기 학교적응력을 높이고 있다.

## 6. 분석 및 시사점

선행연구들이 다문화가족의 변화 양상에 따라 이주 당사자의 적응 문제 중심에서 역량강화와 취업, 사회 통합과 함께 선주 한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등에 대한 연구까지 다문화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다문화사회의 변화상에 발맞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연구의 측면에서도 당사자의 한국 입국 전 배경에 대한 연구와 이주·귀화자 남성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간의 정책은 주로 결혼이주자·혼인 귀화 당사자에 머물러 있던 것이 현실이며, 정부는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1차년도 계획의 한계로 한국인 배우자,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 문화 등 이해제도가 부족, 취학자녀 지원 부족, 가족 해체에 대한 예방정책 및 해체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 소홀,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요구에 대한 대응 부족과 함께 다문화 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야기된 점,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및 역할 강화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2012년도에 발표된 서울시의 다행복 플랜 또한 결혼이민여성의 생활안정 및 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실제적 지원 부족, 자녀세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미흡과 함께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에 대한 대책으로 발표된 것이다.

이 연구가 2012년도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실태조사 당시 결혼이민·혼인귀화자 등이나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느끼는 현실은 현재 시점에서 시행 중인 정책의 필요성은 될지언정 현재의 정책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라



는 점은 명백하다.

초기 다문화 정책이 가족이나 사회전반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급격하게 구성원이 다양해져 가는 상황에 부응하여 만들어진 초기 정책은 결혼이민·귀화 여성의 적응 내지 정착에 관심을 두어 결혼이민자 중에서도 특히 여성에 대한 프로그램에 집중함으로써 결혼이주 남성을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겨 두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의 2차년도 계획은 결혼이민여성이 아닌 ‘결혼이민자’ 라는 용어를 채택함으로써 결혼이민 남성이 정책에 포함될 여지를 주고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결여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다행복 플랜은 여전히 그 정책적 대상을 ‘결혼이민 여성’으로 보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은 한국 남성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에 치우쳐 있다는 점에서 외국계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의 가족을 정책의 외부에 두고 있다. 즉 법적으로 다문화가족이나 실질적인 정책에 포함되지 않는 집단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한국인 남성의 가족에 비해 여성의 가족이 한국 가족으로서 서게 될 자리를 좁혀 놓고 있는 것이다. 가족원의 국가 및 혈연적 귀속성을 남성을 중심으로 인정하는 다문화 정책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에 대한 프로그램 또한 현재까지 전담 지원체계를 통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주로 초기 정착을 위한 한국어 교육, 문화 교육 등에 집중함으로써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한국계 중국인을 포괄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물론 한 기관이 관련된 모든 사람과 사안을 포괄하는 사업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기관의 정체성이 특정 분야에 명확하다면 그 외 분야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다른 기관과의 협력·연계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들에 여성의 역량 강화에 관심을 두고 진행되는 취·창업 프로그램은 그 자체로는 여성들의 요구에 충실한 정책이라고 보이나, 내용을 보면 여성들의 취·창업을 특정 분야에 묶어두는 결과를 낳고 있다. 즉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결혼이민·혼인 귀화자 대상 취·창업 프로그램의 내용상의 큰 특징은 그 일이 가사노동의 연장선상에 있거나, 전통적으로 소위 ‘여성의 일’로 치부되어 온 분야에 집중되

어 있다는 점이다.

다문화사회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중도입국청소년의 유입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다문화가족의 한 추세로 파악하고 정책을 마련해 가고 있는 점은 주목되는 바이다. 기존의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중심의 다문화 정책이 한국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맞물린 인구 정책과 ‘국민을 낳아 기를 자’, ‘국민의 배우자’에 대한 국가의 포섭이었다면, 중도입국청소년 정책은 장기적으로 한국이 국적외자가 살만한 곳인지를 판가름하게 만들 수 있는 척도로 작용하게 된다는 면에서 한국 사회, 서울의 다문화성을 시험하는 하나의 모델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프로그램이 특정 대상 중심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2차년도 계획이나 서울시의 다행복 플랜이 제시하고 있는 일반의 인식에 대한 접근이 향후 어떻게 프로그램화 될 것인지에 따라 사회통합 정책으로서 다문화정책의 자리매김에 성패가 달려 있다.

인식 개선과 더불어 도시 환경 자체를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재구조화하는 베를린의 사례는 다양한 문화에 기반한 이들이 도시공간에서 소외되지 않고 어울려 살아갈 방안을 고민하는 현시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한 마을공동체 사업과 더불어 전반적인 도시 인프라를 다문화 통합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지방정부와 주민 간의 협력 모델 구축은 당사자의 참여와 연계가 중시된다는 측면에서도 통합 정책으로서의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 베를린의 사례는 이민자들에게 독일의 문화와 언어를 배울 것으로 우선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완적인 적용이 필요하나,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따른 이질성의 심화가 지역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상황에서 도시 정책의 역할과 가능성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서울시 인구 분포에서 특정지역의 다문화가족 및 외국계 주민의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상기할 때에도 도시의 다문화적 기반 조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 III

## 2012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분석

1. 2009년 조사와의 차이
2. 2012년 조사에 나타난 도시 다문화가족의 특성
3.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현황
4. 서울시 다문화가족 : 가구 특성
5.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결혼이민·귀화자 및 배우자
6. 다문화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결혼이민·귀화자 및 배우자
7. 다문화가족의 자녀 : 중도입국청소년
8.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 서비스 이용실태
9. 분석 및 시사점



# III

## 2012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분석

이 연구는 2012년 7월 10일~2012년 7월 31일에 실시된 여성가족부의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중 서울 거주자에 대한 원자료를 기초로 분석되었다. 조사 분석의 개요는 아래 표와 같다.

■ 표 III-1 ■ 서울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분석 개요

<p>■ 분석자료 : 2012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기간 : 2012. 7. 10.~7. 31.</li> <li>- 조사대상 :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귀화자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귀화자의 가구, 배우자, 자녀(9~24세)</li> <li>- 응답인원 : 15,341가구(※표본조사)</li> <li>- 주 관 : 여성가족부(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계청)</li> </ul> <p>■ 분석대상 : 서울시 거주 다문화대상자의 가구, 배우자, 자녀(9~24세)</p>				
구분	가구	결혼이민·귀화자	배우자	자녀
조사내용	(10개 항목) 가구 구성원, 자녀 보살핌, 월평균 소득	(112개 항목) 혼인 상태, 가족만족도, 경제활동 등	(53개 항목) 혼인 상태, 가족만족도, 경제활동 등	(71개 항목) 한국어 사용, 학교폭력 등
전국	266,547	283,224	234,505	66,536
서울	68,890 (25.8%)	71,553 (25.3%)	54,987 (23.4%)	11,787 (17.7%)
<p>■ 분석방법 : SPSS 20.0</p>				

## 1. 2009년 조사와의 차이

2012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9년 제1차 다문화가족 실태조사가 전수조사를 목표로 진행된 반면 2012년 제2차 조사는 표본조사로 전국에서 선정된 154,341가구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으로 일반 귀화자 가구도 다문화가족으로 정책 대상에 포함된 결과 전국의 다문화가족은 266,547가구로 추정되며, 서울 거주 가구 수는 전체 25.5%를 차지하고 있다(전기택 외, 2013).

조사대상자인 결혼이민·귀화자 등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상태에 있는 재한외국인(결혼이민자)’와 출생·인지·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구성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2009년 조사 당시의 다문화가족인 ‘결혼이민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보다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정해숙, 2012). 또한 2012년 실태조사에서는 만9세 이상 24세 이하로 이루어진 조사대상 가구의 동거 자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규모를 총 66,536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사 결과 다문화가족의 58.6%는 수도권(경기 26.9%, 서울 25.8%, 인천 5.9%)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2009년 실태조사의 51.9%에 비해 수도권 거주율이 6.7% 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는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 전체 가구 중 수도권 거주 비율 47.6%보다 11.0% 포인트 높은 것으로 다문화가족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현저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형태가 부부 중심에서 부부+자녀 세대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평균 혼인 유지 기간이 길어지는 등 가족의 성장에 따른 정책의 다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즉 부부+자녀 세대의 증가는 다문화가족 내 자녀 양육과 교육의 수요 발생을, 배우자 가족과의 동거비용 감소는 남성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소지의 일부 해소와 더불어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Ⅲ 표 Ⅲ-2 Ⅱ 다문화가족 구성 변화 추이<sup>11)</sup>

(단위: %)

	부부	부부+자녀	부부+자녀+배우자가족	기타
2005	39.2	24.6	9.5	26.7
2009	26.3	36.7	16.1	20.8
2012	26.3	48.3	6.4	16.7

2002년 이래 서울시 거주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결혼은 2005년 7,637건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래 점차 감소해 2012년에는 3,733건으로 2011년 4,024건 대비 7.2% 감소, 같은 기간 외국 남성과 한국 여성의 결혼은 2005년 3,870건 이래 감소세를 보여 오다가 2012년에는 2,255건으로 2011년 2,324건 대비 3.0% 감소하였다. 한편 2002년 이래 서울시 거주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 부부의 이혼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2,064건으로 최다 건수를 기록한 이래 2010년 1,693건으로 감소했으나, 2011년 1,798건, 2012년 1,593건에 이르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시 거주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 부부의 이혼은 2008년 951건으로 최다였으며, 지속적인 소폭 감소세를 보여 2012년에는 786건을 기록하였다(통계청, 2013).

이에 따라 이혼 및 사별 등으로 인한 다문화가족의 분화에 부응한 정책 방안 마련과 함께 달라진 다문화가족의 범주와 삶의 맥락에 대한 현황 파악과 분석이 요구된다. 동시에 전국조사의 경우 표본조사에 의거한 전체 규모의 추산과 변화 추이 파악이라는 거시적 관점의 현황 파악에는 유효하나, 서울시 다문화 가족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 제안을 위해서는 통계 분석을 기초로 한 미시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1) 보건복지가족부(2005)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2010)의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2013)의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를 재구성하였다.

## 2. 2012년 조사에 나타난 도시 다문화가족의 특성

2012년 조사에 나타난 도시 다문화가족의 특성은 주로 읍면부와 동부로 나뉜 통계 분석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전국적인 통계 분석에 비추어 읍면부와 동부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부분을 통해 도시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족 구성을 보면 부부와 자녀 세대로 이루어진 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동부에서는 50.6%인데 반해, 읍면부에서는 38.6%이며,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비율은 동부에서 24.4%, 읍면부에서는 34.5%를 차지하고 있어, 도시 거주 가구의 과반수가 부부+자녀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의 경우는 부부 세대, 부부+자녀세대, 본인세대, 본인+자녀 세대에서 동부의 특성이 강화되는 것이 아닌 동부와 읍면부의 중간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배우자의 부모형제와 동거하는 비율은 도시 거주 가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본인의 부모형제와 동거하는 비율은 읍면부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Ⅲ-3 | 거주지역별로 본 다문화가족의 가족구성<sup>12)</sup>

(단위: %)

구분	부부	부부 + 자녀	부부+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	부부+ 본인 부모 형제	부부+ 배우자 부모형제	부부+ 자녀+ 본인 부모 형제	본인	본인+ 자녀	합계	
전체	26.3	48.3	6.4	3.1	2.6	2.2	5.4	3.4	100	
거주 지역	읍면부	34.5	38.5	1.4	7.5	1.0	2.4	7.9	1.1	100
	동부	24.4	50.6	7.6	2.1	3.0	2.2	4.8	4.0	100
	서울	30.7	44.6	7.7	0.9	4.2	1.9	6.6	3.4	100

전체적으로 자녀가 없는 가구의 비율과 한명인 가구의 비율이 비슷하나, 동부의 경우 자녀가 없는 가구의 비율이 39.9%인데 반해 읍면부는 28.4%에 그치고 있으며,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족의 비율은 읍면부가 35.4%, 동부가 22.7%로 도시 거주 가

12) 본인은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을 의미하고, 배우자는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배우자를 의미한다.



족이 자녀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은 동부에 비해서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은 무자녀 응답률이 50%에 육박해 동부에 비해서도 무자녀 응답률이 10%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Ⅲ-4】 거주지역별 다문화가족 자녀 수

(단위: %)

구분	없음	1명	2명	3명 이상	합계	평균	
전체	37.3	37.1	20.9	4.7	100.0	0.9	
거주 지역	읍면부	28.4	36.2	27.9	7.5	100.0	1.2
	동부	39.9	37.4	18.9	3.8	100.0	0.9
	서울	49.7	32.6	15.0	2.7	100.0	0.7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 분포를 보면 전체적으로 6세 미만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읍면부의 경우 6세 이상 자녀의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데 반해 동부에서는 18세 이상 자녀 인구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양상을 보인다. 이는 최근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중도입국자녀<sup>13)</sup>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 거주함으로써 인해 발생한 결과로, 9-24세 자녀의 거주지 분포를 보면 동부에 거주하는 비율이 74.0%로 읍면부 거주 3배 정도에 달하고 있다(전기택 외 2013).

【표 Ⅲ-5】 거주지역별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

(단위: %)

구분	6세미만	6-11세	12-14세	15-17세	18세이상	전체	합계	
전체	52.4	25.7	8.4	4.6	8.9	100.0	7.38	
거주 지역	읍면부	54.4	26.9	9.7	4.5	4.4	100.0	6.56
	동부	51.3	24.9	7.6	4.6	11.5	100.0	7.86
	서울	44.9	24.0	7.9	4.3	18.9	100.0	9.65

13) 통상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 연고로 입국한 청소년을 통상 ‘중도입국자녀’라 부르는데, 여성가족부 조사에서는 이들을 외국성장자녀로 지칭하고 있다. 물론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포함된 외국성장자녀 중에는 통상의 중도입국자녀와는 달리 다문화가족 안에서 태어났으나, 외가 등에서 성장하다가 귀국한 자녀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통용되는 명칭인 ‘중도입국자녀’라는 용어를 따르고자 한다.

한편 재혼가족의 증가 및 일반귀화자 중 중국계 동포 부부 귀화자의 증가로 인해 대두되고 있는 외국성장자녀의 경우 없다는 응답이 전체 93.2%로 나오나, ‘있다’는 응답이 서울 > 동부 > 읍면부 순으로 도시지역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읍면부 거주자의 중도입국 자녀 수가 평균 0.5명, 동부 거주자의 중도입국 자녀 수가 0.9명인데 비해 서울 거주 다문화가족의 중도입국자녀 수는 평균 1.14명으로 나타나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정책이 도시 지역에서 더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Ⅲ-6】 외국성장 자녀의 수

(단위: %)

구분	없다	있다	1명	2명	3명 이상	합계	평균	
전체	93.2	6.8	5.4	1.1	0.2	100.0	0.08	
거주 지역	읍면부	96.3	3.7	2.7	0.6	0.3	100.0	0.05
	동부	91.8	8.2	6.7	1.3	0.2	100.0	0.09
	서울	91.0	9.0	7.8	1.1	0.1	100.0	1.1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보호지원을 받는 다문화 가족의 비율은 동부가 읍면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9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지원 혜택을 받는 비율이 감소했다는 결과(2012, 전기택 외)로 볼 때, 도시 거주자의 소득 수준이 읍면부 거주자에 비해 열악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도시 거주 가족의 특성은 서울시에서 보다 심화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의료보호 혜택을 받는 다문화가족의 규모가 전국대비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Ⅲ-7】 거주지역별 정부지원 수혜율

(단위: %)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보호	
전체(2009)	8.3	7.7	
전체(2012)	5.0	4.9	
거주 지역	읍면부	4.1	4.2
	동부	5.3	5.2
	서울	6.6	6.3

정부 지원 수혜율이 전국 대비 높게 나타나는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월평균 소득 분포의 특징은 양극화에 있다. 다문화가족의 소득 수준이 2009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하나, 서울은 전국의 동부보다도 200만원 미만 소득구간의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소득 500만원 이상 구간의 인구 비율도 전국 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 표 III-8 】 다문화가족의 월평균 가구소득별 분포

(단위: %)

구분	50 만원 미만	50~ 100 만원 미만	100~ 200 만원 미만	200~ 300 만원 미만	300~ 400 만원 미만	400~ 500 만원 미만	500~ 600 만원 미만	600~ 700 만원 미만	700 만원 이상	합계
전국	3.7	7.3	30.9	31.4	15.7	5.1	2.3	1.1	2.4	100.0
거주 지역	읍면부	3.1	8.5	34.5	32.9	13.6	4.3	1.4	0.4	100.0
	동부	3.9	7.0	29.9	31.0	16.3	5.4	2.5	1.3	100.0
	서울	5.1	7.2	32.1	27.2	14.5	5.0	2.9	1.6	100.0

다문화가족의 주택점유 형태에서는 동부 거주자 중 자기집 거주자의 비율은 35.8%로, 읍면부 거주자의 64.2%가 자기 집에 거주하는 데 비해 열악하게 나타나며, 월세 없는 전세 거주는 동부 28.8%, 읍면부 10.6%, 월세를 지불하는 가족은 동부 거주자 중 31.8%, 읍면부 거주자 중 17.3%를 차지해 도시 거주 가족의 주거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경우 월세 없는 전세와 보증금 있는 월세 비중이 동부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자기 집 거주는 전국 평균의 절반에 해당되고 있다.

【 표 III-9 】 다문화가족의 주택점유 형태

(단위: %)

구분	자기집	전세 (월세 없음)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포함)	무상	합계
전체	42.2	24.7	26.7	1.8	4.6	100.0
거주 지역	읍면부	64.2	10.6	14.3	3.0	100.0
	동부	35.8	28.8	30.3	1.5	100.0
	서울	20.2	38.1	37.2	0.9	100.0

거주 주택의 위치에서도 도시거주 다문화가족 주거 현실의 열악함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적인 지하, 반지하, 옥탑 거주 비율은 서울 > 동부 > 읍면부 순으로 나타나 특히 서울 거주 다문화가족의 주거 현실이 보다 열악함을 파악할 수 있다.

【 표 Ⅲ-10 】 거주지역별 주택위치 현황

(단위: %)

구분	지하	반지하	지상	옥탑	전체	
전국	1.8	6.2	91.4	0.6	100	
거주 지역	읍면부	0.3	0.4	99.1	0.1	100
	동부	2.3	7.8	89.2	0.8	100
	서울	5.1	18.1	75.2	1.6	100

전반적으로 도시 거주 다문화가족은 소득 수준이 낮은 반면 주거비 부담이 높고, 자녀의 사교육비 부담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의 비율이 높은 한편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자매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비율도 읍면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본인과 자녀만으로 이루어진 한부모 가족의 비율도 읍면부에 비해 높게 나타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등장에 따른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 3.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현황

서울은 경기도에 이어 다문화가족의 규모가 전국에서 두 번째이며, 실제 거주지를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거주 비율이 높으며 이는 갈수록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초기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등이 보도되면서 지방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이 선행되었으나, 전국적인 실태 조사 결과 도시 거주자의 비율이 높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 화제가 되는 ‘다문화’와 현실의 ‘다문화’ 사이의 간극을 설명해 주고 있다.

【 표 Ⅲ-11 】 시도별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현황

(단위: 명)

시도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142,015	168,224	199,398	221,548	252,764	267,727	281,295
서울	45,601	49,480	57,281	63,364	69,694	70,381	71,364
부산	6,556	7,654	7,973	418,314	9,705	10,305	10,915
대구	3,980	4,666	5,170	5,599	6,261	6,664	7,131
인천	8,059	9,659	11,872	13,235	14,939	16,029	17,026
광주	2,548	2,909	3,384	3,705	4,283	4,590	4,960
대전	2,630	3,175	3,849	4,117	4,758	5,123	5,337
울산	2,183	2,604	3,301	3,755	4,225	4,561	5,049
세종	-	-	-	-	-	-	653
경기	35,461	46,837	53,998	61,447	71,174	77,128	81,731
강원	3,357	3,764	4,449	4,809	5,793	6,103	6,381
충북	3,881	4,307	5,165	6,023	6,982	7,417	7,941
충남	5,351	5,970	8,614	9,544	11,294	12,348	12,649
전북	4,479	5,042	6,940	7,197	8,523	9,068	9,626
전남	5,106	5,982	7,452	8,142	9,489	10,115	10,657
경북	5,558	6,719	8,333	9,232	10,461	11,067	11,856
경남	6,301	8,216	10,107	11,345	13,062	14,443	15,352
제주	964	1,240	1,510	1,720	2,121	2,385	2,667

자료 : 2013 외국인주민현황조사, 안전행정부

외국인과 결혼하는 한국인의 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8년에서 2009년 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은 2008년에는 0.3%, 2009년에는 78.4% 수준이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규모가 2008년과 2009년 간 급격히 커진 것은 2009년에는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정보를 활용하여 조사했기 때문(2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다. 또한 안전행정부의 외국인주민현황조사에 기초한 구별 외국인 주민 자녀 수는 연령대를 0~18세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다문화가족 자녀(9~24세)와는 연령대에서 차이가 있다.

【 표 Ⅲ-12 】 시도별 다문화가족 자녀 분포

(단위: 명)

시도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44,258	58,007	107,689	121,935	151,154	168,583
서울	5,305	7,500	16,772	19,014	24,084	26,008
부산	2,269	3,057	5,091	5,698	6,837	7,375
대구	2,019	2,254	3,656	3,904	4,475	5,125
인천	2,313	3,054	6,662	7,805	8,868	9,552
광주	1,231	1,608	2,420	2,752	3,403	3,926
대전	824	985	2,441	2,881	3,439	3,847
울산	884	1,068	2,489	2,798	3,233	3,582
경기	6,617	11,131	25,648	29,953	37,519	42,365
강원	2,366	2,590	4,017	3,900	5,161	5,780
충북	2,288	2,584	3,748	4,710	5,675	6,445
충남	3,432	3,421	6,399	6,953	9,119	10,023
전북	3,275	4,283	5,474	5,849	7,755	8,766
전남	4,153	4,902	7,279	7,453	9,764	10,763
경북	3,289	4,235	6,353	7,715	9,246	10,251
경남	3,599	4,601	8,060	9,260	10,996	12,762
제주	394	734	1,180	1,290	1,580	2,013

자료: 2013 외국인주민현황조사, 안전행정부

서울의 결혼이민·혼인 귀화자 등 다문화가족의 규모는 영등포 > 구로 > 관악 > 금천 순을 보이고 있다. 서울 거주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기타 귀화자의 규모는 결혼이민자 > 기타귀화자 > 혼인귀화자 순으로 나타나며, 특히 다문화가족 밀집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는 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구는 결혼이민자의 규모보다 기타 귀화자의 규모가 더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성비를 보면 결혼이민자의 경우 여성이 남성의 3배 이상 혼인귀화자의 경우 여성이 남성의 11배 이상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기타 귀화자의 경우는 남성의 비율이 42%를 점하고 있어, 서울 거주 다문화가족의 남성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원인으로 기타 귀화자의 성비에 따른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출신 국적별 비율은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 출신자의 비율이 전체 65%를 점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중국계의 비율이 높은 전국적 경향과 궤를 함께 하고 있다.

【표 Ⅲ-13】 서울 거주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현황

(단위: 명)

구분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기타 귀화자			합계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서울	30,775	7,486	23,289	18,476	1,496	16,980	22,113	9,239	12,874	71,364
종로구	665	178	487	329	38	291	392	147	245	1,386
중구	629	161	468	329	19	310	407	154	253	1,365
용산구	1,204	494	710	417	62	355	437	168	269	2,058
성동구	975	221	754	670	41	629	531	236	295	2,176
광진구	1,247	291	956	920	48	872	943	415	528	3,110
동대문	1,258	263	995	751	48	703	755	300	455	2,764
중랑구	1,287	193	1,094	748	47	701	401	150	251	2,436
성북구	1,177	175	1,002	578	33	545	231	90	141	1,986
강북구	1,007	144	863	617	36	581	242	112	130	1,866
도봉구	758	109	649	390	18	372	172	68	104	1,320
노원구	1,064	223	841	410	23	387	271	85	186	1,745
은평구	1,274	217	1,057	749	39	710	335	172	163	2,358
서대문	765	165	600	387	28	359	386	151	235	1,538
마포구	1,020	266	754	452	50	402	515	175	340	1,987
양천구	1,110	215	895	715	91	624	494	179	315	2,319
강서구	1,444	277	1,167	912	46	866	676	269	407	3,032
구로구	2,543	770	1,773	1,636	164	1,472	3,894	1,767	2,127	8,073
금천구	1,676	489	1,187	1,158	143	1,015	2,041	807	1,234	4,875
영등포	2,889	1,021	1,868	2,133	247	1,886	4,497	1,976	2,521	9,519
동작구	1,102	279	823	767	64	703	934	426	508	2,803
관악구	1,942	521	1,421	1,489	81	1,408	1,966	828	1,138	5,397
서초구	563	182	381	227	23	204	207	71	136	997
강남구	735	188	547	230	20	210	351	111	240	1,316
송파구	1,280	272	1,008	748	58	690	645	242	403	2,673
강동구	1,161	172	989	714	29	685	390	140	250	2,265

자료: 2013 외국인주민현황조사, 안전행정부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에 대해서는 각 통계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안전행정부의 외국인주민현황조사의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는 외국인주민 자녀의 수보다 그 규모가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부모가족 자녀의 일부가 제외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외국인주민 자녀 인구 규모가 가장 큰 자치구는 구로 > 영등포 > 관악 > 강서 > 은평 > 송파 > 금천 순으로 외국인 주민 자녀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문화가족 인구 규모의 순과 차이를 보이는데, 금천구의 다문화가족 규모는 자치구 중 3번째를 차지하나 자녀 세대의 규모는 송파에 이어 7번째이다. 2012년 7월 현재 서울 각 자치구별 0~9세, 10~19세 구간 인구 분포를 보았을 때 금천구가 중구, 종로에 이어 하위 3번째라는 결과에 비추어 볼 때에는 오히려 금천구 거주 0~19세 인구 중 외국계 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sup>14)</sup>

표 Ⅲ-14 서울 자치구별 외국인 주민 자녀 분포

(단위: 명)

구분	외국인주민 자녀											
	합계			외국인부모			외국인-한국인부모			한국인부모		
	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서울	29,285	14,839	14,446	4,644	2,351	2,293	23,168	11,725	11,443	1,473	763	710
종로	463	243	220	51	27	24	373	197	176	39	19	20
중구	506	265	241	68	34	34	421	223	198	17	8	9
용산	984	516	468	89	49	40	811	428	383	84	39	45
성동	944	469	475	128	65	63	770	377	393	46	27	19
광진	1,273	602	671	197	93	104	1,012	482	530	64	27	37
동대문	1,086	526	560	174	91	83	859	408	451	53	27	26
중랑	1,311	663	648	77	32	45	1,125	580	545	109	51	58
성북	1,199	629	570	68	36	32	1,059	552	507	72	41	31
강북	1,041	506	535	60	30	30	920	448	472	61	28	33
도봉	800	395	405	33	23	10	721	350	371	46	22	24
노원	1,120	569	551	111	62	49	946	474	472	63	33	30

14)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http://rcps.egov.go.kr>)



구분	외국인주민 자녀											
	합계			외국인부모			외국인-한국인부모			한국인부모		
	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은평	1,495	779	716	92	44	48	1,345	698	647	58	37	21
서대문	792	406	386	68	38	30	707	360	347	17	8	9
마포	926	483	443	97	48	49	792	415	377	37	20	17
양천	1,279	660	619	169	75	94	1,013	531	482	97	54	43
강서	1,687	858	829	209	96	113	1,390	718	672	88	44	44
구로	2,238	1,117	1,121	786	413	373	1,385	668	717	67	36	31
금천	1,389	682	707	416	212	204	941	454	487	32	16	16
영등포	2,176	1,085	1,091	896	460	436	1,203	589	614	77	36	41
동작	965	503	462	153	73	80	755	401	354	57	29	28
관악	1,753	908	845	355	180	175	1,349	704	645	49	24	25
서초	573	297	276	30	12	18	501	261	240	42	24	18
강남	609	333	276	86	44	42	489	271	218	34	18	16
송파	1,418	724	694	151	81	70	1,177	592	585	90	51	39
강동	1,258	621	637	80	33	47	1,104	544	560	74	44	30

자료: 2013 외국인주민현황조사, 안전행정부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서울의 다문화가족 규모<sup>15)</sup>는 전체 131,702가족 중 28,093가족으로 전체 21%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2012년 조사에서는 전체 25%를 상회하는 다문화가족이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 거주 비율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족의 도시 거주 비율이 높고, 2009년 대비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었다는 전국조사 결과의 연장선상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15) 2009년 조사에서 조사 완료된 서울의 다문화가족 표본 수는 11,625(전국 73,669)가족이었고, 가중치를 적용해 활용한 실제 표본 수는 28,093(전국 131,702)가족이었다(장명선, 2010).

#### 4. 서울시 다문화가족 : 가구 특성

표 III-15 전국 대비 서울 거주 다문화 가족 구성원

(단위: %, 가구)

구분		가구	이민·귀화자		배우자		만9~24세 자녀	
조사 표본		15,341	15,001		13,859		4,775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12,531	2,470	2,278	11,581	2,271	2,504
조사 결과	전국	266,547	283,224		234,505		66,536	
			226,084 (79.8%)	57,140 (20.2%)	42,337 (18.1%)	192,168 (81.9%)	32,655 (49.1%)	33,882 (50.9%)
	서울	68,890 (25.8%)	71,553(25.3%)		54,988(23.4%)		11,787(17.7%)	
			48,293 (67.5%)	23,260 (32.5%)	16,918 (30.8%)	38,070 (69.2%)	5,535 (47.0%)	6,252 (53.0%)
조사내용	(10개 항목) 가구 구성원, 자녀보살핌, 월평균 소득 등	(112개 항목) 혼인상태, 가족만족도, 경제활동 등	(53개 항목) 혼인상태, 가족만족도, 경제활동 등	(71개 항목) 한국어 사용, 학교 폭력 등				

자료: 여성가족부,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서울과 전국 모두 남성에 비해 여성 이민·귀화자의 비율이 높으나, 전국적인 추세에서 여성의 비율이 80%에 육박함에 비해 서울은 67.5%로, 이민·귀화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9~24세 자녀의 성비는 전국적으로도 남성의 비율이 높으며, 서울은 남성 거주자 비율이 전국적인 수치보다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6)</sup>

전국 다문화가족의 25.8%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민·귀화자의 25.8%(전체 결혼이민·귀화 여성의 21.4%, 남성의 40.7%)가 서울 거주자인 것으로 드러나 규모 면에서는 여성이 크지만, 전국적인 분포로 볼 때 남성결혼이민·귀화자의 서울 거주

16) 안전행정부 외국인주민 통계에서 결혼이민자의 85.8%, 혼인귀화자의 94.9%, 기타 귀화자의 59.4%가 여성인데 반해 서울은 결혼이민자 75.7%, 혼인귀화자 91.9%, 기타 귀화자 58.2%가 여성으로 드러나, 전국 대비 결혼이주·혼인 귀화 남성의 비율이 높으며, 전국 결혼이민자 가족의 24.1% 서울 거주 대비 남성 귀화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타 귀화자 가족의 34.2%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서울의 이민·귀화자 남성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이민·귀화자의 배우자는 전체 23.4%(남성 19.8%, 여성 40.0%)가 서울 거주 중으로, 배우자 여성 중 서울에 살고 있는 비율이 40%에 이르나, 남녀 인구 구성에서 서울 거주 배우자 남성의 규모가 여성의 2배 이상이다. 9~24세 자녀는 결혼이민·귀화자나 그 배우자의 전국적인 거주율에 비해 낮은 17.7%인데, 앞선 도시 다문화가족의 특성에 의하면 전국 다문화가족 중 자녀가 없다는 응답이 33.3%인데 반해, 서울 거주자의 49.7%가 자녀가 없다고 응답한 결과와도 맞물려 있다.

전국 결혼이민자 가족 중 서울의 점유율은 24.1%인데 반해 귀화자 가족은 34.2%를 차지해 결혼이민자 가족에 비해 일반 귀화자 가족의 점유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일반귀화자의 점유율은 지금까지 다문화가족 정책이 결혼이민자에 맞추어져 있던 현실에서 보다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표 III-16】 서울시 다문화가족 분포

(단위: %, 가구)

구분	결혼이민자 가족	일반 귀화자 등 가족	전체 다문화가족
전국	100.0 (220,625)	100.0 (45,922)	100.0 (266,547)
서울	24.1	34.2	25.8

자료 : 여성가족부(2013),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출신국적별 가구 분포로 볼 때 2009년 실태조사에서는 북미·서유럽·호주 등 출신 이민자의 비율이 전체 1.8%였는데 반해 2012년 조사에서는 4.5%로 증가하였다. 전국적으로도 중국(21.2%), 한국계 중국(32.1%)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시 다문화가족 중 중국 출신인(33.5%)의 비율은 전국보다 11.3% 포인트를 상회하고 있다. 서울 거주 다문화가족의 출신 국적에 따른 특징 중 두드러진 점은 전국적인 분포에서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출신이 전국 3.7%를 점하는 데 반해 서울시에서는 6.2%를 점하고 있으며, 서유럽·대양주 출신인들도 전국 0.8%에 비해 1.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베트남 출신인의 비율은 전국 18.3%에 비해 서울은 7.5%로 낮은 수준이며,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과 남부 아시아계의 비율이 전국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신 국적별 다문화가족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서울 거주 다문화

가족의 특성은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 출신인이 이끌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계의 특성이 서울의 전체 특성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전국 대비 북미, 서유럽의 특성이 보다 강화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엇보인다.

■ 표 III -17 ■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출신국적별 다문화가족

(단위: %, 가구)

출신국적	전국	서울
전체	100.0(266,547)	100.0(68,890)
중국	21.2	33.5
중국(한국계)	32.1	31.6
대만, 홍콩	1.5	2.4
일본	5.8	6.5
몽골	1.2	0.9
베트남	18.3	7.5
필리핀	5.3	2.5
태국	1.2	0.8
캄보디아	1.9	0.7
파키스탄	0.4	-
우즈베키스탄	0.8	0.6
러시아	0.7	0.6
북미(미국, 캐나다)	3.7	6.2
동남아 기타	0.5	0.7
남부아시아	0.8	0.5
서유럽/대양주	0.8	1.5
기타	1.5	2.1
결혼이민자 등 부재 가구	2.3	1.6

2012년 다문화가족 조사에서는 부부와 자녀세대로 이루어진 가족이 44.6%, 부부 세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30.7%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배우자의 부모 형제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은 결혼이민·귀화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적별로는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동남아 기타 국가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자들

이 배우자의 부모 형제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혼이민·귀화자 본인만으로 이루어진 단독 가구는 40대 인구의 6.9%, 50세 이상 인구의 1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출신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 출신자 인구의 12.4%와 중국 출신자 인구의 12.8%를 점하고 있다.

표 Ⅲ-18 다문화가족의 구성

(단위: %)

구분	부부	부부+ 자녀	부부+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	부부+ 본인 부모 형제	부부+ 배우자 부모 형제	부부+ 자녀+ 본인 부모 형제	본인	본인+ 자녀	
전체	30.7	44.6	7.7	0.9	4.2	1.9	6.6	3.4	
성 별	여성	28.9	43.2	9.2	0.8	4.6	1.6	6.9	4.9
	남성	34.8	47.7	4.1	0.9	3.2	2.4	6.1	0.8
연 령	24세 이하	29.9	26.5	24.5	2.7	13.6	2.7	0.0	0.0
	25~29세	24.7	40.7	18.6	1.4	7.8	2.7	2.4	1.7
	30~34세	23.2	52.7	12.9	2.0	3.8	2.7	1.3	1.3
	35~39세	23.8	58.5	6.9	0.6	2.8	2.4	3.4	1.7
	40~49세	29.4	50.5	3.9	0.4	3.2	2.0	6.9	3.7
	50세 이상	45.8	27.5	0.2	0.2	3.0	0.2	15.8	7.5
출 신 국 적	중국	38.3	34.4	4.9	0.6	3.0	1.8	12.8	4.1
	중국(한국계)	35.2	33.6	3.5	1.6	4.0	3.3	12.4	6.5
	대만, 홍콩	16.4	66.7	4.4	0.0	3.1	2.2	3.6	3.6
	일본	24.1	61.8	4.7	0.0	5.3	1.8	0.6	1.8
	몽골	20.8	59.7	6.9	1.4	5.6	1.4	1.4	2.8
	베트남	19.9	42.2	23.6	1.9	5.6	3.1	0.0	3.7
	필리핀	16.9	52.7	15.5	1.4	8.1	0.0	1.4	4.1
	태국	40.8	34.7	18.4	0.0	6.1	0.0	0.0	0.0
	캄보디아	15.5	45.1	26.8	1.4	8.5	2.8	0.0	0.0
	우즈베키스탄	15.2	63.0	10.9	0.0	8.7	2.2	0.0	0.0
	러시아	35.1	45.9	5.4	0.0	0.0	8.1	2.7	2.7
	북미(미국, 캐나다)	35.2	48.1	6.2	1.2	4.6	1.2	2.2	1.2
	동남아 기타	29.3	46.6	15.5	0.0	5.2	0.0	0.0	3.4
	남부아시아	27.8	52.8	8.3	0.0	5.6	0.0	5.6	0.0
	서유럽대양주	37.8	52.0	6.1	1.0	2.0	0.0	1.0	0.0
기타	33.3	49.3	2.9	0.0	0.0	0.0	10.1	4.3	

앞선 서울거주 다문화가족의 규모에서는 전체적으로 9~24세 자녀세대의 서울거주자 비율이 결혼이민자·귀화자 및 배우자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서울 다문화가족 인구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중국계 무자녀 가족 비율이 50%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녀가 2명이상인 가족은 결혼이민·귀화자 연령이 30~40대인 가족에서 연령대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적별로는 대만·홍콩,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출신자에서 해당 출신국 인구 비중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Ⅲ-19 다문화가족의 자녀 수

(단위: %, 명)

구분		없음	1명	2명	3명 이상	합계	평균
전체		49.7	32.6	15.0	2.7	100.0	0.7
성 별	여성	47.1	34.1	16.0	2.8	100.0	0.7
	남성	55.1	29.6	12.9	2.4	100.0	0.6
연 령	24세 이하	62.9	25.6	10.0	1.4	100.0	0.5
	25~29세	44.5	36.5	16.9	2.0	100.0	0.8
	30~34세	30.3	46.8	19.6	3.3	100.0	1.0
	35~39세	33.2	39.5	24.3	3.0	100.0	1.0
	40~49세	48.4	31.1	15.9	4.6	100.0	0.8
	50세 이상	66.7	24.6	7.9	0.7	100.0	0.4
출 신 국 적	중국	55.3	31.9	11.3	1.5	100.0	0.6
	중국(한국계)	55.7	32.8	10.6	0.9	100.0	0.6
	대만, 홍콩	27.1	28.8	37.2	7.0	100.0	1.2
	일본	42.8	26.4	19.4	11.4	100.0	1.1
	몽골	29.9	40.4	25.6	4.0	100.0	1.0
	베트남	26.6	46.9	22.7	3.8	100.0	1.0
	필리핀	26.8	31.9	33.9	7.4	100.0	1.2
	태국	48.9	31.5	17.6	2.0	100.0	0.7
	캄보디아	26.3	51.0	19.8	2.8	100.0	1.0
	우즈베키스탄	23.9	39.1	30.4	6.5	100.0	1.2
	러시아	36.3	34.5	26.5	2.7	100.0	1.0
	북미(미국, 캐나다)	48.6	26.9	21.2	3.2	100.0	0.8
	동남아 기타	36.1	35.9	21.4	6.6	100.0	1.0
	남부아시아	41.6	36.4	22.0	0.0	100.0	0.8
	서유럽대양주	45.2	34.7	18.0	2.1	100.0	0.8
기타	49.7	22.2	24.4	3.7	100.0	0.8	

서울시 다문화가족 자녀 세대 인구 비중은 6세미만 > 6-11세 > 18세 이상 연령대 순으로 집중 현상을 보인다는 점이 특징이다.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 논의가 2000년대 들어 사회 이슈화되었다는 면에서 12-17세 연령대 인구가 11세 미만 연령대에 비해 비중이 낮은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18세 이상 연령대의 경우는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중도입국 자녀의 인구 비중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과 맞물려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결혼이민자·배우자의 출신 국적별로는 한국계를 비롯한 중국 출신자와 대만·홍콩 출신자 그룹의 18세 이상 자녀가 각각 30%대와 20%대를 차지해 18세 이상 자녀 세대 인구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표 III-20 |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별 분포

(단위: %)

구분		6세 미만	6~11세	12~14세	15~17세	18세 이상	전체	평균
전체		44.9	24.0	7.9	4.3	18.9	100.0	9.65
성별	여성	45.9	26.2	7.0	3.7	17.2	100.0	9.34
	남성	43.4	19.5	10.3	5.7	21.1	100.0	10.11
연령	24세 이하	93.3	1.0	4.8	1.0	0.0	100.0	2.14
	25~29세	87.8	9.9	0.4	0.8	1.1	100.0	2.94
	30~34세	77.1	17.9	2.5	1.6	0.9	100.0	3.71
	35~39세	53.0	36.6	7.3	1.8	1.4	100.0	5.90
	40~49세	21.4	35.5	14.7	7.4	20.9	100.0	11.31
	50세 이상	1.4	6.0	7.4	7.7	77.6	100.0	25.41
출신국적	중국	36.8	20.6	6.3	2.2	34.1	100.0	13.06
	중국(한국계)	32.5	19.0	6.6	5.1	36.9	100.0	14.32
	대만, 홍콩	26.4	24.8	12.2	10.6	26.1	100.0	12.51
	일본	31.5	34.5	17.4	5.5	11.1	100.0	9.35
	몽골	44.2	32.5	7.8	7.8	7.8	100.0	7.96
	베트남	78.0	15.2	0.6	1.8	4.3	100.0	4.46
	필리핀	51.9	34.8	8.8	1.1	3.3	100.0	6.24
	태국	48.6	40.5	2.7	8.1	0.0	100.0	6.11
	캄보디아	88.7	7.0	1.4	2.8	0.0	100.0	2.52
	우즈베키스탄	52.7	36.4	7.3	1.8	1.8	100.0	5.96
	러시아	50.0	33.3	5.6	2.8	8.3	100.0	7.75
	북미(미국, 캐나다)	61.2	19.6	6.3	3.5	9.4	100.0	6.42
	동남아 기타	41.7	38.3	10.0	3.3	6.7	100.0	7.35
	남부아시아	65.6	18.8	6.3	3.1	6.3	100.0	6.09
	서유럽대양주	57.3	22.0	8.5	3.7	8.5	100.0	6.79
기타	48.4	23.4	7.8	1.6	18.8	100.0	8.34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재학 상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볼 때 국내에서 태어나 성장 중인 자녀의 대부분은 공교육을 받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문제는 18세 이상 자녀 인구의 65%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18세 이상의 연령대가 고등학교를 마치고 취직을 하거나 직업 활동을 모색할 연령대라는 점에서 단순히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음을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2012년 현재 한국인의 고등학교 취학률이 92.6%이고 대학 진학률이 71.3%인 현실<sup>17)</sup>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같은 연령대의 한국 선주민 집단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수치이다. 또한 전국(58.7%) 대비 18세 이상 연령대의 비재학의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15-17세 연령 그룹에서도 서울 거주자의 재학률(전국 93.7%, 서울 91.5%)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Ⅲ-21 ■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재학 상태

(단위: %, 명)

구분		초·중·고 재학	대학·대학원 재학	학교를 다니지 않음 (중퇴, 미취학, 졸업 등)	합계
전체		52.2 (6,155)	14.8 (1,743)	33.0 (3,889)	100.0 (11,787)
성별	여성	55.0	12.8	32.2	100.0
	남성	49.7	16.6	33.7	100.0
연령	9~11세	100.0	0.0	0.0	100.0
	12~14세	100.0	0.0	0.0	100.0
	15~17세	91.5	0.2	8.3	100.0
	18세 이상	5.1	29.9	65.0	100.0

학령기 세대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현실에 대한 파악이 요구된다면, 저연령대 자녀 세대의 경우는 양육과 보살핌의 문제가 발생한다. 2012년 조사 결과 서울 거주 다문화가족의 58.4%는 보육시설이나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사설 학원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어머니가 돌보는 경우도 55.4%에 달하고 있는데, 결혼이민·귀화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17) e-나라지표 사이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통계청 장래추계인구, 2011.10월 작성)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520](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520)) 2013.12.09. 검색



2009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서울시 거주자 분석에서는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의 시설 이용률이 62.3%로, 보육·교육시설·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경우는 영유아를 주로 돌보는 사람이 ‘본인 또는 배우자’(79.2%)가 가장 많았으며, 봐주는 사람 없이 아이 혼자 지내는 경우도 2.8%로 조사되었는데(장명선, 2010), 2012년 조사에서는 자녀 혼자 지내는 비율이 0.9%로 나타났다.

【표 Ⅲ-22】 만 9세 미만 다문화가족 자녀의 낮 시간 보살핌 방법

(단위: %)

구분		자녀 혼자 지냄	자녀의 아버지	자녀의 어머니	자녀의 조부모	기타 가족	보육 시설	방과후 프로그램	자녀 양육 도우미	학원 및 공부방	기타
전체		0.9	1.6	55.4	9.9	0.5	49.1	4.2	1.5	5.1	0.0
성별	여성	0.6	1.6	53.9	10.6	0.5	52.2	4.7	0.5	4.1	0.0
	남성	1.5	1.5	59.4	8.0	0.4	40.8	3.0	4.2	7.9	0.0
	24세 이하	0.0	0.0	72.2	13.6	0.0	40.6	0.0	0.0	0.0	0.0
	25~29세	0.0	1.2	69.9	8.3	0.0	51.2	0.2	0.3	0.2	0.0
	30~34세	0.5	2.4	53.3	12.8	0.5	53.1	2.1	1.0	3.5	0.0
	35~39세	1.6	1.7	49.6	10.2	0.7	52.2	5.0	3.3	4.3	0.0
	40~49세	1.5	0.6	50.2	6.7	0.6	42.5	11.0	1.8	11.6	0.0
	50세 이상	0.0	6.9	25.4	0.0	0.0	40.1	0.0	0.0	27.5	0.0
연령	중국	2.0	1.5	39.8	13.2	0.5	54.4	5.4	0.0	4.4	0.0
	중국(한국계)	1.3	1.0	37.9	7.3	0.0	58.8	6.0	0.0	8.6	0.0
	대만, 홍콩	0.0	0.0	79.5	6.6	0.9	36.0	3.8	2.2	5.4	0.0
	일본	0.7	0.7	79.0	2.9	0.0	29.2	0.7	4.7	11.9	0.0
	몽골	0.0	0.0	43.6	2.6	0.0	61.5	7.7	0.0	7.7	0.0
	베트남	0.0	0.9	66.8	11.3	0.9	45.8	1.8	0.0	1.8	0.0
	필리핀	0.0	6.2	52.5	15.9	0.0	61.1	6.2	1.2	3.8	0.0
	태국	0.0	0.0	45.2	19.9	0.0	39.8	5.0	0.0	10.0	0.0
출신국적	캄보디아	0.0	0.0	61.5	5.8	0.0	61.5	1.9	0.0	0.0	0.0
	우즈베키스탄	0.0	0.0	75.9	6.9	0.0	55.2	3.4	3.4	0.0	0.0
	러시아	0.0	5.6	61.1	16.7	0.0	44.4	5.6	0.0	5.6	0.0
	북미(미국, 캐나다)	0.0	1.4	78.1	6.5	0.9	41.9	4.6	11.3	1.3	0.0
	동남아 기타	0.0	10.0	76.9	6.4	0.0	23.5	3.3	0.0	3.4	0.0
	남부아시아	0.0	5.9	66.5	5.4	0.0	55.2	0.0	0.0	0.0	0.0
	서유럽대양주 기타	0.0	0.0	85.3	19.7	0.0	30.4	2.7	1.7	0.0	0.0
기타	0.0	7.3	75.0	12.8	3.1	36.6	3.1	0.0	3.1	0.0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양육·교육비 지출이 지적된다는 점에서 서울시 거주 다문화가족의 소득 수준이 소비 대비 열악함을 짐작할 수 있다. 연령대로 볼 때 35~39세 구간의 양육·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며, 한국계 중국, 일본 > 필리핀 > 대만·홍콩 출신자 순으로 60% 이상이 자녀 양육과 교육비 지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어려움의 2순위, 3순위로 꼽히는 한국어 가르치기와 자녀 돌봄·보육시설 이용은 20대의 결혼이민·귀화자에게 더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고, 한국어 가르치기는 러시아 > 베트남 > 우즈베키스탄 > 필리핀 순으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III-23 ■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의 어려움

(단위: %)

구분	없음	자녀 양육 방식 갈등 <sup>18)</sup>	한국어 가르치기	자녀 돌봄 사람·보육 시설 없음	양육·교육비 지출	학업 성적 부진·학교 생활 부적응	자녀 건강·행동 문제	아이의 심리적 혼란 <sup>19)</sup>	기타
전체	43.8	4.1	14.5	14.0	52.4	4.2	4.2	2.3	2.8
성별									
여성	39.6	3.8	18.8	13.2	53.7	4.3	4.5	2.0	2.4
남성	54.1	4.6	3.8	16.2	49.3	4.0	3.4	3.2	3.9
연령									
24세 이하	26.7	4.8	36.6	19.5	37.6	0.0	2.9	0.0	3.6
25~29세	38.4	5.1	28.3	13.9	42.4	0.6	5.6	1.1	1.9
30~34세	36.9	4.2	14.9	17.3	50.6	3.2	3.9	4.8	1.2
35~39세	34.9	4.3	14.1	11.0	67.0	3.7	5.4	1.6	3.9
40~49세	52.1	3.4	7.6	16.4	56.8	7.0	2.9	2.3	3.5
50세 이상	71.1	3.6	7.1	1.7	24.2	5.0	5.5	1.4	2.2
출신국적									
중국	43.0	2.2	12.4	15.0	45.9	4.1	3.8	1.9	1.9
중국(한국계)	34.4	0.6	3.6	10.4	66.5	5.6	3.0	0.6	4.4
대만, 홍콩	68.3	8.4	6.0	14.0	62.5	5.2	2.4	1.3	2.6
일본	59.6	4.9	14.8	21.8	66.5	4.4	7.3	4.6	2.2
몽골	39.2	9.8	25.5	7.8	51.0	2.0	3.9	5.9	2.0
베트남	24.8	7.1	43.6	12.0	37.4	2.7	5.3	2.7	2.7
필리핀	30.2	10.7	33.0	9.5	65.0	3.7	10.3	5.6	0.9
태국	57.8	0.0	19.2	19.2	23.0	3.8	3.8	15.3	0.0
캄보디아	49.1	3.8	35.8	9.4	24.5	3.8	7.5	0.0	0.0
우즈베키스탄	37.1	8.6	17.1	25.7	54.3	2.9	2.9	2.9	5.7
러시아	45.5	0.0	45.5	22.7	45.5	0.0	0.0	0.0	0.0
북미(미국, 캐나다)	79.5	7.1	4.6	15.2	37.9	1.1	1.2	3.0	3.4
동남아 기타	46.2	0.0	10.2	20.6	56.7	5.1	2.6	12.8	0.0
남부아시아	9.8	39.6	10.2	20.4	54.7	9.8	0.0	4.9	0.0
서유럽대양주	63.9	7.1	0.0	22.5	32.8	3.5	3.5	2.2	8.6
기타	58.5	9.4	13.4	11.2	48.2	9.4	0.0	6.2	3.1

중도입국자녀는 40대 결혼이민·귀화자 가족에 1명인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나며, 우즈베키스탄 > 중국(한국계) > 북미(미국, 캐나다) > 일본 > 러시아 출신자 그룹의 10% 이상에서 자녀가 있다고 답하고 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출신자의 13%가 1명 이상의 중도입국자녀가 있다고는 하나, 서울 거주 다문화가족의 0.6%만이 우즈베키스탄 출신자로 결혼이민·귀화자의 규모 면에서 실제 중도입국자녀의 대다수는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 출신인일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표 Ⅲ-24 다문화가족의 외국 성장 자녀 수

(단위: %)

구분	없다	있다				합계	평균	
			1명	2명	3명 이상			
전체	91.0	9.0	7.8	1.1	0.1	100.0	1.14	
성별	여성	92.1	7.9	7.2	0.6	0.1	100.0	1.11
	남성	88.6	11.4	9.3	2.1	0.0	100.0	1.19
연령	24세 이하	99.8	0.2	0.2	0.0	0.0	100.0	1.00
	25~29세	97.9	2.1	2.0	0.0	0.1	100.0	1.09
	30~34세	95.8	4.2	3.6	0.5	0.1	100.0	1.17
	35~39세	90.7	9.3	8.5	0.7	0.1	100.0	1.11
	40~49세	81.6	18.4	15.7	2.6	0.1	100.0	1.16
	50세 이상	94.3	5.7	5.1	0.6	0.0	100.0	1.11
출신국적	중국	91.4	8.6	8.0	0.6	0.0	100.0	1.07
	중국(한국계)	88.7	11.3	10.4	0.9	0.0	100.0	1.08
	대만, 홍콩	92.1	7.9	4.4	3.1	0.4	100.0	1.48
	일본	89.1	10.9	6.7	3.6	0.6	100.0	1.47
	몽골	90.6	9.4	8.1	1.3	0.0	100.0	1.14
	베트남	99.6	0.4	0.4	0.0	0.0	100.0	1.00
	필리핀	97.4	2.6	2.0	0.0	0.6	100.0	1.50
	태국	94.1	5.9	5.9	0.0	0.0	100.0	1.00
	캄보디아	97.2	2.8	1.4	0.0	1.4	100.0	2.00
	우즈베키스탄	87.0	13.0	13.0	0.0	0.0	100.0	1.00
	러시아	89.4	10.6	10.6	0.0	0.0	100.0	1.00
	북미(미국, 캐나다)	89.1	11.0	7.7	3.3	0.0	100.0	1.30
	동남아 기타	90.2	9.8	9.8	0.0	0.0	100.0	1.00
	남부아시아	100.0	0.0	0.0	0.0	0.0	100.0	0.0
서유럽대양주	93.9	6.1	4.4	1.7	0.0	100.0	1.28	
기타	87.7	12.3	10.8	1.5	0.0	100.0	1.12	

18) 갈등의 대상은 배우자 및 배우자의 가족이다.

19) 실태조사에서는 아이의 심리적 혼란을 부모 중 한사람이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겪는 혼란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2009년 대비 자기 집에 거주하는 비율 또한 52.5%에서 42.2%로 하락하였다(전기택 외, 2013). 서울의 경우 자기 집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20.2%인데 반해 38%의 가족이 전세, 37.2%의 가족은 보증금 있는 월세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연령별로는 결혼이민·귀화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기 집에 거주하는 비율이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한국계 중국 출신자 가족의 9.2%, 중국 출신의 15.9%만이 자기 집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 출신인의 주거 상황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국민 중 자기 집에 거주하는 비율은 54.2%(2010, 인구주택 총조사), 서울시민의 자가 보유율은 55.1%(2009, 서울시정개발연구원)로 전반적으로 서울 거주 다문화 가족의 주거 현황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된다.

【 표 Ⅲ-25 】 다문화가족 거주 주택 종류

(단위: %)

구분		자기집	전세 (월세 없음)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포함)	무상	합계
전체		20.2	38.1	37.2	0.9	3.6	100.0
성 별	여성	21.9	37.0	36.4	1.0	3.6	100.0
	남성	16.6	40.2	38.8	0.7	3.7	100.0
연 령	24세 이하	32.1	35.5	24.4	0.3	7.7	100.0
	25~29세	29.3	46.0	19.3	1.1	4.4	100.0
	30~34세	24.7	39.7	29.1	0.3	6.1	100.0
	35~39세	22.5	44.3	33.6	2.1	1.6	100.0
	40~49세	17.6	37.7	41.1	0.7	3.0	100.0
	50세 이상	14.2	34.5	47.2	1.0	3.1	100.0
출 신 국 적	중국	15.9	37.6	41.8	1.4	3.3	100.0
	중국(한국계)	9.2	39.6	48.5	0.4	2.4	100.0
	대만, 홍콩	50.7	34.9	11.1	1.2	2.1	100.0
	일본	33.1	46.6	16.0	0.0	4.3	100.0
	몽골	21.6	37.7	36.4	0.0	4.3	100.0
	베트남	33.3	40.7	20.6	0.0	5.4	100.0
	필리핀	23.8	33.4	32.7	4.2	5.9	100.0
	태국	35.4	35.2	21.5	2.0	5.9	100.0
	캄보디아	41.1	39.1	15.6	2.8	1.4	100.0
	우즈베키스탄	37.0	30.4	32.6	0.0	0.0	100.0
	러시아	29.2	15.9	44.3	2.7	8.0	100.0
	북미(미국, 캐나다)	48.5	27.9	15.6	1.1	6.9	100.0
	동남아 기타	24.3	32.9	36.3	0.0	6.5	100.0
	남부아시아	17.1	35.9	38.9	2.7	5.5	100.0
	서유럽대양주 기타	45.6 21.3	30.2 38.7	14.8 33.8	4.2 0.0	5.3 6.1	100.0 100.0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는 월평균 가구 소득 200~300만원 미만인 가구가 31.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00~200만원인 가구가 30.9%를 차지하는 등 전국 다문화가족의 89%가 2012년 전국 월평균가구소득 408만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전기택외, 2013).

서울 거주자의 경우는 전체 86.1%가 국민 월평균 가구 소득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나, 50만원 미만 구간의 비율이 전국 대비 높게 나타나고, 소득 최다 분포 구간이 전국적으로 200~300만원 미만 구간인데 반해 서울은 100~2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저소득 구간의 비율이 전국 다문화가족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주거 비용 부담과 적은 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서도 비용 부담을 가장 큰 문제로 들고 있어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이 자녀 세대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는 면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전국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이하 가구의 비율이 2009년 25.5%에서 2012년 17.7%로 3년간 7.8% 감소한 데 비해 해당구간 다문화가족의 감소폭이 월등히 크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기는 하나(전기택 외, 2013), 서울은 2009년에 비해 200만원 이상 소득 각 구간의 비율이 모두 증가한 반면 50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2009년에 비해 큰 차이가 없으며 앞서 지적했듯 해당 구간의 비율이 전국 대비 높게 나타났다.

서울 다문화가족의 소득의 특성은 결국 양극화로 요약되는데, 이는 결혼이민·혼인귀화자 등의 출신 국적이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가구의 비율을 보면 캐나다 출신인의 45.6%, 미국 출신인의 42.7%, 서유럽 대양주 출신인의 35.9%가 고소득 구간에 분포되어 있어 다른 지역 출신보다 고소득층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거주 다문화가족의 출신 국적에 따른 특징 중 두드러진 점이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출신이 전국 3.7%를 점하는 데 반해 서울시에서는 6.2%를 점하고 있으며, 서유럽·대양주 출신인들도 전국 0.8%에 비해 1.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서울거주 다문화가족 중 고소득 구간의 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선 주거 형태에서도 북미, 유럽, 홍콩·대만 출신자는 자가 비율이 45%를 넘어 출신국적별 소득 격차는 주거 형태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표 Ⅲ-26 다문화가족의 월평균 가구 소득

(단위: %)

구분		50 만원 미만	50 ~ 100 만원 미만	100 ~ 200 만원 미만	200 ~ 300 만원 미만	300 ~ 400 만원 미만	400 ~ 500 만원 미만	500 ~ 600 만원 미만	600 ~ 700 만원 미만	700 만원 이상	합계
서울(2009)		5.5	18.3	38.9	19.0	6.1	2.2	1.0	0.7	1.1	100.0
전국(2012)		3.7	7.3	30.9	31.4	15.7	5.1	2.3	1.1	2.4	100.0
서울(2012)		5.1	7.2	32.1	27.2	14.5	5.0	2.9	1.6	4.4	100.0
성 별	여성	5.0	8.3	33.8	28.1	13.9	4.8	2.3	1.2	2.6	100.0
	남성	5.4	5.5	27.7	26.6	15.6	5.3	4.0	2.1	7.7	100.0
연 령	24세 이하	3.7	1.8	28.4	38.1	17.2	4.8	2.5	1.9	1.7	100.0
	25~29세	1.5	5.6	31.4	26.9	17.1	7.0	4.2	1.9	4.3	100.0
	30~34세	1.9	2.6	30.1	30.9	16.1	4.6	4.7	3.4	5.6	100.0
	35~39세	1.3	4.5	34.0	28.2	14.5	6.8	2.7	1.8	6.2	100.0
	40~49세	1.0	4.9	31.9	30.8	17.0	5.4	3.0	1.2	4.9	100.0
	50세 이상	14.2	15.2	32.2	20.7	9.9	3.0	1.5	0.6	2.7	100.0
출 신 국 적	중국	7.2	10.9	34.9	28.6	11.2	2.9	1.8	1.1	1.4	100.0
	중국(한국계)	5.7	7.0	37.3	28.8	15.0	3.9	1.3	0.4	0.7	100.0
	대만, 홍콩	2.8	3.3	14.5	22.1	22.0	14.2	7.0	3.5	10.6	100.0
	일본	1.9	3.1	17.4	30.3	23.8	8.7	4.9	0.6	9.3	100.0
	몽골	2.7	4.0	27.2	35.0	2.3	2.7	1.3	0.0	2.7	100.0
	베트남	1.9	5.7	39.7	34.7	12.0	3.1	1.9	0.0	1.0	100.0
	필리핀	2.0	7.9	40.5	29.5	10.8	4.1	2.0	1.3	2.0	100.0
	태국	2.0	0.0	31.3	33.5	17.6	3.9	7.8	2.0	2.0	100.0
	캄보디아	0.0	2.8	39.7	33.4	11.3	12.8	0.0	0.0	0.0	100.0
	우즈베키스탄	0.0	0.0	17.4	34.8	21.7	17.4	0.0	2.2	6.5	100.0
	러시아	0.0	10.6	28.3	31.9	8.0	8.0	8.0	0.0	5.3	100.0
	북미	3.5	1.3	3.6	11.1	16.0	10.9	12.1	10.7	30.7	100.0
	동남아 기타	1.6	6.5	32.8	24.8	23.0	1.7	3.2	1.6	4.8	100.0
	남부아시아	8.4	5.5	44.8	22.0	13.9	0.0	5.5	0.0	0.0	100.0
서유럽대양주	3.2	2.8	4.1	14.6	15.7	17.4	6.9	5.8	29.5	100.0	
기타	2.2	3.7	25.5	15.4	24.6	12.1	4.8	2.6	9.0	100.0	

## 5.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결혼이민·귀화자 및 배우자

### 1) 결혼이민·귀화자 및 배우자의 일반적 특성

2012년 실태조사에 응답한 서울에 거주하는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이 67.5%, 남성이 32.5%로 나타난 반면 배우자는 여성이 30.8%, 남성이 69.2%로 나타나 결혼 이민 및 귀화자의 절반 이상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전국적인 성별 분포는 여성이 79.8%, 남성은 20.2%에 불과한 데 비하면 서울 거주 결혼이민·귀화자의 성비는 전국 대비 여성의 비율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2012 실태조사 결과 분석(전기택 외, 2013; 119)에서는 2012년 새로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집단의 경우 도시지역 거주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특히 결혼이민·혼인귀화자의 전국적인 분포에서 서울 거주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40.7%, 여성은 21.4%로 남성 결혼이민·혼인귀화자의 높은 서울 거주율이 이 같은 결과를 낳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배우자의 성비 또한 전국적인 비율은 배우자 중 남성이 81.9%이며, 여성은 18.1%로 서울에 비해 배우자 남성의 비율이 낮다는 점이 드러난다.<sup>20)</sup>

【표 III-27】 결혼이민·귀화자 및 배우자의 성별 분포(전국, 서울)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전국	결혼이민·귀화자 등	79.8 (226,084)	20.2 (57,140)	100.0 (283,224)
	배우자	18.1 (42,337)	81.9 (192,167)	100.0 (234,504)
서울	결혼이민·귀화자 등	67.5 (48,293)	32.5 (23,260)	100.0 (71,553)
	배우자	30.8 (16,918)	69.2 (38,070)	100.0 (54,987)

20) 배우자의 전국적인 거주 분포를 보면 배우자 여성의 서울 거주율이 40.0%(경기 29.6%)로 전국 최다 분포인 반면 배우자 남성의 서울 거주율은 19.8%로 경기도(25.7%)에 이어 두 번째 거주율을 보이고 있으나 배우자 전체의 거주율은 경기도가 26.4%, 서울이 23.4%이다(전기택 외, 2013; 370)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배우자 있음이 84.6%로 가장 많았고, 이혼·별거 7.3%, 미혼 4.9%, 사별 3.3% 순이었다. 한편 배우자 조사에서는 여성인 배우자의 0.7%가 사별 상태인 반면 남성은 0.1%가 사별상태로 나타나고, 이혼·별거에서도 여성(1.8%), 남성(0.5%)의 비율로, 결혼이민·귀화자 및 그 배우자 모두에서 남성의 유배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적인 조사 결과에 비해 서울은 결혼이민·혼인 귀화 등 당사자의 사별, 이혼·별거의 비율이 높아 다문화가족의 분화가 전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현재 다문화가족의 범주에 들지 않았으나, 향후 다문화가족에 포함될 확률이 높은 미혼 귀화자 중 여성의 비율이 전국 대비 높게 나타나 있다.<sup>21)</sup>

【 표 Ⅲ-28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혼인상태 비교(전국, 서울)

(단위: %)

구분	결혼이민·귀화자 등			배우자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국	전체	100.0 (226,084)	100.0	100.0	100.0 (234,504)	100.0	100.0
	미혼	3.3	1.9	8.8	-	-	-
	배우자 있음	90.3	91.1	87.2	98.6	96.7	98.9
	사별	1.9	2.2	0.7	0.1	0.5	0.0
	이혼·별거	4.5	4.8	3.3	1.3	2.7	1.0
서울	전체	100.0 (71,553)	100.0	100.0	100.0 (54,987)	100.0	100.0
	미혼	4.9 (3,474)	3.1	8.4	-	-	-
	배우자 있음	84.6 (60,504)	83.4	87.0	98.8	97.5	99.4
	사별	3.3 (2,384)	4.5	0.9	0.3	0.7	0.1
	이혼·별거	7.3 (5,191)	9.0	3.7	0.9	1.8	0.5

21) 2012년 실태조사에서는 혼인상태에서 미혼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이후 향후 다문화가족이 될 가능성이 높은 1인 미혼 귀화자 가구를 조사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른 것이다(전기택 외, 2013).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만 40~49세 28.9%, 만 50세 이상 28.6%, 40대 이상 연령대가 20대의 3배수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전국과 비교하면 만 40세 이상 특히 50대 이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전국적인 수치와 서울의 비교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서울 거주 여성들의 50세 이상 비중이 전국 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표 Ⅲ-29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연령별 분포

(단위: %, 명)

구분	전국			서울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100.0 (283,224)	100.0 (226,084)	100.0 (57,140)	100.0 (71,553)	100.0 (48,293)	100.0 (23,260)
만 24세 이하	11.2	12.8	5.1	6.0	6.6	4.9
만 25~29세	16.0	18.4	6.2	9.6	11.5	5.5
만 30~34세	15.8	16.9	11.2	12.6	13.8	10.0
만 35~39세	14.6	14.6	14.5	14.3	14.7	13.6
만 40~49세	25.1	23.3	32.0	28.9	27.9	30.9
만 50세 이상	17.4	13.9	31.0	28.6	25.5	35.2

결혼이민·귀화자 등 배우자 연령의 특징은 당사자에 비해 60대 이상 연령대 구간이 있다는 점으로 남성의 경우 전국, 서울 모두 60대 이상 연령대의 비율이 20대 연령대를 압도하고 있다. 20대 서울 거주 결혼이민·귀화자 여성의 비율이 18.1%인 데 반해 20대 서울거주 배우자 남성의 비율은 2.7%인 점에 비추어 대개의 여성 결혼이민·귀화자가 남편보다 젊은 연령 집단에 속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표 Ⅲ-30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배우자의 연령별 분포

(단위: %, 명)

구분	전국			서울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100.0 (234,504)	100.0 (423,37)	100.0 (192,167)	100.0 (54,987)	100.0 (16,918)	100.0 (38,070)
만 20세 미만	0.0	0.1	0.0	0.0	0.0	0.0
만 20~29세	2.9	7.9	1.8	4.1	7.2	2.7
만 30~39세	25.5	31.4	24.1	24.9	31.2	22.1
만 40~49세	43.5	29.9	46.5	35.6	29.5	38.3
만 50~59세	20.8	20.8	20.8	23.4	22.0	24.1
만 60세 이상	7.3	9.9	6.7	12.1	10.1	12.9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이 41.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대학교 졸업 이상 30.0%, 중학교 졸업 19.8%, 초등학교 졸업 이하 8.7%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졸업 이하의 비중은 여성(31.0%)이 남성(23.2%)보다 높은 반면, 대학교 졸업 이상 비중은 남성(38.9%)이 여성(25.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인 결과와 비교했을 때에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 구간에서 서울거주자의 비율이 낮게 나타난 반면 대졸 이상 구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여성이 전국 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Ⅲ-31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교육수준별 분포

(단위: %, 명)

구분	2009년			2012년		
	결혼이민자			결혼이민·귀화자 등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전체	100.0	100.0	100.0	100.0 (48,293)	100.0 (23,260)	100.0 (71,553)
초졸 이하	6.6	4.7	6.3	10.0	6.0	8.7
중졸	26.0	24.5	25.8	21.0	17.2	19.8
고졸	45.9	39.6	44.9	43.3	37.9	41.5
대졸 이상	21.4	31.2	23.0	25.7	38.9	30.0

한편 배우자의 교육 수준은 최저 교육 수준을 고등학교 이하로 잡고 있으며 대학원 이상 구간을 별도로 잡고 있는 특징이 있다. 배우자 학력의 최다 분포 구간은 고등학교 이하로 특히 배우자인 남성의 해당 구간 집중 현상이 여성보다 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등학교 이하 구간을 제외하면 배우자인 남성보다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배우자 여성이 각 구간에서 높은 분포도를 보여 전반적으로 배우자 그룹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전국적인 결과와 비교할 때 서울 거주 배우자 남성은 고등학교 이하 구간만이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 배우자 여성은 고등학교 이하 구간과 대학원 이상에서 분포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국, 서울 모두 고등학교 이하 구간의 분포가 절반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이 구간의 학력에 대해 결혼이민·귀화자와 같은 수준의 세분화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배우자와 당사자 간의 학력의 차이를 단순 비교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32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배우자의 교육수준별 분포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30.8 (16,918)	69.2 (38,070)	100.0 (54,987)
고등학교 이하	56.8	69.6	65.7
대학교(4년제 미만)	11.3	9.8	10.3
대학교(4년제 이상)	25.8	17.3	19.9
대학원 이상	6.1	3.3	4.1

## 2) 가족의 형성과 유지

### (1) 가족의 형성

2012년 조사에 나타난 서울 거주 다문화가족 형성과정의 특징은 중개업소를 통한 만남의 응답률(9.0%)이 전국(20.1%) 대비 낮다는 점인데, 이는 2009년도 조사와 유사한 결과로 당시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배우자를 만난 비율이 전국 25.1%에 비해 서울은 12.4%였으며, 2012년 조사에서는 전국, 서울 모두 중개업체를 통한 만남의 비

율이 줄었다(여성가족부, 2013, 2010).

■ 표 Ⅲ-33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배우자의 만남 경로(전국)

(단위: %, 명)

구분		결혼 중개업체 (업자)를 통해서	가족 또는 친척의 소개로	친구 또는 동료의 소개로	종교 기관을 통해서	스스로	기타	합계
전체		20.1 (54,917)	20.1 (54,908)	29.4 (80,519)	5.7 (15,658)	23.3 (63,838)	1.4 (3,940)	100.0 (273,871)
성별	여성	24.1	20.3	29.0	6.1	19.3	1.2	100.0
	남성	3.0	19.2	31.1	4.1	40.2	2.5	100.0
거주 지역	동부	16.2	20.9	30.8	4.8	25.9	1.5	100.0
	읍면부	33.9	17.2	24.4	9.1	14.2	1.2	100.0

서울시 거주자는 배우자 만남의 경로에서 친구·친척의 소개가 33.7%로 가장 많고, 종교 기관을 통해서 만나는 비율이 3.7%로 가장 드물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경향과 함께 하고 있다. 여성은 친구 또는 동료의 소개가 34.4%, 남성은 스스로가 3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만남은 여성 11.4%, 남성 3.6%로 여성이 더 많아 성별 간 차이가 있다. 특히 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비율은 만 24세 이하에서 47.1%로,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출신인 그룹에서 1순위로 나타나 서울 거주자의 전반적인 특징과 차이가 있다. 일본은 종교기관을 통해서 만났다는 비율이 32.0%로 다른 출신국적에 비해 매우 높다.

【 표 Ⅲ-34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배우자 만남 경로(서울)

(단위: %, 명)

구분		결혼 중개업체 (업자)를 통해서	가족 또는 친척의 소개로	친구 또는 동료의 소개로	종교 기관을 통해서	스스로	기타	합계
전체		9.0 (6,094)	21.6 (14,689)	33.7 (22,937)	3.7 (2,504)	30.8 (20,964)	1.3 (890)	100.0 (68,079)
성 별	여성	11.4	22.8	34.4	3.4	26.9	1.1	100.0
	남성	3.6	19.0	32.1	4.3	39.3	1.7	100.0
연 령	24세 이하	47.1	15.6	26.3	0.7	9.3	1.1	100.0
	25~29세	20.3	16.3	27.1	2.2	32.0	2.1	100.0
	30~34세	9.6	11.9	38.7	3.3	34.9	1.6	100.0
	35~39세	7.5	17.7	32.3	3.0	38.1	1.4	100.0
	40~49세	4.5	20.8	36.1	6.2	31.1	1.3	100.0
	50세 이상	5.3	30.7	32.9	2.5	27.7	1.0	100.0
출 신 국 적	중국	6.5	24.7	37.1	0.6	30.1	1.0	100.0
	중국(한국계)	4.7	29.1	35.2	0.9	29.5	0.6	100.0
	대만, 홍콩	2.9	10.5	31.7	2.1	49.4	3.4	100.0
	일본	2.0	4.7	22.3	32.0	36.9	2.0	100.0
	몽골	8.1	12.1	32.3	1.3	46.1	0.0	100.0
	베트남	46.5	14.5	31.9	0.0	4.6	2.5	100.0
	필리핀	24.8	15.3	22.9	17.4	18.9	0.8	100.0
	태국	2.0	16.3	14.3	18.3	43.0	6.1	100.0
	캄보디아	63.2	19.8	11.3	0.0	5.7	0.0	100.0
	우즈베키스탄	19.6	15.2	26.1	2.2	37.0	0.0	100.0
	러시아	2.7	5.3	47.8	2.7	41.6	0.0	100.0
	북미(미국, 캐나다)	2.0	12.2	30.9	4.0	48.2	2.6	100.0
	동남아 기타	5.0	3.3	16.7	8.3	65.0	1.7	100.0
	남부아시아	8.9	8.6	27.7	2.7	38.4	13.6	100.0
서유럽대양주	0.0	6.6	43.7	3.3	42.3	4.1	100.0	
기타	6.4	6.7	30.6	0.0	55.0	1.3	100.0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배우자가 결혼 상대방을 만나게 된 경로는 당사자의 답변과 비슷한 비율의 응답이 나오고 있으나 미묘한 차이가 있다. 당사자 여성이 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했다는 응답이 11.4%인데 반해 상대방 남성이 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했다는 응답은 12.6%로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은 결혼이민·귀화자의 배우자는 직접 중개업체를 상대하기 때문에 자신의 결혼 경로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반면 이민·귀화 당사자는 업체나 중개업자와 만나는 과정에

친인척이나 친구 등의 소개가 매개된 경우 이를 중개업자나 업체를 통한 만남이 아닌 지인을 통한 만남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sup>22)</sup>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부 간 연령차가 클수록 중개업체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 연령이 낮을수록 중개업체를 통한 결혼 비율이 높은 당사자 집단의 결과와 함께 해석해 보면, 20대의 결혼이민·귀화 여성과 40대 이상의 남성이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하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표 Ⅲ-35 결혼이민·귀화자 등 배우자의 상대방 만남 경로(서울)

(단위: %, 명)

구분		결혼 중개업체 (업자)를 통해서	가족 또는 친척의 소개로	친구 또는 동료의 소개로	종교 기관을 통해서	스스로	기타	합계
전체		9.6 (5,296)	17.8 (9,799)	34.2 (18,781)	4.1 (2,240)	34.3 (18,864)	0.0 (7)	100.0 (54,987)
성별	여성	3.0	18.0	31.1	4.5	43.3	0.0	100.0
	남성	12.6	17.7	35.5	3.9	30.3	0.0	100.0
부부간 연령차	5세 미만	3.5	18.6	31.1	6.4	40.3	0.0	100.0
	5~9세	5.3	18.0	39.4	3.1	34.2	0.1	100.0
	10~14세	12.9	19.3	38.8	1.6	27.4	0.0	100.0
	15~19세	31.2	15.3	32.9	0.9	19.7	0.0	100.0
	20세 이상	42.7	8.7	27.9	0.6	20.1	0.0	100.0
결혼 이민 · 귀화자 등의 출신 국적	중국	6.3	19.3	40.2	0.6	33.7	0.0	100.0
	중국(한국계)	4.3	25.0	37.9	1.0	31.8	0.0	100.0
	대만, 홍콩	1.9	10.8	35.0	1.6	50.7	0.0	100.0
	일본	1.8	7.1	20.5	29.8	40.8	0.0	100.0
	몽골	7.2	11.6	28.3	1.3	51.6	0.0	100.0
	베트남	49.8	14.4	29.9	0.0	5.8	0.0	100.0
	필리핀	23.6	14.6	22.1	14.3	25.4	0.0	100.0
	태국	1.9	16.3	14.4	17.4	50.0	0.0	100.0
	캄보디아	63.9	15.1	12.4	1.5	7.1	0.0	100.0
	우즈베키스탄	19.3	20.8	22.8	2.1	35.0	0.0	100.0
	러시아	2.9	2.6	45.4	2.9	46.2	0.0	100.0
	북미	1.8	13.1	29.8	5.2	50.0	0.0	100.0
	동남아 기타	4.2	3.8	15.2	9.5	65.6	1.7	100.0
	남부아시아	8.7	8.5	24.2	2.9	55.7	0.0	100.0
	서유럽대양주	0.0	7.7	41.3	3.6	47.5	0.0	100.0
기타	3.5	8.8	25.8	0.0	61.9	0.0	100.0	

22) 2013년 8월에 진행된 자문회의에서 나온 2012년 실태조사 참여 연구진의 발언 내용이다.

## (2) 혼인상태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유배우자가 84.6%로 가장 높았으며, 이혼·별거 > 미혼 > 사별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다시 전국적인 수치와 비교해 볼 때 전국의 유배우자 90.3%에 비해 서울은 그 비율이 낮으며 이혼·별거(4.5%), 미혼(3.3%), 사별(1.9%) 모두 전국 대비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서울 거주 다문화가족의 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녀 모두 유배우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나, 여성은 이혼·별거 > 사별 > 미혼 순인데 반해, 남성은 미혼 > 이혼·별거 > 사별 순으로 기타 귀화자 중 남성 미혼자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위 <표 III-28>에 의하면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배우자는 전체 98.8%가 유배우 상태로 여성의 97.5%, 남성의 99.4%가 유배우 상태로 결혼이민·귀화 당사자에 비해 유배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사별(0.3%)보다는 이혼·별거(0.9%)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이 사별(여성 0.7%, 남성 0.1%)과 이혼·별거(여성 1.8%, 남성 0.5%)에 처한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당사자와 배우자 그룹 모두에서 여성이 가족의 해체로 인한 어려움에 처할 위험이 보다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결혼이민·혼인귀화 등 당사자의 경우 유배우자와 미혼은 남성이 높고, 이혼·별거, 사별은 여성이 많은데, 30~34세에서 유배우자 비율이 92.6%로 높았으며, 50세 이상에서는 이혼·별거가 11.1%, 사별 9.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 출신은 이혼·별거와 사별 비율이 다른 국적 출신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미혼은 북미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남부아시아 출신자의 미혼비율은 0%로 해당 출신국 이민·귀화자는 대다수 결혼 이민 내지 혼인 귀화자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표 Ⅲ-36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혼인상태

(단위: %, 명)

구분		배우자 유	사별	이혼/별거	미혼	합계
전체		84.6 (60,504)	3.3 (2,384)	7.3 (5,191)	4.9 (3,474)	100 (71,553)
성별	여성	83.4	4.5	9.0	3.1	100.0
	남성	87.0	0.9	3.7	8.4	100.0
연령	24세 이하	63.5	0.0	0.0	36.5	100.0
	25~29세	87.0	0.2	1.3	11.5	100.0
	30~34세	92.6	1.2	1.9	4.3	100.0
	35~39세	91.5	0.9	5.7	1.9	100.0
	40~49세	87.2	1.0	9.7	2.1	100.0
	50세 이상	78.5	9.6	11.1	0.5	100.0
출신 국적	중국	80.7	5.2	9.3	4.8	100.0
	중국(한국계)	81.6	4.0	10.3	4.1	100.0
	대만, 홍콩	86.8	1.9	4.4	6.8	100.0
	일본	91.9	0.6	0.3	7.2	100.0
	몽골	97.3	0.0	2.7	0.0	100.0
	베트남	96.9	0.0	3.1	0.0	100.0
	필리핀	95.3	1.3	2.6	0.8	100.0
	태국	96.1	0.0	0.0	3.9	100.0
	캄보디아	100.0	0.0	0.0	0.0	100.0
	우즈베키스탄	100.0	0.0	0.0	0.0	100.0
	러시아	94.7	0.0	5.3	0.0	100.0
	북미(미국, 캐나다)	86.1	0.8	1.4	11.8	100.0
	동남아 기타	96.7	0.0	1.6	1.6	100.0
	남부아시아	97.0	0.0	3.0	0.0	100.0
	서유럽대양주	93.1	0.0	0.0	6.9	100.0
기타	79.6	1.1	4.8	14.5	100.0	

### (3) 가족관계 만족도

2012년 실태조사에서 서울 거주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배우자관계 만족도는 평균 4.21점이었으며, 전국 평균 4.16점보다 배우자 관계 만족도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다<sup>23)</sup>. 반면 자녀 관계 만족도는 평균 4.43점으로 전국 4.44점에 비해 약간 낮으며,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대한 만족도 모두 전국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우 만족의 응답이 높은 관계는 전국, 서울 모두 자녀와의 관계이며, 배우자 부모와 배우자 형제자매에 대한 불만족의 응답이 다른 관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37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가족관계 만족도(전국, 서울)

(단위: %, 점)

관계	년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배우자	전국	1.2	2.2	23.8	25.3	47.6	4.16
	서울	1.0	1.9	22.0	24.7	50.4	4.21
자녀	전국	0.8	1.4	14.7	19.2	64.0	4.44
	서울	0.6	1.0	16.7	18.2	63.5	4.43
배우자 부모	전국	2.9	4.9	34.9	23.0	34.3	3.81
	서울	2.6	4.4	32.8	22.9	37.3	3.88
배우자 형제자매	전국	3.2	5.3	37.5	23.2	30.8	3.73
	서울	2.9	4.7	34.1	23.3	35.0	3.83

배우자 만족도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평균은 4.13점, 남성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평균은 4.38점으로 여성의 배우자 만족도가 남성보다 낮으며, 평균(4.21점)보다도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배우자 만족도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50세 이상의 이혼·별거 비율이 높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매우 불만족+불만족'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연령대는 만 35~39세가 4.9%, 40~49세 4.2% 순으로 결국 50대의 높은 별거·이혼 비율은 누적된 불만의 결과가 표출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배우자 만족도에서 몽골은 3.89점, 동남아 기타 3.99점, 필리핀 및 우즈베키스탄 4.04점 순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자녀에 대한 만족도는 성별로 여성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평균은 4.40점, 남성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평균은 4.44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낮게 나타났다.

23) 2009년 실태조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배우자 만족도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김승권 외, 2010: 343)

혼이민·귀화자 등의 평균은 4.50점으로 여성의 자녀 관계 만족도가 남성보다 낮으며, 평균(4.43점)보다도 낮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체적으로 자녀 관계 만족도가 점차 감소하는데, 만 24세 이하에서 평균이 4.8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 50세 이상에서 4.1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50세 이상 이혼·별거 여성뿐 아니라 사별 여성의 경우도 친밀한 관계에서의 정서적 지지를 받게 될 여지가 떨어질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출신 국적 별로 동남아 기타와 중국이 자녀 관계 만족도가 다른 국적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는 여성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평균은 3.76점, 남성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평균은 4.12점으로 여성의 관계 만족도가 남성보다 낮으며, 평균(3.88점)보다도 낮다는 점에서 여성결혼이민·귀화자 가족의 갈등이 단순히 부부만의 문제가 아닌 가족 전반에 걸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만 24세 이하에서 평균이 4.0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가족 형성 초기 상호 이해를 위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러시아는 3.63점, 동남아 기타는 3.67점으로 다른 출신 국적에 비해 관계 만족도가 낮다.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 만족도에서 여성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평균은 3.70점, 남성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평균은 4.10점으로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낮으며, 평균(3.83점)보다도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만 25~29세에서 평균이 3.9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 24세 이하의 평균이 3.7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 만족도에서 몽골은 3.52점, 필리핀 3.61점으로 다른 국적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인 가족 관계 만족도는 서유럽 대양주와 북미 출신자 그룹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해당 국적 출신인의 경우 고소득 구간에 분포해 있고, 자가 거주율이 높으며 배우자 만남의 경로에서 스스로 만났다는 응답의 비율과 친구·동료의 소개로 만났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자매에 대한 출신국적에 따른 만족도는 <표 III-18>의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해당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한국인 일반의 조사에서도 여성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Ⅲ-38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가족관계 만족도(서울)

(단위: 점)

구분		배우자	자녀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전체		4.21	4.43	3.88	3.83
성별	여성	4.13	4.40	3.76	3.70
	남성	4.38	4.50	4.12	4.10
연령	24세 이하	4.35	4.80	3.81	3.74
	25~29세	4.35	4.69	4.07	3.95
	30~34세	4.26	4.55	3.78	3.82
	35~39세	4.19	4.60	3.92	3.76
	40~49세	4.19	4.26	3.83	3.82
	50세 이상	4.16	4.13	3.92	3.86
출신 국적	중국	4.11	4.26	3.79	3.75
	중국(한국계)	4.25	4.44	3.99	3.95
	대만, 홍콩	4.20	4.51	3.84	3.79
	일본	4.35	4.56	3.85	3.75
	몽골	3.89	4.39	3.70	3.52
	베트남	4.20	4.65	3.73	3.64
	필리핀	4.04	4.55	3.71	3.61
	태국	4.35	4.36	3.91	3.86
	캄보디아	4.31	4.55	4.06	3.90
	우즈베키스탄	4.04	4.54	3.90	3.79
	러시아	4.16	4.52	3.63	3.78
	북미(미국, 캐나다)	4.51	4.64	4.20	4.16
	동남아 기타	3.99	4.15	3.67	3.64
	남부아시아	4.22	4.44	3.84	3.66
	서유럽대양주	4.56	4.54	4.18	4.16
기타	4.32	4.56	3.65	3.64	

2012년 실태조사와 2012년 사회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족과 한국민 일  
반의 가족관계 만족도를 비교하면 모든 관계에서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모든 관계에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와 사회조사 모두 여성의  
관계만족도가 남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장 만족도가 높은 관계  
는 2012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나타난 남성의 자녀에 대한 만족도이고, 만족도  
가 낮은 관계는 사회조사에 나타난 여성의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도였다. 2012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도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관계 만족도만을 놓고 볼 때 전주 한국민의 가족과 다문화가족 사이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표 Ⅲ-39 】 가족관계 만족도(2012년 실태조사, 2012년 사회조사)

(단위: %,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평균	
배우자	2012년 실태조사	전체	1.0	1.9	22.0	24.7	50.4	100.0	4.21
		여성	1.1	2.4	24.6	25.9	46.0	100.0	4.13
		남성	0.8	1.0	16.9	22.2	59.1	100.0	4.38
	2012년 사회조사	전체	2.3	5.6	26.6	35.0	30.5	100.0	3.86
		여성	3.4	8.0	29.4	35.2	24.0	100.0	3.68
		남성	1.2	3.2	23.7	34.9	36.9	100.0	4.03
자녀	2012년 실태조사	전체	0.6	1.0	16.7	18.2	63.5	100.0	4.43
		여성	0.5	0.8	18.4	18.5	61.7	100.0	4.40
		남성	0.9	1.5	12.2	17.3	68.1	100.0	4.50
	2012년 사회조사	전체	0.7	3.6	22.2	38.2	34.8	100.0	4.03
		여성	0.6	3.9	22.9	39.1	33.6	100.0	4.01
		남성	0.7	3.3	22.5	37.2	36.3	100.0	4.05
배우자 부모	2012년 실태조사	전체	2.6	4.4	32.8	22.9	37.3	100.0	3.88
		여성	3.3	5.7	35.1	23.8	32.0	100.0	3.76
		남성	1.3	1.7	28.3	21.0	47.7	100.0	4.12
	2012년 사회조사	전체	2.6	6.6	39.6	30.9	20.2	100.0	3.59
		여성	4.4	9.8	41.7	28.7	15.3	100.0	3.41
		남성	1.0	3.8	37.8	32.9	24.6	100.0	3.76
배우자 형제 자매	2012년 실태조사	전체	2.9	4.7	34.1	23.3	35.0	100.0	3.83
		여성	3.5	5.7	37.6	23.4	29.7	100.0	3.70
		남성	1.5	2.4	26.7	23.3	46.1	100.0	4.10
	2012년 사회조사	전체	2.8	8.0	46.3	28.5	14.3	100.0	3.43
		여성	4.2	10.4	47.3	26.2	12.0	100.0	3.31
		남성	1.4	5.4	45.2	31.0	16.9	100.0	3.57

결혼이민·귀화자 등 배우자의 가족관계 만족도를 살펴보면 결혼 상대방에 대한 만족도는 남성인 배우자의 만족도가 4.28점으로 결혼이민·귀화자 당사자 여성(4.13

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당사자 남성의 만족도(4.38점)에 비해 배우자 여성의 만족도(4.27점)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관계 만족도는 남성의 만족도가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에 대한 만족도는 당사자 여성의 만족도(4.40점)에 비해 배우자 남성의 만족도(4.30점)가 낮게, 당사자 남성의 만족도(4.50점) 대비 배우자 여성의 만족도(4.51점)가 높게 나타나 당사자 그룹과 배우자 그룹 모두에서 여성의 만족도가 높다. 상대방 부모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남성 당사자(4.12점)에 비해 여성 배우자(4.04점)의 만족도가 떨어지기는 하나, 여성 당사자(3.76점)와 남성 배우자(3.91점) 그룹에 비해서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 당사자의 상대방 부모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상대방 형제·자매에 대한 만족도는 당사자 여성의 만족도(3.70점)에 비해 남성 배우자의 만족도(3.91점)가 높고, 당사자 남성의 만족도(4.10점)에 비해 배우자 여성의 만족도(3.97점)가 낮아 상대방 가족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 그룹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40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배우자의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평균
결혼 상대방과의 관계	전체	0.7 (384)	1.5 (788)	20.0 (10,873)	25.1 (13,664)	52.7 (28,640)	100.0 (54,349)	4.28
	여성	0.9	1.3	19.9	25.5	52.5	100.0	4.27
	남성	0.6	1.5	20.1	25.0	52.8	100.0	4.28
자녀와의 관계	전체	0.5 (159)	1.2 (405)	19.4 (6,505)	19.8 (6,630)	59.0 (19,752)	100.0 (33,451)	4.36
	여성	0.4	0.9	11.5	21.9	65.2	100.0	4.51
	남성	0.5	1.3	22.3	19.1	56.8	100.0	4.30
상대방 부모와의 관계	전체	1.1 (496)	3.7 (1,643)	33.4 (14,631)	22.4 (9,830)	39.3 (17,229)	100.0 (43,829)	3.95
	여성	1.0	4.2	28.4	22.9	43.6	100.0	4.04
	남성	1.2	3.6	35.4	22.2	37.6	100.0	3.91
상대방 형제 자매와의 관계	전체	1.2 (595)	2.8 (1,380)	35.9 (17,753)	22.5 (11,129)	37.7 (18,661)	100.0 (49,518)	3.93
	여성	1.2	2.1	35.0	22.3	39.5	100.0	3.97
	남성	1.2	3.1	36.2	22.5	36.9	100.0	3.91

#### (4) 가족 내 역할에 대한 인식

‘남자는 돈을 벌고 여자는 집안일을 하는 것이 좋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어린 아이의 엄마가 일을 하면 아이에게 좋지 않다’,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 ‘부부라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보통이다’ 3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구성해 그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주 지역별로 부부의 성별 역할 분리에 대한 호응도는 읍면부에 비해 동부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주양육자 역할에 대한 호응도는 지역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분담에 대한 동의는 동부 거주자가 읍면부 거주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부부 수입의 별도 관리에 대해서는 특히 동부 거주자의 호응도가 낮게 응답되었다.

표 Ⅲ-41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가족 내 역할에 대한 인식(전국)

(단위: 점)

구분	성별 역할 분리	여성의 사회참여와 자녀	가사분담	부부수입 별도 관리
전체	2.79	3.42	3.85	2.41
동부	2.80	3.42	3.86	2.36
읍면부	2.76	3.41	3.82	2.59

‘남자는 돈을 벌고 여자는 집안일을 하는 것이 좋다’는 질문에 대한 서울거주자 응답의 평균은 2.72점으로, 맞벌이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성(31.2%)과 남성(30.6%) 모두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여성과 남성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매우 그렇다+그렇다’라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어린 아이의 엄마가 일을 하면 아이에게 좋지 않다’는 질문에 대한 평균은 3.38점으로, 어머니의 양육 부담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31.2%)과 남성(29.6%) 모두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한편으로는 남녀 모두 ‘매우 그렇다+그렇다’는 응답이 ‘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많다.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호응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 여성(59.3%)과 남성(52.8%) 모두 ‘매우 그렇다+그렇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

으나, ‘부부라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평균은 2.29점으로 호응도가 네 개 항목 중 가장 낮았으며, 여성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평균 2.34점, 남성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평균 2.19점으로 여성의 동의 정도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맞벌이와 그로 인한 가사분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여성을 주양육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부부의 수입을 별도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낮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맞벌이를 할 경우 가사 분담을 동등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데 대한 호응도가 높는데 반해 부부 수입별도 관리에 대해서는 호응도가 낮아 부부 경제공동체로서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II-42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가족 내 역할에 대한 인식(서울)

(단위: 점)

구분		성별 역할 분리	여성의 사회참여와 자녀	가사분담	부부수입 별도 관리
전체		2.72	3.38	3.84	2.29
성별	여성	2.72	3.37	3.87	2.34
	남성	2.73	3.39	3.77	2.19
연령	24세 이하	2.98	3.39	3.70	2.80
	25~29세	2.64	3.47	3.80	2.23
	30~34세	2.52	3.26	3.90	2.33
	35~39세	2.76	3.47	3.98	2.23
	40~49세	2.66	3.41	3.91	2.29
	50세 이상	2.82	3.33	3.69	2.27
혼인 상태	유배우	2.74	3.40	3.85	2.28
	사별	2.52	3.05	3.60	2.16
	이혼/별거	2.61	3.28	3.76	2.56
출신 국적	중국	2.60	3.20	3.76	2.30
	중국(한국계)	2.85	3.62	3.96	2.04
	대만, 홍콩	2.82	3.52	3.68	2.27
	일본	2.96	3.47	3.79	2.54
	몽골	2.33	3.21	3.82	2.28
	베트남	2.79	3.33	3.69	2.63
	필리핀	2.74	3.47	3.81	2.56
	태국	2.90	3.69	3.84	2.58
	캄보디아	2.99	3.71	3.58	2.60
	우즈베키스탄	2.63	3.22	4.00	2.46
	러시아	2.91	3.35	3.73	2.66
	북미	2.54	3.10	3.96	2.50
	동남아 기타	3.07	3.70	3.59	2.77
	남부아시아	2.50	3.22	3.95	2.57
	서유럽대양주 기타	2.17	2.85	3.98	2.51
기타	2.39	3.34	3.92	2.58	

한편 결혼이민·귀화자의 상대방인 배우자 그룹의 가족 내 역할인식에 대한 응답의 결과를 보면 성별 역할 분리에 대한 호응도가 배우자 남성에게서 2.91점으로 당사자 여성 2.72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가 자녀에게 좋지 않다는 의견 또한 당사자 여성의 호응도가 3.37점이었던 데 반해 배우자 남성은 3.46 점,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에 대한 호응도에서 여성 당사자가 3.87점이었던 데 반해 남성은 3.53점으로 낮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 부부 수입의 별도 관리에서는 여성 결혼이민·혼인귀화자 등의 호응도가 2.34점인데 반해 배우자 남성의 호응도는 2.29 점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결혼이민·혼인귀화자 남성과 한국인 여성 배우자의 항목별 호응도는 성별역할분리에 대한 호응도에서 당사자 2.73, 한국인 여성 배우자 2.74, 여성의 사회참여가 자녀에게 좋지 않다는 항목에 대한 호응도에서 당사자 3.37, 한국인 여성배우자 3.38, 가사분담에 대한 호응도 남성 당사자 3.77, 여성 배우자 3.94, 부부 수입별도관리에 대한 호응도 남성 2.19, 여성 2.16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한국인 남성배우자와 결혼이주·혼인귀화 여성 부부에 비해 남녀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서 한국인 남성 배우자가 보다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부 수입별도관리 항목에서는 한국인 여성 배우자가 별도 관리에 대한 호응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표 Ⅲ-43 】 결혼이민·귀화자 등 배우자의 가족 내 역할에 대한 인식(서울)

(단위: 점)

구분		성별 역할 분리	여성의 사회참여와 자녀	가사분담	부부수입 별도 관리
전체		2.86	3.44	3.66	2.25
성별	여성	2.74	3.38	3.94	2.16
	남성	2.91	3.46	3.53	2.29



### 3) 가족의 분화

#### (1) 부부세대

한국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 다른 형태의 가족으로 화제의 중심에 오른 것이 다문화가족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다문화 사회론이 제기된 지 10여년, 이제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두기에는 한계가 있을 만큼 다양한 형태로 분화하고 있다.

2012년 실태조사에서 둘 다 초혼이라는 응답이 67.1%로 가장 높았으나, 둘 다 재혼인 경우도 17.9%를 차지하고 있다. 거주 지역별로 읍면부가 둘 다 초혼인 비율이 높고, 둘 다 재혼인 비율은 동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본인이 재혼이고 배우자가 초혼인 경우도 동부에서 높게 나타나 이러한 특성들이 서울의 경우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되는 바이다.

표 III-44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초혼 여부(전국)

(단위: %)

구분		둘 다 초혼	본인 초혼, 배우자 재혼	본인 재혼, 배우자 초혼	둘 다 재혼	합계
전체		67.1	9.3	5.7	17.9	100.0
성별	여성	66.5	9.8	6.0	17.7	100.0
	남성	69.8	7.1	4.3	18.8	100.0
거주 지역	동부	66.1	8.3	6.0	19.5	100.0
	읍면부	70.4	12.6	4.5	12.4	100.0

2012년 실태조사 결과 재혼에 의한 가족의 형성이 2009년 실태조사에 줄어들긴 하였으나, 서울 거주 다문화가족의 경우 둘 다 초혼인 경우가 전국대비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둘 다 재혼인 경우는 전국 대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결혼이민·귀화 당사자가 남성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재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국 18.8%인데 반해 서울은 19.5%, 결혼 이민·귀화 당사자가 여성인 경우는 둘 다 재혼 응답률이 전국 17.7%에 비해 서울은 24%로 둘 다 재혼인 가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30대 이후 연령이 높아질수록 재혼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초혼 가족에서 출생한 자녀 등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관계로 인해 가족 간 친밀성의 문제가 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결혼이민·혼인 귀화자 등의 출신 국적으로 본 재혼 가족의 특성은 서울 거주 다문화가족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중국계와 함께 몽골, 러시아 출신인 중 40%이상이 재혼가족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 출신인의 경우 둘 다 재혼인 경우의 비중이 배우자나 당사자 둘 중 하나가 재혼인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나, 러시아 출신인은 본인은 초혼이면서 배우자가 재혼인 비율과 둘 다 재혼인 비율이 모두 20%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표 III-45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초혼 여부(서울)

(단위: %, 명)

구분		둘 다 초혼	본인 초혼, 배우자 재혼	본인 재혼, 배우자 초혼	둘 다 재혼	합계
전체		65.3 (37,613)	6.8 (3,907)	5.4 (3,119)	22.5 (12,938)	100.0 (57,577)
성별	여성	61.9	7.5	6.6	24.0	100.0
	남성	72.1	5.4	3.0	19.5	100.0
연령	24세 이하	80.1	17.6	0.0	2.2	100.0
	25~29세	86.3	12.3	0.8	0.6	100.0
	30~34세	84.7	8.2	4.1	3.0	100.0
	35~39세	72.4	8.2	6.2	13.2	100.0
	40~49세	53.5	5.6	8.3	32.6	100.0
	50세 이상	53.1	2.3	5.2	39.5	100.0
출신 국적	중국	55.6	5.9	7.7	30.8	100.0
	중국(한국계)	57.1	3.0	6.1	33.8	100.0
	대만, 홍콩	96.3	0.4	1.7	1.6	100.0
	일본	82.9	8.6	2.1	6.5	100.0
	몽골	60.1	8.5	10.0	21.4	100.0
	베트남	73.7	19.7	0.0	6.6	100.0
	필리핀	77.0	18.7	2.8	1.4	100.0
	태국	79.6	10.2	2.0	8.1	100.0
	캄보디아	76.3	19.2	3.0	1.5	100.0
	우즈베키스탄	77.8	15.6	2.2	4.4	100.0
	러시아	50.5	25.2	2.8	21.5	100.0
	북미(미국, 캐나다)	92.1	1.7	4.3	1.9	100.0
	동남아 기타	79.8	16.5	0.0	3.7	100.0
	남부아시아	61.9	26.5	5.8	5.8	100.0
	서유럽대양주	84.5	1.2	8.9	5.4	100.0
기타	86.0	7.0	3.5	3.5	100.0	

한편 결혼이민·귀화자의 상대방인 배우자 또한 전국 대비 서울의 초혼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배우자 남성의 재혼 응답자가 30.1%를 점하고 있어 결혼이주·귀화 여성과 재혼인 한국인 남성의 결혼이 결혼이주·귀화 남성과 한국인 여성의 결혼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재혼 가족에게 예측되는 문제는 배우자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구간, 연령 50세 이상 부부 간 연령차가 커질수록 재혼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데 있다. 즉 저소득, 고연령 남성과 결혼이민·귀화 여성 부부는 남녀 간 평균 기대 수명을 생각할 때 향후 여성이 경제적 기반이 미약한 상태에서 단독가구 내지 한부모 가족으로 남게 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다문화가족 정책의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II-46】 결혼이민·귀화자 등 배우자의 초혼 여부(서울)

(단위: %, 명)

구분		초혼	재혼	합계
전국	전체	74.0 (173,435)	26.0 (61,070)	100.0
	여성	75.2	24.8	100.0
	남성	73.7	26.3	100.0
서울	전체	71.9 (39,517)	28.1 (15,470)	100.0
	여성	76.2	23.8	100.0
	남성	69.9	30.1	100.0
월평균가 구소득	50만원 미만	76.2	23.8	100.0
	50~100만원 미만	55.3	44.7	100.0
	100~200만원 미만	68.9	31.1	100.0
	200~300만원 미만	71.1	28.9	100.0
	300~400만원 미만	72.7	27.3	100.0
	400~500만원 미만	76.4	23.6	100.0
	500~600만원 미만	76.6	23.4	100.0
	600~700만원 미만	96.5	3.5	100.0
	700만원 이상	86.9	13.1	100.0
연령	20~29세	98.5	1.5	100.0
	30~39세	90.0	10.0	100.0
	40~49세	76.9	23.1	100.0
	50~59세	52.1	47.9	100.0
	60세 이상	48.9	51.1	100.0
부부 간 연령 차	5세 미만	79.9	20.1	100.0
	5~9세	68.8	31.2	100.0
	10~14세	63.8	36.2	100.0
	15~19세	57.5	42.5	100.0
	20세 이상	58.3	41.7	100.0

## (2) 자녀세대 : 재혼 가족의 자녀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새로이 결혼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확대·다양화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하나의 사례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적인 데이터로 볼 때 결혼이민·귀화자의 이전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 수 평균은 0.6명으로 서울(0.62명)이 전국적인 평균보다 많으며, 평균 자녀 수에서 동부와 읍면부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이전 결혼에서 자녀가 없다고 답한 읍면부 거주자(48.6%)와 동부 거주자(46.3%) 대비 서울 거주자의 49.5%가 이전 결혼에서 출생 자녀가 있다(전기택 외, 2013)고 답해 전 배우자 사이의 자녀 유무가 도시 거주 결혼이민·귀화자의 특성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표 III-47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 유무(전국)

(단위: %, 명)

구분		자녀 없음	자녀 있음			합계	평균
			1명	2명	3명 이상		
전체		46.7 (31,308)	43.7 (29,346)	8.5 (5,713)	1.1 (718)	100.0 (67,085)	0.6
성별	여성	45.5	45.2	8.4	0.9	100.0	0.6
	남성	52.2	36.6	9.1	2.0	100.0	0.6
거주 지역	동부	46.3	44.1	8.5	1.1	100.0	0.6
	읍면부	48.6	42.1	8.4	0.9	100.0	0.6

서울거주 결혼이민·귀화자와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1명이 39.8%, 2명이 9.8%, 3명 이상이 0.8% 순으로 평균 0.62명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 50.5%, 남성 46.3%였다. 1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여성 39.7%, 남성 40.2%, 2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여성 8.8%, 남성 13.1%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 상태별로 자녀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사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혼·별거, 유배우자 순으로 자녀가 1명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유배우자가 41.2%로 가장 높고, 이혼·별거 36.6%, 사별 13.0% 순이었다.

출신국별로 자녀가 없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일본이 72.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북미로 70.6%였다. 자녀가 1명 있는 경우는 몽골 > 베트남 > 중국 순이며,

자녀가 2명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태국 > 동남아 기타 > 남부아시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는 우즈베키스탄이 33.3%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이 1.67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태국 1.60명, 동남아 기타 1.01명, 남부아시아 및 몽골 1.00명 순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서울 거주자의 60% 이상을 점하고 있는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 출신인 중 절반 가량이 자녀가 없다는 응답을 하고 있고, 평균 자녀수가 0.64명(서울 평균 0.62명)이라는 점에서 서울 거주 결혼이민·혼인 귀화자 등의 전배우자 사이에서의 자녀의 특성은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 출신인들이 대표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 표 III-48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 유무(서울)

(단위: %, 명)

구분		자녀 없음	자녀 있음			합계	평균
			1명	2명	3명 이상		
전체		49.5 (9,647)	39.8 (7,764)	9.8 (1,912)	0.8 (163)	100.0 (19,486)	0.62
성별	여성	50.5	39.7	8.8	1.0	100.0	0.60
	남성	46.3	40.2	13.1	0.4	100.0	0.68
연령	24세 이하	0.0	100.0	0.0	0.0	100.0	1.00
	25~29세	8.0	54.9	37.1	0.0	100.0	1.29
	30~34세	63.7	36.3	0.0	0.0	100.0	0.36
	35~39세	42.2	52.0	5.8	0.0	100.0	0.64
	40~49세	30.8	59.4	8.7	1.0	100.0	0.80
	50세 이상	68.2	18.8	12.1	0.9	100.0	0.46
혼인 상태	유배우	47.8	41.2	10.3	0.7	100.0	0.64
	사별	76.7	13.0	10.3	0.0	100.0	0.34
	이혼/별거	55.1	36.6	6.4	1.9	100.0	0.55
출신 국적	중국	47.3	42.2	9.9	0.6	100.0	0.64
	중국(한국계)	52.3	38.4	8.7	0.5	100.0	0.57
	대만, 홍콩	66.7	13.3	20.1	0.0	100.0	0.53
	일본	72.2	3.8	20.3	3.8	100.0	0.56
	몽골	17.4	65.2	17.4	0.0	100.0	1.00
	베트남	30.0	60.0	10.0	0.0	100.0	0.80
	필리핀	50.0	33.3	0.0	16.7	100.0	0.83
	태국	0.0	40.0	60.0	0.0	100.0	1.60
	캄보디아	66.7	33.3	0.0	0.0	100.0	0.33
	우즈베키스탄	33.3	0.0	33.3	33.3	100.0	1.67
	러시아	48.3	41.4	0.0	10.3	100.0	0.72
	북미	70.6	18.6	3.5	7.3	100.0	0.47
	동남아 기타	49.7	0.0	50.3	0.0	100.0	1.01
	남부아시아	50.0	0.0	50.0	0.0	100.0	1.00
서유럽대양주 기타	51.1	32.6	16.3	0.0	100.0	0.65	
	0.0	100.0	0.0	0.0	100.0	1.00	

한편 재혼인 결혼이민·귀화자의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자녀가 있다는 응답에서 서울 거주자는 전국, 읍면부, 동부 대비 모두 낮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배우자의 경우 이민·귀화 당사자에 비해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결혼이민·귀화자의 상대방 여성의 경우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국 서울 모두 남성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아이가 있는 결혼이민·귀화자가 아이가 없는 상대방과 만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 표 Ⅲ-49 ■ 결혼이민·귀화자 등 상대방의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 유무(서울)

(단위: %, 명)

구분		자녀 있음	자녀 없음	합계
전국	전체	49.0(29,913)	51.0(31,156)	100.0(61,070)
	여성	46.5	53.5	100.0
	남성	49.5	50.5	100.0
거주 지역	읍면부	49.1	50.9	100.0
	동부	49.0	51.0	100.0
서울	전체	45.0(6,960)	55.0(8,511)	100.0(15,470)
	여성	44.2	55.8	100.0
	남성	45.3	54.7	100.0

### (3) 가족 거주 형태 : 배우자 동거 여부

배우자가 있다고 해서 모든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녀의 교육이나 직장 생활 등으로 인해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비동거의 경향은 전반적으로 도시지역으로 갈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다고 하는 응답이 전국 97.1%인데, 읍면부에서는 98.2%, 동부에서는 96.7%로 나타나고 있다. 비동거의 사유 또한 읍면부와 동부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읍면부에서 비동거 사유로 직장을 든 비율이 74.4%, 자녀교육을 든 비율이 1.9%인 반면, 동부에서는 55%가 직장을 들고 있고, 6.1%가 자녀 교육을 들고 있다(전기택 외, 2013).

서울 거주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배우자 동거 여부를 살펴보면 동거하고 있는 비율이 95.8%였으며, 성별로는 여성(96.2%)이 남성(95.1%)보다 배우자와의 동거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특징은 만 30~34세 동거 비율이 9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후 연령이 증가하면서 동거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적별로는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가 배우자와의 동거 비율이 100.0%로 나타났으며, 일본 99.4%, 대만·홍콩 99.2% 순이었다. 중국(한국계) 출신은 93.1%로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비율이 다른 출신 국적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유배우자의 비동거 사유는 직장(일터)이 5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성은 직장(일터) 때문에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는다는 응답이 73.7%로 남성 33.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만 24세 이하에서는 직장(일터)때문이 100.0%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고, 만 40~49세에서는 자녀교육 때문에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는다는 비율이 21.1%로 다른 출신국적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출신국적에 따라 배우자와의 비동거 이유를 살펴보면 직장(일터) 때문에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는다는 응답은 일본, 몽골, 베트남, 남부아시아, 기타가 100.0%로 나타났으며, 자녀교육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서유럽대양주 38.0%, 북미(미국, 캐나다) 30.2%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50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배우자 동거 여부(서울)

(단위: %, 명)

구분	동거	비동거	비동거 사유			합계	
			직장(일터)	자녀교육	기타		
전체	95.8 (57,988)	4.2 (2,516)	57.5 (1,446)	5.9 (150)	36.6 (919)	100 (60,504)	
성별	여성	96.2	3.8	73.7	2.0	24.4	100.0
	남성	95.1	4.9	33.0	12.0	55.0	100.0
연령	24세 이하	98.9	1.1	100.0	0.0	0.0	100.0
	25~29세	97.1	2.9	83.2	0.0	16.8	100.0
	30~34세	99.1	0.9	18.4	0.0	81.6	100.0
	35~39세	96.6	3.4	82.7	0.0	17.3	100.0
	40~49세	96.1	3.9	55.2	21.1	23.7	100.0
	50세 이상	92.5	7.5	49.9	0.0	50.1	100.0
출신국적	중국	95.5	4.5	68.8	6.2	24.9	100.0
	중국(한국계)	93.1	6.9	47.3	4.4	48.3	100.0
	대만, 홍콩	99.2	0.8	50.0	0.0	50.0	100.0
	일본	99.4	0.6	100.0	0.0	0.0	100.0
	몽골	98.6	1.4	100.0	0.0	0.0	100.0
	베트남	98.7	1.3	100.0	0.0	0.0	100.0
	필리핀	97.9	2.1	66.7	0.0	33.3	100.0
	북미(미국, 캐나다)	97.8	2.2	28.2	30.2	41.6	100.0
	동남아 기타	94.9	5.1	66.7	0.0	33.3	100.0
	남부아시아	97.2	2.8	100.0	0.0	0.0	100.0
	서유럽대양주	97.0	3.0	24.1	38.0	38.0	100.0
	기타	98.6	1.4	100.0	0.0	0.0	100.0

한편 배우자 그룹이 결혼이민·귀화자 등과 동거하고 있는 답변은 전체 99.1%가 동거라 답해 결혼이민·귀화자보다 동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인 배우자에 비해 남성 배우자의 동거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배우자 그룹의 비동거 사유의 특징은 당사자와 달리 자녀 교육으로 인한 비동거가 없다는 점이다. 직장으로 인한 비동거의 비율이 당사자 집단보다 높게 나타나고 특히 배우자 여성에게서 직장으로 인한 비동거 사유 응답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표 Ⅲ-51 배우자의 결혼이민·귀화자 등과 동거 여부(서울)

(단위: %, 명)

구분	동거	비동거	비동거 사유			합계
			직장(일터)	자녀교육	기타	
전체	99.1 (53,840)	0.9 (510)	73.7 (375)	0.0 (0)	26.3 (134)	100.0 (54,349)
여성	97.8	2.2	81.4	0.0	18.6	100.0
남성	99.6	0.4	55.9	0.0	44.1	100.0

#### (4) 이혼·별거 전 혼인지속기간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이혼·사별까지의 기간을 살펴보면 5~10년 미만이 41.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3년 미만이 18.6%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동부의 평균 혼인지속기간이 7년으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으나, 3년 미만의 혼인 기간을 유지한다고 답한 비율에서는 오히려 읍면부(20.6%)의 응답률이 동부(18.5%)보다 높게 나타나 이혼·사별 전 혼인 유지 기간에 거주 지역에 따른 특성이 두드러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1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성별에 따른 차가 뚜렷한데, 여성 결혼이민·혼인 귀화자의 9.6%만이 해당 구간에 응답한 반면 남성은 22.8%가 응답하고 있어 남성 당사자의 경우 혼인 유지 기간에 따른 이혼·사별의 비율이 결혼 3년 미만과 15년 이상 사이에 큰 차가 없으나, 여성은 3년 미만의 응답률이 15년 이상의 두배 가까이 된다.



Ⅲ 표 Ⅲ-52 Ⅲ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이혼·사별까지의 기간(전국)

(단위: %, 년)

구분		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년 이상	평균
전국		18.6 (2,375)	16.6 (2,110)	41.1 (5,238)	12.2 (1,554)	11.6 (1,473)	7.1
성별	여성	18.3	15.6	45.3	11.2	9.6	6.7
	남성	20.4	22.4	16.8	17.6	22.8	9.4
거주 지역	동부	18.5	16.6	41.5	11.9	11.5	7.0
	읍면부	20.6	15.8	34.2	16.9	12.5	8.1

서울 거주 결혼이민·혼인 귀화자가 배우자와 이혼·별거한 경우 혼인지속기간은 평균 7.42년으로, 5~10년 미만이 45.7%로 가장 높고, 15년 이상이 12.8%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여성은 5~10년 미만이 50.1%로 가장 많았으며, 남성은 15년 이상이 25.3%로 가장 많다. 이혼·별거 전 평균 혼인지속기간은 여성이 7.06년, 남성이 9.26년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만 50세 이상이 9.05년으로 가장 길며, 만 25~29세가 2.64년으로 가장 짧다. 출신국적 별로는 대만, 홍콩이 평균 13.25년, 북미가 평균 12.51년 순으로 긴 반면 남부아시아가 평균 4.00년, 필리핀이 평균 4.25년 순으로 혼인지속기간이 가장 짧다.

【 표 Ⅲ-53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결혼 후 이혼·사별까지의 기간(서울)

(단위: %, 명)

구분		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년 이상	합계	평균
전체		13.3 (692)	16.3 (847)	45.7 (2,375)	11.8 (612)	12.8 (665)	100.0 (5,191)	7.42
성별	여성	12.7	14.9	50.1	11.9	10.3	100.0	7.06
	남성	16.5	23.3	23.6	11.4	25.3	100.0	9.26
연령	25~29세	35.7	64.3	0.0	0.0	0.0	100.0	2.64
	30~34세	16.6	66.5	16.9	0.0	0.0	100.0	6.15
	35~39세	30.2	30.5	30.4	1.3	7.6	100.0	4.70
	40~49세	12.3	15.8	49.7	14.3	7.9	100.0	6.65
	50세 이상	8.9	12.6	46.4	12.4	19.8	100.0	9.05
출신국적	중국	12.4	22.2	38.3	11.1	16.0	100.0	7.45
	중국(한국계)	14.2	12.3	53.5	11.9	8.1	100.0	7.00
	대만, 홍콩	0.0	0.0	30.5	16.7	52.7	100.0	13.25
	일본	0.0	0.0	0.0	100.0	0.0	100.0	11.00
	몽골	0.0	0.0	50.0	50.0	0.0	100.0	8.00
	베트남	20.0	0.0	80.0	0.0	0.0	100.0	5.80
	필리핀	50.0	0.0	50.0	0.0	0.0	100.0	4.25
	북미(미국, 캐나다)	15.5	0.0	41.2	15.5	27.8	100.0	12.51
	동남아 기타	0.0	0.0	0.0	100.0	0.0	100.0	10.00
	남부아시아	0.0	100.0	0.0	0.0	0.0	100.0	4.00
기타	0.0	22.7	0.0	22.7	54.5	100.0	15.00	

### (5) 이혼·별거 이유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이혼·별거 이유를 살펴보면 성격 차이가 48.1%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격 차이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문제를 원인으로 꼽은 비율도 남성 13%에 비해 여성은 6%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여성의 23.3%는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들어 같은 이유를 꼽은 남성이 5.9%인 점과 대조된다. 지역별로는 읍면부가 외도, 음주 및 도박, 심각한 정신 장애 등의 이유를 꼽은 비율이 동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54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이혼·별거 이유(전국)

(단위: %)

구분	외도	성격 차이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경제적 무능력	학대와 폭력	음주와 도박	심각한 정신 장애 및 기타	배우자 가출	기타	
전국	5.1 (662)	48.1 (6,137)	7.0 (891)	20.7 (2,641)	4.9 (627)	5.9 (748)	0.8 (105)	3.1 (548)	4.3 (548)	
성별	여성	5.2	46.0	6.0	23.3	5.8	6.4	1.0	2.5	3.9
	남성	4.5	60.7	13.0	5.9	0.0	2.6	0.0	6.8	6.5
거주 지역	동부	4.9	49.0	6.8	20.7	5.0	5.6	0.6	3.2	4.2
	읍면부	7.6	35.4	9.9	21.1	4.0	10.0	3.4	2.4	6.2

서울거주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이혼·별거 또한 성격차이로 인한 경우가 50.9%를 차지해 가장 많으며, 경제적 무능력 17.6%, 기타 5.8%, 음주와 도박 5.7%, 학대와 폭력 5.5%, 외도 5.3%, 배우자 가출 3.0%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남성 모두 성격 차이에서 최대 응답률을 보이고 있고, 학대와 폭력, 음주와 도박은 여성만이 원인으로 들고 있으며, 경제적 무능력도 여성의 응답률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남성은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및 배우자 가출을 이유로 든 비율이 여성에 비해 높다.

만 25~29세는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이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 무능력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만 30세 이상부터는 대체적으로 1위 성격차이, 2위 경제적 무능력 순으로 나타났으며, 3위는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었다. 이혼·별거 이유 3위는 연령대별로 만 30~34세는 외도, 만 35~39세는 배우자의 가출, 만 40~49세는 음주와 도박, 만 50세 이상은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중국계는 성격차이, 경제적 무능력을 꼽고 있으며, 몽골은 다른 출신국적에 비해 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배우자 가출을 높게 응답하고 있는데 특히 필리핀 출신인은 학대와 폭력을 이유로 든 비율도 25%에 달해 가정폭력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5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이혼·별거 이유(서울)

(단위: %, 명)

구분	외도	성격 차이	배우자 가족과 갈등	경제적 무능력	학대와 폭력	음주와 도박	심한 정신 장애 및 기타	배우자 가출	기타	합계	
전체	5.3 (275)	50.9 (2,640)	6.0 (311)	17.6 (915)	5.5 (286)	5.7 (294)	0.3 (15)	3.0 (157)	5.8 (299)	100.0 (5,191)	
성별	여성	5.7	49.9	4.5	19.1	6.6	6.8	0.3	2.3	4.8	100.0
	남성	3.4	55.6	13.8	9.9	0.0	0.0	0.0	6.6	10.7	100.0
연령	25~29세	0.0	0.0	64.3	35.7	0.0	0.0	0.0	0.0	0.0	100.0
	30~34세	17.8	59.0	0.0	23.2	0.0	0.0	0.0	0.0	0.0	100.0
	35~39세	8.9	49.8	7.6	0.0	5.0	1.9	0.0	9.6	17.2	100.0
	40~49세	2.9	61.9	0.3	16.1	4.2	8.1	0.7	2.0	3.7	100.0
	50세 이상	5.7	42.9	8.8	22.3	7.3	5.1	0.0	2.6	5.3	100.0
출신국적	중국	6.2	53.0	2.5	14.8	7.4	7.4	0.0	2.5	6.2	100.0
	중국(한국계)	3.8	48.3	10.5	21.3	3.8	3.8	0.0	2.4	6.2	100.0
	대만, 홍콩	0.0	50.0	8.4	22.2	11.1	0.0	0.0	0.0	8.4	100.0
	일본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100.0
	몽골	50.0	50.0	0.0	0.0	0.0	0.0	0.0	0.0	0.0	100.0
	베트남	20.0	40.0	0.0	20.0	0.0	0.0	0.0	20.0	0.0	100.0
	필리핀	0.0	0.0	0.0	25.0	25.0	25.0	0.0	25.0	0.0	100.0
	북미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동남아 기타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남부아시아 기타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배우자의 이혼·별거 사유 또한 성격차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나, 당사자 그룹에 비해 그 비율은 낮은 편이다. 당사자와 배우자의 이혼 및 별거 사유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배우자의 가출이다. 배우자 그룹 여성의 25.8%가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을 꼽은 반면 남성의 해당 답변은 없으며, 배우자 가출로 인한 이혼 및 별거는 남성의 41.9%가 꼽고 있는 반면 여성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표 III-56 】 결혼이민·귀화자 등 배우자의 이혼·별거 이유(서울)

(단위: %, 명)

구분	외도	성격 차이	배우자 가족과 갈등	경제적 무능력	학대와 폭력	음주 및 도박	심각한 정신 장애	배우자 가출	기타	합계
전체	5.3 (26)	41.3 (203)	16.0 (79)	14.8 (73)	0.0 (0)	0.0 (0)	1.5 (7)	15.8 (78)	5.3 (26)	100.0 (492)
여성	8.5	45.4	25.8	20.3	0.0	0.0	0.0	0.0	0.0	100.0
남성	0.0	34.5	0.0	5.7	0.0	0.0	4.0	41.9	14.0	100.0

이혼·별거 후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키운다는 응답이 31.6%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은 본인이 양육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은 배우자 및 기타의 응답률이 높았다.

【 표 III-57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이혼·별거 후 자녀 양육자(서울)

(단위: %, 명)

구분		자녀 없음	자녀 있음			합계
			본인	배우자	기타	
전체		56.3 (2,924)	31.6 (1,610)	7.9 (410)	4.2 (218)	100.0 (5,191)
성별	여성	53.7	37.0	6.8	2.4	100.0
	남성	69.3	4.1	13.2	13.2	100.0
연령	25~29세	64.3	35.7	0.0	0.0	100.0
	30~34세	25.5	57.9	16.6	0.0	100.0
	35~39세	46.0	46.4	7.6	0.0	100.0
	40~49세	37.6	42.5	12.0	7.9	100.0
	50세 이상	77.1	16.3	4.1	2.5	100.0
출신국적	중국	56.8	28.5	9.9	4.9	100.0
	중국(한국계)	59.3	30.3	6.2	4.3	100.0
	대만, 홍콩	30.5	52.7	16.7	0.0	100.0
	일본	0.0	100.0	0.0	0.0	100.0
	몽골	50.0	50.0	0.0	0.0	100.0
	베트남	40.0	60.0	0.0	0.0	100.0
	필리핀	0.0	100.0	0.0	0.0	100.0
	북미(미국, 캐나다)	56.7	15.5	27.8	0.0	100.0
	동남아 기타	0.0	100.0	0.0	0.0	100.0
	남부아시아	100.0	0.0	0.0	0.0	100.0
	기타	54.5	45.5	0.0	0.0	100.0

연령별로 20대와 50세 이상 구간에서 아이가 없다는 응답이 각각 64.3%, 77.1%로 높았으며, 만 30~34세에서는 자녀가 있으며 본인이 양육한다는 비율이 57.9%로 연령대에 비해서도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출신국적별로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 출신인은 자녀가 없는 경우가 가장 많고, 대만, 홍콩은 본인이 양육한다는 응답이 52.7%로 비교적 높았으며, 일본, 필리핀, 동남아시아는 본인이 양육한다는 비율이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양육한다는 응답은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출신인, 대만·홍콩 출신, 북미 출신인 그룹에서 나오고 있는데 북미 출신이 다른 출신국적들에 비해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혼·별거 후 본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수령 여부를 보면 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91.6%로, 여성은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6%였으며, 남성은 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100%였다. 연령별로는 만 30~34세가 받고 있다는 비율이 40%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으며, 만 25~29세, 만 35~39세, 만 50세 이상은 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 출신인은 양육비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00%로 나타나 대다수 양육비를 받지 않는 실태와 대조된다. 반면 <표 III-57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이혼·별거 후 자녀양육자>와 비교하면 일본, 몽골, 베트남, 동남아 기타는 자녀를 본인이 양육하면서 자녀 양육비는 100% 받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Ⅲ 표 Ⅲ-58 Ⅲ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이혼·별거 후 양육비 수령 여부(서울)

(단위: %, 명)

구분		받고 있다	받고 있지 않다	합계
전체		8.4(138)	91.6(1,502)	100.0(1,640)
성 별	여성	8.6	91.4	100.0
	남성	0.0	100.0	100.0
연 령	25~29세	0.0	100.0	100.0
	30~34세	40.0	60.0	100.0
	35~39세	0.0	100.0	100.0
	40~49세	11.4	88.6	100.0
	50세 이상	0.0	100.0	100.0
출 신 국 적	중국	17.4	82.6	100.0
	중국(한국계)	0.0	100.0	100.0
	대만, 홍콩	0.0	100.0	100.0
	일본	0.0	100.0	100.0
	몽골	0.0	100.0	100.0
	베트남	0.0	100.0	100.0
	필리핀	25.0	75.0	100.0
	북미(미국, 캐나다)	100.0	0.0	100.0
	동남아 기타	0.0	100.0	100.0
	기타	0.0	100.0	100.0

배우자 그룹에서 이혼·별거 후 자녀의 양육비를 받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8.1%로 결혼이민·귀화자 당사자들의 응답률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남성은 양육비를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배우자가 100%이나 여성은 13.0%가 받고 있다고 응답해 당사자 그룹 여성의 8.6%가 양육비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데 비해 그 비율이 좀 더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표 Ⅲ-59 】 결혼이민·귀화자 등 배우자의 이혼·별거 후 양육비 수령 여부 (서울)

(단위: %, 명)

구분	양육비 받음	양육비 받지 않음	합계
전체	8.1(40)	91.9(452)	100.0(492)
여성	13.0	87.0	100.0
남성	0.0	100.0	100.0

이혼·별거 후 본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해당 자녀가 한국에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여성은 한국에 있다 90.2%, 외국에 있다 9.8%였으며, 남성은 100% 한국에 있다고 응답하였다. 만 25~34세, 만 40~49세 연령 구간에서는 100% 한국에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출신국적별로 일본, 몽골, 베트남, 필리핀, 북미, 동남아 기타는 100% 양육하는 자녀가 한국에 있다고 응답하였다.

【 표 Ⅲ-60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이혼·별거 후 자녀가 한국에 있는지 여부(서울)

(단위: %, 명)

구분		한국에 있다	외국에 있다	합계
전체		90.4(1,483)	9.6(158)	100.0(1,640)
성별	여성	90.2	9.8	100.0
	남성	100.0	0.0	100.0
연령	25~29세	100.0	0.0	100.0
	30~34세	100.0	0.0	100.0
	35~39세	89.2	10.8	100.0
	40~49세	100.0	0.0	100.0
	50세 이상	66.4	33.6	100.0
출신 국적	중국	86.9	13.1	100.0
	중국(한국계)	93.8	6.3	100.0
	대만, 홍콩	79.0	21.0	100.0
	동남아 기타	100.0	0.0	100.0
	기타	50.0	50.0	100.0



#### 4) 부부갈등

전국적인 실태와 비교해 볼 때 언어소통의 어려움, 폭언·욕설 신체적 폭력 사유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유에서 서울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성격 차이는 전국의 응답률이 36.4%인데 비추어 서울은 56.1%의 비율을 점하고 있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의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 거주자의 소득 수준이 전국에 비해 양극화 되어 있음에서 예측할 수 있듯 생활비 등 경제 문제로 인한 갈등도 전국대비 15% 포인트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갈등의 경험이 없다는 응답률은 전국에 비해 서울이 낮다.

【 표 III-61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부부갈등 여부 및 부부갈등 사유(복수응답) : 전국 (단위: %, 명)

구분	경험 없음	경험 있음												
		성격 차이	문화, 종교, 가치관 차이	언어 소통 어려움	자녀 교육·행동 문제	생활비 등 경제 문제	음주 문제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본인 가족과의 갈등	외도 문제	폭언, 욕설, 신체적 폭력	심한 의심, 외출 제한	기타	
전체	33.9 (86,600)	36.4 (93,223)	13.7 (35,037)	19.0 (48,552)	13.5 (34,555)	21.2 (54,359)	9.3 (23,733)	7.7 (19,741)	3.0 (7,792)	0.5 (1,299)	1.7 (4,343)	0.7 (1,793)	1.0 (2,520)	
성별	여성	32.0	36.7	14.3	21.7	14.4	21.5	10.4	8.8	3.2	0.6	2.0	0.8	0.9
	남성	41.4	36.3	11.3	7.9	9.9	20.2	4.5	3.1	2.2	0.3	0.4	0.3	1.2
지역	동부	36.2	36.1	13.1	16.1	13.1	21.3	8.4	7.2	3.1	0.5	1.5	0.6	1.0
	읍면부	29.5	37.7	15.8	28.6	14.9	21.2	12.1	9.4	2.8	0.4	2.4	0.9	0.9

서울 거주 다문화가족의 부부갈등 문제는 거의 전 분야에 걸쳐 망라되어 있고 생활비 등 경제 문제로 인한 갈등의 경우 한국계 중국 출신인과 몽골 출신인 그룹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해당 지역 출신자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다른 나라 출신자에 비해 가족 갈등을 불러 올 정도로 심각함을 읽을 수 있다. 한편 전국 대비 서울의 응답률이 낮게 나타난 언어소통 어려움 항목에서 베트남 출신자의 50% 이상이 갈등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한편 다툼 경험이 없는 비율은 한국계 중국 출신인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61.5%가 배우자와 다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다툼 이유를 복수응답

으로 보았을 때 성격차이 > 생활비 등 경제문제 > 문화·종교·가치관 차이 > 언어소통 어려움 > 자녀교육 또는 행동문제 순으로, 여성은 언어소통 어려움, 음주문제,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이 남성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 24세 이하에서 높게 나타나는 언어소통 어려움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해 만 50세 이상에서 6.5%에 불과하다. 그러나 성격차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해 만 50세 이상이 63.9%에 이른다. 생활비 등 경제적인 문제는 40~49세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표 III -62】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부부갈등 여부 및 부부갈등 사유(복수응답) : 서울 (단위: %, 명)

구분	경험 없음	경험 있음											
		성격 차이	문화, 종교, 가치관 차이	언어 소통 어려움	자녀 교육·행동 문제	생활비 등 경제 문제	음주 문제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본인 가족과의 갈등	외도 문제	폭언, 욕설, 신체적 폭력	심한 의심, 외출 제한	기타
전체	38.5 (23,315)	56.1 (20,870)	20.0 (7,425)	17.7 (6,598)	16.9 (6,271)	36.0 (13,401)	12.2 (4,521)	9.6 (3,588)	4.1 (1,527)	0.9 (317)	1.5 (565)	0.9 (343)	1.2 (460)
성별													
여성	36.2	54.7	19.7	21.4	17.1	35.7	14.2	11.5	4.4	1.0	1.8	1.1	1.4
남성	43.2	59.2	20.5	9.7	16.3	36.8	7.6	5.5	3.4	0.6	1.0	0.6	0.9
연령													
24세 이하	38.8	42.8	16.3	54.9	4.8	20.0	6.9	18.8	12.5	0.7	0.7	0.0	1.6
25~29세	39.0	55.6	28.3	27.7	19.2	25.5	11.6	11.7	6.6	0.2	0.2	1.6	2.0
30~34세	31.9	54.5	21.5	19.4	17.6	32.2	16.4	14.6	5.7	0.6	1.8	1.1	1.0
35~39세	29.7	52.9	25.5	18.6	20.3	33.1	15.5	11.0	3.3	1.7	3.0	1.1	0.7
40~49세	36.3	55.4	21.5	15.8	21.5	42.7	12.0	8.4	3.2	0.9	1.7	1.1	0.8
50세 이상	49.4	63.9	9.2	6.5	8.4	39.8	8.0	4.0	2.1	0.6	0.7	0.3	2.1
출신국적													
중국	37.8	56.3	18.1	14.0	13.3	36.8	14.2	8.9	3.4	1.6	1.4	1.1	1.4
중국(한국계)	46.8	55.7	6.5	5.4	13.6	51.3	13.2	5.6	2.3	0.0	0.9	0.5	1.4
대만, 홍콩	28.0	64.3	16.8	8.6	26.8	20.9	9.6	11.1	1.8	0.8	0.0	0.0	2.9
일본	27.7	58.5	42.2	25.0	29.0	28.3	8.1	15.2	5.0	0.4	2.2	0.4	0.4
몽골	24.9	57.6	38.7	35.4	20.3	48.3	9.2	16.6	5.5	0.0	1.8	0.0	0.0
베트남	39.1	34.8	16.6	50.8	17.1	26.7	9.6	13.9	8.1	0.0	3.2	2.1	0.0
필리핀	27.2	57.8	34.5	44.1	21.4	28.2	15.2	16.3	7.8	1.9	1.9	1.9	2.8
태국	32.6	63.7	30.5	42.6	30.5	24.4	9.1	12.4	12.4	0.0	3.0	0.0	0.0
캄보디아	36.2	53.3	33.3	40.0	15.6	8.9	15.6	8.9	4.4	0.0	0.0	0.0	2.2
우즈베키스탄	28.3	60.6	36.4	27.3	27.3	27.3	12.1	18.2	3.0	0.0	0.0	6.1	3.0
러시아	32.7	75.0	33.3	25.0	16.7	20.8	8.3	12.5	4.2	8.3	0.0	4.2	0.0
북미	35.6	68.1	28.8	16.6	22.8	11.2	3.8	7.7	5.7	1.0	1.4	0.0	1.3
동남아 기타	30.5	60.7	36.8	21.9	19.5	39.3	7.3	9.7	2.4	0.0	2.5	0.0	2.5
남부아시아	28.8	72.0	43.7	31.9	19.7	39.8	16.1	16.5	3.9	0.0	0.0	0.0	0.0
서유럽대양주	31.7	67.3	32.1	12.5	20.2	16.9	13.7	14.2	8.7	0.0	4.4	1.7	2.7
기타	24.6	53.5	39.2	22.0	12.5	34.4	17.6	12.1	5.1	2.6	2.6	1.8	0.0

## 6. 다문화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결혼이민·귀화자 및 배우자

### 1) 생존을 위한 경제활동

서울 거주자는 전국 대비 취업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sup>24)</sup>, 서울거주자의 높은 취업 응답률은 여성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결혼이민·귀화 남성의 경우 서울의 취업 응답이 전국보다 낮은 반면 서울 거주 여성의 취업 응답률은 전국적인 수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63】 전국 대비 서울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취업 여부

(단위: 명, %)

구분	취업		미취업		합계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체	58.5 (165,794)	64.0 (45,786)	41.5 (117,429)	36.0 (25,767)	100.0 (283,224)	100.0 (71,553)
여성	53.0	57.4	47.0	42.6	100.0	100.0
남성	80.3	77.6	19.7	22.4	100.0	100.0

서울 거주자의 성별 취업자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기는 하나, 전국대비 서울 여성의 취업에 대한 응답은 높은 반면 남성의 응답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취업자는 연령대별로 만 40~49세가 80.2%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만 50세 이상이 61.4%로 나타났다. 만 49세 이하로 연령이 낮아지면서 취업자의 비율이 감소해 만 24세 이하가 32.9%로 가장 낮다. 이혼·별거 상태인 경우 취업이 80.4%로 가장 높았으나, 사별(39.6%)의 경우 유배우자(63.9%)나 미혼(57.8%)인 경우보다 취업에 대한 응답이 적어 이들의 경제 상태가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자는 중국(한국계) > 남부아시아 > 서유럽 대양주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러시아 31.9%, 캄보디아 32.6%, 우즈베키스탄 34.8%, 베트남 39.8%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24)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경제활동 여부를 지난 1주일 동안의 유급노동 또는 무급가족종사로 18시간 이상 일을 하였는지, 지난 1주일간 일하였거나,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이 있었는지 질문하고, 지난 1주일간 일하였거나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일)이 있었던 경우를 '취업'으로, 직장(일)이 없었던 경우를 '미취업'으로 분류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서울 거주자 부분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 표 III -64】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취업 여부(서울)

(단위: %, 명)

구분		취업	미취업	합계
전체		64.0 (45,786)	36.0 (25,767)	100.0 (71,553)
성별	여성	57.4	42.6	100.0
	남성	77.6	22.4	100.0
연령	24세 이하	32.9	67.1	100.0
	25~29세	46.0	54.0	100.0
	30~34세	55.8	44.2	100.0
	35~39세	68.7	31.3	100.0
	40~49세	80.2	19.8	100.0
	50세 이상	61.4	38.6	100.0
혼인 상태	미혼	57.8	42.2	100.0
	유배우	63.9	36.1	100.0
	사별	39.6	60.4	100.0
	이혼/별거	80.4	19.6	100.0
출신 국적	중국	65.3	34.7	100.0
	중국(한국계)	72.3	27.7	100.0
	대만, 홍콩	63.1	36.9	100.0
	일본	52.4	47.6	100.0
	몽골	65.0	35.0	100.0
	베트남	39.8	60.2	100.0
	필리핀	46.9	53.1	100.0
	태국	55.0	45.0	100.0
	캄보디아	32.6	67.4	100.0
	우즈베키스탄	34.8	65.2	100.0
	러시아	31.9	68.1	100.0
	북미	68.7	31.3	100.0
	동남아 기타	62.5	37.5	100.0
	남부아시아	71.8	28.2	100.0
	서유럽대양주 기타	70.1 63.3	29.9 36.7	100.0 100.0

결혼이민·귀화자의 배우자의 취업 여부를 보면 전반적으로 전국 대비 서울 거주자의 고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실태조사 결과 읍면부 거주자의 89.4%가 취업에 답한 반면 동부 거주자의 82%가 취업으로 답한 연장선상에서 서울 거주자의 낮은 고용률은 도시 거주 결혼이민·귀화자의 배우자 특성에 대한 분석을 요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12년도 실태조사에 대한 보고서(전기택 외 2013; 474-475)에서는 연령대별로 60대 미취업 비율이 높다는 점, 학력 수준에 따라서는 저학력 집단의 고용률이 고학력 집단에 비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결국 서울 거주 배우자의 낮은 고용률은 전국 대비 높은 학력 수준과 60세 이상 연령층이 많다는 인구학적 특징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나<sup>25)</sup>, 고용률이 낮다는 점에서 결혼이민·귀화자의 상대방 배우자의 직업군에서 어떠한 특징이 드러날지 주목되는 바이다.

■ 표 III-65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배우자의 취업 여부(전국, 서울)

(단위: %, 명)

구분	취업		미취업		합계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체	83.8 (196,529)	77.2 (42,450)	16.2 (37,976)	22.8 (12,537)	100.0 (234,505)	100.0 (54,987)
여성	56.7	57.4	43.3	42.6	100.0	100.0
남성	89.8	86.0	10.2	14.0	100.0	100.0

### (1) 직업

취업 중인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현재 직종을 살펴보면 단순노무 종사자가 31.0%로 가장 높았으며, 서비스 종사자 23.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3.8%,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10.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전국 대비 농어업 관련 종사자가 없다는 점과 전체 비중은 적으나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군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대비 소폭 높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25) 2012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서울거주 결혼이민·귀화자의 배우자의 교육 수준 별 분포는 4년제 미만 대졸 이상자의 비율이 전국 25.4%에 비해 34.3%로 높고, 연령별 분포에서는 전국의 60세 이상 배우자가 7.3%인데 비해 12.1%로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

【 표 Ⅲ-66 】 전국 대비 서울 거주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직업

(단위: %)

구분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농림 어업 숙련		기능원· 관련기능		장치 기계 조작 ·조립		단순 노무		군인		합계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체	0.7	1.5	13.2	13.8	5.1	6.8	19.5	23.9	6.0	5.9	3.4	0.0	9.3	10.9	14.1	5.9	28.6	31.0	0.2	0.3	100.0	100.0
여성	0.1	0.1	10.3	9.4	4.6	5.9	23.9	34.6	6.6	7.1	4.5	0.0	6.4	8.1	13.6	4.3	29.9	30.4	0.0	0.0	100.0	100.0
남성	2.1	3.6	20.7	20.5	6.4	8.1	8.1	7.4	4.5	4.0	0.6	0.0	16.7	15.2	15.3	8.3	25.1	32.0	0.7	0.9	100.0	100.0

2009년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서비스 종사자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감소하고, 단순노무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사무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관리자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9년에는 서비스 종사자가 40.8%로 가장 많았으나(장명선, 2010), 2012년에는 23.9%로, 16.9% 포인트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취업 직종에서 여성은 서비스 종사자(34.6%), 단순노무 종사자(30.4%), 남성은 단순노무 종사자(32.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0.5%)가 대표적인 직업으로 드러났다. 서비스 종사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27.2%포인트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11.1%포인트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 만 24세 이하는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만 25~29세와 만 30~34세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만 35~39세는 서비스 종사자, 만 40~49세는 서비스 종사자, 만 50세 이상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최대 비율을 점하고 있어 연령에 따른 직업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사별, 유배우, 미혼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가장 많으며, 이혼·별거는 서비스 종사자가 다수이다. 한편 출신국적 별로 서유럽 대양주, 북미, 우즈베키스탄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고, 한국계 중국 출신인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가장 많으며, 캄보디아는 단순노무 종사자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의 비율이 높고, 태국은 판매 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표 Ⅲ-67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직업(서울)

(단위: %, 명)

구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군인	합계	
전체	1.5 (689)	13.8 (6,390)	6.8 (3,131)	23.9 (11,066)	5.9 (2,729)	0.0 (9)	10.9 (5,057)	5.9 (2,731)	31.0 (14,375)	0.3 (156)	100.0 (46,332)	
성 별	여성	0.1	9.4	5.9	34.6	7.1	0.0	8.1	4.3	30.4	0.0	100.0
	남성	3.6	20.5	8.1	7.4	4.0	0.0	15.2	8.3	32.0	0.9	100.0
연 령	24세 이하	0.0	12.8	4.4	15.6	9.8	0.0	23.0	19.0	15.4	0.0	100.0
	25~29세	2.4	23.5	18.0	11.6	10.5	0.0	14.3	5.6	12.7	1.5	100.0
	30~34세	0.9	23.2	17.9	16.5	8.9	0.2	9.1	5.5	17.3	0.5	100.0
	35~39세	1.7	20.2	6.7	25.5	7.1	0.0	12.6	7.5	18.2	0.5	100.0
	40~49세	1.4	12.8	4.5	31.3	4.7	0.0	11.7	5.2	28.3	0.2	100.0
	50세 이상	1.7	5.3	2.7	20.3	4.0	0.0	7.5	4.6	53.8	0.1	100.0
혼 인 상 태	미혼	0.0	16.7	15.1	18.6	4.6	0.0	10.7	9.1	25.3	0.0	100.0
	유배우	1.7	14.8	7.0	22.0	6.2	0.0	11.5	5.9	30.5	0.4	100.0
	사별	1.0	5.4	0.0	40.8	1.6	0.0	0.0	4.7	46.6	0.0	100.0
	이혼/별거	0.0	4.7	1.6	40.2	4.9	0.0	8.3	4.8	35.5	0.0	100.0
출 신 국 적	중국	0.2	5.2	5.1	32.0	6.5	0.0	11.6	7.5	31.9	0.0	100.0
	중국(한국계)	0.0	2.9	2.5	27.1	5.4	0.0	10.4	5.4	46.3	0.0	100.0
	대만, 홍콩	9.3	23.4	13.3	36.5	13.5	0.0	1.1	1.7	1.1	0.0	100.0
	일본	5.9	48.1	21.9	8.7	5.1	0.0	0.0	3.0	7.3	0.0	100.0
	몽골	0.0	20.7	12.9	14.5	2.1	0.0	12.4	8.3	29.0	0.0	100.0
	베트남	0.0	3.1	5.6	9.3	4.7	0.0	44.4	7.8	25.1	0.0	100.0
	필리핀	0.0	31.4	2.8	5.6	4.2	0.0	17.3	11.9	26.7	0.0	100.0
	태국	0.0	10.7	17.8	11.0	24.9	0.0	7.1	10.7	17.8	0.0	100.0
	캄보디아	0.0	12.5	4.2	4.2	0.0	0.0	33.3	12.5	33.3	0.0	100.0
	우즈베키스탄	0.0	50.0	0.0	22.2	5.6	0.0	11.1	0.0	11.1	0.0	100.0
	러시아	0.0	38.5	15.4	23.1	0.0	0.0	0.0	7.7	15.4	0.0	100.0
	북미	7.8	61.5	19.6	2.5	2.9	0.3	0.0	0.5	0.0	4.9	100.0
	동남아 기타	5.2	10.5	15.7	5.2	23.9	0.0	10.4	18.6	10.6	0.0	100.0
	남부아시아	3.7	11.0	7.3	18.3	7.3	0.0	22.6	11.0	18.9	0.0	100.0
서유럽대양주	7.0	78.0	7.9	1.4	1.4	0.0	2.8	0.0	0.0	1.4	100.0	
기타	9.4	45.3	17.4	2.3	5.0	0.0	9.4	4.0	7.0	0.0	100.0	

한편 배우자의 직업은 서울 거주자의 경우 남성, 여성 모두 단순 노무 종사자의 비중이 2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나, 여성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4.1%, 서비스

종사자 25.9%인 반면, 남성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7.7%,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5.6% 등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비율은 11.6%, 사무종사자 10.0%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Ⅲ-68 결혼이민·귀화자 등 배우자의 직업(서울)

(단위: %)

구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군인		합계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체	2.0	2.4	9.6	14.0	7.7	9.2	6.8	11.6	6.7	8.3	7.9	0.4	16.6	14.9	23.9	13.0	18.8	26.2	0.0	0.1	100.0	100.0
여성	1.2	1.8	24.1	22.1	7.7	6.5	23.7	25.9	9.2	8.3	0.3	0.0	4.7	5.7	8.0	4.3	21.0	25.4	0.0	0.0	100.0	100.0
남성	2.1	2.6	7.6	11.6	7.7	10.0	4.5	7.3	6.4	8.2	9.0	0.5	18.3	17.7	26.1	15.6	18.4	26.5	0.1	0.1	100.0	100.0

결혼이민·귀화자 등과 일반 국민과의 직업을 비교하면, 일반 국민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가장 높았던 반면, 결혼이민·귀화자 등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경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비율은 여성(9.4%)이 남성(20.5%)에 비해 낮았으며, 서비스 종사자의 비율은 여성(34.6%)이 남성(7.4%)보다 높게 나타나 성별 간 차이를 살펴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결혼이민·귀화자 등 여성의 취업률이 가장 낮으며, 취업 직종 또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69 결혼이민·귀화자 등과 일반국민의 직업 비교

(단위: %)

구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군인	기타
		2012년 실태조사	전체	1.5	13.8	6.8	23.9	5.9	0.0	10.9	5.9	31.0
	여성	0.1	9.4	5.9	34.6	7.1	0.0	8.1	4.3	30.4	0.0	-
	남성	3.6	20.5	8.1	7.4	4.0	0.0	15.2	8.3	32.0	0.9	-
2012년 경제활동 인구조사	전체	1.9	19.4	16.6	10.3	12.2	5.8	9.2	11.6	13.0	-	-
	여성	0.5	21.1	18.8	16.3	14.6	5.6	3.1	3.5	16.3	-	-
	남성	2.9	18.2	15.0	6.0	10.5	5.9	13.6	17.4	10.6	-	-

자료: 통계청, 2013. 『2012년 경제활동인구조사』



## (2) 종사상 지위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 > 임시근로자 > 일용근로자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 거주 결혼이민·귀화 여성 57.4%가 취업 중이라고 대답해 전국(56.7%)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이나 단순 노무의 비중이 30.4%를 점하는가하면 상용근로자의 비중 또한 28.7%에 그쳐 전반적인 고용의 질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상용근로자의 비율은 남녀 모두 서울이 전국 대비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임시 근로자 지위로 일하고 있는 여성은 전국, 서울 모두 30% 이상이다.

표 III-70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종사상 지위(전국, 서울)

(단위: %)

구분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합계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체	33.0	31.6	30.5	27.9	20.8	27.8	2.5	3.7	5.9	6.3	7.3	2.6	100.0	100.0
여성	29.9	28.7	35.0	34.7	18.9	25.5	1.5	2.0	5.2	5.3	9.5	3.8	100.0	100.0
남성	41.1	36.2	18.9	17.3	25.9	31.4	4.9	6.4	7.8	7.9	1.4	0.9	100.0	100.0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온 이들이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당사자들의 역량과 그에 따른 사회적 지위를 논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 배우자의 경제·사회적 지위에 의해 한국 사회에서의 지위가 규정될 수밖에 없다. 현실에서 그 배우자의 종사상의 지위는 상용직 근로자 비율이 40%를 겨우 넘어서고 있다는 면에서 다문화 가족의 경제적 지위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짐작해 볼 수 있으며, 여성들의 높은 취업 욕구가 어디에서 비롯된 문제인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표 Ⅲ-71 | 결혼이민·귀화자 등 배우자의 종사상 지위(서울)

(단위: 명, %)

구분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합계
전체		42.2 (18,108)	16.5 (7,062)	20.6 (8,829)	6.2 (2,647)	13.6 (5,847)	0.9 (406)	100.0 (42,899)
성별	여성	34.1	25.1	22.9	5.0	9.9	3.0	100.0
	남성	44.7	13.8	19.9	6.5	14.7	0.3	100.0
연령	20~29세	61.0	17.8	8.4	0.0	12.8	0.0	100.0
	30~39세	55.5	12.4	13.5	7.7	10.4	0.4	100.0
	40~49세	42.7	15.0	20.5	6.4	14.1	1.2	100.0
	50~59세	32.2	19.3	26.1	5.3	15.8	1.3	100.0
	60세 이상	16.8	29.5	33.0	5.0	15.1	0.6	100.0
학력	고등학교 이하	33.6	20.4	27.7	4.3	13.2	0.7	100.0
	4년제 대학 미만	50.8	9.1	11.4	8.0	18.2	2.5	100.0
	4년제 대학 이상	59.9	8.9	5.3	10.1	14.5	1.3	100.0
	대학원 이상	74.5	6.7	1.4	12.3	5.1	0.0	100.0
채류 기간	1년 미만	66.6	19.3	14.1	0.0	0.0	0.0	100.0
	1~2년 미만	55.4	11.5	9.8	7.4	15.9	0.0	100.0
	2~5년 미만	51.5	13.8	14.2	5.7	13.5	1.3	100.0
	5~10년 미만	41.1	16.3	23.6	5.0	13.9	0.1	100.0
	10년 이상	37.3	18.1	22.5	7.0	13.4	1.8	100.0
월 가구 소득	50만원 미만	3.5	0.0	60.5	12.2	23.7	0.0	100.0
	50~100만원	12.3	34.9	38.7	2.1	11.4	0.6	100.0
	100~200만원	34.7	18.7	28.8	2.6	14.8	0.5	100.0
	200~300만원	38.8	18.1	23.1	4.4	14.2	1.3	100.0
	300~400만원	50.3	15.1	13.8	8.7	11.3	0.8	100.0
	400~500만원	51.8	10.5	7.5	9.4	19.2	1.6	100.0
	500~600만원	59.4	8.8	6.6	17.5	7.4	0.3	100.0
	600~700만원	69.1	5.7	6.0	7.0	11.7	0.6	100.0
700만원 이상	61.9	7.6	1.9	17.0	10.0	1.5	100.0	
취업 상태	맞벌이	53.4	21.3	0.0	17.9	7.3	0.0	100.0
	홀벌이	40.9	39.9	0.0	7.4	11.9	0.0	100.0
결혼 기간	3년 미만	53.5	14.7	12.4	5.2	13.6	0.7	100.0
	3~5년	51.6	18.3	12.4	6.7	10.8	0.2	100.0
	5~10년	41.1	15.9	21.0	5.8	16.0	0.3	100.0
	10년 이상	32.8	16.8	28.6	6.8	12.9	2.2	100.0
부부 연령 차	5세 미만	40.6	18.7	23.9	5.1	10.0	1.6	100.0
	5~9세	43.8	15.9	18.2	5.7	16.0	0.5	100.0
	10~14세	45.7	12.4	21.5	6.9	13.0	0.5	100.0
	15~19세	44.1	13.9	15.9	6.9	18.9	0.4	100.0
	20세 이상	38.9	16.2	11.1	10.1	23.6	0.0	100.0

【 표 Ⅲ-72 】 배우자의 종사상 지위(전국, 서울)

(단위: %)

구분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합계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체	46.8	42.2	12.1	16.5	13.7	20.6	5.5	6.2	20.8	13.6	1.0	0.9	100.0	100.0
여성	35.4	34.1	26.2	25.1	18.0	22.9	4.5	5.0	11.3	9.9	4.6	3.0	100.0	100.0
남성	48.4	44.7	10.1	13.8	13.1	19.9	5.7	6.5	22.1	14.7	0.5	0.3	100.0	100.0

### (3) 구직경로

2012년 실태조사 보고서의 결과 중 2009년 조사와 동일 조사 대상에 대한 분석을 보면 모국인 친구나 아는 사람을 통해 직장을 구했다는 응답이 2009년 18.5%에서 27.7%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전기택 외, 2013)하여 구직에서 모국인 네트워크가 커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신규 조사 대상자를 포함한 2012년 전국 조사 결과에서도 모국인 친구나 아는 사람의 소개로 취직을 한다는 응답률 27.3%로 나타났다. 모국인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성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읍면부보다는 동부에서 심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 표 Ⅲ-73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구직경로(전국)

(단위: %)

구분	본인 가족, 친척의 소개	배우자의 가족, 친척의 소개	모국인 친구나 아는 사람의 소개	한국인 친구나 이웃의 소개	고용센터 등 공공 기관 소개	사실 직업 소개 기관을 통해	대중매체 (신문, 잡지 등) 전단지 등을 보고	기타	합계	
	전체	11.5 (19,010)	7.2 (11,884)	27.3 (45,318)	14.0 (23,248)	5.5 (9,190)	8.1 (13,362)	17.9 (29,664)	8.5 (14,118)	100.0 (165,794)
성별	여성	12.2	8.1	26.2	13.7	5.9	7.5	19.0	7.5	100.0
	남성	9.6	4.8	30.2	15.0	4.7	9.6	14.9	11.3	100.0
거주 지역	동부	10.1	5.6	28.3	13.5	5.4	9.7	19.5	8.0	100.0
	읍면부	17.1	13.5	23.5	16.1	6.3	1.5	11.4	10.7	100.0

전국적인 결과에 나타난 모국 네트워크 의존성은 서울거주자에게서 보다 강화되어 서울거주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구직경로는 모국인 친구나 아는 사람의 소개가 31.9%로 가장 높았으며, 고용센터 등 공공기관 소개가 3.6%로 가장 낮았다. 모국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성은 모든 출신국적에 관계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모국인 친구나 아는 사람의 소개는 남성(36.8%)이 여성(28.7%)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대중매체 진단지나 가족, 친척의 소개는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20대는 대중매체 진단지가 가장 높았으며, 특히 만 24세 이하는 41.8%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만 30세 이상부터는 모국인 친구나 아는 사람의 소개가 많았으며, 만 40~49세 구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만 50세 이상은 사설 직업기관 이용이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유배우자, 이혼·별거, 사별은 모국인 친구나 아는 사람의 소개가, 미혼은 대중매체 진단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모국인 친구나 아는 사람의 소개는 태국 > 동남아 기타 > 우즈베키스탄 > 몽골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서울 거주 규모를 생각할 때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 출신인들의 모국 네트워크 영향력이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고용센터 등 공공기관 소개는 캄보디아, 사설 직업소개 기관 이용 비율은 한국계 중국 출신인이 가장 높았다.

【 표 III-74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구직경로(서울)

(단위: %, 명)

구분		본인 가족, 친척의 소개	배우자의 가족, 친척의 소개	모국인 친구나 아는 사람의 소개	한국인 친구나 이웃의 소개	고용센터 등 공공 기관 소개	사실 직업 소개 기관을 통해	대중매체 (신문, 잡지 등) 전단지를 보고	기타	합계
전체		9.4 (4,373)	4.4 (2,038)	31.9 (14,781)	12.7 (5,898)	3.6 (1,673)	11.4 (5,259)	17.0 (7,897)	9.5 (4,413)	100.0 (46,332)
성별	여성	10.3	4.7	28.7	12.8	4.2	12.1	21.2	6.1	100.0
	남성	8.2	4.0	36.8	12.6	2.7	10.3	10.7	14.8	100.0
연령	24세 이하	18.2	5.2	14.4	6.0	1.7	6.8	41.8	6.0	100.0
	25~29세	13.6	3.6	26.2	7.2	6.5	4.7	27.0	11.1	100.0
	30~34세	10.4	7.7	22.5	11.9	5.8	10.2	20.4	11.0	100.0
	35~39세	9.7	3.4	32.2	15.8	3.6	7.3	14.4	13.6	100.0
	40~49세	8.5	5.1	35.7	11.3	3.5	9.5	16.5	9.9	100.0
	50세 이상	8.0	2.9	33.9	15.4	2.3	18.8	12.6	6.1	100.0
혼인상태	미혼	14.4	1.4	20.7	15.0	4.9	5.9	31.8	6.0	100.0
	유배우	9.9	5.0	32.6	12.4	3.8	11.0	15.2	10.2	100.0
	사별	10.3	0.0	31.7	12.5	3.1	12.6	20.3	9.4	100.0
	이혼/별거	2.9	1.4	31.3	15.1	1.0	16.8	26.6	5.0	100.0
출신국적	중국	9.3	5.1	30.8	14.7	4.0	12.0	19.1	5.1	100.0
	중국(한국계)	6.3	3.2	33.4	15.1	1.8	17.4	17.7	5.0	100.0
	대만, 홍콩	22.6	2.3	29.9	5.7	0.8	1.9	8.7	28.2	100.0
	일본	10.5	7.6	32.8	7.3	3.5	0.5	5.5	32.3	100.0
	몽골	6.2	4.1	41.9	10.4	8.3	6.2	16.6	6.2	100.0
	베트남	24.9	4.7	36.9	4.7	6.2	0.9	17.1	4.7	100.0
	필리핀	17.1	9.8	35.6	10.3	11.3	2.8	10.3	2.8	100.0
	태국	14.2	10.7	53.7	0.0	7.1	0.0	10.7	3.6	100.0
	캄보디아	4.2	8.3	25.0	4.2	29.2	8.3	16.7	4.2	100.0
	우즈베키스탄	5.6	5.6	44.4	16.7	5.6	0.0	5.6	16.7	100.0
	러시아	7.7	15.4	38.5	0.0	23.1	0.0	0.0	15.4	100.0
	북미	12.5	2.7	22.4	3.5	4.0	4.3	20.0	30.7	100.0
	동남아 기타	8.0	0.0	47.3	13.2	0.0	2.7	7.8	21.1	100.0
	남부아시아	0.0	7.3	40.5	18.6	3.7	0.0	15.2	14.6	100.0
서유럽대양주	4.2	5.6	23.4	13.9	4.2	6.5	19.9	22.2	100.0	
기타	9.4	2.3	27.8	13.1	9.7	4.0	14.4	19.1	100.0	



#### (4) 일하면서 느낀 어려움과 임금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보다 심하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들의 응답률이 높았던 어려움은 한국어 대화, 긴 노동시간, 자녀양육, 가사 병행인데, 남성의 경우 적은 임금으로 인한 어려움의 응답률이 가장 높고, 한국어 대화의 어려움, 장시간 노동이 그 뒤를 잇고 있다.

■ 표 Ⅲ-75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일하면서 느낀 어려움(전국)

(단위: %, 명)

구분	별로 어려움 없음	한국말로 대화 어려움	힘들고 위험한 일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	돈을 조금 받음	직장 상사나 동료와 문제	외국 사람에 대한 차별	자녀 양육	집안일 병행 어려움	기타	합계	
전체	31.4 (51,997)	16.0 (26,592)	6.1 (10,152)	12.6 (20,951)	11.6 (19,286)	2.9 (4,887)	6.9 (11,419)	5.0 (8,244)	5.7 (9,395)	1.7 (2,891)	100.0 (165,794)	
성별	여성	29.3	17.5	4.8	13.3	10.7	2.4	6.6	6.3	7.6	1.3	100.0
	남성	36.6	12.1	9.6	10.8	14.2	4.4	7.5	1.4	0.6	2.8	100.0
거주 지역	동부	31.4	14.6	6.3	13.3	12.4	3.0	7.5	5.0	4.6	1.9	100.0
	읍면부	31.2	22.0	5.3	10.1	8.6	2.6	4.4	4.8	10.0	1.0	100.0

한편 서울 거주 결혼이민·혼인귀화자 등의 경우는 한국어 대화보다는 긴 근로시간을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1순위로 꼽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물론 이러한 징후는 이미 한국어 대화의 어려움을 든 읍면부 거주자에 비해 동부 거주자의 비율이 적었던 데에서도 추측할 수 있었던 부분이다. 한국어말 대화의 어려움은 적은 급여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 사람에 대한 차별을 이유로 든 비율이 전국 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은 장시간 근로, 낮은 임금, 한국어 대화의 어려움, 외국인에 대한 차별 순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남성은 낮은 임금, 한국어 대화의 어려움, 힘들고 위험한 일, 장시간 근로 순으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별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만 34세 이하는 한국어말로 대화 어려움이, 만 35-49세는 일하는 긴 근로시간이, 만 50세 이상은 낮은 임금이 가장 높게 나타나 연령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며 사별, 미혼자는 낮은 임금의 어려움이 크게 드러나,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서유럽 대양주, 몽골, 일본은 한국말로 대화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출신은 긴 근로시간을 어려움으로 들고 있는 데 반해, 태국과 동남아 기타는 낮은 임금을 들고 있어, 태국과 동남아 출신인들의 직업 최다 분포로 나타난 판매직의 급여 수준이 열악함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남부아시아(32.9%), 우즈베키스탄(16.7%)이, 집안일 병행 어려움은 러시아(15.4%)가 높게 나타났다. 대만·홍콩(54.4%), 러시아(53.8%), 북미(미국, 캐나다, 50.1%)는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나타났다.

【 표 Ⅲ-76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일하면서 느낀 어려움(서울)

(단위: %, 명)

구분	별로 어려움 없음	한국말로 대화 어려움	힘들고 위험한 일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	돈을 조금 받음	직장 상사나 동료와 문제	외국 사람에게 대한 차별	자녀 양육	집안일 병행 어려움	기타	합계
전체	31.0 (14,352)	12.0 (5,558)	7.2 (3,359)	16.2 (7,497)	14.5 (6,700)	2.6 (1,226)	7.5 (3,485)	4.0 (1,840)	3.1 (1,414)	1.9 (902)	100.0 (46,332)
성별											
여성	28.3	11.7	4.6	19.5	14.2	1.7	7.9	5.6	4.8	1.6	100.0
남성	35.1	12.5	11.4	11.0	14.8	4.1	6.9	1.4	0.3	2.4	100.0
연령											
24세 이하	34.6	24.2	2.5	7.7	13.0	8.7	5.2	2.1	1.4	0.6	100.0
25~29세	32.7	18.8	0.9	8.5	15.5	7.3	3.3	6.8	5.3	0.9	100.0
30~34세	25.7	22.7	5.3	11.2	14.3	5.7	3.3	5.5	4.2	2.1	100.0
35~39세	30.5	10.0	2.4	20.9	9.8	2.1	7.6	9.5	5.4	1.7	100.0
40~49세	31.5	12.0	8.7	19.4	11.0	1.6	7.4	3.2	2.7	2.4	100.0
50세 이상	31.8	5.7	11.0	14.2	21.5	1.2	10.7	0.7	1.3	1.8	100.0
혼인상태											
미혼	39.9	7.0	4.5	10.0	21.9	8.6	6.4	0.4	1.2	1.2	100.0
유배우	31.3	13.1	7.7	15.6	13.2	2.4	7.6	4.0	3.2	1.9	100.0
사별	23.6	1.6	3.1	12.6	37.2	0.0	4.7	9.4	3.1	4.7	100.0
이혼/별거	25.2	6.8	5.5	25.7	17.4	2.2	7.8	4.3	3.2	1.8	100.0
출신국적											
중국	30.0	10.8	8.5	16.8	15.7	1.6	7.8	4.4	3.7	0.7	100.0
중국(한국계)	27.3	3.0	10.9	21.6	16.6	1.0	9.8	3.9	2.4	3.6	100.0
대만, 홍콩	54.4	7.6	1.1	8.6	2.5	5.5	7.6	10.2	1.3	1.1	100.0
일본	43.7	24.3	0.0	5.9	11.6	3.5	1.6	3.8	4.9	0.5	100.0
몽골	20.7	27.4	16.6	0.0	12.4	4.1	10.4	4.1	4.1	0.0	100.0
베트남	17.1	40.9	1.6	7.8	18.7	4.7	3.1	3.1	3.1	0.0	100.0
필리핀	17.1	39.8	1.4	5.8	17.1	4.2	4.4	5.6	2.8	1.6	100.0
태국	18.1	24.9	0.0	7.1	28.5	7.1	0.0	0.0	14.2	0.0	100.0
캄보디아	16.7	41.7	4.2	12.5	20.8	0.0	0.0	4.2	0.0	0.0	100.0
우즈베키스탄	27.8	16.7	0.0	5.6	0.0	11.1	16.7	11.1	11.1	0.0	100.0
러시아	53.8	7.7	0.0	0.0	7.7	7.7	7.7	0.0	15.4	0.0	100.0
북미(미국, 캐나다)	50.1	19.5	0.0	8.0	2.6	11.4	2.2	2.2	1.9	2.2	100.0
동남아 기타	26.4	15.5	0.0	13.3	18.4	10.6	13.2	0.0	0.0	2.6	100.0
남부아시아	29.3	3.7	0.0	18.9	7.6	0.0	32.9	7.6	0.0	0.0	100.0
서유럽대양주	33.8	31.8	0.0	11.6	8.4	7.4	2.8	0.0	1.8	2.3	100.0
기타	37.9	23.2	6.4	11.1	6.4	2.3	4.7	1.7	0.0	6.4	100.0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지난 3개월 월평균 임금(세금 공제 전) 또는 보수를 질문한 결과 100~200만원 미만인 52.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50~100만원 미만 18.5%, 200~300만원 미만 11.5% 순으로 나타났다. 2009년 실태조사와 비교하면 50~100만원 미만은 2012년도에 21.0%포인트로 크게 감소한 반면, 50만원 미만은 5.2%포인트, 다른 월평균 임금 구간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7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월평균 임금(2009년, 2012년)

(단위: %)

구분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2009년 실태조사	1.9	39.5	41.0	4.7	1.7	0.9	0.9
2012년 실태조사	7.1	18.5	52.8	11.5	3.7	2.1	4.3

### (5) 현재 일하지 않는 이유와 일자리 탐색의 어려움

미취업 상태인 결혼이민·귀화자 등에게서 나온 현재 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답으로는 자녀 양육과 건강이 좋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전체 54.7%를 점하고 있다. 여성은 자녀양육(40.8%)이 가장 큰 원인이었으며, 건강문제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남성은 기타(31.1%), 건강이 좋지 않아서(27.6%),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14.3%) 순으로 답하고 있어 일하지 않는 이유에서도 성별 간 차이가 나타났다.

20대에서 40대에 이르기까지 자녀양육이 일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20대는 여기에 한국어 실력 문제가 부가되고 있는 데 반해 40대는 건강문제가 이유가 부각되기 시작하여 50대 이상은 54.4%가 건강을 취업의 장애 요인으로 꼽고 있다. 출신 국적별 분포에서 서울 거주 인구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 출신자는 건강문제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어 해당 출신 국적인들의 연령대가 다른 국적 출신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거주자 비중이 높은 북미와 서유럽대양주는 기타와 자녀 양육이 1, 2순위 원인으로 꼽혔으며, 이혼·별거와 사별 상태인 경우도 건강이 일의 걸림돌로 지적되었으며, 유배우는 자녀 양육이, 미혼은 기타(70.1%)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78 결혼이민·귀화자 등이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이유(서울)

(단위: %, 명)

구분		현재 일 (취업) 하고 싶지 않아서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원하는 임금 수준, 근로 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집안일 돌볼 사람이 없어서	자녀 양육 때문	한국 말이 서툴 러서	배우자 또는 가족 반대로	교육, 기술, 경험 부족	건강이 좋지 않음	임신 중	기타	합계
전체		5.9 (1,490)	7.4 (1,862)	4.8 (1,217)	3.0 (747)	33.0 (8,317)	4.9 (1,231)	1.5 (380)	0.9 (222)	21.7 (5,461)	4.6 (1,158)	12.4 (3,137)	100.0 (25,221)
성별	여성	5.2	5.7	3.4	3.4	40.8	5.4	1.5	1.0	20.2	5.7	7.8	100.0
	남성	8.8	14.3	10.6	1.2	1.7	2.7	1.3	0.6	27.6	0.0	31.1	100.0
연령	24세 이하	4.6	4.5	1.6	2.5	28.7	14.6	1.8	2.1	0.0	10.7	28.8	100.0
	25-29세	3.8	6.2	3.8	3.2	52.7	8.5	1.7	0.5	1.3	8.4	9.8	100.0
	30-34세	3.4	3.2	2.2	3.5	62.2	3.2	1.2	1.7	5.6	6.7	7.1	100.0
	35-39세	3.2	5.5	3.1	2.0	55.1	7.0	2.8	0.2	8.4	6.8	5.9	100.0
	40-49세	7.9	13.6	8.7	4.9	33.9	3.9	1.7	0.7	17.9	1.1	5.6	100.0
	50세 이상	8.7	8.7	6.5	2.2	1.4	0.1	0.9	0.5	54.4	0.4	16.3	100.0
혼인 상태	미혼	10.5	10.8	5.7	0.0	0.0	0.0	0.0	1.6	1.3	0.0	70.1	100.0
	유배우	6.1	7.6	4.7	3.5	38.7	5.8	1.8	0.7	17.5	5.4	8.2	100.0
	사별	2.1	0.0	5.4	0.0	0.8	0.0	0.0	4.1	61.6	0.0	26.1	100.0
	이혼/별거	1.6	8.2	4.4	0.0	4.3	0.0	0.0	0.0	79.9	0.0	1.6	100.0
출신 국적	중국	4.4	8.7	5.7	2.7	28.3	3.0	1.7	0.7	30.1	3.7	11.1	100.0
	중국(한국계)	4.5	8.7	4.2	2.2	26.7	0.7	1.6	0.0	38.5	2.2	10.7	100.0
	대만, 홍콩	10.9	8.5	3.8	1.4	34.1	5.1	1.4	1.0	16.1	1.4	16.4	100.0
	일본	15.9	5.9	6.6	4.4	35.9	1.9	0.6	1.3	1.3	2.5	23.6	100.0
	몽골	0.0	15.4	3.8	3.8	34.6	0.0	3.8	7.7	7.7	11.5	11.5	100.0
	베트남	1.1	1.1	2.7	5.3	56.6	13.7	2.1	1.1	2.1	12.2	2.1	100.0
	필리핀	1.2	3.9	3.7	3.7	49.6	20.0	0.0	0.0	6.2	8.7	2.9	100.0
	태국	4.3	4.3	0.0	8.7	30.4	26.1	4.3	0.0	0.0	13.0	8.7	100.0
	캄보디아	0.0	2.1	2.1	4.3	62.3	15.0	0.0	0.0	0.0	14.1	0.0	100.0
	우즈베키스탄	0.0	10.7	3.6	0.0	46.4	10.7	0.0	7.1	0.0	3.6	17.9	100.0
	러시아	4.1	4.1	14.9	0.0	48.6	16.2	4.1	0.0	0.0	0.0	8.1	100.0
	북미	19.0	5.3	5.7	1.0	17.5	1.2	0.0	2.7	6.6	1.7	39.2	100.0
	동남아 기타	0.0	4.4	0.0	0.0	52.3	17.5	0.0	8.6	8.6	4.2	4.4	100.0
	남부아시아	0.0	21.4	10.7	0.0	11.6	10.7	0.0	0.0	10.7	34.8	0.0	100.0
	서유럽대양주	8.0	9.6	12.3	2.7	18.8	0.0	6.9	0.0	8.4	0.0	33.4	100.0
	기타	12.7	21.0	0.0	3.2	22.3	7.6	0.0	3.2	9.6	6.4	14.0	100.0



한편 결혼이민·귀화자 등에게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을 때 겪는 어려운 점에 대한 답변은 내게 맞는 일자리 부족, 한국어가 서툴러서, 한국에서 경력부족, 외국인에 대한 차별 순으로 나왔다.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으며, 가장 큰 어려움은 남녀 모두 내게 맞는 일자리 부족이었다.

2순위 어려움으로 여성은 한국어 문제를, 남성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들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 만 35세를 전후로 만 35세 미만은 한국어가 서툴러서와 한국에서의 경력부족을 꼽고 있는 반면, 만 35세 이상은 내게 맞는 일자리 부족이 높게 나타났다.

사별의 경우 내게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어려움으로 꼽고 있는데 반해 유배우의 경우는 한국어가 서툴러서가 보다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을 하지 않는 이유에서도 유배우의 경우 한국어 실력을 원인으로 들고 있는 비율이 이혼·별거, 사별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비교적 한국 거주 기간이 짧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혼·별거는 내게 맞는 일자리 부족이 27.6%, 외국인에 대한 차별 17.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Ⅲ-79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한국에서 일자리 탐색의 어려움(서울)

(단위: %, 명)

구분	어려움 없음	한국에서 일해 본적 없음	일자리 찾지 않음	어려움								
				한국어가 서툴러서	한국에서 경력 부족	내게 맞는 일자리 부족	모국 학력 및 자격증 인정 받지 못함	모국 경력 인정 받지 못함	취업 도와줄 가족이나 친구 없음	외국인에 대한 차별	기타	
전체	31.3 (22,366)	3.4 (2,411)	9.2 (6,595)	16.5 (11,804)	15.8 (11,316)	22.0 (15,775)	5.7 (4,082)	4.9 (3,534)	4.9 (3,533)	14.9 (10,641)	4.5 (3,226)	
성별	여성	29.6	3.9	9.9	19.1	16.7	22.5	5.8	4.7	5.2	14.0	4.3
	남성	34.7	2.3	7.7	11.0	14.0	21.1	5.6	5.5	4.5	16.7	4.9
연령	24세 이하	16.8	10.2	21.4	33.5	17.4	15.1	2.7	3.1	4.3	10.9	3.4
	25~29세	21.2	9.6	9.6	26.9	25.8	19.8	8.5	4.9	7.6	14.2	1.2
	30~34세	26.4	5.6	8.1	24.5	17.0	20.4	6.6	6.2	5.2	16.9	4.1
	35~39세	30.9	2.7	7.4	17.4	17.9	23.3	8.5	6.5	4.4	16.2	3.4
	40~49세	37.5	1.1	4.5	15.8	15.4	22.6	5.8	5.4	4.9	16.0	3.3
	50세 이상	33.7	1.5	12.7	6.2	11.0	23.8	3.5	3.5	4.4	13.3	7.8

구분	어려움 없음	한국에서 일해 본적 없음	일자리 찾지 않음	어려움								
				한국어가 서툴러서	한국에서 경력 부족	내게 맞는 일자리 부족	모국 학력 및 자격증 인정 받지 못함	모국 경력 인정 받지 못함	취업 도와줄 가족이나 친구 없음	외국인에 대한 차별	기타	
혼인상태	미혼	32.3	4.4	12.9	6.7	17.5	17.7	4.4	6.9	11.2	17.6	3.7
	유배우	31.1	3.6	8.9	18.3	16.3	21.4	5.7	5.0	4.5	14.7	4.2
	사별	19.4	2.5	26.6	3.7	13.0	32.8	5.0	3.1	7.0	8.7	8.5
	이혼/별거	38.3	0.0	2.2	8.4	10.9	27.6	6.9	4.0	4.3	17.9	7.1
출신국적	중국	28.7	2.6	8.0	13.8	18.0	23.6	5.4	6.2	5.7	15.7	4.8
	중국(한국계)	39.6	1.4	6.4	6.1	11.0	23.8	6.4	4.2	4.7	18.1	5.8
	대만, 홍콩	47.2	3.9	12.1	8.1	7.4	15.6	1.3	1.2	2.3	11.2	3.8
	일본	19.4	8.9	17.3	26.2	23.7	20.9	8.0	5.1	3.3	10.0	3.3
	몽골	9.4	1.3	2.7	34.0	29.6	32.3	14.8	13.5	6.7	27.2	1.3
	베트남	9.2	9.8	11.3	50.8	25.5	19.5	4.4	3.5	8.2	9.8	3.1
	필리핀	12.9	5.3	9.2	53.8	20.4	22.1	3.3	4.8	2.0	14.8	2.6
	태국	17.8	9.8	5.9	50.9	25.4	15.7	5.9	9.8	5.9	17.6	0.0
	캄보디아	5.7	7.1	12.1	52.4	26.9	24.1	8.5	14.2	4.3	12.8	1.4
	우즈베키스탄	26.1	4.3	10.9	28.3	21.7	28.3	8.7	8.7	8.7	13.0	0.0
	러시아	8.0	8.0	18.6	39.8	15.9	15.9	15.9	10.6	8.0	15.9	7.1
	북미	53.5	2.4	16.7	8.1	5.3	10.1	2.2	1.7	1.1	4.9	2.8
	동남아 기타	16.4	4.9	8.2	21.2	24.7	18.1	9.9	11.5	3.3	24.7	3.3
	남부아시아	16.4	8.9	8.4	13.9	19.3	16.6	5.5	5.5	0.0	25.2	0.0
서유럽대양주	39.8	4.9	12.1	17.5	12.4	14.9	2.1	3.4	0.0	4.2	2.1	
기타	29.0	0.0	13.0	27.0	12.1	26.8	8.3	1.5	8.8	14.7	2.6	

### (6) 향후 취업 의사와 입국 전의 일 경험

미취업자의 76.5%가 취업 의사가 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취업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연령별로 만 25~29세 이하가 91.8%로 취업의사가 가장 높고, 만 50세 이상이 54.4%로 가장 낮다.

혼인상태 별로 이혼·별거가 86.6%로 취업의사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앞서 살펴 본 구직의 경로에서 고용지원센터 등 공공기관 이용이 1.0%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족의 해체로 인해 사적 지지망이 약화된 이들에 대한 공적 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안내가 이루어질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배우

78.1%, 미혼 75.0%, 사별 47.2% 순으로 취업의사에 차이가 있다. 출신국적별로 남부 아시아가 취업의사가 가장 높았으며, 태국, 동남아 기타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 표 Ⅲ-80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앞으로 취업 의사 유무(서울)

(단위: %, 명)

구분		취업 의사 있음	취업 의사 없음	합계
전체		76.5 (19,294)	23.5 (5,927)	100.0 (25,221)
성별	여성	79.3	20.7	100.0
	남성	65.1	34.9	100.0
연령	24세 이하	79.8	20.2	100.0
	25~29세	91.8	8.2	100.0
	30~34세	89.2	10.8	100.0
	35~39세	82.6	17.4	100.0
	40~49세	86.1	13.9	100.0
	50세 이상	54.4	45.6	100.0
혼인 상태	미혼	75.0	25.0	100.0
	유배우	78.1	21.9	100.0
	사별	47.2	52.8	100.0
	이혼/별거	86.6	13.4	100.0
출신 국적	중국	76.9	23.1	100.0
	중국(한국계)	71.2	28.8	100.0
	대만, 홍콩	74.1	25.9	100.0
	일본	68.4	31.6	100.0
	몽골	88.5	11.5	100.0
	베트남	88.4	11.6	100.0
	필리핀	88.8	11.2	100.0
	태국	91.3	8.7	100.0
	캄보디아	83.8	16.2	100.0
	우즈베키스탄	85.7	14.3	100.0
	러시아	73.0	27.0	100.0
	북미	66.8	33.2	100.0
	동남아 기타	91.2	8.8	100.0
	남부아시아	100.0	0.0	100.0
	서유럽대양주 기타	58.6 90.4	41.4 9.6	100.0 100.0

결혼이민·귀화자 등이 한국에 오기 전에 모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0.1%이다. 성별로는 남성(81.3%)이 여성(79.5%)보다 약간 높았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모국에서 일한 경험이 증가하여 만 24세 이하가 43.7%, 만 50세 이상이 87.0%로 나타났다. 이혼·별거의 경우가 91.9%로 모국에서 일한 경험이 가장 높았으며, 유배우 82.1%, 사별 73.1%, 미혼 31.6%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계 중국 출신인이 모국에서 일한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모국에서 일한 경험 없다고 답한 비율이 높은 경우는 대만·홍콩 출신자로 나타났다.

표 Ⅲ-81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모국에서 일한 경험(서울)

(단위: %, 명)

구분		일한 경험 있음	일한 경험 없음	합계
서울		80.1 (57,308)	19.9 (14,245)	100.0 (71,553)
성별	여성	79.5	20.5	100.0
	남성	81.3	18.7	100.0
연령	24세 이하	43.7	56.3	100.0
	25~29세	65.7	34.3	100.0
	30~34세	76.0	24.0	100.0
	35~39세	83.8	16.2	100.0
	40~49세	85.6	14.4	100.0
	50세 이상	87.0	13.0	100.0
혼인 상태	미혼	31.6	68.4	100.0
	유배우	82.1	17.9	100.0
	사별	73.1	26.9	100.0
	이혼/별거	91.9	8.1	100.0
출신 국적	중국	82.1	18.0	100.0
	중국(한국계)	86.6	13.4	100.0
	대만, 홍콩	28.5	71.5	100.0
	일본	79.7	20.3	100.0
	몽골	79.8	20.2	100.0
	베트남	74.1	25.9	100.0
	필리핀	81.2	18.8	100.0
	태국	84.2	15.8	100.0
	캄보디아	62.4	37.6	100.0
	우즈베키스탄	71.7	28.3	100.0
	러시아	68.1	31.9	100.0
	북미	67.7	32.3	100.0
	동남아 기타	80.3	19.7	100.0
	남부아시아	66.6	33.4	100.0
서유럽대양주 기타	74.2 77.6	25.8 22.4	100.0 100.0	

모국에서의 직업이 있었다고 응답한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전직은 사무종사자 > 서비스 종사자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단순노무 종사자 순으로 나타났다. 당사자들의 전직은 한국에서의 현직이 대부분 단순 노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인 현실과 다르게 응답되고 있어, 모국에서의 일 경험이 한국에서의 직업 생활로 연계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별로 여성은 사무종사자(21.8%), 서비스 종사자(18.8%), 단순노무종사자(13.0%) 순으로 종사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남성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18.4%),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24.8%), 사무종사자(14.5%)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만 24세 이하는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가, 만 25~39세는 사무종사자가, 만 40~49세는 서비스 종사자가, 만 50세 이상은 농림어업 숙련자 종사자가 가장 높게 나타나 연령별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유배우자는 사무종사자가 19.8%, 서비스 종사자 16.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혼·별거는 단순노무 종사자 18.4%, 사무종사자 16.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별은 농림어업종사자가 36.0%, 미혼은 사무종사자가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유럽 대양주, 우즈베키스탄, 북미 등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가장 높았으며, 태국과 중국은 사무종사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 거주 비율이 높은 한국계 중국 출신인은 농림어업 종사자가 18.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서울 생활에서 전직이 연계될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된다.

Ⅲ 표 Ⅲ-82 Ⅲ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모국에서의 직업(서울)

(단위: %, 명)

구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사무 종사자	서비스	판매	농림 어업 숙련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단순 노무	군인	합계
전체	5.1 (2,929)	13.0 (7,445)	19.4 (11,115)	15.9 (9,121)	10.4 (5,972)	12.2 (7,000)	9.5 (5,440)	1.2 (668)	13.0 (7,447)	0.3 (168)	100.0 (57,308)
성별											
여성	3.0	10.3	21.8	18.8	12.9	10.8	9.0	0.5	13.0	0.0	100.0
남성	9.5	18.4	14.5	10.1	5.4	15.2	10.6	2.5	13.0	0.8	100.0
연령											
24세 이하	0.0	6.3	14.0	21.9	12.8	2.3	23.7	2.2	16.8	0.0	100.0
25~29세	6.9	14.4	22.5	14.9	13.4	4.1	12.9	0.0	9.6	1.3	100.0
30~34세	3.5	15.8	30.5	17.7	11.0	1.8	9.0	0.2	10.1	0.5	100.0
35~39세	5.8	16.5	27.2	18.3	11.3	3.2	7.8	0.9	8.8	0.2	100.0
40~49세	4.4	14.9	17.2	18.1	11.3	11.1	8.8	1.9	12.2	0.1	100.0
50세 이상	6.2	8.7	13.3	11.6	7.9	24.8	8.8	1.1	17.3	0.3	100.0
혼인 상태											
미혼	5.4	11.3	31.3	4.9	5.4	5.1	10.4	0.0	26.2	0.0	100.0
유배우	5.2	13.9	19.8	16.5	10.3	11.5	9.5	1.3	11.8	0.3	100.0
사별	3.4	6.8	8.5	10.2	5.8	36.0	6.5	0.0	22.7	0.0	100.0
이혼/별거	4.8	6.4	16.8	14.9	15.0	12.9	10.7	0.0	18.4	0.0	100.0
출신 국적											
중국	3.6	8.6	20.5	17.8	12.1	14.4	9.6	0.7	12.7	0.0	100.0
중국(한국계)	4.8	6.3	18.6	13.7	9.2	18.7	8.1	2.2	18.4	0.0	100.0
대만, 홍콩	6.0	18.8	29.5	30.8	13.7	1.3	0.0	0.0	0.0	0.0	100.0
일본	10.3	33.0	30.2	16.8	8.5	0.0	0.4	0.0	0.7	0.0	100.0
몽골	5.1	37.5	22.0	15.2	10.1	0.0	8.4	0.0	1.7	0.0	100.0
베트남	0.8	2.5	8.5	13.6	11.5	5.1	36.6	0.8	20.5	0.0	100.0
필리핀	0.0	13.1	21.5	26.2	25.1	0.0	7.3	1.6	4.2	0.9	100.0
태국	4.7	4.7	30.2	16.3	11.6	0.0	11.6	0.0	20.9	0.0	100.0
캄보디아	2.3	2.3	0.0	20.5	11.4	15.9	29.5	0.0	18.2	0.0	100.0
우즈베키스탄	3.0	48.5	33.3	6.1	0.0	0.0	6.1	0.0	3.0	0.0	100.0
러시아	6.5	39.0	15.6	15.6	15.6	3.9	3.9	0.0	0.0	0.0	100.0
북미	13.1	48.1	16.3	12.6	3.5	0.0	1.9	0.3	0.0	4.2	100.0
동남아 기타	14.2	24.3	12.3	28.6	4.1	2.0	6.2	0.0	8.2	0.0	100.0
남부아시아	8.2	8.2	4.1	33.8	16.7	0.0	8.5	0.0	20.5	0.0	100.0
서유럽대양주	11.7	55.9	11.2	11.7	5.2	0.0	1.4	0.0	1.4	1.4	100.0
기타	11.3	32.0	20.1	10.5	8.2	3.4	4.8	2.0	5.9	2.0	100.0



## 2) 공존을 위한 사회 참여

### (1) 개인적 교류

전국 실태조사 결과 결혼이민·귀화자 등이 집안 어려운 일을 의논하는 대상을 2009년 실태조사와 비교하여 볼 때 여가나 취미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들은 현저히 증가한 반면, 모국인, 한국인 또는 두 집단 이상과 집안일을 의논하거나 여가나 취미 생활을 같이 하는 이들은 감소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전기택 외, 2013). 서울시 거주자에 대한 연구(장명선, 2010)에서는 특히 서울 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모국인 보다는 한국인 연결망 수준이 높으나 교육 수준이 낮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사회적 자본의 범위도 협소하고, 사별한 결혼 이민자의 46%가 취미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서울 거주 결혼이민·혼인 귀화자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혼인 상태에 따라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표 III-83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사회적 네트워크 : 어려운 일 의논

(단위: 명, %)

구분	모국인		한국인		기타 외국인		아무도 없음		두 집단 이상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전체	47.3 (33,854)	38.6 (109,406)	37.0 (26,460)	31.7 (89,874)	1.3 (929)	1.5 (4,135)	22.1 (15,781)	21.7 (61,568)	7.4 (5,275)	6.4 (18,241)	
성별	여성	48.2	40.1	38.0	31.1	1.1	1.2	20.3	21.1	7.4	6.5
	남성	45.4	32.7	35.0	34.4	1.8	2.3	25.6	24.3	7.3	6.3
혼인 상태	미혼	35.6	25.7	50.6	48.3	0.7	2.0	18.1	18.4	5.0	5.7
	유배우	48.3	39.5	36.9	31.2	1.4	1.5	21.1	21.2	7.5	6.5
	사별 이혼별거	43.8	32.7	35.8	31.2	0.0	0.8	25.9	30.6	5.5	4.7
		44.9	32.7	29.4	29.7	0.6	0.7	33.6	31.4	8.4	5.6

2012년 실태조사 결과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려운 일을 의논하는 상대로 서울 거주 결혼이민·귀화자 여성의 절반가량은 모국인을 꼽고 있으며, 특히, 사별이나 이혼·별거 등 배우자가 없는 그룹에서 모국 출신자에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



타났다. 서울 거주 미혼자의 경우 어려운 일 의논 상대 1순위가 한국인인 반면 유배우, 사별, 이혼·별거 그룹 모두에서 모국인이 1순위로 꼽히고 있으며, 의논상대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대답은 이혼·별거의 경우의 응답률이 높아 가족 관계의 해체와 함께 주변 지지망이 미비한 이들을 위한 정서적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III-84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사회적 네트워크 : 여가/취미를 함께 하는 사람  
(단위: 명, %)

구분	모국인		한국인		기타 외국인		아무도 없음		두 집단 이상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전체	31.4 (22,458)	26.6 (75,442)	32.2 (23,069)	28.6 (80,967)	2.5 (1,785)	1.8 (5,220)	40.7 (29,120)	37.3 (105,692)	6.2 (4,449)	5.6 (15,902)	
성별	여성	29.4	27.5	32.2	27.7	1.8	1.7	42.2	38.0	5.2	5.2
	남성	35.4	23.4	32.3	32.2	3.9	2.6	37.6	34.6	8.3	7.3
연령	24세이하	27.9	35.3	43.6	24.0	1.3	2.2	30.3	34.8	2.8	3.7
	25~29세	38.0	35.3	35.9	23.1	3.8	2.4	30.6	33.4	7.6	5.8
	30~34세	36.7	30.0	40.4	29.5	3.9	2.3	28.9	31.8	8.6	6.5
	35~39세	27.7	21.7	38.8	33.9	4.6	2.1	38.7	34.9	8.4	7.4
	40~49세	35.6	23.3	29.3	30.2	1.9	1.3	40.3	38.8	6.7	6.4
	50세이상	25.2	19.0	24.7	28.9	1.3	1.2	52.9	47.5	3.8	3.3
혼인상태	미혼	25.4	18.1	52.9	50.8	2.4	1.3	25.1	23.9	5.9	5.8
	유배우	32.6	27.4	32.6	28.1	2.7	2.0	39.2	36.7	6.5	5.8
	사별	28.6	21.0	22.7	20.7	0.3	0.9	52.2	54.9	3.5	2.4
	이혼/별거	22.5	19.9	18.3	24.8	0.7	0.5	63.6	51.8	4.6	3.0

여가나 취미를 함께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통해 알아본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가장 취약한 그룹으로 드러난 이들은 서울 거주 미혼·이혼·사별·유배우 상태에 있는 이들이다. 이들 그룹에서는 무려 63.6%가 취미나 여가를 함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 서울 거주 그룹의 50% 이상이 여가나 취미를 함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 미혼의 서울 거주자가 한국인과 가장 활발한 취미·여가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어려운 일을 상의하거나 취미·여가 활동을 남들과 어울려 하는 사적 형식을 띤 활동이라고 본다면 일자리나 자녀 교육에 대한 의논은 어느 정도 공적 정보 소통의 장으로 기능을 하게 되며, 일자리나 자녀 교육 등에 관해서는 외국 출신자보다는 선주 한국민의 정보가 보다 유용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표 III-85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사회적 네트워크 : 일자리, 자녀교육(전국, 서울)  
(단위: 명, %)

구분	모국인		한국인		기타 외국인		아무도 없음		해당없음		두 집단 이상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일자리 의논	전체	33.2 (23,725)	25.2 (63,702)	35.7 (25,576)	35.8 (90,487)	1.6 (1,156)	1.5 (3,920)	17.4 (12,442)	19.7 (49,730)	19.5 (13,968)	11.9 (30,098)	7.1 (5,068)	6.0 (15,084)
	여성	30.5	24.9	35.1	35.5	1.1	1.3	18.1	20.1	21.8	12.8	6.4	5.3
	남성	38.6	26.2	37.2	36.6	2.6	2.5	15.9	17.9	14.7	8.4	8.5	8.4
자녀 교육 의논	전체	16.6 (11,885)	14.7 (41,745)	24.3 (17,386)	28.3 (80,244)	0.7 (493)	0.7 (1,970)	15.1 (10,833)	17.8 (50,404)	47.3 (33,813)	34.6 (98,126)	3.8 (2,726)	3.8 (10,735)
	여성	16.6	15.8	27.4	31.0	0.5	0.6	16.4	18.6	43.3	29.9	4.1	4.0
	남성	16.6	10.5	17.8	17.6	1.0	1.0	12.5	14.5	55.4	53.6	3.2	2.8

전국적인 결과, 서울거주자에 대한 분석 결과 모두 모국인과 의논한다는 응답률 보다 한국인과 의논한다고 하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녀 교육이 특히 한국인과 의논한다고 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자리 관련 의논은 서울 거주자의 경우 한국인과 의논한다고 하는 비율이 모국인에 비해 높기는 하나, 그 차가 크지는 않다. 이는 앞서 구직의 경로에서 모국인 친구나 아는 사람의 소개가 한국인 친구나 이웃의 소개의 2.5배 이상의 응답률을 보인 것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과의 일상적인 접촉이 관계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진다. 일상적인 접촉이 의견을 주고받고, 정보를 교류하는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교류의 현실적 필요성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자녀 교육과 관련해 한국인과 더 많이 논의한다고 하는 분석 결과는 그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 (2) 지역사회 참여

결혼이민·귀화자 등이 자녀 학교의 학부모 모임, 모국인 친구모임, 지역 주민 모임, 봉사·취미 활동, 단체 활동의 참여 경험 여부를 통해 지역사회 참여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공식적이고, 정기적인 성격을 띤 활동에 대한 참여는 결혼이민·귀화자 등이 한국 사회에서 공적 활동의 장으로 삶의 국면을 확장해 갈 가능성을 열어 주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바이다.

### ① 자녀 학교의 학부모 모임

자녀 학교의 학부모 모임에 참여한 경험에 대해 해당 없음이 47.3%인데, 서울 거주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 출신인들의 경우 해당 응답이 50%를 상회하고, 경험 없음의 응답이 40%대에 이른다라는 점에서 서울 거주 결혼이민·혼인귀화자 등의 참여율이 낮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서울 거주 결혼이민·혼인귀화자 등의 9.4%가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별로는 여성(10.8%)이 남성(6.0%) 보다 높다. 연령별로 만 35~39세가 16.5%로 참여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만 40~49세도 15.2%의 참여경험을 응답하였는데, 이는 해당 연령대의 결혼이민·혼인 귀화자 자녀가 학령기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자가 10.7%로 이혼·별거 4.4%, 사별 0.9%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혼·별거나 사별의 경우 해당 없음의 응답이 유배우 상태인 그룹에 비해 높기는 하나, 문제는 해당이 되는 데에도 경험이 없는 29.6%의 이혼·별거, 14.1%의 사별 상태인 이들이다.

출신 국적별로 참여 경험이 가장 낮은 경우는 캄보디아, 베트남 출신자인데 이들은 한국에서 일자리 탐색의 어려움,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응답에서 모두 한국어 실력을 꼽고 있어 모임 등의 불참 사유 또한 한국어 실력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태조사결과 11.8%가 자녀 학교의 학부모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답한 데 비해서 서울 거주자의 응답율은 2.4% 포인트 낮으며 특히 여성의 참여경험이 전국(13.3%)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남성의 경우는 전국적인 결과와 서울시 거주자 분석이 수치상 일치하고 있다. 한편 2009년 실태조사에 대한 서울시 분석

연구(장명선, 2010)에는 2012년에 추가된 ‘해당 없음’의 항목이 없어 단순 비교에 한계가 있으나, 학부모 모임의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이 64.4%에 이르고 있다.

【 표 Ⅲ-86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자녀 학교의 학부모 모임 참여 경험 유무

(단위: %, 명)

구분		해당 없음	경험 있음	경험 없음	합계
전체		47.3 (33,850)	9.4 (6,735)	43.3 (30,968)	100.0 (71,553)
성별	여성	43.4	10.8	45.8	100.0
	남성	55.5	6.0	38.0	100.0
연령	24세 이하	62.6	0.0	37.4	100.0
	25~29세	43.6	4.6	51.8	100.0
	30~34세	28.6	8.9	62.5	100.0
	35~39세	26.3	16.5	57.2	100.0
	40~49세	34.1	15.2	50.7	100.0
	50세 이상	77.4	3.9	18.7	100.0
혼인 상태	미혼	100.0	0.0	0.0	100.0
	유배우	41.2	10.7	48.1	100.0
	사별	85.0	0.9	14.1	100.0
	이혼/별거	66.0	4.4	29.6	100.0
출신 국적	중국	50.1	7.2	42.7	100.0
	중국(한국계)	53.9	6.7	39.4	100.0
	대만, 홍콩	33.7	18.9	47.4	100.0
	일본	46.0	20.6	33.4	100.0
	몽골	17.8	13.5	68.7	100.0
	베트남	25.3	5.1	69.6	100.0
	필리핀	25.6	17.3	57.1	100.0
	태국	39.1	11.8	49.1	100.0
	캄보디아	22.1	4.2	73.7	100.0
	우즈베키스탄	19.6	19.5	60.9	100.0
	러시아	28.3	16.0	55.7	100.0
	북미	49.4	17.4	33.2	100.0
	동남아 기타	34.5	16.4	49.1	100.0
	남부아시아	30.5	2.9	66.6	100.0
	서유럽대양주 기타	49.0 49.2	15.7 14.5	35.3 36.3	100.0 100.0

## ② 지역 및 단체 활동 참여 경험

지역 모임 참여에 대해서는 9.7%만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참여경험이 약간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만 50세 이상에서 혼인상태별로는 사별이 다른 유형에 비해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홍콩, 북미 출신자 그룹에서 각각 참여경험이 18.2%로 높게 나타났으며, 남부아시아 출신자는 3.0%만이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봉사, 취미활동 참여 경험은 성별로 여성 16.5%, 남성 18.2%로 참여율이 가장 높은 분야임이 드러났다. 연령별로는 만 30~34세가 25.1%로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참여 경험이 점차 감소하였다. 미혼의 참여 경험이 25.3%로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출신국적 별로는 북미가 51.5%, 서유럽대양주 44.9%, 일본 42.0% 순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단체활동(민간단체, 정당, 노동조합 등) 참여는 3.5%만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종류의 사회참여 활동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참여 경험에서 5%를 넘는 그룹이 없으며, 출신국적별로 볼 때, 일본 출신인의 12.3%, 북미 출신인의 10.1%가 참여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표 Ⅲ-87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지역 내 활동 참여 경험

(단위: %, 명)

구분		지역모임	봉사활동	단체활동
전체		9.7 (6,953)	17.0 (12,196)	3.5 (2,517)
성별	여성	9.9	16.5	2.9
	남성	9.3	18.2	4.7
연령	24세 이하	5.4	14.6	3.1
	25~29세	10.1	20.5	2.0
	30~34세	8.4	25.1	4.4
	35~39세	9.8	19.7	4.2
	40~49세	9.1	16.3	3.8
	50세 이상	11.7	12.3	3.1
혼인 상태	미혼	5.9	25.3	2.6
	유배우	10.1	17.3	3.8
	사별	16.8	12.9	1.2
	이혼/별거	4.4	10.1	2.2
출신 국적	중국	8.8	9.6	2.3
	중국(한국계)	8.5	10.8	1.1
	대만, 홍콩	18.2	35.4	8.4
	일본	10.1	42.0	12.3
	몽골	9.4	16.2	5.4
	베트남	9.2	11.9	1.6
	필리핀	11.4	20.7	6.6
	태국	9.8	19.6	3.9
	캄보디아	7.1	21.3	7.1
	우즈베키스탄	8.7	15.2	2.2
	러시아	8.0	18.6	8.0
	북미	18.2	51.1	10.1
	동남아 기타	11.5	21.3	4.9
	남부아시아	3.0	11.1	2.7
	서유럽대양주	12.4	44.9	7.0
기타	9.0	31.6	5.3	

### ③ 참여하고 싶은 모임 유무 및 종류

결혼이민·귀화자 등에게 참여하고 싶은 모임에 대해서는 모국인 친구 모임 참여 희망이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나 선주 한국민 일반과의 교류보다는 모국인 네트워크 의존도가 높은 현실이 당분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모임의 성격별로는 봉사·취미활동 28.5%, 자녀 학교의 학부모 모임 11.2%, 지역주민모임 9.2% 순으로 참여 희망응답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37.5%에 이르고 있으며, 남성의 경우 그 정도가 보다 심하여 46.0%가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을 했다는 점이다.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과 단체 활동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 희망 응답율이 남성보다 높으며 연령별로 볼 때 만 50세 이상은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51.8%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다. 자녀 학교의 학부모 모임은 만30~34세가 19.3%, 지역주민 모임은 만35~39세가 12.2%, 봉사취미활동은 만25~29세가 37.5%, 단체 활동은 만30~34세가 4.4%로 높게 나타났다.

사별의 경우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49.5%로 높게 나타난 반면 모국인 친구 모임에 대한 참여 희망이 26.0%, 지역주민 모임 참여 희망이 16.0%로 나타나 이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소외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모국인 모임이나 지역주민 모임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 출신인과 대만·홍콩 등 범중국계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Ⅲ-88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참여하고 싶은 모임 유무 및 종류(복수 응답)

(단위: %, 명)

구분		참여하고 싶지 않음	자녀 학교의 학부모 모임	모국인 친구 모임	지역 주민 모임	봉사취미 활동	단체활동 (민간단체, 정당 외)
전체		37.5 (26,841)	11.2 (7,991)	42.1 (30,091)	9.2 (6,606)	28.5 (20,368)	2.6 (1,872)
성별	여성	33.4	13.2	44.2	10.3	29.9	2.5
	남성	46.0	7.0	37.6	7.0	25.6	2.9
연령	24세 이하	31.3	11.5	45.5	7.2	27.9	1.2
	25~29세	22.9	16.9	55.1	11.1	37.5	2.5
	30~34세	33.1	19.3	41.9	8.6	33.8	4.1
	35~39세	31.3	18.1	42.3	12.2	33.7	3.8
	40~49세	34.5	11.7	44.4	8.5	28.8	2.1
	50세 이상	51.8	1.6	34.5	8.6	20.3	2.3
혼인 상태	미혼	52.6	4.6	25.6	2.6	27.6	2.3
	유배우	35.4	12.6	43.7	9.6	28.8	2.8
	사별	49.5	1.6	26.0	16.0	22.3	0.0
	이혼/별거	46.6	2.7	41.1	6.0	28.4	1.8
출신 국적	중국	46.2	9.2	37.1	9.4	24.9	2.1
	중국(한국계)	37.6	8.3	43.2	8.0	22.4	1.4
	대만, 홍콩	43.0	15.2	28.1	7.3	36.9	3.5
	일본	26.5	15.9	43.4	16.1	50.2	7.1
	몽골	25.6	17.5	48.8	10.8	35.0	2.7
	베트남	22.1	15.7	59.3	9.2	25.5	1.9
	필리핀	18.8	23.9	61.2	10.5	29.3	3.3
	태국	23.7	17.6	56.8	7.8	29.4	5.9
	캄보디아	12.8	24.1	70.2	14.2	34.0	4.3
	우즈베키스탄	21.7	26.1	47.8	10.9	41.3	0.0
	러시아	23.0	18.6	55.7	2.7	34.5	5.3
	북미	37.5	14.3	30.9	7.5	47.2	4.8
	동남아 기타	29.6	8.2	50.8	13.1	27.9	3.3
	남부아시아	19.3	11.8	64.1	5.9	19.5	0.0
	서유럽대양주 기타	31.3 24.4	11.0 16.9	36.1 49.2	5.6 8.6	42.0 39.1	3.2 7.9



#### ④ 모임이나 활동 참여 시 어려운 점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모임이나 활동 참여 시 어려운 점으로는 일을 해야 하므로 33.2%, 한국어가 서툴러서 15.4%, 참여하고 싶은 모임이 없어서 10.9%, 가족을 돌봐야 하므로 9.0%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데, 여성은 31.7%, 남성은 36.3%의 응답률을 보여 결혼이민·혼인귀화자 등의 일로 인한 시간 부담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응답은 여성의 경우 한국어가 서툴러서(17.4%), 모임을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8.8%)가 주된 이유로 응답된 반면 남성은 참여하고 싶은 모임이 없어서(12.6%)가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가족을 돌봐야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2.0%로 남성(2.5%)에 비해 매우 높았으며, 그 외 영역에서도 남성에 비해 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만24세 이하와 50세 이상에서 대체적으로 모임 참여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에서 모임 참여가 어려운 주된 이유로 한국어실력이 꼽힌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일과 참여하고 싶은 모임이 없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 만 35~49세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 가장 높았으며, 한국어실력에 따른 문제도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한국어가 서툴다는 응답이 17.7%로, 혼인상태 유배우의 경우는 사회 전반적인 활동의 장애가 되는 부분이 한국어 실력이라는 점에서 입국 초기 거주자들의 적극적인 한국어 학습 지원이 요구된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이혼·별거 상태인 이들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5.6%로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출신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어가 서툴러서라는 응답은 태국 50.9%, 필리핀 49.8%, 베트남 48.6%, 캄보디아 46.8%로 높게 나타났다. 가족을 돌보거나(29.8%), 배우자 및 가족의 반대(7.1%)는 캄보디아, 모임을 같이할 사람이 없다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는 응답은 태국이 다른 국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 출신인 동남아 기타 국가 출신인, 몽골 출신인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Ⅲ-89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모임이나 활동 참여 시 어려운 점(복수 응답)

(단위: %, 명)

구분	어려운 점 없음	한국어가 서툴러서	배우자 및 가족의 반대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가족을 돌보아야 하므로	일을 해야 하므로	모임을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참여하고 싶은 모임이 없어서	기타
전체	33.4 (23,892)	15.4 (11,039)	1.3 (846)	3.8 (2,718)	9.0 (6,409)	33.2 (23,741)	8.0 (5,730)	10.9 (7,794)	3.3 (2,379)
성별									
여성	30.6	17.4	1.6	4.2	12.0	31.7	8.8	10.1	3.5
남성	39.2	11.3	0.3	3.0	2.5	36.3	6.4	12.6	3.0
연령									
24세 이하	37.5	32.8	2.7	1.8	11.6	13.1	9.3	7.5	1.6
25~29세	29.7	26.4	3.9	4.9	15.6	22.2	12.7	10.2	2.3
30~34세	28.0	22.3	1.7	4.5	18.6	27.1	10.3	10.9	0.9
35~39세	27.3	18.3	0.6	3.7	16.4	35.1	8.0	11.4	3.1
40~49세	32.1	13.8	0.9	4.1	4.9	44.3	6.0	8.3	3.3
50세 이상	40.5	5.3	0.3	3.3	2.4	31.6	7.1	14.2	5.2
혼인상태									
미혼	59.1	1.1	0.0	1.7	0.0	21.9	4.4	12.2	2.2
유배우	32.5	17.7	1.4	3.8	9.9	32.4	8.3	10.5	2.9
사별	45.3	3.9	0.0	5.3	4.2	21.1	9.9	14.1	9.9
이혼/별거	21.6	3.9	0.0	4.4	5.8	55.6	6.1	12.6	6.4
출신국적									
중국	32.8	10.6	0.8	3.8	9.3	36.9	8.2	12.2	2.8
중국(한국계)	35.1	5.0	1.2	3.9	5.1	39.7	6.1	9.3	4.8
대만, 홍콩	55.8	7.6	1.2	1.8	6.0	18.4	6.6	12.8	2.3
일본	30.5	26.5	0.3	4.2	8.9	29.8	10.4	9.6	4.6
몽골	20.2	27.2	1.3	6.7	21.6	32.3	13.8	14.8	2.7
베트남	14.2	48.6	3.1	3.1	20.5	22.5	11.1	8.5	1.9
필리핀	20.2	49.8	3.3	2.1	17.8	24.1	9.2	7.4	1.3
태국	15.7	50.9	2.0	10.0	17.6	29.4	23.5	8.0	2.0
캄보디아	16.4	46.8	7.1	4.3	29.8	15.6	7.1	11.3	2.8
우즈베키스탄	26.1	30.4	2.2	6.5	13.0	13.0	21.7	19.6	0.0
러시아	28.3	37.2	8.0	5.3	15.9	13.3	8.0	2.7	2.7
북미	59.9	15.9	0.0	1.1	5.8	14.6	5.4	12.2	1.5
동남아 기타	26.2	29.3	0.0	6.6	18.1	33.0	8.2	3.3	3.3
남부아시아	30.2	22.7	2.7	8.2	11.4	27.7	14.1	5.5	0.0
서유럽대양주	40.1	27.3	0.7	3.2	6.6	22.3	7.9	17.3	1.7
기타	23.1	29.4	1.5	8.8	7.0	20.9	12.1	22.6	3.7

## 7. 다문화가족의 자녀 :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의 결혼 등으로 한국으로 이주한 중도입국 청소년은 애초 존재하나, 드러나지 않는 이들이었다. 법무부의 특화된 통계도 없었고, 이들에 대한 연구에서는 연구자별로 다른 기준을 통해 중도입국청소년의 규모를 추산하여 온 것이 현실이다. 부처별로도 그 집계 방식이 달라 안전행정부는 귀화자와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편, 교육부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만 파악하고, 법무부는 귀화자를 포함한 국민의 자녀 중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입국한 경우만 집계한다.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에서는 9~24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외국 성장 자녀를 따로 분류해 분석함으로써 중도입국자녀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중도입국자녀는 외국 국적이라도 일정기간 이상 한국에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국적 취득 비율 또한 높다는 점은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외국 성장 자녀 중 52.2%는 이미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 중 49.4%는 국적 취득 계획이 있고, 31.6%도 영주권 취득 계획을 밝히고 있어, 90.9%가 한국에서 영주할 것이 예측되는 이들이다(전기택 외, 2013; 714-715).

표 III-90 다문화가족 자녀의 외국계 부모 출신국적 및 귀화 여부(서울)

(단위: %, 명)

구분		비율(수)
전체		100.0
외국계 부모 출신국적	중국	31.3
	중국(한국계)	27.9
	대만, 홍콩	5.1
	일본	10.5
	몽골	1.4
	베트남	4.9
	필리핀	3.8
	태국	1.1
	캄보디아	0.3
	우즈베키스탄	0.6
	러시아	0.7
	북미(미국, 캐나다)	5.4
	동남아 기타	1.4
	남부아시아	0.6
	서유럽/대양주	0.8
	기타	4.1
외국계 부모 귀화 여부	귀화자	50.7
	이중 국적자	5.1
	외국인	44.2

외국인이라 해도 부모가 한국인이거나 귀화자라면 ‘특별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일반귀화가 한국 거주 5년 이상, 민법상 성년, 생계유지능력 같은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하는 데 반해 특별귀화는 품행 단정, 기본 소양 요건만 갖추면 된다. 특별귀화를 통해 국적을 얻는 미성년 중도입국 자녀의 수는 매년 2000~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1) 중도입국청소년의 실태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는 9~24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왔다고 응답한 자녀를 외국 성장 자녀로 분류하여 중도입국자녀와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으며, 조사 결과 외국에서 성장한 9세 이상 자녀는 전체 17,902명으로 추산되고 있다(전기택 외, 2013; 701).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 결과 18세 이상이 68.4%로 외국성장 자녀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이 드러나 0세부터 19세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집계와 한계가 확인되고 있다.

표 III-91 | 9~24세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별 분포

(단위: %)

구분	9-11세		12-14세		15-17세		18세 이상		합계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체	27.9	22.8	22.0	16.7	15.7	11.2	34.4	49.4	100.0	100.0
외국성장자녀	9.9	7.8	10.5	8.2	11.1	9.3	68.4	74.9	100.0	100.0

자료: 여성가족부,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남녀 성비에 따른 분류를 보면 여성이 52.2%, 남성이 47.8%로 여성의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한국계) 47.2%, 중국 24.8%로 외국에서 성장한 자녀의 전체 72%를 중국 출신이 차지했고, 일본 5.6%, 미국 3.4%, 베트남 2.5%로 파악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sup>26)</sup> 중도입국 자녀의 출신국은 결혼이민자 등의 출신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즉, 중국 출신의 결혼이민자의 높은 비율은 부모 연고로 한국에 거주하게 된 중도입국 자녀 중에도 중국 출신이 가장 많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다만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가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 중도입국 자녀의 경우는 베트남이 일본과 미국보다 수적 열세에 있다.

연령에 따른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재학 학령기인 15~17세 청소년의 36.9%가 초등학교 재학, 24.6%가 중학교 재학, 14.8%가 중학교 졸업, 12.4%가 초등학교 졸업이고 고등학교 재학은 10.2%, 고등학교 졸업은 1.2%로 나타나 연령 대비 학력 수준

26) 한편 2012년 법무부 집계에 대한 보도에서는 중국 출신이 6천 221명으로 전체 82%를 차지했고, 일본과 몽골 출신자녀가 213명과 212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베트남 출신 자녀도 201명으로 200명을 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18세 이상의 경우도 고졸 이상은 57%에 불과하다. 한국사회의 대학 진학률이 70.7%임을 감안한다면 평균적인 학력이 낮다고 볼 수 있다.<sup>27)</sup>

【 표 III-92 】 외국성장자녀가 주로 체류한 국가에서의 교육정도(전국)

(단위: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합계
		재학	졸업	재학	졸업	재학	졸업	재학	졸업	
전체		17.8	5.0	9.9	14.9	8.5	31.9	5.5	6.4	100.0
지역	동부	16.2	5.2	9.3	15.1	8.8	33.0	5.7	6.9	100.0
	읍면부	31.8	4.7	14.3	13.7	6.6	22.7	3.3	2.9	100.0
성별	여성	18.9	5.9	9.5	12.0	7.9	32.1	6.4	7.3	100.0
	남성	16.7	4.1	10.3	18.1	9.2	31.7	4.4	5.5	100.0
연령	9-11세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2-14세	77.7	11.0	11.3	0.0	0.0	0.0	0.0	0.0	100.0
	15-17세	36.9	12.4	24.6	14.8	10.2	1.2	0.0	0.0	100.0
	18세이상	3.9	3.7	8.2	17.4	9.7	41.5	7.1	8.4	100.0

한편 서울 거주자의 경우, 18세 이상 고졸 학력이 42.1%, 대학교 재학과 졸업을 합쳐 18.9%로 전국에 비해 학력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서유럽·대양주 출신 부모를 둔 중도입국 자녀의 100%가 대졸자라는 부모의 출신 국적에 따른 특성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서울 거주 중도입국 청소년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 출신인들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구간에 40%가량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27) '2013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13년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는 63만1,197명이다. 이중 전문대를 포함해 대학에 진학한 사람은 44만6,474명으로 2월 졸업생 대비 대학 진학률은 70.7%였다.

【 표 III-93 】 외국성장자녀가 주로 체류한 국가에서의 교육정도(서울)

(단위: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합계
		재학	졸업	재학	졸업	재학	졸업	재학	졸업	
전체		14.9 (677)	4.5 (206)	9.1 (414)	13.2 (596)	9.3 (420)	33.9 (1,536)	7.2 (327)	7.8 (354)	100.0 (4,530)
성 별	여성	15.9	5.6	7.1	6.2	6.8	39.3	7.2	12.0	100.0
	남성	14.1	3.6	11.0	19.4	11.5	29.1	7.2	4.1	100.0
연 령	9~11세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2~14세	75.7	10.7	13.6	0.0	0.0	0.0	0.0	0.0	100.0
	15~17세	19.0	11.3	35.2	19.1	14.5	0.9	0.0	0.0	100.0
	18세 이상	3.0	3.6	6.8	14.7	10.3	42.6	9.1	9.8	100.0
출 신 국 적	중국	8.8	4.0	9.9	13.8	17.5	39.1	3.4	3.5	100.0
	중국(한국계)	13.2	4.1	8.4	15.2	4.0	31.7	13.2	10.3	100.0
	대만, 홍콩	23.9	0.0	0.0	19.6	0.0	56.5	0.0	0.0	100.0
	일본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몽골	0.0	0.0	33.9	19.6	0.0	46.5	0.0	0.0	100.0
	베트남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필리핀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러시아	0.0	0.0	0.0	0.0	0.0	100.0	0.0	0.0	100.0
	북미	37.2	21.6	3.8	3.8	4.7	0.0	7.3	21.8	100.0
	서유럽/대양주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기타	23.3	0.0	0.0	25.6	0.0	51.1	0.0	0.0	100.0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는 이후 한국 사회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 방향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본정보가 될 것이다. 특히 문화적 자본의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이후 한국 사회에서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국 이후 이러한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장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정 연령대 이상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연령대에 맞는 진학이나 이후 취업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고등학교 학령기 입국자의 정규교육 연계 및 학령기를 지난 입국자를 위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서울시의 다문화가족 자녀수는 29,285명이며, 교육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학교급별, 유형별 서울시 다문화가족 학생 수는 7,485명이다. 만 9~24세 다문화가족 자녀를 부모의 출신국적별로 분류해 본 결과는 결혼이민·귀화자의 국적 비율이 중국, 한국계 중국의 비율이 다른 국적에 비해 높은 반면 초·중·고등학교 재학 다문화가족 자녀의 부모 국적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일본이라는 점에서 중도입국자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계의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 표 III-94 】 다문화 가족 학생의 출신국별 부모 현황

(단위: 명)

시도	부모 출신국																	
	일본	중국	중국 한국 계	대만	몽골	필리 핀	베트 남	태국	인도 네시 아	남부 아시 아	중앙 아시 아	미국	러시 아	유럽	아프 리카	오세 아니 아	기타	계
서울	2,020	1,691	1,377	156	312	599	388	120	50	113	117	113	131	76	39	16	167	7,485
전국	12,933	7,709	8,173	537	1,021	7,553	3,408	1,136	443	692	782	479	738	285	127	84	854	46,954
비율 (%)	27.5	16.4	17.4	1.1	2.2	16.1	7.3	2.4	0.9	1.5	1.7	1.0	1.6	0.6	0.3	0.2	1.8	100.0

자료: 2012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교육부

## 2) 소속 없는 삶과 공적 활동에서 겪는 어려움

교육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중도입국 청소년의 현황을 함께 보면 중도입국 청소년이 정규학교에 다니고 있는 비율이 현저히 적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2012년 법무부 통계에서 학령기 중도입국자를 6135명으로 파악되었으나 전체 청소년 중 정규학교에 재학생의 수는 4288명으로 70%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표 III-95 시도별 다문화가정 학생 세부현황(2012년)

(단위: 명)

구분	유형			소계
	국내출생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서울	5,149	1,219	1,117	7,485
부산	1,646	248	103	1,997
대구	1,059	110	48	1,217
인천	2,086	242	140	2,468
광주	964	88	34	1,086
대전	740	99	70	909
울산	661	46	12	719
경기	8,275	1,379	759	10,413
강원	2,300	84	38	2,422
충북	1,921	147	45	2,113
충남	2,805	149	87	3,041
전북	2,913	106	45	3,064
전남	3,629	87	21	3,737
경북	2,640	85	45	2,770
경남	2,870	154	43	3,067
제주	382	45	19	446
총	40,040	4,288	2,626	46,954

자료: 2012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교육부

전체 중도입국 청소년 중 학령기 자녀의 학교 급별 현황을 보면 중고등학교 재학률이 현저하게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 2012년 실태조사 결과에서 초·중·고등학교 재학 연령대 중도입국 청소년의 비율은 초등재학 연령에서 중학연령, 고교재학연령으로 올라갈수록 비율이 높아지나, 교육부의 학교 급별 중도입국 청소년 재학생은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Ⅲ-96 】 학교급별 다문화가족 학생 분포(서울)

(단위: 명)

구분	학교급			
	초	중	고	계
국내출생	3,942	877	330	5,149
중도입국	772	273	174	1,219
외국인가정	713	234	170	1,117
소계	5,427	1,384	674	7,485

자료: 2012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교육부

국내성장 다문화가족 자녀와 외국성장 자녀의 학업 중단 사유를 비교해 본 분석 결과를 통해서 왜 중도입국 청소년이 학교 교육으로부터 배제되고 이탈되고 있는지의 사유는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원인은 전국 통계와 서울시 현황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서울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를 이유로 든 비율이 51.4%로 다른 원인을 압도하고 있다. 이는 결혼이민·귀화자 등 서울 거주자가 한국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적 문제를 든 것과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외국성장 자녀의 58.9%가 가정형편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다고 밝히고 있어 서울 거주 다문화가족 자녀 중에서도 중도입국자녀가 특히 가족의 경제적 문제에 민감하다고 볼 수 있다.

【 표 Ⅲ-97 】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 중단 사유(서울)

(단위: %)

구분		친구 교사 와의 관계	한국어 실력 부족	어려운 학교 공부	학교 생활, 문화 차이	어린 친구 들과 다니다 싫어서	가정 형편	가족 문제 28)	질병 또는 사고	기타	합계
서울		2.6	0.0	8.1	13.5	0.0	51.4	0.0	0.0	24.4	100.0
성별	여성	0.0	0.0	0.0	20.4	0.0	79.6	0.0	0.0	0.0	100.0
	남성	3.6	0.0	11.0	11.0	0.0	41.3	0.0	0.0	33.2	100.0
연령	12~14세	-	-	-	-	-	-	-	-	-	-
	15~17세	24.6	0.0	75.4	0.0	0.0	0.0	0.0	0.0	0.0	100.0
	18세 이상	0.0	0.0	0.0	15.1	0.0	57.6	0.0	0.0	27.3	100.0
성장 지	국내성장	6.9	0.0	0.0	14.1	0.0	39.5	0.0	0.0	39.5	100.0
	성장	0.0	0.0	13.1	13.1	0.0	58.9	0.0	0.0	15.0	100.0
부모 출신 국적	중국	0.0	0.0	13.1	13.1	0.0	49.2	0.0	0.0	24.6	100.0
	중국(한국)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일본	0.0	0.0	0.0	36.9	0.0	0.0	0.0	0.0	63.1	100.0
	몽골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서울의 경우 어린 친구들과 다니다 싫어서, 가족문제를 이유로 한 학업 중단 사유가 없는 반면 전국적인 통계는 해당 사유가 각각 2.7%와 5.1%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해당 사유는 모두 국내 성장 자녀의 응답이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전국과의 차이는 한국어 실력에 대한 응답에서도 드러난다. 서울거주 자녀는 국내성장, 중도입국자녀와 달리 전국 중도입국자녀의 15.3%가 학업 중단의 사유로 한국어를 꼽고 있다. 특이한 점은 서울거주 자녀 세대 중에서 학교생활, 문화의 차이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는 국내성장 자녀의 응답률이 오히려 중도입국자녀보다 높게 나타나 전국적인 결과와 상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8) 가족 문제는 부모의 이혼 등의 사유가 이에 해당된다.

【 표 III-98 】 다문화가족자녀의 학업 중단 사유(전국)

(단위: %)

구분	친구, 교사와 관계	한국어를 잘 몰라서	어려운 학교 공부	학교 생활, 문화가 달라서	어린 친구들과 다니기 싫어서	어려운 가정 형편	가족 문제	질병 사고	기타	합계
전국	23.8	5.0	9.7	5.1	2.7	18.6	5.1	0.7	29.4	100.0
국내성장	26.1	0.0	9.7	1.7	4.0	13.5	7.6	0.0	37.5	62.6
외국성장	19.0	15.3	9.7	12.1	0.0	29.2	0.0	2.1	12.6	87.4

학교공부의 어려움은 특히 국내성장 자녀 보다 외국성장 자녀가 심각하게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어 능력의 문제가 쓰기, 듣기, 말하기, 읽기 등 전 영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읽기 능력에서 겪는 어려움이 크고, 공부를 도와 줄 사람이 없다는 데 대한 문제의식도 국내성장 자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읽기의 어려움은 한국어로 된 교재를 가지고 혼자 공부하는 데 곤란함을 겪고 있음을 의미하나, 공부를 도와줄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 학교 공부의 어려움이 개인적으로 해결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 표 III-99 】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공부에서의 어려움(전국)

(단위: %, 명)

구분	공부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내 생각을 글로 쓰기 어렵다 (쓰기)	선생님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 (듣기)	수업시간에 나의 의견을 말하기 어렵다 (말하기)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읽기)	기타	별 어려움이 없다	합계
전국	6.7	3.8	4.6	3.9	4.1	2.3	74.7	100.0
국내성장	6.5	3.3	3.8	4.1	2.9	2.1	77.2	100.0
외국성장	8.2	6.9	9.8	2.2	11.9	3.5	57.6	100.0

특히 서울 거주 중도입국 자녀의 경우 공부를 ‘도와 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의 비율이 전국 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의 학습을 도와 줄 지역 사회 내 연계 방안

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말하기, 읽기에 비해 쓰기 듣기 부분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어 수업 시간에 집중하거나 공부한 내용을 이후에 복습하는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표 III-100 】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공부에서의 어려움(서울)

(단위: %, 명)

구분		공부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내 생각을 글로 쓰기 어렵다 (쓰기)	선생님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 (듣기)	수업 시간에 나의 의견을 말하기 어렵다 (말하기)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읽기)	기타	별 어려움이 없다	합계
서울		6.2 (383)	5.5 (342)	6.3 (387)	1.9 (118)	4.3 (260)	1.6 (101)	74.2 (4,564)	100.0 (6,155)
성별	여성	4.9	4.6	6.7	2.4	3.8	1.5	76.2	100.0
	남성	7.5	6.5	5.9	1.4	4.7	1.8	72.2	100.0
연령	9~11세	5.3	8.0	5.0	2.6	3.9	2.7	72.5	100.0
	12~14세	5.4	2.7	8.8	2.4	4.1	0.9	75.7	100.0
	15~17세	9.3	0.9	5.7	0.0	6.2	0.8	77.0	100.0
	18세 이상	7.3	21.5	3.9	0.0	0.0	0.0	67.3	100.0
외국성장 여부	국내성장	5.4	4.0	4.4	2.4	3.0	1.8	79.0	100.0
	외국성장	9.1	11.0	13.0	0.0	8.8	1.2	56.8	100.0

정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공적 활동으로는 취업 여부에 대한 질문도 나올 수 있다. 실제 2012년 전국실태조사에서도 15세 이상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지난 1주일 동안 일을 했는지의 여부를 묻는 문항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외국성장 자녀가 국내 성장 자녀에 비해 일을 했다고 답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도입국자녀가 국내성장 자녀에 비해 높은 연령대임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서울 거주 자녀세대는 국내 성장 중도입국을 막론하고 전국 대비 일하였다는 응답률이 높는데, 특히 국내 성장 자녀에 비해 중도입국자녀의 응답률에서 전국적인 응답률과의 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 표 Ⅲ-101 】 15세 이상 다문화가족자녀가 지난 1주일간 일을 했는지의 여부

(단위: %, 명)

구분		일하였다	일하지 않았다	합계
전국	전체	27.8	72.2	100.0
	국내성장	21.1	78.9	100.0
	외국성장	36.6	63.4	100.0
서울	전체	34.3(2,446)	65.7(4,686)	100.0 (7,131)
	여성	39.7	60.3	100.0
	남성	29.7	70.3	100.0
	15~17세	5.9	94.1	100.0
	18세 이상	40.7	59.3	100.0
	국내성장	23.1	76.9	100.0
	외국성장	41.3	58.7	100.0

정규학교 교육과정을 밟고 있을 연령대의 청소년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을 때 노동자로서의 지위는 낮을 수밖에 없다. 전국의 15세 이상 중도입국 청소년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의 비율은 28.1%에 불과하고, 임금 수준은 43%가 1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서울 거주자의 현실은 이보다는 나은 것으로 나타나 상용근로자라는 응답이 중도입국청소년의 33%를 차지하나 국내성장자녀(45%)에 비하면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국내성장 자녀의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 > 임시근로자 > 일용근로자 순으로 일용근로자의 비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데 반해 중도입국청소년은 임시, 상용, 일용의 비가 비슷하게 나타나, 상용근로자로 일한다고 하는 응답률이 국내 성장 자녀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Ⅲ-102】 15세 이상 다문화가족 자녀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서울)

(단위: %, 명)

구분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합계
서울	36.1 (883)	35.6 (872)	27.3 (668)	0.9 (23)	0.0 (0)	100.0 (2,446)
여성	39.9	32.3	26.1	1.8	0.0	100.0
남성	31.8	39.5	28.8	0.0	0.0	100.0
15~17세	7.3	0.0	92.7	0.0	0.0	100.0
18세 이상	37.0	36.8	25.2	1.0	0.0	100.0
국내성장	45.0	40.3	12.8	1.8	0.0	100.0
외국성장	33.0	34.0	32.4	0.6	0.0	100.0

전국적으로 중도입국자의 43%가 100만원 미만 임금 구간에 포진해 있는 상황과 유사하게 서울 거주 중도입국 청소년의 임금 또한 100만원 미만 구간에 45.5%가 몰려있고, 50~200만원 구간에서 여성의 비율이 더 높은 반면 200만원 이상 구간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표 Ⅲ-103】 15세 이상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임금(서울)

(단위: %, 명)

구분	50만원 미만	50~100 만원 미만	100~150 만원 미만	150~200 만원 미만	200~250 만원 미만	250~300 만원 미만	합계
서울	14.4 (352)	27.3 (667)	32.7 (800)	18.9 (463)	5.4 (131)	1.3 (33)	100.0 (2,446)
여성	14.4	27.4	33.8	21.8	2.6	0.0	100.0
남성	14.4	27.1	31.5	15.6	8.6	2.9	100.0
15~17세	55.8	36.9	7.3	0.0	0.0	0.0	100.0
18세 이상	13.0	27.0	33.6	19.5	5.5	1.4	100.0
국내성장	10.9	19.7	30.5	28.4	10.4	0.0	100.0
외국성장	15.6	29.9	33.5	15.6	3.6	1.8	100.0

당사자들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또한 보수 문제와 연결되고 있다. 전국 서울 모두 일하면서 느꼈던 어려움 1순위로 보수를 꼽고 있어 15세 이상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일하지만, 만족스런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 거주 중도입국 청소년이 보수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중도입국 자녀가 국내성장 자녀에 비해 일하면서 느끼는 불만의 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의 1순위는 국내성장 자녀, 외국성장 자녀 모두 보수에 대한 불만이거나, 외국성장 자녀의 경우 한국어 대화, 노동시간에 대한 불만도 국내성장 자녀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자체가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이유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표 Ⅲ-104 15세 이상 다문화가족 자녀가 일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어려움(서울)  
(단위: %, 명)

구분	별로 없음	한국말 대화	힘들고 위험한 일	노동 시간	보수	직장 상사 동료	외국인 차별 무시	자녀 양육	집안일 병행 어려움	기타	합계
서울	52.0 (1,272)	7.7 (189)	3.0 (73)	9.5 (231)	16.3 (399)	3.7 (90)	5.4 (132)	0.0 (0)	0.0 (0)	2.5 (60)	100.0 (2,446)
여성	55.1	4.8	5.2	10.0	17.0	4.4	3.5	0.0	0.0	0.0	100.0
남성	48.4	11.0	0.5	8.8	15.6	2.9	7.6	0.0	0.0	5.3	100.0
15~17세	42.2	13.6	7.3	0.0	36.9	0.0	0.0	0.0	0.0	0.0	100.0
18세 이상	52.3	7.5	2.8	9.8	15.6	3.8	5.6	0.0	0.0	2.5	100.0
국내성장	85.2	1.7	6.2	1.0	4.1	1.0	0.0	0.0	0.0	1.0	100.0
외국성장	40.4	9.9	1.9	12.4	20.6	4.6	7.3	0.0	0.0	3.0	100.0

전국적인 통계 결과에 비추어 서울의 특징은 노동시간, 보수에 대한 어려움을 서울 거주자들이 크게 느끼고 있으며, 서울 거주자의 경우 자녀 양육이나 집안일 병행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외국인 차별이나 무시에 대해 전체 평균보다 큰 어려움을 갖는 그룹은 서울 거주 남성과 서울 거주 중도입국 청소년 그룹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거주 국내성장 자녀 그룹은 외국인 차별로 인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Ⅲ-105 】 15세 이상 다문화가족 자녀가 일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어려움(전국)  
(단위: %)

구분	별로 없음	한국말 대화	힘들고 위험한 일	노동 시간	보수	직장상 사, 동료	외국인 차별 무시	자녀 양육	집안일 병행 어려움	기타	합계
전체	55.3	6.8	2.0	7.7	15.8	4.4	4.0	0.6	1.5	1.9	100.0
국내성장	76.8	0.5	2.1	1.2	12.5	2.8	0.7	0.0	2.1	1.2	100.0
외국성장	38.3	11.8	1.9	12.8	18.4	5.7	6.6	1.1	1.1	2.4	100.0

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서울거주 국내성장 자녀의 71.5%가 정규교육기관 재학을 이유로 들었으나, 외국성장 자녀의 경우 그 절반이 안 되는 30.6%만이 같은 답을 하고 있어, 국내성장 자녀에 비해 외국성장 자녀의 낮은 재학률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전국적인 수치에 비해서도 낮아 서울 거주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 이탈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진학준비와 취업 준비 항목에 답한 서울 거주 중도입국 청소년은 각각 7.4%, 23.6%인데 반해 관련 학원에 다닌다고 답한 응답률은 1.4%, 8.6%로 나머지 ‘준비자’ 그룹이 어떠한 형식으로 취업과 진학을 준비 중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의 통계 분석으로 그 실상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표 Ⅲ-106 】 15세 이상 다문화가족자녀가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서울)

(단위: %, 명)

구분	현재 일하고 싶지 않아서	정규 교육 기관 재학	입시 학원 통학	취업 학원 기관 통학	취업 준비	진학 준비	건강 문제	군 입대 대기	집안일	기타	합계
서울	3.9 (182)	49.0 (2,296)	1.4 (64)	8.6 (403)	18.3 (857)	6.3 (293)	2.5 (119)	0.7 (31)	0.1 (6)	9.2 (433)	100.0 (4,686)
여성	6.5	52.7	1.5	8.7	18.4	9.1	0.0	0.0	0.3	2.8	100.0
남성	2.0	46.3	1.3	8.5	18.2	4.2	4.4	1.1	0.0	14.0	100.0
15~17세	0.0	87.6	1.4	2.0	0.8	3.6	0.0	0.0	0.0	4.6	100.0
18세 이상	5.3	35.2	1.4	11.0	24.6	7.2	3.5	0.9	0.2	10.9	100.0
국내성장	0.8	71.5	1.8	3.8	11.9	4.9	0.0	1.5	0.3	3.6	100.0
외국성장	6.5	30.6	1.0	12.6	23.6	7.4	4.6	0.0	0.0	13.9	100.0

실태조사 분석 결과 외국성장 자녀는 전반적으로 학교나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취업 준비 응답과 입시학원·취업학원 통학이라는 응답이 국내성장 자녀 보다 높게 나타나며, 현재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기타 등의 답안도 중도입국 자녀의 응답률이 높다. 서울과 전국적인 비교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은 입시학원 통학 부분이다. 전체적으로 비율이 낮기는 하나 전국적으로 국내성장 자녀보다 중도입국 자녀의 입시학원 통학 응답이 높게 나타난 데 비해 서울은 오히려 국내성장 자녀의 응답률이 더 높다.

향후 주목해야 할 응답자 그룹은 특히 서울 거주 중도입국자녀 그룹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이들이다. 이들이 무력감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구상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면 앞으로의 문제는 보다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 표 Ⅲ-107 】 15세 이상 다문화가족자녀가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전국)

(단위: %, 명)

구분	일하고 싶지 않아서	정규 교육 기관 재학	입시 학원 통학	취업 학원 기관 통학	취업 준비	진학 준비	건강 문제	군 입대 대기	집안일	기타	합계
전체	3.4	62.1	1.2	3.7	11.5	6.3	1.0	2.2	0.2	8.4	100.0
국내성장	2.7	76.3	0.7	1.3	6.6	3.8	0.2	3.6	0.0	4.8	100.0
외국성장	4.5	38.5	2.1	7.8	19.7	10.4	2.3	0.0	0.3	14.3	100.0

### 3) 가족생활과 일상의 고민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대개 한국에 입국하기 전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동안 한국 거주 부모와 떨어져 있기 마련이다. 특히 부모의 재혼으로 입국하는 이들의 경우 대다수 어머니의 재혼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는 점도 특징이다. 또한 한국 입국 초기 외부 활동이 최소화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경기도 지역의 한 연구(전경숙, 2012)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이 한국에 와서 처음 3개월 간 한 일은 전체 응답자의 55.2%가 ‘집에 있었다’, 다음으로 ‘학교에 다녔다(29.1%)’, ‘지원센터(외국인 센터/종교기관)에 다녔다(9.0%)’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초기 한국생활에서 가족관계에서 얻는 만족도는 이들의 한국생활의 성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점이 될 것이다.

서울 거주 중도입국 자녀의 가족 관계만족도는 어머니 > 형제자매 > 아버지 순으로 순서는 전국과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만 평균 점수에서 미미하게나마 전국 대비 어머니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 전국 대비 형제자매에 대한 만족도와 아버지에 대한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매우 불만족이라 답한 비율이 어머니와 형제자매는 0%인데 반해 아버지에 대해서는 6.4%가 답하고 있고, 어머니와 형제자매에 대한 매우 만족의 응답이 아버지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국내 성장 자녀는 부모 모두에 ‘매우 불만족’의 응답이 나타나고 있긴 하나, 어머니에 대한 ‘매우 불만족’ 응답률이 아버지에 대한 ‘매우 불만족’ 응답률보다는 떨어지고 있다.

【 표 Ⅲ-108 】 다문화가족자녀의 가족관계 만족도(서울)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평균
아버지	전체	3.9 (449)	2.9 (332)	29.1 (3,361)	17.8 (2,049)	46.3 (5,341)	100.0 (11,532)	4.00
	국내성장	2.0	3.5	32.1	20.3	42.2	100.0	3.97
	외국성장	6.4	2.1	25.4	14.5	51.6	100.0	4.03
어머니	전체	0.2 (24)	1.9 (218)	18.4 (2,162)	22.9 (2,702)	56.6 (6,669)	100.0 (11,774)	4.34
	국내성장	0.4	2.4	22.6	24.1	50.6	100.0	4.22
	외국성장	0.0	1.2	13.0	21.5	64.2	100.0	4.49
형제 자매	전체	0.5 (44)	3.8 (320)	22.1 (1,865)	23.0 (1,943)	50.5 (4,262)	100.0 (8,433)	4.19
	국내성장	0.8	5.1	24.3	25.0	44.8	100.0	4.08
	외국성장	0.0	1.6	18.2	19.7	60.5	100.0	4.39

전국적인 응답 또한 평균값의 순위는 서울 거주자와 차이가 없다. 다만 매우 불만족의 경우 중도입국자녀는 국내성장 자녀에 비해 아버지에게 대해서는 2배 이상, 형제자매에 대해서 2배의 응답률을 보이거나 어머니에 대한 매우 불만족 응답은 오히려 국내성장 자녀가 중도입국자녀의 8배에 이르고 있어, 집단 간 차이를 뚜렷이 보이고 있다. 결국 국내성장 자녀에 비해 중도입국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아버지에게 대한 만족도는 낮다는 점에서 재혼 가족 안의 친밀성의 문제가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남겨 놓고 있다. 사회경제적 배경을 포함한 부모와의 관계가 스스로 느끼는 삶의 성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김현진, 2007)는 점에서 이에 대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전문가들은 특히 아버지와와의 관계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표 Ⅲ-109 】 다문화가족자녀의 가족관계 만족도(전국)

(단위: %,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평균
아버지	전체	3.3	3.4	26.1	23.2	43.9	100.0	4.01
	국내성장	2.3	3.1	25.7	25.3	43.6	56.4.0	4.05
	외국성장	5.9	4.3	27.3	17.5	45.0	55.0	3.91
어머니	전체	1.2	2.8	20.3	23.0	52.7	47.3.0	4.23
	국내성장	1.6	3.5	22.6	22.9	49.5	50.6	4.15
	외국성장	0.2	1.0	14.0	23.3	61.5	38.5	4.45
형제 자매	전체	1.3	3.5	25.1	25.8	44.2	100.0	4.08
	국내성장	1.1	3.8	25.5	26.5	43.2	56.9	4.07
	외국성장	2.3	2.3	23.8	23.2	48.3	100.0	4.13

전반적으로 어머니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에서 짐작할 수 있듯 13세 이상 다문화가족 자녀의 고민 시 대화 상대 1순위는 어머니이다. 고민 상담자로 어머니를 뽑은 서울 거주자는 남성보다는 여성, 국내성장 자녀보다는 중도입국 자녀의 응답률이 높으며, 연령별로 볼 때의 특성이 흥미롭게 나타나고 있다. 13~14세 연령대 청소년이 어머니와 고민을 이야기한다는 응답률보다 15~17세 자녀 그룹의 응답률이 떨어지나 18세 이상 구간에서는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18세 이상 연령대의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한국 내 인적 지지망이 어머니 이외에는 미약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표 Ⅲ-110】 13세 이상 다문화가족 자녀의 고민 시 대화 상대(서울)

(단위: 명, %)

구분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친구, 동료	선후배	교사	청소년 상담가	종교인	스스로 해결	기타	합계
전체	8.9 (558)	37.5 (2,340)	3.6 (224)	33.8 (2,111)	0.5 (33)	1.0 (61)	0.0 (0)	0.3 (22)	13.0 (814)	1.3 (84)	100.0 (6,246)
여성	9.2	39.5	1.3	38.3	0.0	0.0	0.0	0.7	10.3	0.7	100.0
남성	8.6	35.5	5.8	29.5	1.0	1.9	0.0	0.0	15.6	1.9	100.0
13~14세	6.4	36.4	3.8	28.0	0.0	1.8	0.0	0.0	22.8	0.8	100.0
15~17세	13.3	25.7	6.1	35.5	0.0	3.9	0.0	0.0	15.6	0.0	100.0
18세이상	8.4	40.9	2.9	34.7	0.8	0.0	0.0	0.5	10.1	1.8	100.0
국내성장	9.0	27.7	3.9	37.9	1.2	2.1	0.0	0.0	17.9	0.3	100.0
외국성장	8.9	45.0	3.4	30.6	0.0	0.1	0.0	0.6	9.3	2.1	100.0

청소년 상담가에게 고민 상담을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없다고 하는 점에서 서울 거주자들의 제도 이용 실태에 대한 분석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인 통계는 미미하게나마 청소년 상담가, 교사 등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으며, 종교인과 상담한다고 답한 비율도 서울보다 높다는 점에서 가족 외 자원을 어느 정도 동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서울 거주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은 부모, 형제자매 중에서도 어머니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가족 외 그룹은 친구, 선후배 등 사적 관계에 집중되어 있어 공적 관계망을 활용하는 비율이 전국에 비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표 Ⅲ-111】 13세 이상 다문화가족 자녀의 고민 시 대화 상대(전국)

(단위: %)

구분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친구, 동료	선후배	교사	청소년 상담가	종교인	스스로 해결	기타	합계
전체	8.8	30.6	4.9	36.2	0.6	2.1	0.4	0.5	15.1	0.8	100.0
국내성장	10.0	21.2	6.1	42.1	0.5	2.6	0.5	0.6	15.9	0.6	100.0
외국성장	6.6	47.1	2.9	25.9	0.8	1.2	0.3	0.3	13.7	1.2	100.0

중도입국청소년이 어머니에 대한 만족도가 크다는 점은 실제 고민 시의 대화상대로 어머니를 꼽은 중도입국 청소년이 47.1%로 국내성장 자녀(21.2%)의 두 배에 이르고, 아버지를 대화상대로 꼽은 중도입국청소년이 6.6%인데 반해 국내성장 자녀는 10%라는 분석결과에도 나타나고 있다. 국내 성장 자녀의 경우 고민 시 대화상대로 가족보다는 친구·동료 집단이 1순위(42.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중도입국 자녀의 경우 어머니(47.1%)에 이어 친구·동료(25.9%)로 나타나 1순위, 2순위 간 역전된 상황이 관찰된다. 다만 두 집단 모두 3순위에는 ‘스스로 해결’이 꼽히고 있다.

2012년 청소년가치관 국제비교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위 항목과 일치하지는 않으나 가족 중에서 누구와 대화를 가장 많이 하는가의 항목에 한국 청소년들은 어머니(71.6%), 여자형제(9.3%), 아버지(8.0%), 남자형제(7.9%) 순으로 나타나 위 결과와 크게 어긋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고민을 주로 이야기하는 상대의 1, 2순위가 국내성장 자녀와 중도입국 청소년 간 역전되어 나타났듯 고민의 내용도 두 집단 간 1, 2순위가 엇갈리고 있다.

【표 III-112】 13세 이상 다문화가족자녀의 고민(복수응답, 서울)

(단위: 명, %)

구분	고민 없다	외모	신체 정신 건강	가정 환경	경제적 어려움	용돈 부족	공부	직업	친구	이성 교제	학교 학원 폭력	술, 담배	인터넷 중독	기타
전체	25.7 (2,161)	20.9 (1,753)	13.5 (1,134)	5.6 (475)	19.3 (1,622)	19.1 (1,609)	36.1 (3,039)	32.6 (2,742)	20.5 (1,724)	5.9 (493)	1.0 (82)	1.6 (136)	7.5 (631)	3.5 (294)
여	21.4	29.0	15.6	7.8	23.2	19.1	41.9	31.4	22.2	5.5	0.9	0.2	3.0	1.8
남	29.3	13.9	11.7	3.8	16.0	19.2	31.3	33.7	19.1	6.1	1.1	2.8	11.3	5.0
국내 성장	28.4	26.9	15.3	4.4	18.9	19.0	47.6	19.1	23.9	6.1	1.1	1.5	7.0	2.0
외국 성장	23.5	15.9	12.0	6.7	19.6	19.2	26.8	43.7	17.7	5.7	0.9	1.7	7.9	4.8

서울 거주 국내성장 자녀의 고민은 공부 > 외모 > 친구 > 직업 > 용돈부족으로 주로 현재의 개인적인 문제에 고민이 집중되어 있다. 반면 중도입국청소년의 고민은 직업 > 공부 > 경제적 어려움 > 용돈 부족 순으로 공부에 대한 고민보다 직업에

대한 고민이 크다는 면에서 현재보다는 미래에, 용돈부족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고민이 커 개인의 문제보다는 가족 문제 전반에 대한 고민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전국적인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서울과 전국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Ⅲ-113】 13세 이상 다문화가족자녀의 고민(복수응답, 전국)

(단위: %)

구분	고민 없다	외모	신체 정신 건강	가정 환경	경제적 어려움	용돈 부족	공부	직업	친구	이성 교제	학교 학원 폭력	술, 담배	인터넷 중독	기타
전체	25.5	19.8	11.2	7.4	16.1	18.4	44.7	30.5	19.9	7.0	0.7	2.0	4.8	3.3
국내 성장	26.2	22.9	12.8	6.9	13.6	19.8	52.2	25.2	20.9	6.7	0.5	1.3	4.5	2.8
외국 성장	24.4	13.5	8.3	8.3	20.5	16.0	31.3	40.0	18.0	7.6	0.9	3.2	5.2	4.0

전국적으로 국내성장 자녀들의 고민은 공부 > 직업 > 외모 > 친구 > 용돈부족 순이며 중도입국청소년은 직업 > 공부 > 경제적 어려움 > 친구 > 용돈부족 순으로 고민의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다. 국내성장 자녀의 경우 서울과 전국의 두드러진 차이는 서울 거주자의 직업에 대한 고민의 우선 순위가 전국 대비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는 점이며, 중도입국청소년의 고민은 서울 거주자의 친구에 대한 고민이 용돈 부족보다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는 점이다.

특히 1순위 고민의 경우 중도입국 청소년은 공부에 우선하여 직업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나 18세 이상 인구 비중이 크다는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국내성장 자녀의 경우 용돈 부족에 대한 고민이 경제적 어려움보다 앞서는 반면 중도입국 청소년은 직업, 공부에 이은 3순위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중도입국 청소년이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부모에게 용돈을 요청하기 싫은 탓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류방란, 2012: 36)는 선행연구의 결과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고민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 즉 용돈부족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고민이 중도입국 청소년을 공부보다 직업으로, 학교보다는



일로 향하게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국내성장 자녀가 2순위 고민으로 꼽은 외모는 서울 청소년들이 1순위 고민으로 들고 있는 사안이다. 2013년 서울연구원이 서울시내 초·중·고·대학을 다니는 9~25세 아동·청소년 1,31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중 694명인 52.6%가 ‘외모·키·몸무게’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공부(49.6%), 직업(32.4%), 용돈부족(20.5%), 우정 등 친구문제(14.7%) 등이 고민거리로 등장하고 있다<sup>29)</sup>.

결국 서울 청소년 일반의 고민과 국내 성장 자녀의 고민순위는 외모가 공통적으로 상위 순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도입국 청소년이 경제적 어려움을 상위순위로 꼽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으며, 국내 성장 자녀의 경우 고민의 우선 순위 면에서 중도입국 청소년보다는 서울 청소년들과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8.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 서비스 이용실태

현재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전담 체계로 기능하고 있는 곳은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이나, 해당 센터의 프로그램이 한국어 교육과 초기 적응 교육에 맞추어져 있다는 점은 이미 앞선 지원 체계 현황에서도 이미 드러난 바이다. 또한 전담 지원센터만이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적 서비스의 전부는 아니라는 점에서 실제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어떠한 지원 체계를 통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은 지원서비스가 이들의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실질적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효과성 검증의 측면에서도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29) (2013.11.01. 검색)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022\\_0012452118&cID=10201&pID=10200](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022_0012452118&cID=10201&pID=10200)

## 1)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와 지원기관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선행연구(이숙진·김안나, 2013)에서는 임파워먼트 구성 모델 중 사회·문화적, 심리적 측면에서의 임파워먼트가 적극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반면 경제적 측면은 당사자들의 욕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며, 법적·정치적 측면에서의 임파워먼트는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지원기관을 통한 법적·정치적 임파워먼트의 필요성 또한 요구되고 있으나, 2012년 실태조사의 설계는 가족지원 서비스와 일자리 등의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있으나, 정치적·법적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 (1) 교육 및 지원서비스 이용

서비스 기관을 통해 받은 적이 있는 교육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응답에서 전체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전국 53.8%로 과반을 넘기고 있으며 서울은 70.6%로 서비스 이용 경험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남성의 서비스 이용 경험은 전체 20%에 불과하다.

■ 표 Ⅲ-114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교육 및 지원서비스 수혜 경험(복수응답, 전국·서울)  
(단위: %)

구분	가정 방문 교육		한국어 교육, 한국 사회 적응 교육		통번역 서비스 지원		임신 출산 지원· 부모 교육		배우자 및 배우자 가족 교육		언어 발달 지원· 이중 언어 교육		자녀 생활 및 학습 지원		사회 활동 지원		각종 상담		일자리 교육, 일자리 연계		받은 경험 없음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체	20.2	7.3	27.0	13.7	2.9	1.1	10.3	5.2	3.0	1.4	3.8	1.7	8.9	5.4	2.6	1.2	4.6	4.2	7.1	6.7	53.8	70.6
여성	24.8	10.1	32.0	17.0	3.3	1.3	12.5	6.7	3.6	1.9	4.6	2.2	10.0	5.9	3.1	1.6	4.9	4.8	7.4	7.3	47.3	66.0
남성	1.9	1.5	7.3	6.8	1.2	0.8	1.8	2.2	0.6	0.2	0.7	0.6	4.3	4.4	0.6	0.4	3.4	3.2	5.8	5.4	79.4	80.0

서울 거주자에 한해 교육 및 지원서비스를 받은 경험 유무와 지원 서비스 종류를 분석한 결과, 여성(80.2%)이 남성(66.0%)에 비해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받은 경험이 없는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북미(85.4%), 대만·홍콩(82.8%), 중국(한국계, 77.6%), 중국(76.8%) 순이라는 점에서 나타나 듯 전반적으로 중국계의 서비스 수혜경험이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한국어 및 한국 사회 적응교육을 받은 경험이 13.7%로 가장 높았으며, 가정방문교육 7.3%, 일자리교육 및 연계 6.7%, 자녀생활 및 학습 지원 5.4%, 임신출산지원 및 부모교육 5.2%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및 한국 사회 적응교육, 가정방문교육, 임신출산지원 및 부모교육, 통번역서비스 지원은 여성이 남성보다 지원 수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남성은 일자리교육 및 연계, 배우자 및 배우자 가족교육, 자녀생활 및 학습지원, 언어발달 및 이중언어교육, 사회활동 지원, 각종 상담 등의 경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국어 및 한국사회적응교육과 가정방문교육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대는 한국어 및 한국 사회 적응교육이 1순위로 나타났으며, 가정방문교육, 임신출산지원 및 부모교육 순이었다. 30대는 한국어 및 한국 사회 적응교육, 임신출산지원 및 자녀생활 및 학습지원, 가정방문교육 순이었다. 만40~49세는 한국어 및 한국 사회 적응교육, 자녀생활 및 학습지원, 일자리 교육 및 연계 순이었으며, 만50세 이상은 일자리 교육 및 연계, 각종 상담, 한국어 및 한국 사회 적응교육 순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한국어 및 한국 사회 적응교육이 가장 높았으며, 임신 출산, 자녀 생활 및 학습 지원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혼·별거는 일자리 교육 및 연계가 가장 높았으며, 사별은 각종 상담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 표 Ⅲ-115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받은 적 있는 교육 및 지원서비스 종류(복수응답)

(단위: %, 명)

구분	가정방문교육	한국어교육, 한국사회적응교육	통번역서비스지원	임신출산지원, 부모교육	배우자 및 배우자 가족 교육	언어 발달 지원, 이중 언어 교육	자녀 생활 및 학습 지원	사회동원 지원	각종 상담	일자리 교육, 일자리 연계	받은 경험 없음
전체	7.3 (5,229)	13.7 (9,774)	1.1 (806)	5.2 (3,751)	1.4 (971)	1.7 (1,183)	5.4 (3,889)	1.2 (873)	4.2 (3,035)	6.7 (4,790)	70.6 (50,540)
성별											
여성	10.1	17.0	1.3	6.7	0.2	0.6	4.4	0.4	3.2	5.4	80.2
남성	1.5	6.8	0.8	2.2	1.9	2.2	5.9	1.6	4.8	7.3	66.0
연령											
24세 이하	18.9	37.2	1.9	12.2	3.9	1.4	1.2	3.1	3.0	7.1	50.8
25~29세	17.4	30.9	1.9	10.6	4.2	6.7	5.5	2.0	3.6	7.4	51.5
30~34세	10.5	21.0	2.1	12.1	1.0	1.7	6.4	1.2	3.0	5.7	58.8
35~39세	8.4	14.7	1.1	10.2	0.6	1.5	10.1	2.7	4.3	7.4	64.3
40~49세	5.7	9.0	1.1	1.8	1.6	1.5	7.9	0.8	4.9	7.5	73.3
50세 이상	1.2	3.9	0.3	0.0	0.1	0.2	1.1	0.3	4.5	5.7	86.8
혼인상태											
미혼	0.0	4.7	0.0	0.0	0.9	0.0	0.2	0.0	4.1	8.5	85.5
유배우	8.4	15.5	1.3	6.2	1.4	2.0	6.0	1.4	4.2	6.6	67.9
사별	1.2	3.6	0.0	0.0	0.0	0.0	0.5	0.0	7.1	4.6	88.6
이혼/별거	1.9	2.3	0.2	0.3	1.7	0.0	4.5	0.2	3.0	7.6	83.9
출신국적											
중국	5.0	8.4	0.5	4.4	1.2	0.9	3.0	0.9	4.0	7.0	76.8
중국(한국계)	2.2	3.7	0.2	3.8	0.4	0.6	5.1	0.4	4.7	8.6	77.6
대만, 홍콩	1.9	7.5	0.5	2.7	1.8	0.5	5.0	0.0	2.7	0.4	82.8
일본	11.3	27.2	1.2	3.5	0.9	2.4	11.5	3.3	5.1	4.1	62.8
몽골	14.8	33.7	5.4	8.1	4.0	6.7	10.8	5.4	5.4	14.8	44.8
베트남	33.1	50.8	4.4	17.7	5.7	7.3	9.5	3.1	3.1	4.4	28.8
필리핀	33.3	46.9	3.3	9.2	2.0	5.4	14.0	4.1	7.4	12.5	31.6
태국	23.5	54.8	0.0	9.8	9.8	5.9	13.7	2.0	2.0	7.8	33.5
캄보디아	39.1	60.3	5.0	17.8	9.9	5.7	18.4	9.9	5.7	8.5	24.1
우즈베키스탄	17.4	41.3	6.5	8.7	2.2	8.7	17.4	6.5	2.2	13.0	34.8
러시아	2.7	34.5	5.3	10.6	2.7	5.3	10.6	0.0	10.6	13.3	52.2
북미	1.2	6.3	2.0	2.8	0.4	0.9	2.3	0.6	2.6	1.0	85.4
동남아 기타	16.4	24.6	8.3	4.9	0.0	1.6	6.6	1.6	3.3	4.9	60.6
남부아시아	8.6	17.3	0.0	8.6	5.7	0.0	8.4	0.0	0.0	0.0	68.6
서유럽대양주	2.1	11.6	3.2	3.4	1.1	2.1	3.8	0.0	3.2	1.3	75.6
기타	2.2	27.3	2.6	3.3	1.1	1.5	5.3	1.1	6.4	3.7	62.2

## (2) 교육 및 지원서비스 필요성

서울은 전국적 분석 결과에 비추어 전 영역에서 지원필요도<sup>30)</sup>가 낮게 나타나는

30) 2012년 실태조사에서는 교육 및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요구를 서비스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필요

데, 전국 서울 모두 일자리 교육, 일자리 연계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이 공통된 특징이다. 특히 여성의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더 큰 것으로 파악되며, 가장 수요가 낮게 나타나는 부분은 서울 거주 남성의 통·번역 서비스 지원이며, 서울 여성의 통·번역 지원에 대한 수요가 그 뒤를 잇고 있다.

【 표 III-116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교육 및 지원 필요도(전국 대비 서울)

(단위: %)

구분	가정방문 교육		한국어 교육, 한국사회 적응 교육		통번역 서비스 지원		임신출산 지원· 부모교육		배우자 및 배우자 가족 교육		언어발달 지원· 이중 언어 교육		자녀 생활 및 학습 지원		사회 활동 지원		각종 상담		일자리 교육, 일자리 연계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체	3.06	2.51	2.99	2.47	2.45	2.03	2.66	2.27	2.45	2.05	2.77	2.33	3.23	2.72	2.87	2.52	2.99	2.75	3.56	3.39
여성	3.26	2.71	3.16	2.61	2.56	2.13	2.80	2.38	2.58	2.13	2.91	2.42	3.41	2.86	2.97	2.61	3.07	2.86	3.64	3.49
남성	2.26	2.11	2.32	2.19	2.01	1.84	2.09	2.04	1.92	1.86	2.21	2.13	2.53	2.43	2.48	2.32	2.71	2.53	3.26	3.19

서울 거주자의 교육 및 서비스 종류에 따른 수요는 일자리 교육 및 연계가(3.39점) 가장 높았으며, 각종상담(2.75점), 자녀생활 및 학습지원(2.72점), 사회활동 지원(2.52점), 가정방문교육(2.51점)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및 서비스 지원의 전 영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필요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순위는 일자리교육 및 연계, 각종상담, 자녀생활 및 학습 지원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일자리교육 및 연계가 가장 높았으며, 만30~34세는 자녀 생활 및 학습지원이, 만24세 이하는 한국어 및 한국 사회 적응교육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만40세 이상부터는 각종 상담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점이 특징이다.

혼인상태별로도 모든 유형에서 일자리교육 및 연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이혼·별거와 사별은 각종 상담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자녀 생활 및 학습 지원이, 미혼은 사회활동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중국(한국계)은 일자리교육 및 연계, 각종상담, 자녀생활 및 학습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성이 있는지 질문하고 '매우 필요함' 1점, '전혀 필요 없음'의 5점 척도를 사용해 역코딩 분석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필요성이 높다고 해석한다.

태국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정방문 교육, 한국어 및 한국 사회 적응교육, 자녀생활 및 학습 지원, 임신 출산 및 부모교육, 배우자 및 배우자 가족교육, 일자리교육 및 연계 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일자리교육 및 연계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국가는 몽골(4.22점), 필리핀(3.94점)으로 나타났다.

【표 III-117】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교육 및 지원 필요도

(단위: 점)

구분		가정방문 교육	한국어 교육, 한국 사회 적응교육	통번역 서비스 지원	임신 출산 지원, 부모 교육	배우자 및 배우자 가족 교육	언어 발달 지원, 이중언어 교육	자녀 생활 및 학습 지원	사회 활동 지원	각종 상담	일자리 교육, 일자리 연계
전체		2.51	2.47	2.03	2.27	2.05	2.33	2.72	2.52	2.75	3.39
성별	여성	2.71	2.61	2.13	2.38	2.13	2.42	2.86	2.61	2.86	3.49
	남성	2.11	2.19	1.84	2.04	1.86	2.13	2.43	2.32	2.53	3.19
연령	24세 이하	3.40	3.50	2.84	3.04	2.83	3.12	3.14	2.95	3.11	3.40
	25-29세	3.35	3.20	2.60	3.17	2.61	2.96	3.52	3.05	3.18	3.62
	30-34세	3.12	2.89	2.42	3.03	2.34	2.82	3.64	2.85	3.11	3.62
	35-39세	2.94	2.70	2.13	2.69	2.19	2.79	3.44	2.84	2.97	3.49
	40-49세	2.29	2.32	1.92	1.97	1.96	2.15	2.58	2.38	2.69	3.39
	50세 이상	1.80	1.86	1.57	1.57	1.58	1.68	1.74	2.07	2.33	3.15
혼인상태	미혼	1.73	1.93	1.53	1.68	1.55	1.73	1.70	2.23	2.18	3.17
	유배우	2.61	2.55	2.10	2.38	2.12	2.43	2.85	2.56	2.81	3.42
	사별	2.01	1.88	1.55	1.54	1.42	1.58	1.88	2.10	2.61	2.83
	이혼/별거	2.13	2.18	1.79	1.78	1.77	1.88	2.23	2.33	2.54	3.47
출신국적	중국	2.36	2.31	1.91	2.04	1.96	2.14	2.50	2.44	2.67	3.57
	중국(한국계)	2.05	1.92	1.55	1.96	1.61	1.77	2.43	2.25	2.56	3.36
	대만, 홍콩	2.28	2.17	1.93	2.18	1.91	2.25	2.75	2.30	2.43	2.67
	일본	2.75	2.98	2.31	2.60	2.49	2.95	2.97	2.75	2.82	2.97
	몽골	3.57	3.57	2.75	2.95	2.71	3.37	3.87	3.18	3.38	4.22
	베트남	4.16	4.04	3.27	3.51	3.12	3.79	4.12	3.40	3.49	3.66
	필리핀	4.04	3.81	2.99	3.07	2.86	3.68	4.08	3.18	3.35	3.94
	태국	4.15	3.94	3.27	3.37	2.86	3.61	3.45	3.04	3.62	3.68
	캄보디아	4.35	4.25	3.30	3.78	3.29	3.64	4.02	3.21	3.35	3.86
	우즈베키스탄	3.48	3.30	3.02	3.11	2.70	3.46	4.09	3.26	3.50	3.78
	러시아	3.65	3.78	2.83	2.89	2.04	3.22	3.33	3.22	3.28	3.65
	북미	2.21	2.35	2.22	2.36	2.10	2.37	2.35	2.31	2.56	2.46
	동남아 기타	3.19	3.13	2.77	2.67	2.59	3.02	3.28	2.94	3.32	3.67
	남부아시아	2.58	3.16	2.45	2.72	2.35	2.70	2.68	2.53	2.81	3.00
서유럽대양주 기타	2.66	2.89	2.66	2.87	2.53	3.16	2.86	2.70	3.02	2.87	
기타	2.97	3.21	2.75	2.65	2.59	3.07	3.04	2.90	3.21	3.68	

### (3) 다문화 관련 지원 시설 이용 경험

서울 거주자의 각종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인지율은 이용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인지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원인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며 특히 서울의 경우 주민센터(90.6%)를 제외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56.3%)를 포함해 서비스 전달 기관에 대한 인지율이 전반적으로 전국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① 다문화 관련 지원 시설 인지율

서울 거주자의 전국 대비 인지율이 가장 떨어지는 서비스 기관은 정부지원 여성센터로 고용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았던 결과에 모순되는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각 여성발전센터나 여성인력개발 기관 등을 중심으로 결혼이민·혼인귀화자를 위한 취·창업 등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때 해당 기관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여성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서비스 지원 기관에 대한 인지율에서 특징은 다문화가족 지원 전담 체계라 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비해 일반적인 행정 전달체계인 주민센터에 대한 인지율이 전국, 서울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 표 III-118 】 관련 시설 및 교육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지율

(단위: %)

구분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건강가정 지원센터		이주여성 긴급지원 센터		주민 센터		정부지원 여성센터		고용 센터		사회 복지관		외국인 상담소 민간단체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체	71.4	56.3	25.7	20.1	25.9	20.4	88.9	90.6	20.6	17.1	45.3	43.8	47.8	44.4	28.7	25.6
여성	76.3	61.5	27.6	22.3	28.4	22.5	89.4	91.9	21.8	18.0	43.0	41.4	48.8	46.6	28.5	25.5
남성	52.3	45.6	18.7	15.5	15.5	16.2	86.9	87.8	15.3	15.2	54.6	48.6	43.8	39.8	29.2	25.7

서울 거주자의 지원체계에 대한 인지율은 주민센터가 96.6%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56.3%), 사회복지관(44.4%), 고용센터(43.8%), 외국인 상담소 등 민간단체(25.6%),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20.4%), 건강가정지원센터(20.1%), 정부지원 여성센터(17.1%) 순이다.

다문화 관련 지원시설 인지율은 대체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고용센터는 남성의 인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주민센터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지율이 증가했으며, 만 35~39세 이하의 연령대에서 각각의 관련 지원 시설에 대한 인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혼인상태별로 주민센터 외에 인지율이 높은 시설은 유배우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혼·별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고용센터, 사별은 사회복지관, 미혼은 고용센터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대체로 몽골 출신인이 각각의 지원시설에 대한 인지율은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요 시설별 인지율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캄보디아(83.6%)와 필리핀(83.4%) 출신인, 사회복지관은 대만·홍콩(55.8%), 캄보디아(55.3%) 출신인, 고용센터는 대만·홍콩(52.1%), 중국(한국계, 51.7%)등 범 중국계로, 외국인 상담소 등 민간단체는 몽골(41.8%), 동남아 기타(41.2%) 출신인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19】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관련 지원 시설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건강 가정지원 센터	이주여성 긴급지원 센터	주민 센터	정부지원 여성센터	고용 센터	사회 복지관	외국인 상담소 등 민간단체
전체		56.3 (40,283)	20.1 (14,362)	20.4 (14,614)	90.6 (64,793)	17.1 (12,216)	43.8 (31,321)	44.4 (31,778)	25.6 (18,294)
성 별	여성	61.5	22.3	22.5	91.9	18.0	41.4	46.6	25.5
	남성	45.6	15.5	16.2	87.8	15.2	48.6	39.8	25.7
연 령	24세 이하	63.2	25.1	26.7	81.3	17.8	28.0	43.2	25.1
	25~29세	67.2	28.0	24.7	85.9	18.3	40.5	45.6	28.2
	30~34세	62.6	23.3	25.6	88.9	18.5	37.2	43.5	25.9
	35~39세	69.2	23.1	28.8	92.1	22.5	52.5	49.7	32.9
	40~49세	53.3	19.8	19.4	91.7	17.4	48.6	43.5	27.3
	50세 이상	45.0	13.7	12.2	92.9	12.8	41.8	43.0	19.3
혼 인 상 태	미혼	46.1	16.6	17.8	90.5	18.1	52.0	50.1	18.2
	유배우	58.5	21.5	21.8	90.3	17.6	44.1	44.5	26.8
	사별	38.1	12.2	13.5	91.9	12.3	21.7	46.2	17.9
	이혼/별거	45.3	9.4	9.6	93.3	12.1	44.5	38.3	19.1
출 신 국 적	중국	56.3	21.1	20.7	93.6	19.0	44.3	45.9	25.0
	중국(한국계)	50.0	11.9	13.5	94.5	11.2	51.7	40.9	19.8
	대만, 홍콩	56.6	23.6	23.8	87.3	23.9	52.1	55.8	34.9
	일본	61.3	26.2	27.2	86.3	26.6	38.7	48.0	34.6
	몽골	75.5	40.4	43.1	91.6	28.3	41.8	44.5	41.8
	베트남	75.7	30.9	29.9	82.4	13.6	23.0	43.5	25.2
	필리핀	83.4	38.2	29.4	84.2	24.2	32.3	48.9	29.4
	태국	68.5	29.4	27.4	86.3	21.5	25.4	37.2	29.4
	캄보디아	83.6	45.4	45.4	85.0	19.8	32.6	55.3	26.9
	우즈베키스탄	78.3	34.8	34.8	84.8	26.1	37.0	43.5	39.1
	러시아	70.8	31.0	36.3	84.1	23.0	15.9	41.6	31.0
	북미	47.4	20.2	21.9	77.8	18.8	40.2	44.7	31.7
	동남아 기타	64.0	23.1	21.4	83.8	19.8	29.7	50.9	41.2
	남부아시아	61.4	16.6	13.9	77.3	22.3	41.1	52.7	38.6
서유럽대양주 기타	42.0 44.2	19.1 20.9	22.9 22.4	81.5 84.2	21.8 18.0	39.2 41.1	44.0 41.5	36.1 34.5	

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지 여부 및 인지 경로

서비스 전달 체계 중 인지도가 가장 높은 기관이 주민센터였으나, 전국 및 서울 거주자 분석에서 구청·주민센터를 통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알게 되었다고 답한

비율은 지인을 통한 인지의 절반 정도의 수준이다. 전국적인 통계는 다문화가족센터 직원이나 방문교사를 통해 센터를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평균 10% 정도에 이르고 있으나, 서울은 3.7%에 불과하다. 결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하는 공적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가장 빈번한 통로는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적 관계망이며, 서울 거주자는 배우자를 통한 인지가 전국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나며, 전국 대비 서울 거주자의 인지경로의 특성은 인터넷을 통한 인지율이 높다는 점과 센터 자체를 모르는 이의 비율이 전국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는 점이다.

표 Ⅲ-12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지 경로

(단위: %)

구분	모른다		알고있다												합계	
			구청·주민센터		인터넷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방문교사		배우자		아는 사람		기타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체	28.6	43.7	12.4	11.9	8.5	10.1	10.5	3.7	8.9	4.4	26.5	19.7	4.7	6.5	100	100
여성	23.7	38.5	13.5	13.8	7.6	9.7	12.5	4.3	9.8	4.4	28.5	22.4	4.4	6.8	100	100
남성	47.7	54.4	8.1	8.0	11.7	10.9	2.4	2.4	5.4	4.3	18.7	14.0	5.9	5.9	100	100

결혼이민·귀화자 등에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지 여부 및 인지 경로를 질문한 결과 43.7%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남성(54.4%)이 여성(38.5%)에 비해 인지율이 낮았다. 연령별로는 만50세 이상(55.0%)에서, 혼인상태별로는 사별(61.9%)인 경우 인지율이 낮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 인지 경로로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가 19.7%로 가장 높았으며, 구청, 주민센터를 통해서 11.9%, 인터넷을 통해서 10.1% 순이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이나 방문교사를 통해서가 3.7%로 가장 낮았다.

인터넷을 통한 인지율에서는 성별 연령별 특성이 드러나, 다른 경로에 비해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만25~29세는 인터넷을 통한 인지가 18.3%로 가장 높고, 그 외의 연령에서는 대체적으로 아는 사람이나 구청, 주민센터를 통해서 센터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출신국적별로 대만·홍콩, 북미(미국, 캐나다), 서유럽 대양주 출신인은 인터넷이나 구청,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알게 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국가에서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다문화가족 인지 경로 비율이 고르게 나타난 국가는 우즈베키스탄이며, 인지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중국(한국계)로 나타났다.

【표 Ⅲ-121】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지 여부 및 인지 경로  
(단위: %, 명)

구분	모른다	알고 있다						합계
		구청, 주민센터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직원이나 방문교사를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기타	
전체	43.7 (31,270)	11.9 (8,529)	10.1 (7,203)	3.7 (2,655)	4.4 (3,124)	19.7 (14,086)	6.5 (4,687)	100.0 (71,553)
성별								
여성	38.5	13.8	9.7	4.3	4.4	22.4	6.8	100.0
남성	54.4	8.0	10.9	2.4	4.3	14.0	5.9	100.0
연령								
24세 이하	36.8	12.1	12.1	7.9	9.3	19.0	2.8	100.0
25~29세	32.8	11.7	18.3	8.1	7.9	17.9	3.3	100.0
30~34세	37.4	12.2	15.6	2.4	6.6	20.8	5.0	100.0
35~39세	30.8	18.0	10.7	5.7	4.3	23.1	7.3	100.0
40~49세	46.7	12.3	8.7	2.4	2.4	19.3	8.2	100.0
50세 이상	55.0	8.4	5.5	2.2	3.2	18.6	7.1	100.0
혼인상태								
미혼	53.9	2.7	18.4	0.5	0.8	15.2	8.5	100.0
유배우	41.5	13.1	10.3	4.1	5.1	19.7	6.3	100.0
사별	61.9	15.5	2.7	1.2	0.0	15.9	2.8	100.0
이혼/별거	54.7	3.1	5.4	2.4	0.0	24.7	9.7	100.0
출신국적								
중국	43.7	13.3	10.4	2.8	3.4	20.5	5.9	100.0
중국(한국계)	50.0	9.4	5.1	2.3	1.5	20.7	11.0	100.0
대만, 홍콩	43.4	17.3	16.1	1.7	3.5	13.2	4.8	100.0
일본	38.7	9.8	13.0	3.9	8.1	24.6	1.9	100.0
몽골	24.5	18.9	14.8	9.4	2.7	28.3	1.3	100.0
베트남	24.3	17.6	9.8	13.2	12.7	20.5	1.9	100.0
필리핀	16.6	23.2	11.4	11.0	13.4	23.8	0.7	100.0
태국	31.5	19.6	7.8	5.9	11.7	21.5	2.0	100.0
캄보디아	16.4	22.7	12.8	11.3	11.3	24.1	1.4	100.0
우즈베키스탄	21.7	15.2	15.2	6.5	15.2	26.1	0.0	100.0
러시아	29.2	13.3	20.4	0.0	8.0	29.2	0.0	100.0
북미	52.6	6.7	22.8	2.0	3.9	6.6	5.3	100.0
동남아 기타	36.0	11.5	4.9	8.2	8.3	22.9	8.3	100.0
남부아시아	38.6	17.1	13.6	5.5	8.6	13.9	2.7	100.0
서유럽대양주	58.0	7.8	15.2	2.4	6.3	5.3	4.9	100.0
기타	55.8	3.3	18.5	2.2	5.3	11.9	3.1	100.0

### ③ 지원 시설 이용률

결혼이민자·귀화자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이용 현황을 보면 전국과 서울 모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보다 주민센터를 이용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미 앞선 지원체계에 대한 인지율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보다 주민센터 인지율이 높았던 데에서 이미 예측할 수 있었던 바이다. 특히 남성의 경우 서울남성의 6.2%(전국 7.1%)만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한 반면 주민센터 이용에 대한 응답은 서울 70.2%(전국 67.7%)로 나타나 결혼이민·귀화자 남성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 표 Ⅲ-122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관련 시설 및 교육지원 서비스 이용률

(단위: %, 명)

구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주민센터		정부지원여성센터		고용센터		사회복지관		외국인상담소 민간단체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체	33.9	16.6	8.3	5.9	3.7	3.0	68.6	73.0	3.8	2.3	16.0	14.6	14.7	12.2	4.7	3.8
여성	40.7	21.7	9.7	7.3	4.3	3.6	68.8	74.4	4.4	3.0	14.8	13.1	16.3	14.2	4.9	4.1
남성	7.1	6.2	3.0	3.0	1.0	1.4	67.7	70.2	1.2	0.8	20.6	17.9	8.3	8.2	3.7	3.3

다문화 관련 지원 시설의 이용률을 살펴보면 주민센터가 73.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용센터, 사회복지관 순이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인지율(56.3%)에 비해 이용률(16.6%)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주민센터(74.4%), 다문화가족지원센터(21.7%), 사회복지관(14.2%) 순으로, 남성은 주민센터(70.2%), 고용센터(17.9%), 사회복지관(8.2%) 순으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고용센터를 제외한 모든 지원 시설 이용률에서 여성의 이용률이 남성보다 높았다. 주민센터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용률이 증가하였으며, 다문화가족센터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용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대는 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순으로, 30대는 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용센터 순으로, 40대는 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용센터 순으로, 50대 이상은 주민센터, 고용센터, 사회복지관 순으로 지원기관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주민센터 이외에 유배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

혼·별거는 고용센터, 사별은 사회복지관, 미혼은 정부지원 여성 터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혼인 상태에 따른 서비스 기관 이용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필리핀(59.1%), 캄보디아(58.1%), 베트남(57.1%)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센터는 중국(한국계, 19.9%), 몽골(17.5%), 중국(15.0%) 순으로 이용률이 높다. 그 외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에 대한 베트남 출신인의 이용률이 10.7%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을 뿐 다른 기관의 이용률에서 출신 국적에 따른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표 III-123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지원 시설 이용률

(단위: %, 명)

구분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건강가정 지원센터	이주여성 긴급지원 센터	주민 센터	정부지원 여성센터	고용 센터	사회 복지관	외국인 상담소 등 민간단체
전체	16.6 (11,907)	5.9 (4,233)	3.0 (2,130)	73.0 (52,266)	2.3 (1,647)	14.6 (10,468)	12.2 (8,761)	3.8 (2,754)
성 별	여성	21.7	7.3	3.8	74.4	3.0	13.1	4.1
	남성	6.2	3.0	1.4	70.2	0.8	17.9	3.3
연 령	24세 이하	37.7	7.8	7.7	48.0	2.6	6.8	3.5
	25~29세	35.6	13.3	4.8	60.4	1.3	11.1	5.2
	30~34세	22.9	8.3	4.0	67.6	3.2	12.3	3.4
	35~39세	22.1	6.2	2.9	78.0	2.5	17.8	4.2
	40~49세	12.4	4.6	2.4	75.5	2.0	16.2	4.2
	50세 이상	4.7	3.3	1.5	80.1	2.3	15.3	3.1
혼 인 상 태	미혼	3.4	0.0	2.1	67.3	18.1	6.7	1.8
	유배우	18.5	6.5	3.1	72.0	2.4	12.2	4.0
	사별	6.1	5.0	1.9	82.4	1.9	23.6	0.3
	이혼/별거	8.2	3.3	2.2	84.5	3.3	14.7	5.6
출 신 국 적	중국	12.5	5.9	2.8	77.9	3.5	15.0	3.3
	중국(한국계)	7.7	2.6	2.0	82.5	0.8	19.9	2.6
	대만, 홍콩	9.9	3.7	1.2	66.2	2.6	8.1	2.4
	일본	26.8	8.6	1.8	59.6	2.4	8.5	4.1
	몽골	44.5	16.2	9.4	80.9	2.7	17.5	8.1
	베트남	57.1	16.1	10.7	55.3	3.1	8.2	8.2
	필리핀	59.1	20.8	6.6	57.1	7.4	11.4	8.7
	태국	56.8	11.7	5.9	64.8	7.8	9.8	9.8
	캄보디아	58.1	21.3	4.3	52.4	0.0	7.1	4.3
	우즈베키스탄	39.1	15.2	2.2	63.0	8.7	13.0	4.3
	러시아	29.2	7.1	2.7	60.2	2.7	2.7	2.7
	북미	3.2	0.0	0.6	53.8	0.0	6.6	3.2
	동남아 기타	24.5	8.2	1.6	57.5	0.0	6.6	11.5
	남부아시아	17.1	5.7	2.7	44.1	2.7	10.9	13.9
서유럽대양주 기타	3.8 13.0	1.7 7.0	0.0 3.7	54.0 65.7	0.0 2.6	4.1 20.0	6.2 9.9	3.8 7.2

## 2) 중도입국청소년

2012년 실태조사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내 방과후 교실, 공부방·지역아동센터, 청소년상담 및 지원센터, 고용센터, 사회복지관들을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서비스 이용경험을 분석하고 있다.

서울시 차원의 중도입국자녀 지원기관이 2012년 말에 태동하였으나, 여성가족부의 레인보우스쿨이 2009~2010년간에 개소했음을 상기한다면 2012년 실태조사에 다문화가족 자녀세대를 위한 전담 기관에 대한 인지율과 이용의지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 (1) 지원서비스 인지율 및 이용 경험

전국적인 실태는 전반적으로 외국 성장 자녀의 서비스 기관 인지율이 국내성장 자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유일하게 고용센터만은 인지율과 이용률 모두에서 중도입국 자녀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18세 이상 다문화가족자녀 인구에서 중도입국자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현실, 중도입국 자녀의 고민 1순위 직업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국내성장 자녀에 비해 중도입국 청소년의 인지율은 떨어지나 이용률이 높은 것은 센터 프로그램 자체가 성인 대상 프로그램으로 연소자보다는 연령대가 높은 청소년이 듣기에 무리가 적을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사회통합프로그램 등을 진행 중인 센터의 경우 중도입국 청소년 수강자가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현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반면 청소년 전담 시설의 인지율 및 이용률은 다문화가족자녀 모두 낮게 나타나 다문화가족자녀 특화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뿐 아니라 통합 프로그램에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표 Ⅲ-124 】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 서비스 인지도 및 이용경험(전국)

(단위: %)

구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교내 방과후 교실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상담 및 지원센터		고용센터		사회복지관	
	인지	이용	인지	이용	인지	이용	인지	이용	인지	이용	인지	이용
전체	55.4	26.5	76.6	67.0	61.3	33.6	51.4	10.8	35.1	9.8	50.9	17.5
국내성장	57.1	26.2	86.2	69.9	69.7	35.3	55.3	11.2	33.6	7.2	54.2	16.9
외국성장	50.7	27.3	50.6	53.8	38.2	25.5	40.7	9.3	39.0	16.0	42.1	19.7

서울거주 청소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 또한 전국조사 결과와 맥을 같이 해 대체로 중도입국자녀의 서비스 기관 인지도와 이용경험이 국내성장 자녀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 다만 고용지원센터의 경우 전국조사 결과에서 중도입국 자녀의 인지도 및 이용경험이 모두 국내 성장 자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울거주자의 경우는 인지도는 높으나 이용률은 떨어진다. 특히 청소년 시설의 이용률이 인지도 대비 극히 약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고민 상담 대상에서도 서울거주 청소년들이 청소년 상담가에게 상담을 받는다는 응답이 국내성장, 중도입국을 막론해 0%였던 점에서도 이미 드러나 있던 문제이다. 중도입국 자녀의 교내 방과 후 교실 이용경험이 지원서비스 이용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권 교육의 틀 안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 어떤 식으로든 지원의 체계로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 점을 암시해 학교 밖 중도입국 청소년들에 대한 서비스 이용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선주 한국민 자녀, 국내 성장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 순의 위계적 관계가 고착화될 우려 또한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표 Ⅲ-125 】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 서비스 인지율 및 이용경험 (서울)

(단위: %, 명)

구분		전체(명)	인지율	소계(명)		
				소계(명)	이용률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전체	100.0 (11,787)	43.8 (5,164)	100.0 (5,164)	10.2 (1,207)	
	성별	여성	100.0	49.9	100.0	12.3
		남성	100.0	38.4	100.0	8.4
	연령	9~11세	100.0	37.6	100.0	21.0
		12~14세	100.0	46.7	100.0	11.4
		15~17세	100.0	45.8	100.0	7.8
		18세 이상	100.0	45.2	100.0	5.4
	성장 지역	국내 성장	100.0	45.2	100.0	10.9
외국 성장		100.0	42.0	100.0	9.4	
교내 방과후 교실	전체	100.0 (11,787)	65.7 (7,742)	100.0 (7,742)	41.1 (4,848)	
	성별	여성	100.0	69.1	100.0	42.0
		남성	100.0	62.7	100.0	40.4
	연령	9~11세	100.0	91.0	100.0	79.5
		12~14세	100.0	86.8	100.0	60.7
		15~17세	100.0	74.7	100.0	42.1
		18세 이상	100.0	44.8	100.0	16.6
	성장 지역	국내 성장	100.0	82.8	100.0	56.8
외국 성장		100.0	44.2	100.0	21.4	
공부방, 지역아동 센터	전체	100.0 (11,787)	49.1 (5,787)	100.0 (5,787)	15.3 (1,803)	
	성별	여성	100.0	51.9	100.0	15.1
		남성	100.0	46.7	100.0	15.4
	연령	9~11세	100.0	64.3	100.0	30.4
		12~14세	100.0	62.1	100.0	16.3
		15~17세	100.0	51.2	100.0	12.3
		18세 이상	100.0	67.5	100.0	8.7
	성장 지역	국내 성장	100.0	63.7	100.0	22.4
외국 성장		100.0	30.6	100.0	6.3	



구분		전체(명)	인지를			
			인지를	소계(명)		
				이용률		
청소년 상담센터 등	전체		100.0 (11,787)	44.9 (5,294)	100.0 (5,294)	3.5 (415)
	성별	여성	100.0	44.5	100.0	2.6
		남성	100.0	45.3	100.0	4.3
	연령	9~11세	100.0	33.8	100.0	3.9
		12~14세	100.0	55.3	100.0	6.5
		15~17세	100.0	54.0	100.0	4.3
		18세 이상	100.0	44.5	100.0	2.2
	성장 지역	국내 성장	100.0	51.3	100.0	4.8
외국 성장		100.0	36.9	100.0	2.0	
고용지원 센터	전체		100.0 (11,787)	34.4 (4,058)	100.0 (4,058)	3.3 (392)
	성별	여성	100.0	33.2	100.0	1.5
		남성	100.0	35.5	100.0	4.9
	연령	9~11세	100.0	15.6	100.0	0.8
		12~14세	100.0	24.4	100.0	0.5
		15~17세	100.0	35.7	100.0	0.8
		18세 이상	100.0	46.2	100.0	0.6
	성장 지역	국내 성장	100.0	32.2	100.0	3.1
외국 성장		100.0	37.4	100.0	3.7	
사회 복지관	전체		100.0 (11,787)	47.9 (5,647)	100.0 (5,647)	9.8 (1,157)
	성별	여성	100.0	50.5	100.0	9.2
		남성	100.0	45.5	100.0	10.3
	연령	9~11세	100.0	40.5	100.0	16.3
		12~14세	100.0	59.0	100.0	10.6
		15~17세	100.0	49.1	100.0	3.3
		18세 이상	100.0	47.4	100.0	8.1
	성장 지역	국내 성장	100.0	55.0	100.0	10.6
외국 성장		100.0	39.0	100.0	8.8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및 지원 수혜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는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어 교육, 한국 사회 적응교육, 기술직업 훈련, 일자리 소개 지원을 받은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국내성장 자녀는 학습지원, 외국계 부모 국가 문화이해 교육, 진로, 학습 및 인간관계 상담 지원을 받은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중도입국 자녀의 학교 이탈이 높은 데 반해 학습지원 경험이 적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 표 Ⅲ-126 】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및 지원 수혜 경험(복수응답, 전국)

(단위: %)

구분	한국어 교육	외국계 부모 국가 언어 교육	한국 사회 적응 교육	외국계 부모 국가 문화 이해 교육	학습 지원	진로 상담 및 진로 교육	학습, 친구, 가족, 이성 관련 상담	직업 기술 훈련	일자리 소개	받은 경험 없음
전체	7.6	5.0	5.1	2.7	18.7	8.1	2.6	2.6	2.4	64.8
국내성장	3.5	5.6	4.3	2.8	20.9	8.8	2.9	1.6	1.4	65.6
외국성장	18.7	3.5	7.3	2.5	12.7	6.2	1.8	5.3	5.0	62.5

서울시 거주자의 지원서비스 수혜 응답율 1순위는 학습지원 서비스로 남성에 비해 여성, 연령대별로는 저연령대 자녀들의 수혜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적인 실태의 연장선상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습지원 수혜율은 국내 성장 자녀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으나,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에 대한 서비스 수혜율은 오히려 국내성장 자녀를 앞지르고 있다. 중도입국자녀의 서비스 수혜율이 국내성장 자녀보다 높게 나타나는 분야는 한국어 교육, 한국사회 적응교육, 학습·친구 등 관련 상담, 직업기술 훈련과 일자리 소개로 일자리 소개 분야에서 국내성장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 사이의 수혜 경험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져 있다.

【 표 III-127 】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및 지원 수혜 경험(복수응답, 서울)

(단위: %)

구분	한국어 교육	외국계 부모 국가 언어 교육	한국 사회 적응 교육	외국계 부모 국가 문화 이해 교육	학습 지원	진로 상담 및 진로 교육	학습, 친구, 가족, 이성 관련 상담	직업 기술 훈련	일자리 소개	받은 경험 없음	
전체	9.5 (1,114)	4.3 (510)	5.7 (669)	2.3 (269)	17.5 (2,064)	6.8 (804)	2.7 (314)	3.4 (400)	3.1 (369)	66.1 (7,791)	
성별	여성	10.4	5.6	6.5	2.1	18.7	7.7	3.4	2.2	3.4	61.8
	남성	8.6	3.2	4.9	2.4	16.4	6.0	2.0	4.5	2.9	69.9
연령	9~11세	11.8	8.2	8.1	5.2	33.6	2.7	3.1	0.7	0.5	51.3
	12~14세	8.2	7.6	7.9	2.4	29.9	13.0	7.8	0.4	0.0	57.1
	15~17세	7.6	3.1	5.2	2.4	12.2	6.7	2.8	2.0	2.2	75.8
	18세 이상	9.2	1.7	3.9	0.9	7.1	6.6	0.7	6.0	5.6	73.8
성장 지역	국내성장	4.5	5.8	3.7	3.0	21.7	6.0	2.4	1.7	0.7	67.6
	외국성장	15.7	2.5	8.2	1.3	12.2	7.9	3.0	5.6	6.1	64.2

인지하고 있지만 이용하지 않는 서비스가 있는가 하면 앞으로 더 교육받고 지원 받기를 원하는 분야도 있다. 한국어교육, 한국 사회 적응이나 외국계부모 국가 언어, 문화교육은 국내성장 자녀나 중도입국 청소년 모두 ‘필요 없음’의 응답률이 ‘필요하다’ 보다 높다. 물론 국내성장 자녀는 한국어교육이나 한국 사회 적응 지원에 대해 중도입국 청소년보다 ‘필요 없음’의 응답 비중이 더 크고, 중도입국 청소년은 외국계 부모 국가 언어나 문화에 대해 지원 ‘필요 없음’의 응답률이 높다는 점에서 (당연히 예상되었던) 두 그룹의 다문화자녀 세대 간 차이를 엿볼 수 있다.

## (2) 교육 및 지원 요구

결국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에게 더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욕구는 어느 정도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학교생활과 일 모두에서 어려움의 3순위 원인으로 꼽혔던 한국어 교육에 대해 절반 가까이가 필요 없다고 응답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 교육이 전반적으로 필요 없는 것인지 앞서 예시로 든 지원기관의 프로그램으로서 이야기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현재의 자료로는 분석의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 표 Ⅲ-128 】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및 지원 요구(전국)

(단위: %)

구분	한국어 교육	외국계 부모국가 언어	한국사회 적응	외국계 부모국가 문화	학습지원	진로상담 및 교육	학습, 인간관계 등 상담	직업기술 훈련	일자리 소개
전체	2.06	2.64	2.23	2.57	3.03	3.26	2.67	3.13	3.11
여성	2.03	2.70	2.24	2.61	3.09	3.29	2.71	3.02	3.08
남성	2.09	2.58	2.22	2.54	2.97	3.22	2.64	3.23	3.14
국내성장	1.80	2.71	1.99	2.66	3.06	3.24	2.66	2.88	2.81
외국성장	2.77	2.42	2.86	2.34	2.94	3.29	2.69	3.57	3.65

고민 순위 1순위 직업, 서비스 인지율 및 이용률 1위 고용센터라는 조사 결과에서 이미 짐작할 수 있었듯이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지원 요구는 일자리 소개, 직업기술 훈련, 진로상담 및 진로 교육으로 집약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서울 거주 청소년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평균적으로 서울 거주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가장 바라는 지원은 일자리 소개이며 2순위가 직업 훈련이다. 전국적인 실태와의 차이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약간 더 높은 반면 외국계 부모 국가 언어 교육에 대한 욕구가 낮고, 학습지원, 진로 상담 및 교육에 대한 욕구가 낮은 반면 일자리 소개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 점이다. 특히 일자리 소개에 대한 욕구가 크게 나타난 그룹은 중도입국 남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표 Ⅲ-129 】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및 지원 요구(서울)

(단위: %)

구분	한국어 교육	외국계 부모국가 언어	한국사회 적응	외국계 부모국가 문화	학습지원	진로상담 및 교육 <sup>31)</sup>	학습, 인간관계 등 상담	직업기술 훈련	일자리 소개
전체	2.17	2.45	2.33	2.39	2.91	3.03	2.53	3.13	3.19
여성	2.19	2.75	2.41	2.62	3.06	3.14	2.66	3.07	3.12
남성	2.14	2.18	2.27	2.19	2.78	2.94	2.41	3.17	3.24
9~11세	2.16	3.10	2.45	3.11	3.60	-	-	-	-
12~14세	1.93	2.81	2.24	2.71	3.46	3.24	2.82	2.83	2.12
15~17세	1.94	2.31	1.89	2.10	2.90	3.15	2.78	2.87	2.76
18세 이상	2.30	2.06	2.41	2.02	2.41	2.96	2.41	3.25	3.52
국내성장	1.82	2.63	2.01	2.59	2.96	2.91	2.44	2.73	2.68
외국성장	2.61	2.23	2.75	2.14	2.85	3.13	2.60	3.46	3.60

31) 진로상담 이하 항목의 연령대 구분은 12~14세 구간이 12~14세가 아닌 13~14세 구간임을 밝힌다.

## 9. 분석 및 시사점

### 1) 다문화가족의 분화와 가구의 특성

서울 거주 다문화가족은 부부와 자녀 세대로 이루어진 가족이 전체 44.6%,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30.7%로 명백한 핵가족화의 경향을 보이는 동시에 전국(5.4%) 대비 본인만으로 이루어진 단독 가구(6.6%), 그리고 결혼이민·혼인귀화 당사자와 자녀만으로 이루어진 한부모가족의 비율도 전국적인 추세(3.4%)와 함께 가는 등 다문화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녀와 관련해서 자녀가 없는 가족의 비율이 49.7%로 전국 최대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자녀 수 1-3명에서 모두 전국 평균치를 밑돌고 있으며, 동부 평균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국 대비 6세 미만 자녀의 비중이 떨어지는 한편으로 18세 이상 자녀의 비율은 최대를 차지해 최근 화제가 되는 중도입국 자녀의 다수가 서울에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해 외국 성장 자녀가 있다는 응답 9%로 전국 최대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자녀 세대의 문제는 18세 이상 자녀의 학교에 다니지 않는 비율이 65%에 이른다는 점이며, 9세 미만 자녀의 낮 시간 보살핌의 방법 중 어머니의 보살핌이 55.4%를 점하고 있어, 주양육자의 언어 사용이 자녀 세대의 한국어 사용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와 함께 자녀 혼자 지낸다는 응답(0.9%)이 있다는 점에서 ‘방치’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결혼이민·혼인 귀화자라 해도 모두 유배우 상태는 아니라는 점은 이들에 대한 정책이 가족 안에만 묶여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50세 이상 연령대의 20.7%가 사별, 이혼·별거 상태임을 감안할 때 한국 사회에서 관계적 자본이 미약한 이들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혼 별거의 사유 또한 성격차이를 원인으로 꼽는 응답률이 2009년 27.4%에서 2012년 50.9%(배우자 41.3%)로 증가하였다는 점과 이혼 별거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전국 평균 10.6년에 비해 서울이 7.42년으로 짧다는 점에서 가족의 위기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혼 별거 후 자녀 양육을 결혼이민·혼인 당사자가 담당하고 있다는 응답을 (31.6%)이 배우자(7.9%)가 키운다는 답변에 비해 높은 반면 양육비 수령의 응답은 8.6%에 그치고 있으며, 이혼·별거 후 자녀가 외국에 있다는 응답이 9.6%에 이르고 있어 이혼이나 별거가 부부의 혼인관계 해소를 넘어 가족의 전반적인 해체의 위험을 안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더불어 이혼 별거가 아닌 경우라도 직장이나 자녀 교육을 이유로 한 비동거의 경향도 고연령층, 한국계 중국 출신인 가족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의 생활방식이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2012년 실태조사 결과는 2009년도 조사 결과에 따른 분석 자료보다 둘 다 초혼인 가족(2009; 52.9%, 2012; 65.3%)의 응답률이 증가하였고, 서울(22.5%)은 전국(17.9%)보다 둘 다 재혼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어 서울 거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전국 대비 한층 다양성을 띠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전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있다고 답한 비율(당사자 49.5%, 배우자 45%)을 볼 때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은 계속해서 분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의료보호 혜택을 받는 가족의 비율이 전국평균 뿐 아니라 동부 평균보다도 높아 서울 거주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소득의 양극화, 주거 불안정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서울시 거주 다문화가족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전국 대비 50만원 미만 구간의 비율이 높은 반면 전국 소득의 최다 분포 구간이 200-300만원 구간인데 반해 서울 거주 가족은 100-200만원 구간에 최다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주택 점유 형태에서도 자기 집 거주가 전국 42.2% 대비 20.2%에 불과하며 월세를 내는 가주의 비율도 38%를 넘고 있어 열악한 가구 소득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도 반영되어 서울 거주자들이 자녀 양육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양육·교육비 지출 부담을 꼽고 있다.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전체 규모는 영등포, 구로, 관악, 금천 순이며, 자녀 세대의 경우는 구로, 영등포, 관악, 강서의 순을 보이고 있다. 서울 거주 다문화가족의 가장 큰 특징은 결혼이민자 가족의 전국적인 분포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일반 귀화자 가족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며, 출신국별로 볼 때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 출신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출신(한국계

제외)의 비율은 33.5%로 전국보다 11.3% 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베트남 출신자의 비율은 전국대비 10.8% 포인트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북미, 유럽 출신자는 전국대비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어 출신국적별 다문화가족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서울 거주 다문화가족의 특성은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계가 이끌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국적에 따른 특성이 드러난다고 볼 때에는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계의 특성이 서울의 전체 특성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전국 대비 북미, 서유럽의 특성이 보다 강화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 2) 서울시 결혼이민·혼인귀화자와 배우자

서울거주 결혼이민·귀화자의 연령 분포는 여성의 경우 40-49세 구간이 최다 분포 구간으로 27.9%를 점하고 있으며, 서울 거주 남성은 50세 이상 구간에서 35.2%를 점하고 있다. 40세 이상 인구 분포가 전국 42.5%임에 반해 서울은 57.5%이고, 이중 50세 이상 구간의 비중은 전국 17.4%, 서울 28.6%이다. 이에 반해 29세 이하 연령 인구의 비율이 전국 27.2%, 서울은 15.6%로 서울 거주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고령화가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육수준별 분포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최다 분포 구간은 고졸(41.5%)이나 중졸 이하의 결혼이민·혼인귀화자의 비중이 31%인데 반해 대졸 이상은 남성(38.9%)이 여성(25.7%)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가족 형성의 경로는 캄보디아, 베트남 등을 제외하면 친구, 가족의 소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베트남 출신인의 거주율이 전국 대비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서울거주 다문화가족 부부는 주로 지인의 소개로 가족을 형성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다른 한편 부부간 연령차가 커질수록 중개업체를 통한 만남의 비중이 크다(20세 이상 42.7%)는 점에서 문화적 갈등에 더한 연령 차에 따른 갈등 문제에 누가 어떻게 관계적 자본으로 기능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가족관계 만족도에서 여성의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자녀에 대한 만족도는 남성 대비 여성의 만족도가 크다는 점 또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대방의 부모 및 형제자매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낮

은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 가족이 가족 갈등의 원인으로 등장할 때 남성의 가족이 여성에게 미치는 부담이 보다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남녀의 가족 내 역할에 대한 인식에서는 한국인 남성이 남녀의 성별역할이나 여성의 사회참여, 가사분담에서 가장 보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으며, 부부수입 별도 관리의 항목에서는 한국인 여성 배우자의 인식이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혼인 귀화자가 취업 상태라는 응답은 전국대비 서울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남성 당자사의 취업에 대한 응답률은 전국 대비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배우자 그룹의 취업에 대한 응답은 전체적으로 서울 거주자의 취업에 대한 응답 비율이 떨어지는데 특히 배우자인 남성의 응답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취업 현황은 24세 이하 연령 구간을 제외하면 전 연령대에서 취업자의 비율이 미취업자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나, 혼인 유형별로 볼 때 사별의 경우 전국 46.9%, 서울은 39.6%만이 취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경제 상황이 지극히 열악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배우자의 종사상 지위에서 서울 남성은 44.7%가, 여성은 34.1%가 상용직으로 종사상의 지위에서 서울이 전체적으로도 상용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특히 여성의 상용직 비중이 낮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노동시간이 길다는 점과 임금에 대한 불만이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의 1, 2 순위로 지적되었다는 점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고도 만족할 만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서울 거주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현실이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취업 관련 응답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고용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을 통한 구직보다는 모국인 친구나 아는 사람 등 기존의 인간관계, 한국인 친구나 이웃이라는 사적 관계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일자리 탐색의 어려움은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이 1순위로 꼽히고 있어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일자리 탐색을 위해 공적 기관이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취업 사유에 대한 질문에서 건강이 좋지 않음을 이유로 든 비율은 전국 13.3% 대비 서울거주 미취업자의 21.7%이며 전국 여성응답자의 10.8%, 서울 여성응답자의 20.2%가 미취업의 사유로 건강을 들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모국에서의 경력이나 학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데 대한 어려움은 5.7%인데 반해 일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80%를 넘는데, 사무종사자였다는 응답이 19.4%로 최다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서비스 15.9%, 단순 노무와 전문가 및 관련이 각각 13%이나, 한국에서 종사하는 직업 중 단순 노무 응답의 비중이 크고, 전문가 비중이 낮았던 점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혼이민·혼인 귀화자 등의 사적 네트워크의 큰 특징은 생활의 고민과 취미·여가 활동의 주 대상이 모국 출신자인 데 반해 일자리와 자녀 교육에 대한 의논을 한국인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결국 결혼이민·혼인 귀화자라 할 지라도 스스로에게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사적 네트워크 차원에서는 명확히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사회에서의 공적 모임이라할만한 자녀의 학부모 모임, 지역모임, 단체 활동 참여 응답이 모두 10% 미만인데 반해 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응답은 1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모임에서도 모국인 친구 모임을 제외하면 봉사 취미활동에 대한 희망(28.5%)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민간단체, 정당 활동 등에 대한 희망은 2.6%로 낮게 나타나 장기적으로 이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지를 과제와 함께 참여의 어려운 점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라는 응답이 3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노동으로 인해 생활이 다시 침해 받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3) 자녀 세대

9-24세 자녀의 연령별 분포에서 18세 이상 자녀의 비중이 높고, 특히 서울의 경우 전체 자녀의 49.4%, 외국 출생 자녀의 74.9%가 18세 이상의 연령대에 분포해 있어 이들에 대한 청년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 부각되고 있는 중도입국자녀와 관련해 부모 연령 40대 결혼이민자·귀화자 가족에 1명인 경우가 다수일 것으로 추정되며, 출신국을 구분할 수 있는 국가 순으로 보면 우즈베키스탄 > 중국(한국계) > 북미 > 일본 > 러시아 출신자 그룹의 10% 이상에서 자녀가 있다고 답하고 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출신자의 13%가 1명 이상의 중도입국자녀가 있다고 답하고 있기는 하나, 서울 거주 다문화가족의 0.6%만이 우즈베키스탄 출신자로 결혼이민·귀화

자 그룹의 전체 규모 면에서 보았을 때 실제 중도입국자녀의 대다수는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 출신자들일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서울거주 결혼이민·혼인귀화자의 출신 국적의 60% 이상이 중국(한국계 포함)인데 반해 교육부에서 발표한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을 보면 부모의 출신 국별 분포에서 일본이 최다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출신국적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규모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다. 학교급별 다문화가족 자녀의 분포를 볼 때에도 중도입국 자녀의 고교 재학인원이 174명에 불과하다는 면에서 선행연구들이 지적한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 재학률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을 읽을 수가 있다.<sup>32)</sup> 2012년 1월말 현재 출입국관리소에 귀화를 신청한 만19세 이하 부모 동반입국 자녀는 총 5,828명으로, 서울은 2,140명으로 36.7%, 경기도가 1,971명으로 32.9%를 차지(2012,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하여, 전체 다문화가족의 규모, 다문화가족의 자녀 규모에서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황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특히 중도입국청소년의 문제는 이들이 제도권 교육으로부터 이탈되는 가장 큰 원인이 가정형편이라는 데 있다. 이는 특히 서울 거주자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서울 거주 다문화가족의 소득 수준이 전국 대비 낮고, 주거비용 부담이 크다는 가구 특성에서도 이미 예측할 수 있었던 문제이다.

학교 밖의 중도입국청소년은 국내성장 자녀에 비해 일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지만 종사상의 지위에서 상용근로자로 일했다는 응답은 국내성장 자녀에 비해 떨어지는 반면 일용근로자로 일했다는 답변의 비율은 높아 노동시장에서 종사상의 지위 또한 주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고 일을 하지만 종사상의 지위가 낮을 뿐더러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1순위 또한 급여 문제인 것으로 나타나 일을 한다고 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32) 2011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실시한 ‘중도입국청소년 현황과 지원방안’ 연구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을 5,726명으로 집계하였다. 2010년 귀화를 신청한 부모동반 입국자 중 21세 이하를 대상으로 삼은 결과로 연구에 따르면 중도입국청소년은 90%가 조선족이나 중국인이고, 약 70%는 서울·경기에 거주, 서울에 거주하는 학령기 청소년들의 중학교 재학은 18%, 고등학교 재학은 3%에 불과하여 학교 밖의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대한 정책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실태조사 분석 결과 중도입국 자녀는 전반적으로 학교가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취업 준비에 대한 응답과 입시 학원·취업학원 통학에 대한 응답이 국내성장 자녀 보다 높게 나타나며, 현재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기타 등의 답안도 중도입국 자녀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과 전국적인 비교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은 입시학원 통학과 관련된 부분이다. 전체적으로 비율이 적기는 하나 전국적인 수치가 국내성장 자녀보다 중도입국 자녀의 입시학원 통학의 응답이 높게 나타난 데 비해 서울은 오히려 국내성장 자녀의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나 있다.

향후 주목해야 할 응답자 그룹은 특히 서울 거주 중도입국자녀 그룹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이들이다. 이들이 무력감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구상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면 앞으로의 문제는 보다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 거주 중도입국 자녀의 가족 관계만족도는 어머니 > 형제자매 > 아버지 순으로 순서는 전국과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만 평균 점수에서 미미하게나마 전국 대비 어머니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 전국 대비 형제자매에 대한 만족도와 아버지에 대한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매우 불만족이라 답한 비율이 어머니와 형제자매는 0%인 데 반해 아버지에 대해서는 6.4%가 답하고 있고, 어머니와 형제자매에 대한 매우 만족의 응답이 아버지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국내 성장 자녀는 보무 모두에 ‘매우 불만족’의 응답이 나타나고 있긴 하나, 어머니에 대한 ‘매우 불만족’ 응답률이 아버지에 대한 ‘매우 불만족’ 응답률보다는 떨어지고 있다.

결국 국내성장 자녀에 비해 중도입국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아버지에 대한 만족도는 낮다는 점에서 재혼 가족 안의 친밀성의 문제가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남겨 놓고 있다. 현장전문가들은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중도입국청소년이 어머니에 대한 만족도가 크다는 점은 실제 고민 시의 대화상대로 어머니를 꼽은 중도입국 청소년이 47.1%로 국내성장 자녀(21.2%)의 두 배에 이르고, 아버지를 대화상대로 꼽은 중도입국청소년이 6.6%인데 반해 국내성장 자녀는

10%라는 분석결과에도 나타나고 있다. 국내 성장 자녀의 경우 고민 시 대화상대로 가족보다는 친구·동료 집단이 1순위(42.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중도입국 자녀의 경우 어머니(47.1%)에 이어 친구·동료(25.9%)로 나타나 1순위, 2순위 간 역전된 상황이 관찰된다. 다만 두 집단 모두 3순위에는 ‘스스로 해결’이 꼽히고 있다.

2012년 청소년가치관 국제비교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위 항목과 일치하지는 않으나 가족 중에서 누구와 대화를 가장 많이 하는가의 항목에 한국 청소년들은 어머니(71.6%), 여자형제(9.3%), 아버지(8.0%), 남자형제(7.9%) 순으로 나타나 위 결과와 크게 어긋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고민을 주로 이야기하는 상대의 1, 2순위가 국내성장 자녀와 중도입국 청소년 간 역전되어 나타난 것처럼 고민의 내용 또한 두 집단 간 1, 2순위가 엇갈림을 볼 수 있다.

서울 거주 국내 성장 자녀의 고민은 공부 > 외모 > 친구 > 직업 > 용돈부족으로 주로 현재의 개인적인 문제에 고민이 집중되어 있다. 반면 중도입국청소년의 고민은 직업 > 공부 > 경제적 어려움 > 용돈 부족 순으로 공부에 대한 고민보다 직업에 대한 고민이 크다는 면에서 현재보다는 미래에 용돈부족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고민이 커 개인의 문제보다는 가족 문제 전반에 대한 고민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서울 청소년 일반의 고민과 국내 성장 자녀의 고민순위는 외모가 공통적으로 상위순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도입국 청소년이 경제적 어려움을 상위순위로 꼽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으며, 국내 성장 자녀의 경우 고민의 우선 순위 면에서 중도입국 청소년보다는 서울 청소년들과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4) 지원체계 이용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관련 서비스 기관 이용률이 전국 대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남성의 서비스 이용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남성의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며, 여성의 경우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보다는 주민센터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 전담 서비스전달체계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률을 제고할 방안이 요구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인지의 경로이다. 구청·주민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방문 교사 등 공적 경로를 통해 인지한 비율이 전반적으로 전국 대비 낮게 나타나는 반면 인터넷을 통한 인지가 유일하게 전국 대비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공적 지원체계의 존재 자체를 사적인 노력을 통해 알아가야 한다는 점과 더불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인터넷 등의 사용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과 출신국 사정에 의해 인터넷 등의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특히 남성 결혼이민·혼인귀화자의 서비스 기관 인지율 및 이용경험이 떨어진다는 점은 기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성 결혼이민·귀화자가 계속해서 언급되어 온 만큼 개선되지 않는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이용경험 최대 분포를 보이는 한국어교육과 사회적응 교육에서도 남성 결혼이민·혼인 귀화자의 경우 이용경험 면에서 여성(17%)에 비해 극히 적은 비율(6.8%)만이 이용 경험을 답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지원 필요 부분에 대한 응답에서 모든 교육 및 지원 필요도에 남성 결혼이민·혼인귀화자의 응답이 여성에 비해 낮다는 점 또한 드러나 있어 여성과는 다른 남성의 요구가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위해 질문 항목이 다르게 구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배우자 및 배우자 가족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1.4%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도 현재의 다문화가족 정책은 다문화 사회정책으로의 확대를 말하기 이전에 가족 정책으로서의 기능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물론 서울의 경우 정부 제공 인프라와 더불어 다양한 민간의 인프라를 이용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왕에 제공되는 공적 서비스를 모르고 있다는 응답률이 높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상기할 때 공적 서비스에 대한 인지율을 높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원 필요도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높은 교육 요구는 서울 거주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반영된 실질적 요구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을 통해서 충족되기 어려운 만큼 관련 기관간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외 각종상담, 자녀 생활 학습지원 등 지원 필요도가 높게 나타난 분야에 대해서도 왜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기관 중 인지율과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주민센터 등을 통한 서비스 안내 등도 고려해 볼 사안으로 보이며, 취업 의지가 높은 반면 고용센터나 여

성센터 이용률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률에 못 미친다는 점에서는 취업 욕구에 부응한 기관 연계의 필요성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자녀 세대의 경우 인지율과 이용률 면에서 모두 높게 나타나는 부분은 교내 방과 후 교실로 나타나 접근성이 곧 인지율과 이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방과 후 교실 등의 서비스가 갖는 장점은 다문화가족 자녀만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편 학교 밖 시설로 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청소년 상담 및 지원 센터의 경우 인지율 대비 이용률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성장자녀와 중도입국청소년의 서비스 인지율 및 이용경험을 비교해 보면 고용지원센터만이 인지율과 이용률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응답률이 높아 중도입국 청소년의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와 높은 취업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종 교육 및 지원에 대한 수혜 경험에서도 일자리 소개, 직업기술 훈련, 한국어교육, 한국 사회적응 교육에서 전국적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험이 높게 나타나는 한편 서울거주자의 경우는 여기에 각종 상담과 진로상담 및 진로 교육을 받은 경험 또한 국내성장 자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향우 지원 요구 또한 일자리 소개, 직업훈련, 진로상담 교육 순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요구 순위가 나타난 반면 국내성장 자녀의 경우는 학습지원, 진로교육, 직업훈련 순으로 나타나 현재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한국 사회에서 스스로의 미래를 ‘학업’이 아닌 ‘직업’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IV

##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요구 분석: FGI조사 결과

1. 핵심과제 발굴 FGI 분석
2. 중점지원 대상 FGI 분석
3. 분석 및 시사점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 IV

##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요구 분석: FGI조사 결과

### 1. 핵심과제 발굴 FGI 분석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전국 대비 낮다는 점은 서울시 거주 결혼이민·혼인귀화자의 높은 취업의지에 반영되고 있다. 한편 취업자 중 상용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 대비 낮은 것으로 드러나, 서울 거주 다문화가족의 경제 활동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현실적인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다문화가족 전담 지원 체계로서 설치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률이 전국 대비 떨어진다는 점 또한 드러나고 있는데, 한국어 교육 위주로 진행되는 센터 프로그램이 서울거주 다문화가족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계 중국출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그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에 서울거주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현재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해 갈 방안을 모색하고자 취업·경제 활동과 가족지원에 대해 결혼이주·혼인귀화 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발전센터 관계자에 대한 FGI를 실시하였다.

#### 1) 취업·경제활동 분야

##### (1) 조사 목적

집단면접(FGI)은 결혼이민여성 및 혼인귀화자 여성의 생활 실태 및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결혼이민·혼인귀화자 여성의 다양한 경험 중에서도 서울 거주자들의 특징으로 드러난 취업 관련 수요와 지원체계 이용현황 등을 중심으로 서울 거주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상황과 취업을 위한 지원에 대한 결혼이민·혼인귀화자들의 요구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 (2) 조사방식 및 참여자 선정방법

FGI는 2013년 11월과 12월 2회에 걸쳐 각 3명, 2명의 취·창업 프로그램 수강 결혼이민·혼인귀화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하였다. 조사는 반구조화 된 질문지에 기반하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지역 여성발전센터에서 실시되었다. 참여자는 기관의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의 추천을 받았으며, 관련 프로그램을 듣고 있는 여성들이니 만큼 취업 의지가 높은 여성들로 구성되었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 출신자 2명, 러시아 출신자 1명과 베트남 출신자가 2명이다. 1차 조사 참여자는 중국계 2명, 러시아계 1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2차 조사는 베트남계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3) 참여자의 기본특성

사례1의 여성은 중국(한국계) 출신자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한국에 거주한 지 10년 되었고, 1명(13세)의 자녀를 두었다. 현재 구직 중이며, S여성발전센터 결혼이민·혼인귀화자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다. 이미 타 기관에서도 취업 교육 프로그램 수강 및 취업연계 경험을 가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2년간 한국 식당에서 서빙을 했으며, 한국에서는 판매원과 어린이집 조리사 취업경험을 가지고 있다.

사례2의 여성은 중국(한국계) 출신자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한국에 거주한 지 5년 되었고, 자녀는 없다. 현재 구직 중이며, S여성발전센터 결혼이민·혼인귀화자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한국 무역회사 통번역 사무직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취업 경험이 없다.

사례3의 여성은 러시아 출신자로 한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 거주한지

11년 되었고, 2명(7세, 11세)의 자녀를 두었다. 현재 구직 중이며, S여성발전센터 결혼이민·혼인귀화자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다. 이전에 타 기관에서도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였으나, 취업 연계 경험은 없다. 러시아에서는 간호사로 근무하였으며, 한국에서는 공장 단순노무 경험이 있다.

사례4의 여성은 베트남 출신자로 한국 국적 신청 후 발급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에 거주한지 2년 9개월 되었고, 1명의 자녀를 두었다. 현재 구직 중이며, N여성발전센터에서 통번역사와 이주여성 상담원 취업 교육 프로그램 수강 경험이 있다. 베트남에서는 공장에서 단순노무직으로 4년간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이중언어강사 계약직(3개월)으로 근무하였다. 내년에 이중언어 강사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사례5의 여성은 베트남 출신자이며, 한국 국적 신청 후 발급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에 거주한지 5년 되었고, 2명의 자녀를 두었다. 현재 방송국 통번역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며, N여성발전센터에서 통번역사와 이주여성 상담원 취업 교육 프로그램 수강 경험이 있다. 베트남에서 취업 경험은 없으며, 한국에서 남편이 다니는 공장에서 미싱 보조로 2년간 근무하였다.

표 IV-1 | FGI 참여자 일반 특성(취업·경제 활동분야)

사례	연령	출신 국적	한국 거주기간	혼인 상태	자녀	교육 수준	특징	과거 취업경험	
								한국	출신국
1	37세	중국 (한국계)	10년	기혼	1명	고졸	구직중	판매원, 조리사	식당 서빙
2	41세	중국 (한국계)	5년	기혼	없음	고졸	구직중	-	사무직
3	47세	러시아	11년	기혼	2명	초대졸	구직중	공장	간호사
4	25세	베트남	2년 9개월	기혼	1명	고졸	구직중	이중언어강사	공장
5	25세	베트남	5년	기혼	2명	고졸	방송 통번역	미싱보조	-

#### (4) FGI 결과 분석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여성이라는 사회적 범주화는 가족 안에서의 삶을 전제로 한 지원을 우선시하여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였으며 가족을 넘어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에 대한 지원은 많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다른 한편으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지원 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과 그 아이를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의 한 축인 배우자와 배우자 가족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과 함께 다문화 가족의 이주민 중에서도 여성만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의 문제는 이미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각종 지원 체계 이용 경험을 가진 여성들에 대한 FGI를 통해 그간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와 한계를 논함으로써 향후 개선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 ① 사회활동의 기반이자 한계로서의 가족

결혼이주·혼인 귀화자라는 용어에서 나타나듯 현재 무엇을 원하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다는 처음 왜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됐는지를 중심으로 한 논의와 함께 지원 프로그램 또한 가족생활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인해 당사자의 한국생활이 좀 더 나아지리라는 기대의 한편에는 변화가 누구로부터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베트남은) 한국처럼 발전하지 않아서 저도 나이가 어리니까 애 어떻게 키워야 되는 건지, 애 낳고 나서 시어머니가 무조건 애기 잘 키워야 된다고 무조건 애기, 애기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 같아요. 그것도 힘든 것 사실이에요 ... 시어머니가 애기 장난감, 옷 사라고 해요. 제가 보기에는 장난감 많아요. 샀는데 애기 놀지도 않아요. 근데 시어머니 자꾸 새 거 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네네 그냥 넘어가고 근데 요즘 하도 많이 들으니까 제가 필요한 것만 사고 필요 없으면 안사요. 그래서 시어머니 잘 빠지는 편이에요. <사례 4>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문화 이해의 측면에서 결혼이주·귀화 여성들에게 강조되는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그들의 배우자나 배우자 가족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양육에 대한 의사결정의 문제에서 아이의 어머니인 결혼이민·귀화 여성들의 의견보다는 한국인 시부모의 의사가 전적으로 강요되기 때문에 여성의 입지는 가족 안으로 제한되어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최소화되는 한계에 놓여 있다.

임신하고 애기 낳았을 때 친엄마 초청했어요. 한국 와서 몸조리도 잘 해주고 괜찮았어요. 임신 할 때는 베트남 음식 먹고 싶어요. 근데 베트남 음식 재료 사서 집에서 만드는데 시어머니가 한국 음식 먹어야 된다고 한국 음식이 좋은데 왜 그런 걸 먹냐고...시어머니 베트남 음식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나는 먹고 싶어요. 베트남 음식 나쁜 음식 아닌데, 한국 음식 좋은 음식, 베트남 음식 이상한 음식...진짜 얼마나 서러운지 그런 때마다는 분가하고 싶어요. 진짜 <사례 4>

식습관으로 인한 문화적 갈등이 가장 크다는 점은 2012년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이미 드러난 문제이다. 그러나 단순한 다름으로 인한 갈등이 아닌 그 안에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의 가치가 개입된다는 점에서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음식이나 식습관이 취향이나 개성이 아닌 절대적으로 따라야 할 규범으로 작용하는 바탕에는 이미 관계에 대한 위계문제가 개입되어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으며, 결혼이민·혼인귀화 당사자의 위치는 위계의 하위를 차지하고 있어, 관계의 불편함은 지속되는 것이다.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당사자에 초점을 두고 있어 한국인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 한편으로 당사자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 자체가 갖는 한계도 있다. 가족을 중심으로 한 지원은 대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 가족생활을 위한 문화 이해 교육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다문화 가족 여성들이 취업을 원하고 있다는 점은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나 있으며, FGI를 통해 훨씬 강한 의견이 피력되고 있다.

국제 결혼하는 한국 남자들이 경제적으로 거의 좋지 않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애기도 생기니까 경제적으로 점점 더 나빠지잖아요. 저도 아프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둘째 낳고 나서 안 될 것 같아서 일을 해야 경제적으로 좀 애들 미래 준비도 해야 되고 <사례 5>

사례 5의 여성이 이야기하는 취업을 절박성은 흔히 말하는 친정에 돈을 보내기 위해서도, 자아실현을 위한 것도 아니다. 현재 서울 생활에 필요한 정도의 ‘돈’이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충당될 수 없다는 점이 다른 어떤 이유를 압도해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이끌고 있다. 즉 다문화가족 여성이 일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한국 가족의 열악한 경제적 배경과 함께 자녀양육에 드는 비용이 적지 않다는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비롯된 문제인 것이다.

자녀가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가정에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풍요로우면 뭐 하러 취직을 하겠어요. 아이가 클수록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 점점 더 많이 들고 ... 아기 때문에 무조건 가족의 경제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 〈사례 1〉

더불어 남편과의 연령 차이에서 비롯되는 문제도 있다. 남편의 수입이 있다고 해도 노동시장에서 은퇴할 시기에 이르렀고, 여기에 아직 어린 아이들의 양육비 부담이 여성의 몫으로 남는다는 현실은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이끌고 있다.

남편 육십 나이 가까이 됐습니다. (저에게) 가족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그러니까 일하고 싶어요. 제가 원래 일 안하고 싶어요. 댄스 하고 싶어요. 한국 사람처럼 아침에 산책하면 하지만 우리 아빠(남편) 나이 많아요. 〈사례 3〉

다문화가족원으로 한국 사회의 한 부분을 구성하게 된 이들의 이름인 결혼이주·혼인 귀화자는 한국 사회에서 이들의 시작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주는 동시에, 일반의 선주 한국인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들이 겪는 문제는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애초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보다는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으로 한국 사회에 들어 왔고, 그 가족이 가진 문제로 인해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가족은 역으로 사회활동에 장애로 작용하기도 한다.

항상 면접할 때마다 애기문제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돌보는 사람 없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문해요. 야근 못한다고 그럴까봐. 왜 차별하냐고 그런 거. 한국 지금 저출산이라고 빨리 애기 낳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애기 낳은 사람한테는 취직 그렇게 힘들게 하면 어떻게 애기 낳느냐고 앞뒤가 안 맞아요. 애기 있는 사람이니까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니까 우선적으로 해줘야지. 애기 한명 낳으면 돈 준다고 하던데 일자리나 도와주면 좋겠어. 애기한테 돈 주지 말고 ... 한 달 10만원, 20만원 짜리 그 돈이 우유 값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돼. 그 돈으로 주지 말고 일자리나 아니면 애기 돌봐주는 시터 그런 거 생겼으면 좋겠어요.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안 하면 좋죠. 근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키워 애들.... 〈사례 5〉

한국 사람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왔고, 아이가 생기고 가족이 가용할 수 있는 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하고자 하나, 결국은 아이가 있다고 하는

가족의 상황이 취직에 걸림돌이 되는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가족의 필요에 의해 일도 필요하고,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FGI 참여 여성들의 이야기이나 현실에서 이들의 취업이나 사회활동을 위한 지원은 미미하고, 초기 한국어 교육에 주안점을 둔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성들의 문제의식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요. 처음 한국어 공부 있습니다. 그 시간 너무나 소중한데 다문화 센터에서 한국어만 공부했습니다. 내가 11년 살았는데 하지만 지난주 처음 들었습니다. 일하고 싶어요. 그럼 어떤 준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 어떻게 해야 되요? 잘 몰랐어요. 몇 년 동안 한국어 공부만 있습니다. 컴퓨터 필요합니다. 다문화센터에 컴퓨터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다른데 가야 되요 ... 시간 버렸어요. 지금 내가 마흔여덟 나이에요 ... 컴퓨터 수업이 없으면 다른데 보여주세요. 이걸 보여주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사례 3>

인터뷰 당시 인력개발기관에서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수강 중이었던 사례 여성은 한국 생활 11년 동안 결혼이민·귀화자를 위한 취업 관련 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음을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가 한국어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후 취업 등 다른 활동을 위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에 강한 문제의식을 보이고 있다. 결혼이주·혼인 귀화자 지원 프로그램이 갖는 제한이 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한계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각 기관 연계나 정보 교류 등이 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 ② 인정되지 않는 경력과 연계되지 않는 삶

결혼이주·혼인귀화 여성의 한국입국 이전의 삶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였고, 어떤 재능이 있는지의 문제는 한국의 노동 시장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결혼이주·혼인귀화 ‘여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묶여 이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는 명확한 한계에 갇혀 있다.

결혼이민·귀화자 여성의 80% 가량이 모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음에도 이들의 모국에서의 경험은 ‘무’로 한 채 한국 사회에 들어온 순간부터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면에서 실력과 능력의 최하위 수준에 이들의 노동 능력이 놓이고 있다.

가족 안에서 한국 가족 구성원을 따라야 하는 존재로 위계화된 결혼이민·혼인귀화자 여성들은 가족 밖의 세상에서는 ‘지금 여기에 오기까지의 삶’ 자체를 인정받지 못한 채 ‘무’에서 출발해야 함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저희 생각엔 한국 사람이랑 똑같은 거 같은데 벌써 외국인이다 생각(차별)을 해버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서도(중국) 한국말 다 배우고 막힘없이 학교에서부터 이거 다 쓰고 하니깐 굳이 그걸 해야 되나 그랬었죠. 여기 와서 취직에 면접을 많이 다닌다면 이게(토픽) 필요하구나. 이주여성이라 하면 취직할 때 꼭 그런 걸 필요로 하더라구요. 그런데서 차별을 놓으니까. <사례 1>

한국 사회에서 통칭 조선족으로 불리는 사례여성은 한국어를 따로 공부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말할 정도로 능숙한 한국어 실력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취직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요구되는 한국어능력시험 자격 요건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이 한국 입국 전에 이미 중국에서의 교육과정에서 한국어를 공부했고, 다른 누구보다 뛰어난 한국어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국 입국 전까지만 유효했을 뿐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하는 자격은 모두 한국에서 새로이 취득해야 하는 문제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기업 사무실에서 한 8-9년 쯤 다니다가, 북경 쪽으로 들어와서 한국 하고, 중국하고 무역하는데서 2-3년 하다가 이쪽(한국)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 센터에 직업 훈련 받으러 갔는데, 조리사 하라고...적성에 안 맞는데 그거 하라고 하니깐 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소개시켜 주는 일은 늘 조리사 일이나 그런 거 작년에는 어린이집에 조리사 3개월 했는데 ... 땀, 불, 가스 정말 힘들었어요 ... 애들이라 요리 배운 거랑 또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게 정말 힘들더라구요. <사례 2>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입국 전 경력은 한국 사회에서 새로이 직업 훈련을 받는 데 고려 사항이 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가의 문제가 고려된 취업 지원이 아닌, 다른 능력이 배제된 ‘여성’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소개되는 훈련과정이나 직업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러시아에서 간호사 했습니다. (다문화센터에) 누가 와서 (팸플릿) 줘서 보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어떤 프로그램 갔습니다. 여기 가면 서비스 교육 있습니다. 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교육 들었어요. 수료증 받았어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그런 일 했습니다. 연필깎이 만드는 거. 앉아서 한국사람 쪽 바닥에 앉아서 허리 아파서 계속할 수 없어요. <사례 3>

출신국에서 경력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 관련된 훈련 과정을 거쳤다고 해도 이것이 곧 관련 분야로의 취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다고 해도 그것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관련된 분야로의 취업 연계까지 고려되어야 하나, 현실에서 취업 교육이 ‘일’로 이어진 사례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이주여성 위주로 네일아트 배울 때도... 연결시켜준다고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전혀 연계가 안 되더라고요. 전화도 몇 번 센터로 했었는데 근데도 지금은 그렇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실망했죠. <사례 1>

교육을 듣는다고 해도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은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수강했던 여성일수록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예산 지원이 과다함을 비판하지만, 정책 수혜자로서 여성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높지 않으며,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당사자들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데 보다 큰 문제가 있다.

이주여성 (취업)박람회 갔는데 넣을만한 것이 없더라고요. 미싱사만 있고. 상담사, 통역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냥 센터에서 일하는 거고, 많지 않고, 그냥 둘러보고 왔어요. 아무 소득도 없이. 적성에 맞는 거 찾기가 진짜 쉽지가 않고, 내가 하던 일 계속해서 능력 살려 갈 수 없다는 게 안타까워요. <사례 2>

해당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박람회에 주된 직종이 ‘미싱사’였다는 점은 현재의 노동시장이 결혼이민·혼인귀화자가 가진 역량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의 문제와 연결되는 문제이다. 취업연계가 되는 프로그램은 가사노동의 연장선상에 선 일로 개인의 역량을 ‘결혼’이민에 묶어 두고 있으며, 결혼이민여성이나 혼인 귀화여성들이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사, 이

중언어 강사 등이 가까이에서 보고 모델링 할 수 있는 일이긴 하나, 이조차도 비정규, 저임금으로 실상을 아는 결혼이민여성, 혼인귀화자들이 역할 모델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

직장 생활하려면 물론 경력도 있었지만 그게 여기 와서 많이 무시당하고 하니까 ... 교육 많이 받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자격증도 할 거고, 바라는 점이라면 좋은 일자리들 많이 연결이 돼서 취업이 이루어졌으면 무조건 정부에서 지원하니까 교육 받아야지 하고 와가지고 시간만 보내고 이쪽에 일을 안 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잖아요. 교육 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교육 진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라던가 취업 연결 그런 것을 많이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례 1>

한국에 오기 이전의 삶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성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에서 결혼이민·혼인 귀화 여성의 위치는 최하위에서 출발해 올라와야 하는 자로 자리매김 되어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으며 관련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취업으로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성들의 삶은 연속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불연속과 파편화의 길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 2) 지원체계 관련 분야

### (1) 조사 목적

2012 전국 실태조사는 전체적인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유용하나, 서울시 자치구별 특성이나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 각 자치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자치구의 특성을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용자의 현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 (2) 조사방식 및 대상자 선정 방법

2013년 10월~12월 3회에 걸쳐 총10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된 질문지에 의한 면접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내용은 서울시 다문화가족 정책과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종사자를 통한 다문화가족 정책 수요 조사 및 현황을 분석하였다. 인터

뷰 대상자는 서울시 전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8명과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취·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발전센터 종사자 2명을 포함하였다. 다문화가족전담 기관의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여성들의 높은 취업 욕구가 높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문화가족과 그 구성원들의 요구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다른 지원 기관에 우선하여 두 기관 종사자에 대한 FGI를 실시하였다.

【 표 IV-2 】 FGI 참여자 일반 특성(지원체계 관련 분야 관계자)

사례	소속	직위	비고
1(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장	
2(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국장	
3(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국장	
4(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국장	
5(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국장	
6(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장	
7(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장	
8(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원	
9(여)	**여성발전센터	담당자	
10(여)	**여성발전센터	담당자	

### (3) FGI 결과

#### 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특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들의 출신국적은 중국(한국계 제외)이 가장 많고, 베트남, 일본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네팔 등이다. 베트남 출신인은 전국(18.3%)에 비해 서울(7.5%)의 거주 비율이 낮은 수준임에도 중국에 이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 이용자로 나타났다. 한국계 중국인은 서울 거주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한국어 사용능력이 뛰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거의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센터 종사자들이 공통으로 밝히고 있다.

이용자로만 따지면 중국(조선족 제외), 베트남, 일본이 좀 있음. 필리핀, 캄보디아 거의 비슷해요.. 조선족은 일하니까 안 오고, 또 조선족은 언어도 되고, 가족단위로도 들어오니깐, <사례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의 연령은 출신국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등은 20대 초반이며, 중국은 30대 중후반, 일본은 연령이 높다는 점이다. 2012년 실태조사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학력은 대부분 고졸 이상으로 나타나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의 경우 초졸과 중졸이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중국계는 평균 연령이 30대 중후반이고, 나이가 어려서 온 분은 25, 26살 정도인데, 재혼으로 자녀 데리고 들어온 경우가 많아요. 중국이나 일본가정은 케어 안 해도 알아서 잘 하는데, 걱정이라고 하면 베트남 분들이. 학력, 가정에 대한 애착, 자녀에 대한 교육열 모두 낮은 편이에요. <사례 1>

중국,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8~10개국이 되는데 중국이 가장 많고 일본은 오래되신 분들이 다문화센터를 모르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일본은 연령이 높고, 아이들도 초등학교 중학생정도. 중국도 꽤 있는데 최근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재혼이 많고, 연령대가 40대가 많고,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은 굉장히 어리다는 게 특징이에요. <사례 6>

자치구에 따른 이용자의 특성으로는 용산구의 경우 이태원 관광특구, 미군지기, 이슬람 사원 등이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출신국적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출신국적별 특성으로 일본은 용산구 이촌동과 마포구 상암동에 타운을 형성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욕구에 충실한 센터 프로그램의 이용수준이 높다는 점을 센터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국제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이미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이 모여 있어서 편견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면 열외로 자꾸 관리가 되니까 그때부터 아이들이 편견이 생기는 것 같아요 ... 한국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정주민으로 정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사례 4>

한국인 배우자의 직업은 일용직, 건설업, 배달, 운전 등이며 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실태조사에서도 배우자의 직업이 단순노무 종사자가 26.5%로 가장 높았던 점과 종사상 지위에서 전국보다 상용근로자 비율은 낮고, 임시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비율이 높았던 점을 반영하고 있다.

경제적 상황은 소득수준 자체보다는 주거비 부담 등 가계 고정지출 비용으로 인한 어려움과 부부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데, 특히 과도한 통신비와 생활필수품 외 지출 등이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소득수준만으로는 그렇게 문제 있는 가정들은 아니에요. 문제는 고정지출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봐야 하는데, 많이 다들 힘들어하죠. 월세가 최저 30만원 정도 되고, 두 부부 통신비가 월 한 40만원 정도 돼요. 통신비가 전쟁의 핵심요소죠 ... 생활비 수준도 높고, 생활필수품이 아닌 것들도 많아서 자제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남편하고 매일 싸우는 게 일반적이죠. <사례 7>

최근 다문화가족의 특징으로 부상하는 부분은 재혼 비율이 높고, 출신국에서 지내던 자녀의 중도입국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센터 방문이 거의 없었던 한국계 중국인들의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FGI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중도입국자녀들의 연령이 높아 학령기 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개입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서울은 전체 다문화가족 자녀의 49.4%, 외국 출생 자녀의 74.9%가 18세 이상의 연령대에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중국 분들은 초혼보다 재혼인 경우가 많고 중도입국자 자녀문제가 크죠. <사례 7>

(결혼이주여성) 본국에서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나이 어린 아이들은 그나마 센터에서 커버가 되는데 나이 많은 아이들은 커버가 안 되죠. 중국 동포분들도 거의 센터 이용 안했는데 아이들 문제 생겨서 상담 받으러 오는 경우 좀 늘었죠. <사례 1>

실태조사 결과 베트남 출신인의 자녀관계 만족도가 중국계나 일본 출신자에 비해 높았으나, 센터 종사자들은 중국(한국계 포함)과 일본은 자녀 교육열이 높은 반면, 베트남은 자녀에 대한 교육열 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해 나타나는 출신국적에 따른 태도의 차이는 향후 자녀 세대가 한국 사회의 중심으로 성장했을 때를 고려한다면 단순히 개성으로 볼 수만은 없는 부분이다.

중국조선족 분들은 자녀교육 열망이 커요. 다른 나라 분들은 아이들 왜 이렇게 괴롭히냐고 우리나라 문화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이중 언어도 아주 열심히 가르치고 중국어, 한국어 같이 해야 된다는 인식도 많아요. <사례 3>

중국이나 일본가정은 알아서 잘 살아요. 걱정이라고 하면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이 학력이나 가정에 대한 애착,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모두 낮아요. <사례 7>

종사자들은 한부모 가정, 취업 등으로 인해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거나 방치, 방임하면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도 많은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지위가 낮고 이로 인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다른 한국인 가족에 대한 육아지원 서비스보다 더 확대된 서비스가 개입될 필요가 있다. 즉 결혼이민·혼인귀화 여성의 경우 남편과 그 가족 외에는 다른 관계적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1년도 안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거나, 한부모 가족이고 집에서 방치, 방임하고 일을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이 많죠. <사례 6>

가정폭력의 경우 배우자의 폭력이 심한 한국 여성들과는 달리 결혼이주여성들은 배우자의 가족에 의한 폭력도 발견되며, 결혼이주여성들은 남편의 지시와 통제를 받으며 생활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 또한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폭력을 감지하는 데에는 방문교육서비스 지도사나 통번역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다만 가정폭력이 발생한 후 일시보호 쉼터에 있다 갈 곳이 없어 남편에게 돌아오는 경우와 함께 일부 기관에서 가족 복귀로 접근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는 점

에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가정폭력의 경우 사적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많은 폭력이라는 점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의 직접 개입보다는 보다 전문화된 기관으로의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다문화가족 지원기관 관계자들이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싸워서 못 견디거나 나왔을 때 정보망을 잘 모르는 친구들은 찜질방에서 자고 아침에 센터로 오게 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빈번하죠. 센터 오고 난 후 본인이 원하는 게 무언지 물어봐요 ...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일단은 부부들이 충분히 자기의사를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목표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유도하고 있어요. <사례 8>

결혼이주·혼인 귀화 여성이라는 이름이 결혼만이 전제가 된 삶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며, 폭력의 상황에서 여성의 인권 문제가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에게 폭력의 가해자와 화목을 이룰 방법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지원체계 종사자 대상의 가정폭력 피해 전반에 대한 이해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② 한국계 중국 출신인 지원의 한계

실태조사 결과 분석에서는 서울 거주 다문화 가족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용률이 전국 대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담체계로서 존재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본 사업이 한국어교육, 다문화 가족통합교육, 취업연계 지원, 개인·가족 상담 등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대부분 한국어 교육 위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경우 센터 이용에 소극적이기 마련인데, 그 중심에 한국계 중국 출신자가 있다.

중국 동포분들이 한국어 배울 필요도 없고 거의 센터 이용 안했는데 조금씩 오는 경우가 아이들 문제 생겨서 상담 받으러 오는 경우 좀 늘었고, 아이들 치료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비율이 늘었어요. 본인은 안 오고. <사례 1>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이 한국어 교육 중심으로 유지된다면 결국 한국계 중국 출신인들의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다문화가족 인구의 많은 부분을 점하고 있지만, 결국 한국사회가 만들어 놓은 결혼이주·혼인 귀화라는 전형성에서 한발 비켜 서 있는 한국계 중국 출신인은 현장에서 다문화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묘한 상황에 처해 있다.

결혼이민여성에서 조선족을 빼야 우리가 생각하는 다문화 가족의 실태가 나오는데 조선족을 다문화가족으로 넣고 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률이 낮다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저희 구도 88%가 조선족이고...조선족 분들이 일하려고 서울에 와 있어서 그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례 2>

다문화가족의 전형성이 한국 사회가 이미지화 한 틀 안에서 만들어져 있고, 이를 중심으로 전담지원기관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기관 관계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결국 현재의 지원과는 다른 틀의 지원 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한국계 중국 출신인들이 실질적인 다문화가족으로 전담체계를 통한 서비스 지원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그분들이 센터를 이용할 이유도 없고, 소득수준은 당연히 낮을 것이고, 저희 센터에서 조사를 위해 국적별 할당표집을 했더니 조선족만 잔뜩 들어왔어요. 센터 이용이랑 전혀 무관한 분들이라서 2차 표집을 센터 최근 이용자 대상으로 다시 했더니 수치가 달라졌어요. <사례 3>

이미 현장에서도 한국계 중국 출신인들이 전담지원체계를 이용할 이유가 없고, 센터 이용과 무관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다른 경로를 이용해 정보를 취득하고, 스스로의 네트워크와 커뮤니티를 자체적으로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 네트워크와 커뮤니티의 성격이 자조적 집단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동포 말고는 특별하게 외국인과의 결혼이민자들 간에 소통이 많지는 않아요. 중국 동포는 자기들끼리 네트워크도 많이 형성되고, 행사도 진행하려고 하고, ○○동은 원주민보다 더 많은 60%가 외국인이고, 그 중에 90% 이상 중국 동포죠. 상점의 80%가 중국인들이 운



영하는 상점이고,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커뮤니티가 자체적으로 형성되고 있어요. 거기에 결혼이민자들도 중국 동포 분들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례 1〉

결혼이민·혼인 귀화자 등 다문화가족이 원하는 서비스를 반드시 전담지원체계를 통해서만 받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스스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안에서 원하는 정보가 오간다면 그러한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그들 스스로 자조적인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바람직할 수 있을 것이다.

### ③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요 사업 : 한국어, 부부 및 자녀 교육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요사업은 한국어 교실이지만 각 센터별로 사회 인식개선, 가족관계 교육 등에 주력하는 사업이 있으며, 특히 부부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원의 상호 이해가 어느 일방의 노력에만 기댈 수 없다는 면에서 부부 프로그램의 개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해야 할 역할의 중심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교육은 어느 다문화센터나 다 똑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사업량으로는 메인이지만 저희가 집중하는 부분은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이에요. 〈사례 3〉

부부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버지교육을 해도 부부교육을 항상 같이 해요. 〈사례 4〉

대다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집중해 온 한국어 교육은 초·중급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한국어 교육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초급부터 토익 6급까지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들은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어 교육을 수강하는 주기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입국 초기에 등록을 하고 다니다가 한국어 능력이 생기면 취업과 동시에 수강을 중단했다가,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시 한국어 교육을 시작하는 패턴이 있다는 것이다.

공장에서 일해서 벌면 되니까 처음에는 언어가 막혀서 어렵다는 것을 모르죠. 센터도 못나가고 계속 일하다가 아이가 커서 의사소통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막혀요. 가족문제가 발생해서 오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사례 1〉

한국어 수준이 도달해서 그만두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다니다가 일자리 생기면 그만 두고, 일 그만 두면 다시 나오고...이런 형식이 반복되는 게 일반적이예요. <사례 3>

서울시 거주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혼인귀화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출신인 중 특히 소위 ‘조선족’으로 불리는 한국계는 따로 초급 한국어를 공부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초급 한국어 교육 위주로 진행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률이 낮고, 이는 전반적으로 서울 거주자의 센터 이용률이 전국에 비해 떨어진다는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 점이다.

자녀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입학 전이 많죠. 입학하고 나면 아이들이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고, 취학하고 나면 학교에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을 주로 이용 하죠. <사례 7>

결국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켜 줄 여지가 생길 때 이용은 늘게 마련이고, 어느 장소에 가는 것이 일종의 낙인이 되는 순간 해당 장소를 찾는 이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문화가족은 한국 사회의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급격한 관심의 중심에 올랐고, 그로 인해 현재의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새롭고, 다른 형태의 가족은 그 자체로 다양성으로 인정되기 보다는 기존의 틀을 벗어난 것으로 여겨져 ‘다문화’는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하나의 차별어로 기능하게 되었다.

5-6학년 되면 아이들이 사춘기에 들어가니까 센터를 오려고 하지 않아요. 센터를 오면 다문화가 표가 나니까 보이는 데서 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사례 8>

다문화가족임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춘기 아이들이 오지 않는다는 사례 8 종사자의 이야기는 다문화가 관심의 중심에서 차별의 중심으로 가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지원체계의 앞날이 반드시 어둡다고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 중인 이중언어 교육 과정이 일반에게 개방된다면 다문화가족의 구성원들과 다른 가족들이 함께 어울리는 양질의 통합 프로그램으로 기능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중 언어 교육을 어머니들이 관심 있는 중국어, 영어를 운영하고 있어요. 베트남, 중국 어머니들이 모국어보다 글로벌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영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일반 가정에서도 문의가 있는데, 우리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으니 그 사람들을 받을 수는 없죠. <사례 4>

한편 철저히 다문화가족만이 이용할 수 있는 엄격한 자격기준을 두면서 무료로 제공되는 이중 언어 프로그램이 영어를 특화될 경우 일반인들에게 반발이 일 것이 우려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초기 다문화가족 구성 과정에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수월한 정착 지원은 필요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닌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가족의 한 형태라는 일반의 인식을 이끌어 낼 가능성을 탐색할 시점이 오는 것이다. 이미 함께 하는 프로그램의 기획은 시급하며, 그 공간이 다문화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언제든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한다면 일상에서의 통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 특화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중언어 프로그램에 다른 가족의 자녀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④ 취업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중 이용자의 욕구에 가장 미흡한 부분이 취업 관련 분야이다. 애초 초기 정착 과정의 한국어 교육에서 출발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용자들의 취업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느 정도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취업욕구는 다 있다고 보는 것이 맞죠 <사례 7>

입국시기에 따라 다른데 초기입국은 한국어 때문에 오고, 2-3년차는 문화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후에 언어가 되면 취업에 관심을 두고 강좌를 들어요. <사례 4>

가장 욕구가 많았던 것이 한국어 교육이었고, 점점 각 지역마다 센터가 생기면서 욕구가 취업 쪽으로 옮겨가는 게 맞아요. 저희는 지역이 영세하고 재래시장이나 조그만 공장이 많은 지역으로 현재 취업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례 6>

앞서 결혼이민·혼인귀화 여성의 인터뷰에서도 나타났듯 당사자들의 취업에 대한 욕구와 의지는 매우 높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취업은 절박한 생활의 문제이다. 단계적으로 한국어를 일정 수준 이상 공부하고,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 과정을 거친다면 급여나 대우 면에서도 좀 더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겠으나, 현실의 조급함은 여성들을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순간 노동시장으로 발길을 옮기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거의 일용직, 비정규직 수준이죠. 여행사나 의료관광코디네이터로 도전자하는 분들도 있고, 통·번역사, 이중 언어 단계계약직 분들도 있구요 ... 고용주들은 부족한 부분에 일부 채용하려고 하지 정식으로 채용할 의사는 없어요. <사례 3>

문제는 역할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사례가 변변치 않다는 데에도 있다. 한국사회를 다문화 사회라 부를 수 있게 만들어준 시대의 주인공이지만, 다문화사회 위계 구조의 상층부를 점하고 있지 못한 여성들은 다시 노동시장의 최하단의 비정규직 일용직으로서 불안정하고 내일을 계획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2010년에 일자리 창출사업을 처음 했는데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로 파견한 적이 있어요. 보조교사기 때문에 굶은일이나 힘든 허드렛일 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신 경우가 많아요. <사례 6>

기본적인 취업욕구가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달라요. 결혼이민여성은 필요하면 일하고 약간의 욕구가 충족되면 그만두고 짧게 일하는 친구들은 2주씩, 잘했다고 하면 한달, 한달 반, 월급 받고 나면 쉬었다 옮겨가는 경우가 있는데, 결혼이민여성만의 문제라고 보기에 는 무리가 있어요. 결혼이민여성들을 채용하고 싶어 하는 업체들도 적은 비용으로 노동력을 채용하려고만 하는 욕구들이 강하고, 통상임금보다 한참 낮게 놓고 구하다보니까 거기서 오래 일하느니 잠깐 하고 급하게 필요한 비용마련하면 그만두고 미련을 갖지 않죠. 채용현황으로 잡기도 매우 애매해요. 채용이 되면 보통 2-3개월 뒤에 채용확인을 받아야 채용실적으로 잡을 수 있는데 3개월은 고사하고 한 달도 채 안가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사례 7>

생활을 위한 필요에 의해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도 문제이다. 일을 구한다는 데까지는 생각이 미쳐 있으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계가 부족하고, 결

혼이민·혼인귀화 여성들을 소모적 노동력으로 취급하는 노동시장의 관행이 만나 여성들이 쉽게 일을 포기하는 관행을 되풀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취업을 하게 되면 가사분담, 육아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만두는 경우도 많죠. 〈사례 1〉

한국 사람도 육아를 병행하는 게 힘든데 언어와 문화가 다른 특히 양육문화가 다른데 육아를 병행하는 데는 배의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사례 6〉

가족의 열악한 경제적 지위는 여성을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하지만, 역으로 육아 등 가족문제로 인해 노동시장에서의 삶을 지속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발견되고 있다. 특히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들에게 남성 배우자나 배우자 가족을 제외하면 기댈 수 있는 관계적 지지망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공적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외한 다른 여지가 한국의 다른 가족들보다 적다는 관계의 취약성성이 여성들의 입지를 좁히고 있는 것이다.

### ⑤ 일자리 연계 및 기관 간 협력

현재 다문화가족 여성에게 지원되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수요에 맞게 구조화되어 있는가의 문제이다. 한국어 프로그램의 경우도 초급이나 중급 정도의 수준에 맞추어져 있어 그 이상의 교육을 받으려면 다른 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나, 기관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주여성상담원 과정 안에 한국어 넣어서 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 올해는 통번역사하면서 컴퓨터 정보화 자격증하고 한국어 토픽시험 준비 할 수 있는 과정으로 진행했어요. 보통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어 교육이 최대 중급까지만 진행이 돼서 교육생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간담회를 진행했더니 다문화지원센터보다는 좀 더 높은 한국어 교육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사례 10〉

지역 여성발전센터에서 취창업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사례 10의 여성은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프로그램 기획의 아이디어를 얻었음을 이야기한다. 즉 신규 프로그램 참여 여성들의 수요를 다각적으로 파악해 현재 필요한 교육의 종류와 수준을 설정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결혼이민여성의 취업문제에서 안타까운 점은 교육과 취업은 다른 문제라는 사실이다. 교육은 교육일 뿐 그것이 취업으로 바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데 프로그램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센터뿐만 아니라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취업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 취업 직종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미싱이나 미용을 많이 배우는데 그쪽으로 고 퀄리티 직업을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사례 4>

프로그램 자체가 ‘여성’이라는 점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해 볼 문제이다. 미용이라는 업종이 기존에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분야이기는 하나 유행과 개성이 강조되는 분야라고 볼 때 일반의 한국인과 다른 배경을 가지고 살아온 여성들이 해당 분야에서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해낼 것인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네트워크도 잘되어 있어야 되지만 그분들이 다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연결했을 때 취업교육도 그분들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 못해서 다문화가족이 끝까지 못하고 센터에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사례 4>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의 인식개선을 위해 지역사회 내 전문 기관과 네트워크를 수행하기보다는 일종의 떠넘기기식 의존적 문제해결 방식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각 기관마다 다문화가족 지원 방향의 인식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서비스의 질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 예상된다는 점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2010년도에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같이 했어요. 서울시는 예산을 지원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저희는 사람들 모집하고 한국어 교

육시시켜주는 삼각구도로 갔는데 괜찮았어요. 그 뒤로는 서울시 예산이 끊기면서 돌이 하려다보니 공동으로 쓸 만한 예산이 없어서 어려웠죠. 한번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자체적으로 운영해보고 저희는 인원만 모집해드렸는데 센터에서는 이주여성들 관리 못 하겠다 하다 보니 다시 저희끼리 하게 됐어요. <사례 3>

관련 기관이 서로 전문 분야를 명확히 한다면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보다 효과성 있는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분야가 있다고 해도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을 때 또 다른 전문성을 강화해야한다는 당위성이 부여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현실에서 당위성은 당위일 뿐 꼭 ‘그들’이 아니어도 하던 일들은 관행적으로 흘러 갈 것이기 때문에 특정 기관 특정 담당자의 능력이나 소신이 없는 경우, 협력적인 연대 체계의 구축은 쉽지 않다.

우리도 소개시켜주고 관리는 안 해가지고 ... 취업성공패키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한국 사회 적응도 필요한 건데, 그런 기관들이 한국사회 적응까지 책임져주면서 같이 해야죠.. 반면에 저희가 취업에는 전문적이지는 못하지만 그 앞부분을 좀 기초적인 것들을 채워주고 난 다음에 같이 가니까 좀 맞춰지죠. 한국어 교실을 하느냐 안하느냐가 큰 차이죠. 이 사람들에게 제일 기본적인 것은 한국어니까. <사례 2>

현장에서는 이미 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들이 자리해 가고 있을 수 있을 대목이다. 하나의 이름을 가진 기관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음은 이미 명백하다. 문제는 그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관련 기관끼리 협력 체계를 구축하거나 해당 기관의 역할을 확장·다변화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행동 없는 뒷이야기들만 오간다는 점이다.

네트워크 실무자 간담회 때 다문화지원센터 종사분과 여성인력개발센터 종사자 분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준비된 구직자들 데이터베이스가 없고, 저희가 뚫을 수 있는 데가 다 문화센터인데 포인트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준비된 구직여성을 찾는 것조차도 정말 어려운 거예요. 결혼이주여성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들의 욕구를 알고서 기관이나 다문화센터와 연결이 돼야 하는데 저희 자체 프로그램도 사람이 모이지 않은 상태고, 정보도 정확하지 않은 상태이니까 (취업을) 원하시는 경우에도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례 9>

기관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기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과 한계, 여성인력개발기관과의 관계에서 해당 센터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점을 들고 원인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모든 곳에서 원인만을 이야기하며 해결책을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성인력개발기관이 주도가 됐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됐든 여성들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연계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게 되는 사례도 분명 존재하고 있었다.

취업은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한건데 다문화센터가 인원도 없고 그럴 여력이 안 되죠.. 취·창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발전센터, 결혼이민자고용센터, 다문화지원센터 네 기관 전체가 연결되어 있어요. 해당 지역에 있는 프로그램 대상자는 저희가 전원 추천하고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못하지만 취업 현황이나 교육 출석 현황은 다 관리하고 있죠. 여성인력개발센터와는 3년째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지원 공모, 교육, 취업 현황까지 같이 파악하고 있어요. <사례 7>

관련 교육을 수료하고 특정 순간에 취업이 되었다고 해도 그 지속성이 떨어진다면 실질적인 취업으로서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취업의 지속성이 떨어질 때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만 취업에 대한 지원이 보다 효과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례 7의 종사자는 사례 관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족만을 특정한 사례 관리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 또한 지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국장님들 오셔서 1년에 두번씩 회의를 진행해요. 이주여성 분들이 어느 쪽에 교육을 원하는지 교육 수요조사도 하고 ... 교육생 모집도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필요한 경우 저희 센터 강의실로 오셔서 수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연계도 하구요 <사례 10>

센터가 중심이 되면 안 되고 어디서 이용을 받든 결혼이민여성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들의 권위를 향상시킬 수 있다면 그건 장소와 상관없는 거죠. 어떤 자원을 쓰던지 그런 일들은 지역사회가 같이 해야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테고, 지역사회차원에서 논의 장이 마련되어야 해요. 기관이라는 구조적 틀은 의미가 없어요. 지역사회 네트워크 안에서 구조적 틀이 무엇이 중요한가 누가 서비스를 받는지가 중요하지 <사례 7>



기관 간 연계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여성인력개발기관 관계자들은 기본적으로 결혼이민·혼인귀화자 등과 다문화가족이라는 수요자들의 요구에 충실할 수 있다면 어느 기관이 중심이 되든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한정된 인원과 예산으로 특정 기관이 특정 대상에 대해 모든 부분을 포괄하는 지원을 할 수 없다면 기존의 다른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한계를 극복해 가야 한다는 시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 ⑥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현재의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가 다문화가족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낙인의 문제와 통합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고립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초기 지원 서비스는 특화 프로그램으로, 이후 점진적인 통합 프로그램의 제공으로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센터에서 받을 것이 없죠. 한국어 되고 나면 취업은 고용센터 이용하면 되고, 한국은 평생 교육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데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체계로 갔으면 좋겠어요. <사례 7>

한국 사람인데 왜 다문화냐 이런 문제로 다문화라는 말을 싫어해요. 찾아가서 만나고 지역 사회 조직화하고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게 서비스를 유도해야 하는데 기본사업 하다 끝나기 때문에 그 정도 여력이 안돼요. <사례 4>

지역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이 ‘다문화가족’으로서 특화되는 것이 아닌 ‘지역민’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센터 사업이 지역 사회 내 일반 사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렇게 될 때 ‘다문화가족’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는 지원 시스템 자체가 활성화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가능할 것이다. 더불어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기대하는 일반의 ‘대상자’ 찾아주기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역의 다문화 사업의 허브역할을 하는게 맞지만 인원동원 허브역할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례 4>

지역사회 유관기관도 외부지원을 해주는 기업도 마찬가지로인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본인들의 사회공헌활동 보여주기 이슈 중에 하나 일회성으로 대상자만 찾기 위한 것이죠 ... 방송국도 결혼이민여성이 바로 드러나거나, 외모가 튀는 아이들 소개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사례 6>

외부에서 한국의 경계를 넘어들어 온 다문화구성원들의 초기 정착과정에서 보다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을 지원하는 형식이 이벤트가 되고, 증거를 남겨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함께 찍은 사진과 그 사진이 나타내는 다인종성, 다국적성에 기대게 될 때 우리사회의 ‘다문화’는 하나의 낙인이 되고, 그들을 지원한다고 생각하는 그 지원은 일종의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로 언어나 주위에 지지체계가 훨씬 더 부족한 사람들이라 더 심화된 사례관리가 필요한데 인력이나 서비스가 늘어나야 가능한 부분이죠. <사례 2>

사례관리를 해야 적절한 복지가 연결되죠. 배우자는 나이가 많고, 주변 인맥이 많지 않아서 혼자 감내 해야 되는 상황일 때 센터가 가족 지원을 활성화해야겠다고 생각해요. <사례 8>

사례관리를 하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은 다문화가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복합적이고, 사례는 개별마다 상황이 다른데 그 내용이 공개 되고나면 마치 다문화가족이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져요. 저희는 지역사회 복지기관의 하나로 통합 관리하고 있을 뿐이죠. <사례 7>

당사자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관련 기관들의 노력이 분명 현장에서 일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어떻게 다문화가족과 더불어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성장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가족뿐 아니라 모든 개인의 나름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주변의 도움, 스스로의 노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간다. 문제를 가진 이가 누구인가 어느 집단인가를 따지고 들어갈 때 문제는 그 집단이 가진 문제로 확대 해석되어 그가 속한 그룹 전체를 문제적 집단으로 규정해 버릴 우려가 있는데, 현재 한국사회의 가족 중 ‘다문화가족’이 바로 그러한 위험을 가진 가족이라는 점이라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련 기관 종사자의 증언이다.

## 2. 중점지원 대상 FGI 분석

다문화 가족 구성원 중에서 정책적 개입이 시급한 그룹이 이혼·사별을 경험한 결혼이민·혼인귀화자라는 점은 그들의 사회활동 참여도가 연령, 국적, 성별에 따른 어느 그룹보다도 낮다는 점에서 드러났다. 또한 자녀 세대 중 외국성장청소년의 경우 국내 성장 자녀 그룹에 비해 공교육 참여도가 낮고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으며, 가족 관계에서도 과도하게 어머니에 집중된 점을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외국성장 청소년과 이혼을 경험했거나 이혼진행 중인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FGI를 실시하여 이들의 현황과 정책적 개입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자 한다.

### 1) 중도입국자녀 FGI

#### (1) 조사 목적

2000년대 초반 결혼이민여성이 다문화 관련 이슈의 중심으로 떠올라 다문화 이슈를 이끌었다면 2010대 다문화 관련 화제의 중심에는 부모를 따라 한국에 온 중도입국자녀가 자리하고 있다. 이들은 일정 연령 이상이 되어 한국에 오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연령대에 맞는 한국어 구사력이 떨어지고, 부모 일방의 재혼 등으로 인해 특정 가족 관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개선될 수도 있는 문제이다. 더욱 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정규 학교 재학률이 낮으며 직장을 갖는다고 해도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 라는 사실이 이미 실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이에 직접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부분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 조사방식 및 참여자 선정방법

조사는 2013년 10월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위탁형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4명을 추천받아서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은 모두 한국 내 다른 학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안학교 과정을 통해 검정고시, 진학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 현재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다수는 중국계 출신이며, 학교 내에서는 학생들끼리 한국어, 영어 내지 중국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한다. 참여자들은 재학생 중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중급 이상의 수준으로 학교 수업 중 한국어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 (3) FGI 참여자 기본특성

FGI 참여자들의 국적은 중국 3명, 미국 1명이며, 연령분포는 만 13세부터 21세이다. 참여자 1명은 중학교 입학 예정, 1명은 고등학교 입학 예정, 2명은 검정고시를 준비 중이다.

사례 1의 국적은 중국이다. 부모의 국적은 중국(한국계)이며,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 거주한지 8개월 되었으며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중국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며, 스스로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요청하여 한국에 오게 됐다. 다른 참여자들이 부모의 이혼과 재혼 등으로 한국에 오게 된 반면 사례 1은 중국 국적 동포의 가족 단위 이주로서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사례 2의 국적은 중국이다. 어머니는 한국계 중국 국적자이며, 아버지는 한국사람(양부)으로 어머니의 세 번째 결혼 배우자이다. 부모 모두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한국에 거주한지 1년 10개월 되었으며, 부모, 오빠(31세, 어머니 초혼 배우자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중국에서 태어나서부터 어머니와 떨어져서 도우미와 함께 살았으며, 친아버지(어머니의 재혼 배우자)는 사망하였다.

사례 3의 국적은 중국이며, 어머니는 한국계 중국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어 강사이다. 한국에 거주한지 1년 3개월 되었으며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중국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고, 대학 1학년을 다니다 어머니의 권유로 한국에 오게 된 경우이다.

사례 4의 국적은 미국이며, 아버지는 한국인이지만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어머니는 양모로 한국인이다. 한국에 거주한지 4년 되었으며,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미국에서 부모의 이혼으로 친모와 살다 2007년 아버지와 함께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 표 IV-3 】 FGI 참여자 일반 특성(중도입국 자녀)

사례	성별	만 나이	국적	입국시기	거주지	비고
1	여	18세	중국	2013. 3	동작구	고교 진학준비
2	여	15세	중국	2012. 2	강남구	검정고시 준비
3	남	21세	중국	2012. 8	송파구	대학진학 희망
4	여	13세	미국	2007.	강남구	중학교 진학 준비

#### (4) FGI 결과

##### ① 다문화가족의 분화와 중도입국 청소년

현재 한국 사회에서 중도입국자녀에 대해 주로 이야기되는 특징은 중국 출신이 많다는 점, 부모 중 일방(주로 어머니)이 한국인과 결혼함으로써 한국으로 오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조사에서는 보다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여행(2012년 1월)으로 왔어요. 여행하다 보니까 한국이 진짜 좋아서 엄마한테 말했어요. 내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먼저 한국어 배우고 고등학교 가려고요. 국적은 중국이고 ... 엄마가 F-4니까 저는 F-1이요. 저도 지금 스무 살 안 되어서 여기서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근데 20살 되면 바로 중국에 가야되니까 ... 엄마 말 들으면 지금 먼저 학교 하고 학생 비자로 바꾸고 나중에 F-5 따려고 해요. <사례 1>

사례 1의 경우는 흔히 화제에 오르는 중국 출신이기는 하나, 한국에서 통칭 ‘조선족’으로 불리는 한국계 중국 국적자 부모가 동반 입국한 경우이다. 부모가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사례자는 중국에서 할머니와 지내다가 부모와 함께 살 것을 목적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다. 즉 부모 중 일방의 결혼을 통한 이주가 아닌 가족 단위 ‘동포’의 귀환이주의 형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체류 자격은 동포 비자인 F-4이고, 사례자는 동반 비자인 F-1이다. 이러한 체류 자격은 이후 사례 1이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하고자 할 때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엄마가 ... (엄마가 한국에 오라고 했을 때 좋았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가라면 가고 ... 지금은 검정고시 준비해요. 고입이요. 방문비자 F1. (국적은) 중국이요. (앞으로는 국적을 바꿀 생각은?) 바뀌어 되죠. (엄마가) 혼인 신고가 올라가서 3년이 돼야 나온대요. <사례 2>

사례 2의 경우가 통상 화제에 오르는 중도입국자녀와 가장 유사한 경우이다. 한국계 중국 출신인 어머니가 한국에서 일을 하다 한국인과 재혼하여 중국에서 지내던 사례 2를 한국으로 데리고 왔다. 한국에서의 체류 자격은 동반자녀 비자인 F-1이고, 현재의 나이 등을 고려해 정규 학교 진학 보다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엄마가 ... (엄마가 왜 한국에 오라고 한 것 같아요?) 당연히 한국이 더 잘 사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 영주권 가지고 ... 엄마(조선족)가 한국국적이 있으니까. <사례 3>

사례 3의 어머니 또한 한국계 중국 국적이었으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중국에서 부모가 이혼하였으나, 어머니가 한국에서 재혼한 것은 아니다. 이혼 후 한국으로 단신 입국하여 생활하던 중 중국에서 아버지와 생활하던 사례자를 한국으로 데려 온 경우로, 20세가 넘은 사례자의 체류 자격은 영주권자이다.

사례 1이 본인의 의지에 의해 한국으로 왔고, 한국 내에서 새로이 구성된 가족이 아닌 자신의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사례 2는 어머니의 재혼으로 구성된 가족의 일원으로 살고 있다는 점이 차이이다. 또한 사례 3은 부모의 이혼으로 중국에서 아버지와 살다가 입국하여 어머니와 생활하고 있으며 다른 가족은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은 한국입국에 대해서도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되는데, 당사자가 한국에 옴으로 인해 가족이 다시 한 공간에서 살게 된 사례 1은 한국 입국에 스스로 적극성을 띠었던 데 반해 사례 2, 3의 경우는 본인의 의지보다는 어머니의 뜻이 크게 작용하여 한국에 왔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혼 후) 아빠가 미국으로 와서 저를 데리고 왔어요. <사례 4>

사례 4의 경우는 흔히 중도입국청소년으로 불리는 예와는 차이가 있는 경우이다. 나이도 적고, 출신국도 미국이다. 친부모의 이혼이라는 면에서는 대개의 중도입국 자녀와 유사하나, 친모가 아닌 친부와 살고 있으며, 외국계 학교를 다니다가 가정형편상 한국 학교로 옮기기 위한 과정을 준비 중이다.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등이 한국 사회를 다문화사회로 명명할 수 있는 중심에 서 있었다면 중도입국자녀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성'이 어떻게 분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사례 4에서 보다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즉 한국 사회에서 전형화된 다문화가족 위주의 정책이 포괄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구성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지원체계 위주의 정책적 개입을 넘어서는 정책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 ② 유예된 시간과 교류의 부재

입국 초기 한국 생활에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어떤 어려움을 가졌고,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한국 사회 다문화의 성격을 가늠하는 시작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한국생활에서 느끼는 불편과 불안은 현재의 한국이 다문화사회로서 구비하지 못한 지점이 어디인지에 대한 반영이 될 것이며, 어떤 시스템을 갖추어 가야 할지에 대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좋은 점은 한국에 와서 진짜 신나게 놀고 특히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으니깐 더 좋은 거 같아요. 나쁜 점은 주로 전에 보다 더 빨리 뭐든 것이 다 빨리 빨리 해야 되는 거 그런 것도 생각하고 스트레스도 좀 받고 생각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 나이도 지금 점점 더 많아져서 생각보다 지금 생각 나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큰데 지금 중국에 친구들은 지금 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 졸업했어요. 저는 지금 고등학교도 안다니고 무슨 시간을 낭비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각해보니까 아 일단은 해보자 그렇게 생각해요. <사례 1>

중도입국청소년의 가장 큰 고민은 그들이 유예된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 인생이 지체된다는 점이다. 사례 2 또한 정규 과정에서 이탈해 있는 현재의 시간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 사례 2의 경우는 일찍이 검정고시로 진로를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간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고 있다. 반면, 정규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는 사례 1의 경우는 통상적인 고등학생보다 나이가 많은 시점에서 학교에 입학해야 한다는 점, 동년배들보다 시간적으로 뒤쳐진 삶을 살고 있다는 데 따른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처음에는 한국말 조금밖에 몰랐어요. 근데 그때는 아는 사람 없으니깐 신경 안 썼는데 괜찮아요. <사례 4>

언어 구사능력은 해당 언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사람 누구에게나 언제나 문제로 떠오를 수 있는 부분이다. 상황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특정인이 피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다만 언어의 문제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지는 이유가 되거나, 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서비스에서 차별의 문제로 부상하게 될 때 다문화사회의 새로운 구성원들은 그 출발에서부터 이미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를 안게 되는 것이다.

고민은 전화 받을 때, 한국 사람이 무슨 무슨 회사 핸드폰 회사에서 전화 왔을 때 말하는 거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네, 네, 네. (그럴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한국어 실력 늘리는 것만 <사례 3>

언어라는 것이 표정이나 몸짓으로 읽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면접촉이 아닌 전화 접촉은 해당 언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실제 결혼이주여성들이 겪는 취업의 어려움에서도 드러난다. 한국에서 취업이라고 하면 어느 직장을 다니든 전화를 받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결혼이주여성들이 능숙하게 한국어 전화 응대를 할 수 없다는 데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사례자 또한 전화통화의 어려움이 다른 어떤 어려움을 압도하는 한국 생활의 불편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한국 아닌 곳에서 태어나 자라온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언어 습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개인적인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전적으로 개인의 문제로 남겨 놓을 수 없는 다문화사회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친구 사귀는 거는 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친구 많았는데 여기에 오니까 말도 잘 안되니까 지금은 좀 전에 보다 좀 좋아진 거는 친구 좀 생겼어요. 친구 많이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는 5층에 바리스타 배울 때 친구 사귀고 또 인터넷에서 친구 검색 할 때 사귀었어요. 아니면 엄마 친구 딸 있어요. 그 친구하고 좀 얘기도 하고 그래요. <사례 2>

한국 사람들과 일상적으로 어울리는 환경에 처해 있지 않은 입국 초기의 생활에서 지적되는 문제는 인간관계의 협소함으로 인해 빚어지는 외로움이다. 살던 곳을 떠나와 그곳과의 연계도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이 정착한 곳에서는 누구와도



의사소통 구조를 만들 수 없는 소통 부재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중도입국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지원체계 등으로의 빠른 연계가 필요한 실정이나 이를 위한 공적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당황하고 무서웠어요. 의사소통도 안 되고 저는 성격이 좀 암전한 성격이라 말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1년 동안... 지금은 여기 와 가지고 많이 좋아졌어요. 어릴 때부터 한국어는 배우고 있었지만, 여기에서 더 잘 배우고. <사례 3>

문제는 한국 입국 후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과 연결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다는 점이다. 그것이 정규 교육 과정을 준비하는 기관이 되었던, 이전에 살던 곳에서의 교육과정과 그대로 연계가 되는 프로그램이든 이들의 삶에 지속성을 보장해 줄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러나 입국 초기 그러한 연계가 없어 힘들었던 삶에 대해 사례자들은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국인을 잘 못 만나니까 여기서(센터)는 중국 사람을 만나니까 한국사람 특징도 모르고 그게 제일. (한국인 친구는 없어요?) 네, 다른 친구들은 다 중국에 있어요. (한국에 괜히 왔다 생각한 적은?) 있었죠. 처음 3개월 정도 엄마가 그때 안 찾았어요. 집에만 있어요. 계속 그렇게 있다 보니까 괜히 왔다 <사례 1>

지원체계를 이용한다고 해도 당사자들의 문제가 전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전담’지원이라는 특성 상 이용자들이 전원 중도입국청소년이라는 한계는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한국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 현재의 단계별 프로그램과 함께 다양한 기관 간 연계를 통한 통합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등장하고 있는 시점인 것이다.

### ③ 공적 지원기관으로 연동되지 않는 연계 체계

서울시는 중도입국청소년 지원기관을 만들며 이들의 입국 단계에서 센터의 이용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웰컴 키트(welcome kit)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배부

할 것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 월کم 킷을 통해 기관의 존재를 알았다고 하는 답을 들을 수는 없었다.

여기는 그냥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봤어요. 엄마가, 여기 다니니까 한국어 더 잘 배우는 것 같아요. 전에는 한국 글자 잘 못써요. 근데 지금은 다 쓸 줄 알고 읽을 줄 알아요 ... 전에도 한국말 조금 아는 정도인데 초등학교 때 한국 중국사람 다니는 그런 학교에 가서 공부했어요. 어릴 때 배웠는데요 근데 어릴 때 너무 장난으로 친구들하고 같이 밖에 놀러 다녀서 열심히 배우지 않았어요. 왜냐면 다 중국 학생이니까 중국말 하고 한국말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하면 전에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후회하고 있어요. <사례 1>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가, 조금 할 줄 아는가의 문제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 사회 초기 정착에 ‘매우’ 중대한 척도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은 사례 1의 이야기에 서도 이미 드러나고 있다. 같은 처지의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알고 있다는 것은 일정한 체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체계 안으로의 유입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어떤 식으로든 체계로의 연계가 필요하고 그것이 가능한 공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현실은 공적 체계로의 연계가 사적 자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작년 2월달. (오자마자) 다녔어요. 엄마가 인터넷에서 봤어요. <사례 2>

엄마가 알려줬어요. 글 배운다고 해서 왔어요 ... 저는 성격이 암전해서 집에 계속 있고 싶어요. 사람들하고 말하는 거 좀 두려워서 집에만 있고 싶어요. 근데 계속, 계속 이러다가 엄마가 이렇게 하면 안 돼 평생 동안 이렇게 할거야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여기 센터에 왔어요. 공부하고 좀 한국어 이렇게. <사례 3>

사례 청소년들은 모두 부모 특히 어머니가 현재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 알아본 후 권유하여 수강을 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결국 입국 초거나 그 이전에 부모에게 정보가 있던 경우는 입국과 동시에 혹은 아무 일 없이 지내는 시간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미래를 설계하게 되나, 정보 자체의 입수가 늦어지면 이들이 설계할 수 있는 미래는 그만큼 유보된다는 측면에서 애초 서울시의 계획대로 입국장에서부터 지원 기관의 존재, 연계될 수 있는 서비스 안내가 보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정교하게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엄마가...이번 6월인가 7월에. (다른 학교) 다녔는데 지금은 센터만 다니고 내년에 중학교에 갈 거예요 ... 학교가 외국인 학교였는데 너무 비용이 많으니까 한국어 좀 더 배우고 한국 학교 가려구요. <사례 4>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에서도 중도입국 청소년이 가족 관계 중 어머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어머니는 정서적 지지망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현실에서 필요한 정보의 통로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 세대의 미래와 관련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기관에 대한 정보는 해당되는 이들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야 할 공공재이다. 공공재로의 접근이 공적 체계에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수자 안에서 또 다시 무수한 층위가 재생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이들이 그 존재를 알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열어 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센터 이용자 연령대는 대개) 열여덟, 열일곱, 열둘, 열세 살은 다섯 명 안 되고, 한명은 일본 사람 있고 거의 다 중국 사람이고 한명만 브라질 <사례 4>

(센터를 안 다니는 친구는?) 아직도 놀고 있어요. (이 센터 오라고 얘기 안 해봤어요?) 했어요. 근데 귀찮다고 그냥 일한다고. <사례 1>

중고등학교 과정에 해당되는 기관인 만큼 수강생들의 대부분은 10대 초반에서 후반까지 다양한 연령 분포를 보인다는 것이 이용 학생들의 증언이다. 특히 서울 거주 다문화가족의 30% 이상을 한국계 중국 출신인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자 중 그들이 전무하다시피한 점과 달리 중도입국 청소년은 그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이 지원기관 이용자의 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서 지켜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이들이 주변에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는 면에서 중도입국 청소년 프로그램은 전형성에 기반한 결혼이민·혼인귀화자 정책의 한계가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한국 학교 다니고 싶었는데 기간이 다르잖아요. 입학하는 시간이. 그래서 학교 못 다니고 그 후에는 검정고시를 알아서 차라리 검정고시를 하고 빨리 대학에 가려고 ... (검정고시 준비는 센터 말고 다른데서도 하세요?) 아니요 여기서만 일주일동안 시간 다 있으니까요. (어떤 과목이 가장 어려워요?) 사회요. (가장 쉬운 과목은?) 영어요. 저는 유치원부터 영어 유치원 다녀서. <사례 2>

제가 학교 안 다니지 1년, 2년쯤 됐는데 그때는 \*\*언니처럼 학교 안 다니고 뭐하고 있지 그랬어요. 지금은 센터도 다니고 다음 년에 학교 가니까 그런 고민이 없어졌는데... <사례 4>

중도입국청소년들이 초기 무력감에 힘들어하고 한국어 능력으로 인해 불안해 한다는 측면에서도 지원 기관 프로그램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점을 수강생들은 직접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삶의 본격적인 국면이 아닌 준비로 기능하고, 당사자들이 준비과정으로서 명백히 인식하고 있다는 면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의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지원기관의 이용이 당사자들이 계획하는 삶으로의 연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해도 연동되는 제도적 뒷받침이 없을 때 이후 이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별개로 남게 된다.

#### ④ 한국사회로의 통합에 대한 바람과 지원의 문제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이 정규 과정을 준비 중인 곳이니 만큼 사례자들은 이후 정규 교육과정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목표는 그대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한국 사회 정착과 통합이라는 개인적인 바람인 동시에 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한국 사회의 다양한 국면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당사자들의 연령대가 다양하고 미래에 대한 꿈이 다른 만큼 각각의 미래로 가는 과정은 다를 것이며 이에 대한 한국 사회의 준비도 다차원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그냥 대입까지 (검정고시)하고 외국으로 가려구요. 영국 ... 미용학과, 메이크업. (연구자: 영국이 그 부분이 발달되어 있나요?) 그건 잘 모르지만 영국에 그냥 스타일 그런 거 연구해서 오려구. (영국에서 공부하고 나서) 아마도 한국에 다시 올 것 같아요. <사례 2>

경영 아니면 패션 디자인. 호텔 요즘에 엄마는 요즘에 호텔 그 \*\*학교 알아요? 거기에 호텔 배우라고. 지금 다 쓰고 있어요. <사례 1>

사례 2의 경우는 영국으로 유학을 갈 계획이지만 나중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함으로써 한국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고 있다. 모든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닐지라도 이미 한국은 어떤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는 잠시 거쳐 가는 곳, 살만한 곳인지를 시험하는 곳이 아닌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곳으로 의미화가 되고 있는 것이다.

사례 1은 인터뷰 당시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정규 학교 입학에 희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준비를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인터뷰 한 달 후 사례자를 다시 만났을 때 준비하던 학교의 입시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원인은 현재 동반자녀 비자로 있는 거주 지위를 20세가 되면 유지할 수 없고, 학교에 진학할 경우 중간에 20세가 되어 비자자격을 바꾸어야 하는데 그때 비자를 못 받게 되면 학교를 못 다니게 될 것이 예측된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되었다는 것이다. 하나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해도 그와 관련된 다른 제도의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또 대학 다니고 싶어요. (희망 전공은?)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대학에 가면 언제쯤 갈 생각이세요?) 그것도 생각 안했어요. 한국어 실력이 좀 는 후에. (한국에서 뭘 할지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아르바이트는 해봤어요?) 아니요. <사례 3>

상황의 특수성에 더해 개인의 개성 자체가 소극성을 띠고 있는 경우,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 생활은 더욱 힘들어진다. 사례 3의 경우 인터뷰 참여자 중 가장 긴 시간이 1년 동안 집에서 별다른 일없이 보냈으며 어머니의 권유로 프로그램 수강 중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삶이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적극적인 설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례에 대한 공적인 개입도 어느 정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상황에 만족할수록 바람도 다양해지고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상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인터뷰에 응해 준 사례자들은 현재 프로그램을 듣고 있는 기관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만족하면서도 가족관계나 일상의 시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점이 드러났다.

전 항상 스마트폰...집에 가면 그냥 문 닫고 방에서 있어요. 오빠 나이 차이 많고, 새아버지는 안 친하고...그래서 주말에 편의점에서 일하는 거예요. 밤에 일하니까 돈 받고, 일 안해도 아마 밤새 스마트 폰만 보고 있을 거예요. <사례 2>

전 컴퓨터 계속 컴퓨터 영화보고, 게임하고... <사례 3>

스마트폰과 컴퓨터만을 하면서 집에서의 일상적인 시간을 보낸다는 사례 2, 3의 이야기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빈약한 사회적 관계와 가족관계의 소원함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다양한 가족원들이 함께 생활하는 현재의 구조 안에서 구성원 간의 친밀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개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교류와 소통 부재의 문제가 가족 안에서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면에서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이 이들에게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혼자 생각하고) 저는 주로 (고민 얘기) 안 해요 ... (스트레스 해소 방법) 저는 운동을 해요. 복싱이요. <사례 2>

저는 엄마랑. (스트레스 해소 방법) 저는 자거나 음악 들어요. <사례 1>

고민을 이야기하는 상대가 어머니에게 집중되어 있고, 청소년 기관이나 관련 상담사를 찾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다는 실태조사 결과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일상 이야기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스트레스 해소법이 취미생활이라는 면에서 사례 1, 2의 방식이 나쁘다고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그 조차도 철저히 혼자서 하는 활동이라는 점이 문제이다. 소통이 매개가 된 활동을 통해 다문화사회 구성원들 간 상호 이해의 장이 보다 빈번하게 마련될 수 있을 것이나, 가족 안에서 조차 특정 관계에 편향된 장이 사회적으로 마련될 기회를 찾기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고민은) 특별히 없는데 있으면 혼자 생각해요 ...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안 슬퍼지니까 혼자 생각해요 <사례 4>

그냥 말을 안 해요. 지나가면 괜찮아요 <사례 3>

주로 자거나 혼자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면 괜찮다고 하는 혼자가 위주인 일상 속에서 어떻게 관계적 자본이 확충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고민을 상담할 수 있고, 정규 교육 기관 재학 여부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존의 청소년 관련 기관 프로그램에 어떻게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이 고려될 필요성은 바로 여기에서 제기한다. 그러한 기관과 프로그램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의 문제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을 통한 안내와 더불어 그 부모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적 커뮤니티를 통한 홍보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한국계 중국 출신인들의 경우 취업 등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 등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만큼 해당 공간을 통한 안내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의 해결책은 당사자들 스스로 제안하기도 한다.

자원봉사 같은 거 연결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국사람들하고 이야기 할 기회도 생기고 저도 여기서 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사례 1>

한국어를 배우지만 사용할 기회가 적고 그로인해 스스로의 실력을 체크해 볼 수 없다는 점에 불안을 느끼는 사례 1은 자원봉사 체계 안에서 한국 사람들도 만나고 스스로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탐색하는 기회로 삼고 싶어 한다. 아직 학교에 갈 수 없고, 일을 하기엔 갖추어진 능력이 미흡하다는 면에서 해당자들이 스스로의 역할을 탐색하고 시험하는 기회로 자원봉사가 주어지다면 현재의 우울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보다 의미 있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고려해 볼만한 제안이다.

## 2)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 여성

### (1) 조사 목적

집단면접(FGI)은 사회적으로 가장 열악하다 할 만한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 및 혼인귀화자 여성의 생활 실태 및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사회적 관계망 부족이라는 결혼이민·혼인귀화자 여성의 현실은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곤란한 상황을 만들 뿐 아니라 공권력의 개입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때 공적 개입이 여성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적극성을 띠고 있는지, 폭력에서 벗어난 이후의 삶에 대한 지원이 여성들의 현실을 고려한 접근인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FGI 과정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 (2) 조사방식 및 참여자 선정방법

2013년 11월 2회에 걸쳐 각 5명, 1명의 결혼이민·혼인귀화자 중심의 FGI가 진행되었고, 1명의 여성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인터뷰 과정에서 한국 선주민 여성들과 함께 상담 치료를 받던 여성의 사례가 포함되어 총 6명의 사례가 인용되었다. 반구조화 된 질문지에 의해 여성들이 프로그램을 듣고 있는 지역의 여성발전센터를 방문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5명의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인터뷰는 단기 보호시설 관계자의 도움으로 참여자가 선정되었다. 인터뷰는 한국 입국 시부터 인터뷰 시점까지의 삶에 대한 개별 연대기적 서술로 시작하여 참여자 간의 공감대에 기반한 자유로운 이야기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 (3)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 1은 필리핀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한국에 거주한지 8년 되었으며, 2명의 자녀(6세, 7세)를 두었다. 남편의 가정 폭력으로 자녀와 함께 단기 쉼터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혼 진행 중이다.

사례 2는 캄보디아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다. 한국에 거주한지 7년 되었으며, 2명의 자녀(4세, 6세)를 두었다. 남편의 심한 가정 폭력으로 2년 전 이혼하였다. 쉼터 퇴소 후 현재 월세방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사례 3은 중국출신이며,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다. 한국에 거주한지 5년 되었으며, 1명의 자녀(5세)를 두었다. 임신 3개월 되었을 때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쫓겨나 쉼터에서 생활하였으며, 자신도 알지 못한 채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임신 5개월 당시 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을 받았다. 쉼터 퇴소 후 현재 월세방에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사례 4는 베트남 출신자로, 한국 국적은 취득하지 못했다. 한국에 거주한지 6년 되었으며, 2명의 자녀(5세, 3세)를 두었다.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네 차례 혼자 집을 나와 단기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남편으로부터 둘째 자녀가 3살이 되면 이혼하고 본국으로 보내거나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

사례 5의는 중국 출신자로, 한국 국적은 취득하지 못했다. 한국에 거주한지 4년 되었으며, 1명의 자녀(3세)를 두었다. 시어머니의 가정 폭력과 남편으로부터 쫓겨나 혼자 단기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사례 6의 여성은 한국계 중국 출신자이다. 한국국적 취득 과정을 진행 중에 있다. 한국남성과 재혼 후 중국에서 낳은 남자 아이를 재혼한 한국남편과 입양해 함께 생활하던 중 폭력문제가 발생했다.

표 IV-4 | FGI 참여자 일반 특성(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 여성)

사례	국적	나이	한국거주기간	자녀	혼인상태
1	필리핀	40대 후반	8년	딸 2 (6세, 7세)	이혼진행
2	캄보디아	20대 중반	7년	딸 2 (4세, 6세)	이혼
3	중국	20대 후반	5년	아들 1(5세)	이혼
4	베트남	20대 중반	6년	아들 1, 딸 1(5세, 3세)	이혼준비
5	중국	30대 중반	5년	아들1(3세)	이혼준비
6	중국(한국계)	40대 중반	7년	아들1(중도입국)	이혼준비

#### (4) FGI 결과

##### ① 가해자의 처벌 없는 피해자 피신

인터뷰에 응해 준 사례여성들은 모두 가정폭력 피해로 인해 집을 나와 보호시설에 거주 중이거나 이혼 후 자녀와 함께 생활 중이다. 가해자인 남편 혹은 전남편의 가족 이외에는 한국에 개인적인 관계망 형성이 미약하다는 것이 이들이 갖는 취약점 중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다.

(연구자 : 남편을 신고할 생각은?) 안 해 봤어요. 경찰서 가면 우리는 외국 사람이라서 무조

건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거 도와주고 제가 가고 싶은 데는 데리고 가주고 제가 1366 연락해주세요 하면 연락해주고 남편이 제 짐을 가져와야되는데 집에 같이 거주실래요 그러면 같이 거주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저도 경찰서 갔을 때 경찰관 이야기 듣고 서류 기록이 필요해요, 근데 경찰서 갔을 때 기록도 없어요... 그냥 경찰서 간 날짜는 있어요. 무슨 이야기 하는 거 없어요. 법원 갔을 때 서류 필요하잖아요. 무슨 이야기 했는지 근데 없어요... 〈사례 4〉

경찰 신고하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한국 가족 생각하면서 가족 확인 먼저 하니까... 우리도 경찰 어머니 앞에 있으니까 쉽지 않아요. 〈사례 5〉

결혼이주여성들이 겪는 가정폭력 피해의 두드러진 특징은 경찰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갈 곳이 없다는 점이다. 경찰이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는 점에 사례 4 여성은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고가 쉽지 않다는 점 또한 지적하고 있다. 사례 4의 여성은 폭력 피해 당시 경찰의 도움으로 1366으로 연계되었고, 미처 챙겨 나오지 못한 소지품을 챙기는 과정에서도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정작 이혼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있는 초기 경찰 이용 시의 상세 기록이 없다는 점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례 5 여성의 경우 신고 의사를 남편과 그의 가족 앞에서 밝힐 수 없는 상황의 불편함을 지적한다.

그때 6개월 정도 시아버지가 계속 나가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랑 관계도 안 좋았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 혼자 집에서 너무 어려워서 밥을 못 먹었어요... 남편한테 얘기해서 친구 집에 가서 좀 있었어요. 남편 전화해도 계속 기다리라고 말 하니까 2주 후에 다시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비밀번호가 틀린 거예요 옛날하고 안 맞아요. 시어머니 집에 비밀번호 눌러도 안 맞아요. 전화가 남편 받았는데 남편 말 한마디 하는데 시어머니 전화 받았어요. 가라고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너희 집 아니라고 집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경찰서 갔어요. 경찰하고 집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경찰관 다시 저를 데려 가서 경찰이 쉼터 전화하고 쉼터에 보냈어요. 〈사례 3〉

가정폭력은 함께 거주하는 남편의 부모로부터도 행사되는데, 이 경우 남편이 부모 편에 서게 되면 여성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가의 문제는 사례 3 경우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경찰이 개입한다고 해도 갈등의 시비를 가리거나 여성의 권리가 최

대한 보장되는 방안이 아닌 여성을 보호시설로 보내는 선에서 마무리 되었다는 점에서 드러난 현상을 무마하는 선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가정의 유지라는 가치가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가치인지 남성 혹은 그 가족이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허용되는 가치인가의 문제가 다시 한 번 제기되는 것이다.

## ② 폭력 이후의 삶에 대한 외부의 개입

가정폭력 피해여성에게 남편과 함께 살았던 ‘집’은 폭력 피해의 장소이자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간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럼에도 남편에게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 여성이 몇 개월 동안 머물렀던 보호시설 관계자는 남편에게 돌아갈 것을 권하는 예도 발견된다.

퇴소식해도 다 취직돼야 집도 구하는데.. 근데 (보호시설 관계자가) 저는 이혼 한지 거의 2년 다 됐는데 몇 번 저보고 남편(한테) 가라고 해요 아니면 너는 남편한테 안가도 되고 아이들 남편 보내겠다고. 근데 저는 ... 도망왔잖아요. 그리고 아이 친권 양육권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왜요? 도와 주세요 했는데 너무나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다른 분 도움 받아서 애들 마음대로 할 수 없게 서류 했지만, 불안해요. 집 구하는 거, 직장 구하는 거 다 너무 힘들어요. <사례 2>

일반적인 한국의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경우 주변 특히 보호시설 관계자가 폭력 행사자인 남편에게 돌아갈 것을 권유하는 예가 없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는 또 다른 위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하는 지점이다. 물론 결혼이민·혼인귀화 등의 배경을 가진 여성에게 배우자와 그 가족 외에는 한국 사회 내 관계적 자본이 미약하다는 점은 한계이자 취약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에게 폭력을 가한 ‘가족’에게 의지해 살아갈 것을 권한다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일 수 있다는 점이 결혼이민·혼인 귀화자 등에게는 고려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어린이집이 8시부터 7시까지. 일요일 안 봐줘요 그래서 일을 찾아도 어렵고 좋은 자리 가고 싶었는데 아기 있으니까 못해요 ... 공휴일하고 토요일 출근해야 돼요 공휴일 어린이집도 쉬잖아요 ... 직장 다니다가 그래서 그만 뒀어요 ... <사례 2>

한국 내에 제도적인 차원의 육아 시스템 이외에 기댈만한 개인적 자원이 전무하다는 점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한 여성들의 취업을 가로막는 2차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취업을 위한 한국어 실력이나, 직업 능력이 1차적인 문제라면 일단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이 양육에 기댈 자원이 없다는 점은 취업의 지속에 중대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는 한부모인데도 임대주택 신청 어려워요. 우리 국적 없고, 아이 한국인이니까 아이가 세대주, 아이 스무 살 안 되면 임대주택 신청 안돼요. <사례 3>

현재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되는 임대주택이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여성 그 중에서도 국적이 없는 여성에게는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는가와 여부로 이들이 ‘진정한 한국인’인지의 여부를 검증하려는 이들도 있다.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취득하려고 하지 않는 이들에게 세금을 들여 지원한다는 데 대한 반발이다. 그러나 이 연구의 인터뷰에 응해준 결혼이주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은 국적을 받고 싶었으나, 모두 폭력 남편이 협조하지 않아 국적 취득을 못한 경우였다.<sup>33)</sup>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가정폭력 피해를 입어 이혼에 이른 여성들이 제도의 혜택 안으로 들어 올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월에 신고를 했는데, 남편이 바람피우고 (남편의) 애인이 새벽에 사는 집에 와서 문 차고 욕하고 문열어주니 때렸어요. 17번 찾아 왔어요. 거의 새벽 1~3시에 오고, 신고를 했더니 벌금을 물었다고 또 때리고, 신고를 해도 신고를 하면 시덥에서 (경찰 오는 길 막고 서서 아무 일없다고 다 됐다고) 막아줘서 걸린 것은 두 번밖에 없어요. 4월에 또 한 번 당해서 목 조르고 죽이려고 해서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았어요. \*\*구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니까 국적이 신청 통과는 됐고 허가는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경찰에서 이혼하지 말고 국적 내려 오면 이혼하라고 했어요. <사례 6>

33) 국적을 취득한 사례 1과 취득 절차 중인 사례 6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적 미취득 상태이다. 이 중 사례 2, 4는 국적 취득에 대한 (전)남편의 비협조로 국적 신청조차 하지 못했고, 다른 사례들은 국적 신청 시 재산 3000만원 증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음을 밝히고 있다.

내 삶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기대로 결혼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결혼으로 인해 삶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면 결국은 개인의 인생에서 결혼 관계 해소가 최선의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결혼이민·혼인 귀화 등 여성의 경우 국적 취득이라는 미묘한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 이혼을 말리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해당 여성은 결혼 생활을 한지 4-5년이 되어 가지만 국적을 따기 위해 결혼한 여자라는 오해를 받기 싫어 국적 취득을 미루어 왔다고 한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국적 취득을 이유로 폭력의 가해자와 이혼하겠다는 여성을 말리고 있다. 이 여성의 인권에 앞서는 권리가 한국국적 취득인지의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여성이 폭력을 감수하면서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 한국 국적이라는 시각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공공기관 관계자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한국이 견고 있는 ‘다문화사회’로의 멀고 험난한 길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아들은 입양해서 남편과 한 호적에 있어요. 변호사 말로는 이혼하면 아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중국국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아들이 이미 중국국적을 포기했는데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아이가 힘든 상황이라 학교에서 다 도와주고 계시고, 공부 못 따라가기 때문에 학교 친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사례 6>

앞서 중도입국자녀 조사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중도입국자녀의 전형적인 예가 사례 6 여성의 삶으로부터 등장하고 있다. 중국에서 초혼 시 낳았던 아이를 현재 한국인 남편과의 사이에 입양해 아이는 한국국적을 취득했고, 한국에서 생활하던 중 남편의 폭력 문제가 발생해 이혼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혼 시 부부 앞으로 입양이 된 여성의 아이가 입양 전 상태로 돌아가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사례 여성이 알고 있는 사실은 일부 맞을 수도 있고, 일부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 만일 해당 여성과 남편 사이에 아이가 친양자로 입양이 되었다면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해도 아이는 한국국적자의 아이로 입양이 되었으므로 남편이 파양을 하지 않는 한 한국에 남아서 어머니를 친권자로 지정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아이가 일반 입양되었을 경우인데, 그럴 경우 부부의 이혼은 아이에게 입양 전의 관계 즉 이전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중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 3. 분석 및 시사점

다문화가족의 문제가 당사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당사자, 배우자, 그 자녀 세대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이며 유기적인 차원에서 발생한다. 더불어 그 가족 내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다문화 사회론을 이야기하는 사회 구성원 전반과도 관련된 문제이다.

현재 대다수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혼인귀화자의 경우 한국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왔고,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한국 사회를 다문화사회라 일컫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시대를 열었던 당사자들은 위계화 된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혼이민·혼인귀화자’라는 이름으로 가족 관계 안으로 활동범위를 한정 받는 한편으로는 가족 안에서도 역할을 극도로 제한 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 가족의 형편으로 인해 취업을 원하지만 이들을 위한 전담지원 기관은 가족생활 위주의 지원이 우선시 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들의 취업을 위한 지원은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더불어 서울거주 결혼이민·혼인 귀화자 등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계 중국 출신인의 경우 전담지원체계를 통해서서는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법률상 다문화가족의 일원이고, 수적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음에도 한국사회의 전형화된 다문화가족에서 비켜 서 있다는 이유로 현재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공적 지원기관 프로그램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계 중국 출신 결혼이민·혼인 귀화자 등에 대해서는 자조적인 네트워크 등을 지원하는 방식의 다른 접근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취업관련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실제의 희망과 이들의 지금까지의 경력과 역량을 고려한 프로그램 제공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왜, 어떻게 한국에 왔는지에 매몰되어,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가 간과된 채 제공되는 것이 현재 결혼이주·혼인 귀화자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특징이다.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수요자들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수요

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은 이미 몇몇 기관에서는 진행 중에 있다. 단순히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임을 강조하기 위해 그 구성원들을 보여주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다문화 사회 구성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적 개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이미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계획을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점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반영되어 기업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이 다문화가족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참여’가 아닌 ‘대상’화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성이 아닌 다‘인종’성에 기대어 동원의 문제를 야기시키며, 이에 지원체계 종사자들의 불만이 토로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전반의 다문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 또한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이 현재 다문화 한국사회의 과제이다.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해서도 짜여진 계획 하에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 있음에도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꼼꼼히 들어갈 때 정책의 체감도는 보다 커질 것이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현재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이들이 공적인 체계 안에서 정보를 접한 것이 아닌 그들 부모의 ‘인터넷’ 검색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부지런함에 기댄 정보입수라는 점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젠더 이슈로 화제에 오르내리기를 반복하지만, 폭력 문제를 보는 시각에도 위계 관계는 있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여성에게 폭력남편에게 돌아갈 것을 권유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도움을 요청받은 경찰은 여성을 보호시설로 인계하는 역할에는 충실하지만, 폭력 배우자에 대한 신고 안내 등의 개입은 하고 있지 않다.

결혼이주·혼인 귀화라고 하는 한국 사회에서의 출발에 초점을 두고 사회가 이들에게 부여한 이름은 여전히 이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나 이들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시각에 녹아들어 있다. 그들은 결혼을 통해 한국에 왔지만, 한국에 오기 전에도 그들의 인생이 있었고, 한국 사회에서 또한 가족 안팎에서 각기 다른 경험을 하며 살아오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선주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이다.

다름에 대해 끊임없이 위계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 안에서 때로는 차별로 아주 가깝은 시혜로 다른 대우가 발생해 온 이제까지의 관행은 그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이 특정 집단이 아닌 서로가 다르다는 사실로부터 발생한다는 상호 인정의 인식에서 변화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나, 현재의 정책적 개입이 사회 전반의 인식을 바꾸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구성원 내부의 자조적 움직임을 지원해 주는 다양한 형태의 정책과 프로그램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 V

##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정책 및 사회통합 지원 방안

1. 서울시 다문화 정책의 방향
2. 분야별 지원 정책 과제
3. 다문화 사회 구성원을 위한 정책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 V

##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정착 및 사회통합 지원 방안

### 1. 서울시 다문화 정책의 방향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문제를 단지 ‘다문화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다문화 사회의 위계문제, 여성의 문제, 가족문제가 다층적으로 얽힌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접근을 단지 가족과 결혼이민·혼인귀화자뿐만이 아닌 그 가족, 이웃을 포함하는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정책발굴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미 서울시의 다행복 플랜이나 중앙정부 차원의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 계획 안에도 이러한 기조는 흐르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체를 한국에서 소수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일반 다른 소수 가족의 문제와 같이 언급되어야 할 문제이다. 즉 각각의 다른 가족들을 별도의 정책 범주에서 다루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빠른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해당자들을 하나의 체계 안으로 제한하여 특수집단화 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여러 가족의 형태와 더불어 가는 다양한 가족 정책의 차원에서 다문화 가족이 함께 갈 때 일반의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폭도 넓어질 것이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 논의가 있는 만큼 하나의 가족지원 체계 안에서 특화 프로그램과 통합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면 ‘다문화’라는 낙인을 피하면서 당사자들의 자연스러운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물론 이때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지원체계가 각각의 가족들의 요구를 어떻

게 받아들이고 반영해 가야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양한 가족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로 현재의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이 나아갈 때 다문화는 사회의 다양한 정책 안에서 통합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 1) 다문화 가족 정책

삶의 차원이 다양할 수 있음에도 다문화가족의 결혼이주·혼인귀화 여성의 삶은 가족에 기반한 삶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가족 안에서 조차 아내 역할이나 어머니 역할에서 한국인 가족의 요구에 따라 살아야 하는 위계화 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결혼이민·혼인귀화자 등의 한국 거주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이들의 생애주기와 다문화 가족의 분화에 따른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결혼이민·혼인 귀화자가 이주된 삶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뿌리내릴 토양을 갖추어 갈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결혼이주·혼인귀화자를 넘어 그 배우자와 가족들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들의 정착과 사회통합은 그 가족 안에서부터 벽에 부딪칠 수 있다는 점은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들의 인터뷰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족 프로그램을 보다 지속성을 갖는 정기적인 프로그램으로 활성화하고, 가족들의 생활시간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문화 이해 교육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자로 당사자만을 선정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민·혼인 귀화 여성의 가정폭력 실태에서 남성 배우자뿐 아니라 남편의 가족이 가해자로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는 가족 단위의 접근과 함께 다문화 자체가 차별 내지 낙인으로 기능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생각할 때 지역사회 단위, 마을 단위로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장기적인 교육 내지 문화 만들기 프로그램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2) 다문화 사회 정책

현재의 프로그램은 대다수 결혼이민·귀화자 등이 통합될 것에 기준을 둔 한국인

가족 및 그 이웃들이 통합되어 갈 프로그램 지원이 미약하다. 특히 노동시장으로의 통합에서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여성들의 경력과 향후 희망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갈 것을 제안한다. 여성들이 일을 원하는 것 또한 그들이 현재 속해 있고 생활하고 있는 한국 가족의 문제라는 현재 시점에서의 접근에 기반한 지원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다문화가족 지원이라고 하면 결혼이민·혼인 귀화 등이라고 하는 삶의 조건 전반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과 이들이 생활하는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 정책은 취약계층에 대한 시혜적 관점을 넘어 당사자들의 다양한 역량 강화를 염두에 둔 정책을 보완 및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여전히 정책 사각지대로 이야기되는 결혼이주·혼인귀화 등 당사자가 남성인 가족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인지를 문제도 고려해 볼 문제이다. 한국인의 인식개선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의 인식개선과 더불어 정책 입안자, 아동, 청소년 문제까지 포괄해 갈 필요가 있다. 각급 학교에서 다문화가족 아이들을 정책 수혜대상자로 접근하여 아이들이 열외로 대우받는 관행으로부터 편견이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해 지역사회, 학교 단위의 섬세한 접근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족 자녀 세대의 자존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서울시 소재 각 대학에서 유학 중인 다양한 국가로부터의 유학생과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연계된 프로그램의 고안도 고려해 보았으면 한다.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스스로 역할 모델을 삼을 수 있는 성인집단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다문화를 ‘낙인’이 아닌 또 다른 가능성으로 인식하게 될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대상을 특정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차별로 인식되고 있다면 다문화 프로그램을 가족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인력개발기관 등에도 다문화 감수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 만한 강사나 직원대상 인식교육 등이 있어야 될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 정책이 단순히 ‘가족’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다문화가족 자체가 하나의 수혜 집단이 아닌 참여의 집단으로 전환해 갈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 분야별 지원 정책 과제

서울 거주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이와 관련된 결혼이민·혼인 귀화 당사자의 취업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해 갈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기존의 취·창업 프로그램이 단지 교육 프로그램에서 끝난 데 대한 한계를 현재 취업 연계까지 구상하고 있는 서울시의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향방이 주목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 1) 경제 분야 : 취·창업 지원

현재의 결혼 이민·혼인 귀화자에 대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특정 직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도 지적된 바이다. 이에 결혼이주 및 혼인 귀화 등 당사자의 입국 전 학력과 경력에 기반한 수요 조사가 프로그램 진행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이미 결혼이민·혼인 귀화자 등의 학력 최다 분포 구간이 고졸이라는 점과 입국 전 일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0% 이상이라는 점에 비추어 단순히 ‘여성’이라는 점에 기반한 취·창업 프로그램이 아닌 당사자들의 배경에 기반한 지원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 국민 경제활동인구(2012) 중 서비스 종사자가 10.3%인 데 반해 결혼이민·혼인귀화자의 해당 종사자가 23.9%, 단순노무 종사자 전국민 13% 대비 결혼이민·혼인귀화자 31%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결혼이민·혼인귀화자의 직업적 분포의 다변화가 어떻게 시도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 거주 기간이 긴 결혼이민·혼인 귀화자를 적극적으로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강사로 양성해 갈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결혼이민·혼인귀화자의 연령에 따른 이혼·별거 전 혼인지속기간을 볼 때 25-29세 구간과 30-34세 구간 당사자의 각각 100%, 83.1%가 결혼기간 5년 미만에 이혼과 별거에 이른다는 실태조사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34)</sup> 결혼 초기 한국어 실력의 문제로 인해 한국어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수강이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문제이다.

34) 25-29세 구간의 35.7%, 30-34세 구간의 16.6%는 혼인 지속 기간 3년 미만에 이혼 및 별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입국 초기 이민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에 기존의 이민·귀화자들이 단순한 멘토가 아닌 프로그램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둘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초기 입국자는 한국어 능력 여하에 관계없이 생활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향후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모델링을 이민·귀화자 출신 강사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거주 기간이 오래된 여성들로서는 직업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초기 입국자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면서 역할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사 및 이중 언어 강사가 실질적인 직업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정도의 개선책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해 10달, 계약직의 불안정한 현재의 체계에서의 처우 개선 내지 현재의 자리 자체를 하나의 직업군화 한다기 보다는 유사 직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인턴십 등의 과정으로서의 자리매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통·번역사, 이중 언어 강사를 하나의 직업으로서 가져 갈 계획을 명확히 한다면 그에 따른 처우개선이 필요할 것이나, 이를 인턴십의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면 연계된 취업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개입되어야 할 것이다.

자조적인 직업의 개발과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한국 내 어떤 종사상의 지위나 어떤 직업군에 치우치지 않고 구성원들 스스로 자신의 역량이 강화되고 경력과 능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한국 입국 이전의 경력을 고려하고, 현재의 요구에 발맞춘 취·창업 프로그램의 지원이 요구되는 바이다.

## 2) 지원체계 관련 분야

서울 거주 결혼이주·혼인 귀화 당사자의 전담지원체계로서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용률이 전국대비 현저히 낮다는 점은 실태조사 결과에서 명백히 드러난 바이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재 초기 입국자 중심의 한국어 교육 중심 프로그램 위주의 운영방식으로는 초급 한국어 실력을 이미 뛰어넘은 한국계 중국출신자를 센터 프로그램 이용자로 포괄할 수 없다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과 지향점을 분명히 한다면 현재의 전국 대비 낮은 이용률이 문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우선 ‘가족지원센터’라는 점에 충실성을 기한다면 다문화가족 구성원 전반으로 프로그램 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즉 현재의 기능 안에서도 자녀 양육과 관련한 요구, 가정폭력 등의 상황에 대한 개입 요구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가족원 전반을 아우르는 가족지원 체계로의 전문성을 확실히 하는 방향성을 잡을 필요가 있다.

한국어 교육과 함께 거주 기간이 긴 결혼이주·혼인귀화자 강사 인력을 중심으로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의 초기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활성화하고, 한국인 가족 구성원에 대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어 간다면 센터의 역할을 보다 분명한 전문성을 띠게 될 것이다.

또한 취업요구가 높은 이들에 대해서는 여성인력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활동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타 기관 종사자들과의 연계 활동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요구를 단순히 특정 지원체계가 전담하는 것이 아닌 한국 사회 구성원 전반에게 열려 있는 지원체계와 함께 하는 쪽으로 가야한다는 면에는 이미 연계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들도 동의하는 바이다. 여기에 더하여 현재 각 기업이나 기관들의 사회공헌 활동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단순히 다문화사회 특정 구성원을 동원하는 인력동원의 ‘매개체’로 활용하고자 하는 데 대한 강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그러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개입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 3) 기타

앞선 실태조사에서는 서울 거주 다문화가족의 고령화가 전국적인 통계에 비추어 보다 이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더불어 서울 거주자들이 일하지 않는 이유로 건강문제를 꼽은 비율 또한 전국 대비 높은 수치로 파악되고 있다. 출신 국적별로 볼 때 이는 서울시 거주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계가 연령대가 높다는 데에서 비롯된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을 할 수 없다고 답한 최대 연령 집단은 50대 이상(54.4%), 출신국적별 중국(30.1%), 한국계 중국(38.5%)라는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중국 동포 귀화자들의 연령대를 평균 40대 이상(양한순 외, 2013)으로 보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한 한편으로는 중국계의 낮은 지원체계 이용률의 문제가 있다. 즉 공적 지원체계가 아닌 사적



관계망을 통해 일을 하고, 정보를 취한다고 하는 중국 출신인들이 공적 지원체계 안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함과 동시에 이들의 사적 네트워크 내부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혼인상태별 집단 분류에서 이혼·별거자가 일을 하지 않는 이유로 건강 문제를 꼽은 이의 비율이 79.9%라는 점은 이들의 사회적 관계망이 가장 미약했던 지점과 함께 위기 집단으로서의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인지 경로 및 구직 경로 중 최고의 비율은 ‘아는 사람을 통해서’이지만, 어려운 일 의논대상 없음 33.6%, 여가·취미를 함께하는 사람 없음 63.6%, 지역모임 참여경험 4.4%, 봉사활동 경험 10.1%, 단체 활동 경험 2.2%라는 응답률에서 나타나 듯 사적으로도 지역사회 내 관계를 통해서도 어려움을 해결할 지지망이 미약하다는 데에서 보다 큰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결국 건강이나 제반 어려움을 지원해 줄 프로그램의 안내를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모든 종류의 지원체계 중 유일하게 주민센터 이용이 90% 이상이라는 점에 비추어 주민센터 정보 안내의 충실화 및 활성화가 이들의 사회적 소외를 방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여성들의 자조적 커뮤니티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고안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3. 다문화 사회 구성원을 위한 정책

오늘날 한국사회를 다문화사회라 지칭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한국 사회 구성원의 출신 국적별 다양화에 있으며 그 중심에 놓인 이들이 바로 결혼이주·혼인귀화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구성원들이 다양화되고, 각각의 구성원들이 처한 입장이 달라지면서 정책 또한 다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간과하고 있는 이들은 구성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 사회가 그려 놓은 다문화가족의 전형성에서 벗어난 한국계 중국 출신인이다. 전담지원체계가 이들을 포괄할 수 없는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데에서

이들의 정책적 소외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 구성원 중에서도 가족 지원과 더불어 사회적인 지원이 함께 개입되어야 할 그룹으로서 한국계 중국 출신인 가족, 폭력 피해 결혼이주 여성과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한국계 중국 출신인

취창업 과정을 수강한 한국계 중국 출신 여성의 FGI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FGI에서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한국 사회에서 소위 ‘조선족’으로 불리는 이들이 각종 공적 지원기관 이용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반면 사적 관계망을 통한 정보 취득의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면에서 이들의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강화해 주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계 중국 출신인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그 사적 네트워크와 커뮤니티를 안정적으로 성장시켜 간다면 전담지원체계를 통한 정착이나 사회통합보다 한 단계 질적으로 성장한 사례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부나 선주 한국인의 주도에 의한 접근이 아닌 당사자들 안에서 발생한 네트워크, 커뮤니티의 성장을 서울시가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주민의 자발성이 강조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당사자들의 요구에 충실한 자조적인 형태의 커뮤니티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보다 생생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나 제도 등의 안내를 공적 전담체계만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들 소규모 커뮤니티 안에서도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정보전달의 통로를 다양하게 열어 두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서울시의 마을사업에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자조모임 활성화뿐만 아니라 집단 거주 형태를 지닌 지역에서 베를린 식의 도시통합 지역운영 전략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서울시의 다문화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국계 중국 출신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자조적인 네트워크를 어떻게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자조적 기능이 사회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고려함으로써 지원체계를 통한 접근방법과는 차별화된 방법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 2)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여성

한국 사회에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문제는 선주 한국민에 대한 정책들도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0년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에서는 전체 가구의 50%이상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였으며, 이 연구의 FGI에서는 다문화가족의 가정폭력은 배우자에 의한 폭력뿐 아니라 그 가족에 의한 폭력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도 드러났다. 더욱이 결혼이주·혼인 귀화 여성의 경우 배우자와 그 가족 이외에 관계적 지지망이 열악하다는 면에서 폭력 피해 이주 여성의 구제와 함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1) 예방적 개입

가정폭력이 어느 특별한 가족의 특수한 구성원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볼 때 일반적인 가족 구성원 전반을 포괄하는 예방적인 개입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의 최일선에 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가정폭력 전반에 걸친 이해 교육도 함께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이미 FGI에서도 드러났다. 즉 지원체계 종사자들조차도 이들이 가진 관계망의 부족과 그에 따른 지원을 사회적 차원에서보다는 ‘화목한 가정’으로의 복귀에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가정폭력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이며 사회적 해결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을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구성원들 특히 남성의 부모에 의한 폭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일반적인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족 단위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정착지원 프로그램은 그 가족 구성원 전반이 어떻게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과 어울려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지 못하였다. 또한 어떠한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방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되면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가족문제에 대한 접근이 부족했다는 현실의 문제도 있다.

가족의 절대적인 지원이 없는 한 가족을 벗어난 외부 활동이 전제가 되는 다문화

가족 센터 프로그램 참여 또한 쉽지 않다는 점에서도 가족 구성원의 전반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 결국은 현재의 낮은 이용률을 끌어 올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야 한다는 의미를 살려주는 프로그램들이 제공된다면,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문제가 결혼이민·혼인귀화 여성만이 노력하고 적용할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고민하고 노력할 문제라는 점이 분명해질 수 있을 것이다.

## (2)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과 주거

공적 육아지원시스템 외에 여성들이 가용할 수 있는 사적 관계망이 미흡하다는 점에 주안점을 둔 육아지원 방안이 요구된다. 경력이나 학력 등에 맞는 일자리 찾기가 어려울 경우,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키울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관건이 될 것이다. 현재 서울 이주여성 디딤터에서 제공 중인 직업훈련이 바리스타·제과제빵·조리·봉제교육 등 중심으로 되어 있는 데에서 여성들의 요구에 맞춘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이 요구된다.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며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육아를 위한 시간과 생활비를 벌기 위한 시간이 조정되면서도 생활이 유지될 정도의 금전적 수입이 발생하는 ‘일’이 어디에 있을지를 찾는 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들의 주거문제에 있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경우, 보호시설 퇴소 시 정착지원금으로 500만원을 받는다지만, 서울시의 주거비용을 생각할 때 주거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수준에서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되는 임대 아파트에 세대주가 아닌 결혼이민 여성 특히 미성년 자녀가 세대주인 여성과 그 자녀가 입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할 때 가정폭력으로 인해 갈 곳을 잃은 결혼이주 여성들의 주거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선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예에서 이들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이유가 자신의 선택이나 의지였다기보다는 한국인 남성의 ‘폭력적’ 의사표현이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배우자와 이혼에 이른 여성들의 국적 취득문제의 특수성이 고

려되어야 하며 특히 그들이 이미 아이를 키우며 한국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국민의 배우자가 되어 국민의 가족원이 되었으나, 그 가족원에 의해 국민이 될 수 없었고,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면 그것이 ‘다문화사회’가 지향하는 모습은 분명 아닐 것이다.

### 3) 중도입국청소년

다문화가족 자녀 중에서도 중도입국 청소년 문제는 그들이 출생국에서 일정 연령 이상까지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온다는 점에서 연령대에 맞는 한국어 구사능력의 문제로 인한 공적 활동의 어려움,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적응문제로 인해 가족 또한 온전히 지지망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서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의 외국성장 청소년이 한국에 영주할 계획이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들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2013년 10월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중도입국 다문화가족 청소년은 ‘다문화학생 특별 학급’이 설치된 초·중학교로 전입학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만 학력인정 심의를 해온 교육감 소속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다문화가족 학생도 포함되었다. 이제까지 중도입국 다문화가족 학생은 학력증명 서류 미비로 입국 전의 학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편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한 정책적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의 다양화에 맞춘 정책들이 마련되어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그 운영에서 미비점이 보이고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제도권 교육 과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학교재학 중 체류 자격이 바뀔 것을 우려해 면접을 통과할 수 없었던 인터뷰 사례 이야기에 다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다른 조건의 미비가 아닌 학교 재학 중에 20세가 넘게 되어 ‘동반자녀’ 체류자격 유지 불가가 면접 탈락의 이유가 됐다는 점에서 구성원의 다양화에 따른 비자제도의 변화가 요구되는 지점이다. 현행 학생 비자는 학사 이상 과정의 유학생(D-2)이나, 대학 어학 프로그램 수강자 등을 대상(D-4)으로 제도가 시행 중이라는 점에서

학생비자 취득 대상을 대학 이하 각급 학교 재학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문화가족 정책 중 중도입국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필요성은 이미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 교육부를 비롯하여 각 자치단체 별로 제시되고 있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제공되는 정책 서비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정책 정보에 대해 열려있어야 한다는 점이고, 가능하면 자신의 거주 지역 가장 가까운 곳에서 프로그램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관별 홍보가 아닌 어디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지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차원에서 종합대책이 마련되었다고는 하지만, 전문취업기관(시립기술교육원) 연계 지원의 경우,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높은 취업욕구와 맞물려 있는 만큼 현장의 전담 지원 기관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또한 기존의 특화 프로그램 중심의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하는 통합 프로그램으로 다양화 할 방안이 모색될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연구 진행 중에 만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불안은 한국어를 배운다고 해도 ‘한국사람’과 한국어로 대화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스스로의 한국어 실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이들이 한국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해갈 프로그램들은 한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다음으로 미룰 수는 없는 과제이다. 따라서 현재 각급 학교의 자원봉사에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모색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이는 FGI 과정에서 드러난 중도입국청소년이 일상이 사회적 관계 맺기보다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위주로 채워지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 보았을 때에도 필요한 조처일 것이다. 결국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포괄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관의 특화프로그램에서 나아가 그 공간에서 다양한 서울 거주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통합 프로그램이 강조되는 이유는 ‘다문화’라는 용어가 이미 ‘차별어’로 사용될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이다. 누구인가의 질문에 매몰되어 어떤 내용인가의 문제가 가려지는 것이 현재 다문화사회의 실태라면 누구나 함께 하는 데 가치를 두는 프로그램이 제공될 때 통합프로그램으로서의 효과는 보다 실질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사회는 그들이 이곳으로 왔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 그들과 더불어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증거로서 늘 존재해 왔다. 기존 구성원들이 다문화 사회 구성의 한 요소라는 인식을 함께 할 때 이해와 통합의 주체와 대상이라는 경계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없으며, 결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통합되어 갈 방식을 찾게 될 것이다.





## ▶▶▶ 참고문헌

### ■ 연구논문

- 김승권 외(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란 외(2013), “사회통합에 있어서의 문화예술을 활용한 다문화프로그램의 역할과 과제”,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다문화사회연구』제8권 1호, 81-108쪽.
- 김영주(2006), 『충남 국제결혼가족 실태 및 지원 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김영주·송미영(2009), 『충남 생애주기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방안』,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김유경 외(2008),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혜 외(2009),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방안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김이선 외(2007),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1):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재민 외(2012), 『이주여성 일시보호시설 설립의 필요성 및 지원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김현지 외(2010), 『부산지역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개선방안』,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류방란 외(2012), “중도입국 청소년의 교육 기회와 적응실태”, 다문화교육연구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2012. 6, Vol. 5, No. 1, pp.29-50.
- 박재규(2010), 『경기도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및 지원정책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박재규(2012), “경기도 다문화가족 자녀의 취학실태 및 증진방안”,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슈브리프 제46호
- 설규주(2012), “초중고 사회 교과서의 다문화 관련 내용분석-2007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사화 문화’ 관련 단원을 중심으로-”, 한국가족학회, 『다문화교육연구』, Vol. 5. No.1, 1-28쪽.
- 설동훈 외(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방안』 보건복지부
- 설동훈 외 (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양계민 외(2011),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조사』, 무지개청소년센터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양한순(2013), 『2013 서울 거주 중국동포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 연구』, 서울특별시
- 이순형 외(2006),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정착지원방안』, 농림부
- 이숙진·김안나(2013),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와 다문화 지원기관의 상호작용”, 한국가족학회, 『가족과 문화』, 제25집 2호, 234-269쪽.

- 임희진 외 (2012), 『2012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명선·이옥경(2008), 『서울시 다문화가족 실태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장명선(2010),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장명선 외(2011), 『서울시 중도입국청소년 현황과 지원방안』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전경숙(2012), 『다문화가정 중도입국 자녀 초기적응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전기택 외 (2013), 『2012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기선 외(2007), 『경기도 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정일선(2006), 『국제결혼 가족 및 아동 실태조사』, 경북여성정책개발원(편)
- 정일선(2006) “길 찾기: 경상북도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와 통합의 가능성”, 다문화사회 아시아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과 삶: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국제여성정책 심포지엄 자료
- 정혜숙(2013), “제2차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나타난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과제”, 여성가족부 주최 「제14차 다문화가족포럼」 자료집 발표문(2013.05.31)
- 한영현(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보건 및 모성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모자보건학회, 『한국모자보건학회 학술대회』 제20호.
- 행정안전부(201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편람』
- 홍기원(2007), “다문화사회의 정책과제와 방향: 문화정책의 역할과 과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홍미희 외(2008), 『인천지역 결혼이주여성 실태와 지원정책』, 인천발전연구원
- 황정미(2010),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분석-새로운 성원권의 정치학(politics of membership) 관점에서”, 『아세아연구』 제53권 4호, 152-272쪽

## ■ 기타 자료

- 2013 안전행정부 외국인주민 조사  
2012 교육부 다문화가정 학생현황

## Abstract

# A Study on Policy Alternatives for Supporting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Process of Settlement and Social Integration Seen through the Analysis of their Life Conditions in Seoul 2012

Kang Hee-Young

Policy Research Department, Research Fellow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life condition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Seoul. The raw data for this study is from survey on the state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South Korea 2012 conducted by statistics Korea and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Seoul occupies the second position followed by Gyeonggi-do in the scale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South Korea. Multi-cultural families are being differentiated rapidly in Seoul. Specially immigrant youths hold a very important position of differentiating multi-cultural families, but they are apt to be in crisis without supporting from their families and communities. Moreover Korean Chinese and transnational marriage men are placed at the centre of a contradiction in the relation to their typicality as marriage migrants. Even though many of them have lived in Seoul, they have been isolated from multi-cultural policy until now. It's because they are out of stereo type of marriage migrants in South Korea.

Multi-cultural families of Seoul are in a lot of trouble with family intimacy, job researching, participating in community and so forth. Most of all, financial self-reliance support policies are the crucial requirement for them.

We have a multi cultural society when we should have aimed for an intercultural society.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suggest policies not only for marriage migrants but also for former inhabitant Koreans in Seoul.

Key words : multi-cultural families, immigrant youths, Korean Chinesees, transnational marriage men, former inhabitant Koreans, integration, Seoul.

## 부 록

1.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차별경험 관련 통계표
2. 다문화가족 자녀의 차별경험 관련 통계표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부록 1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차별경험 관련 통계표

부록 표-1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다문화 수용성: 한국 문화 수용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전체	21.4 (15,344)	11.9 (8,545)	15.0 (10,725)	19.4 (13,847)	14.0 (10,045)	18.2 (13,047)	100.0 (71,553)	3.47
성별								
여성	20.3	12.2	15.0	21.1	14.3	17.2	100.0	3.48
남성	23.8	11.5	15.1	15.7	13.6	20.4	100.0	3.48
연령								
24세 이하	23.3	9.9	18.0	17.0	15.8	16.0	100.0	3.40
25~29세	22.7	16.5	17.6	18.6	16.1	8.5	100.0	3.15
30~34세	25.2	13.8	13.8	22.5	11.7	13.0	100.0	3.21
35~39세	22.7	12.3	17.2	19.2	11.2	17.3	100.0	3.36
40~49세	22.5	11.1	14.5	18.7	15.6	17.6	100.0	3.46
50세 이상	17.3	10.7	13.4	19.5	13.9	25.3	100.0	3.78
혼인상태								
미혼	25.8	7.5	18.9	15.6	12.4	19.8	100.0	3.41
유배우	21.7	12.7	15.0	19.3	14.0	17.4	100.0	3.43
사별	16.9	7.4	9.7	27.1	13.1	25.7	100.0	3.89
이혼/별거	17.9	8.5	14.9	18.6	16.5	23.6	100.0	3.78
출신국적								
중국	23.0	13.5	15.0	19.0	14.1	15.5	100.0	3.34
중국(한국계)	16.6	6.8	14.0	18.4	14.1	30.1	100.0	3.97
대만, 홍콩	29.8	17.5	12.0	17.3	10.7	12.7	100.0	3.00
일본	27.2	15.5	18.6	21.1	13.1	4.5	100.0	2.91
몽골	32.3	18.9	12.1	20.5	6.7	9.4	100.0	2.79
베트남	16.7	11.8	17.0	19.9	19.2	15.5	100.0	3.59
필리핀	19.9	16.3	12.0	24.6	13.2	14.0	100.0	3.37
태국	25.4	3.9	23.5	29.4	9.8	8.0	100.0	3.18
캄보디아	22.7	14.2	12.8	15.0	19.8	15.6	100.0	3.42
우즈베키스탄	30.4	13.0	8.7	28.3	10.9	8.7	100.0	3.02
러시아	29.2	15.9	18.6	18.6	10.6	7.1	100.0	2.87
북미	26.1	18.7	14.6	21.1	13.3	6.3	100.0	2.96
동남아 기타	19.7	17.9	9.8	19.7	9.9	23.0	100.0	3.51
남부아시아	46.8	5.5	11.1	14.1	14.1	8.4	100.0	2.68
서유럽대양주	24.3	22.7	16.7	24.9	8.6	2.8	100.0	2.79
기타	27.5	13.0	19.8	16.9	13.8	9.0	100.0	3.04

부록 표-2 |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사회적 차별 경험

(단위: %, 명)

구분	차별 경험 있음	차별 경험 없음	합계
전체	42.7 (30,569)	57.3 (40,984)	100.0 (71,553)
성별			
여성	43.9	56.1	100.0
남성	40.2	59.8	100.0
연령			
24세 이하	30.0	70.0	100.0
25~29세	43.1	56.9	100.0
30~34세	45.0	55.0	100.0
35~39세	44.4	55.6	100.0
40~49세	47.0	53.0	100.0
50세 이상	39.1	60.9	100.0
혼인상태			
미혼	23.6	76.4	100.0
유배우	43.4	56.6	100.0
사별	40.1	59.9	100.0
이혼/별거	49.3	50.7	100.0
출신국적			
중국	41.7	58.3	100.0
중국(한국계)	48.1	51.9	100.0
대만, 홍콩	39.1	60.9	100.0
일본	29.6	70.4	100.0
몽골	58.2	41.8	100.0
베트남	45.4	54.6	100.0
필리핀	43.5	56.5	100.0
태국	58.9	41.1	100.0
캄보디아	41.1	58.9	100.0
우즈베키스탄	39.1	60.9	100.0
러시아	39.8	60.2	100.0
북미	27.8	72.2	100.0
동남아 기타	54.3	45.7	100.0
남부아시아	63.4	36.6	100.0
서유럽대양주	36.7	63.3	100.0
기타	45.7	54.3	100.0



■ 부록 표-3 ■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거나 동네에서 차별받은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차별 받지 않았다	별로 차별 받지 않았다	조금 차별을 받았다	심한 차별을 받았다	합계	평균
전체	60.0 (17,857)	22.6 (6,716)	13.3 (3,964)	4.1 (1,209)	100.0 (29,746)	1.61
성별						
여성	59.3	22.0	14.5	4.2	100.0	1.63
남성	61.6	23.8	10.8	3.8	100.0	1.57
연령						
24세 이하	47.4	36.9	15.1	0.6	100.0	1.69
25~29세	49.4	23.9	16.9	9.7	100.0	1.87
30~34세	59.9	21.4	14.9	3.8	100.0	1.63
35~39세	53.2	25.4	15.1	6.3	100.0	1.74
40~49세	65.6	20.9	10.9	2.7	100.0	1.51
50세 이상	63.2	20.7	13.0	3.1	100.0	1.56
혼인상태						
미혼	48.8	38.1	8.6	4.5	100.0	1.69
유배우	61.5	22.1	12.8	3.6	100.0	1.59
사별	71.0	17.4	6.6	5.0	100.0	1.46
이혼/별거	44.7	24.6	22.3	8.4	100.0	1.94
출신국적						
중국	60.4	24.5	10.5	4.6	100.0	1.59
중국(한국계)	72.8	15.2	9.8	2.2	100.0	1.41
대만, 홍콩	51.0	27.1	14.5	7.4	100.0	1.78
일본	57.1	29.9	13.0	0.0	100.0	1.56
몽골	45.5	26.1	23.7	4.7	100.0	1.88
베트남	42.2	28.3	25.3	4.2	100.0	1.92
필리핀	32.8	30.0	28.0	9.2	100.0	2.14
태국	50.2	14.2	28.5	7.1	100.0	1.93
캄보디아	25.0	42.9	32.1	0.0	100.0	2.07
우즈베키스탄	38.9	27.8	22.2	11.1	100.0	2.06
러시아	26.7	46.7	20.0	6.7	100.0	2.07
북미	45.6	28.5	17.8	8.1	100.0	1.88
동남아 기타	50.1	21.7	18.8	9.4	100.0	1.88
남부아시아	26.2	30.5	12.9	30.5	100.0	2.48
서유럽대양주	40.7	28.2	22.3	8.8	100.0	1.99
기타	38.0	36.5	22.1	3.4	100.0	1.91

■ 부록 표-4 ■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상점, 음식점, 은행 등에서 차별받은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차별받지 않았다	별로 차별받지 않았다	조금 차별을 받았다	심한 차별을 받았다	합계	평균
전체	57.9 (17,181)	19.5 (5,796)	18.4 (5,461)	4.1 (1,226)	100.0 (29,663)	1.69
성별						
여성	54.2	21.3	20.9	3.5	100.0	1.74
남성	66.2	15.5	12.8	5.5	100.0	1.58
연령						
24세 이하	39.8	32.7	26.3	1.2	100.0	1.89
25~29세	44.5	25.0	25.0	5.6	100.0	1.92
30~34세	58.2	20.6	16.9	4.3	100.0	1.67
35~39세	49.3	25.1	22.3	3.3	100.0	1.80
40~49세	61.3	15.7	18.3	4.7	100.0	1.66
50세 이상	66.6	16.2	13.3	3.8	100.0	1.54
혼인상태						
미혼	61.3	23.2	7.2	8.2	100.0	1.62
유배우	57.5	19.4	18.9	4.2	100.0	1.70
사별	72.7	10.8	16.5	0.0	100.0	1.44
이혼/별거	55.5	22.7	18.1	3.7	100.0	1.70
출신국적						
중국	56.2	24.5	15.3	4.0	100.0	1.67
중국(한국계)	73.1	10.1	13.9	2.8	100.0	1.46
대만, 홍콩	35.1	22.3	28.5	14.1	100.0	2.21
일본	53.9	16.9	21.8	7.3	100.0	1.83
몽골	37.5	25.5	32.4	4.6	100.0	2.04
베트남	38.0	24.7	34.5	2.8	100.0	2.02
필리핀	41.8	27.3	27.8	3.2	100.0	1.92
태국	48.4	20.6	17.2	13.8	100.0	1.96
캄보디아	46.2	26.9	26.9	0.0	100.0	1.81
우즈베키스탄	47.1	29.4	23.5	0.0	100.0	1.76
러시아	50.0	42.9	7.1	0.0	100.0	1.57
북미	37.0	26.8	25.5	10.7	100.0	2.10
동남아 기타	48.5	22.3	26.0	3.2	100.0	1.84
남부아시아	30.5	21.5	35.1	12.9	100.0	2.30
서유럽대양주	47.6	33.0	16.5	2.9	100.0	1.75
기타	31.3	37.5	31.3	0.0	100.0	2.00

■ 부록 표-5 ■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공공기관(동사무소, 경찰서 등)에서 차별받은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차별 받지 않았다	별로 차별 받지 않았다	조금 차별을 받았다	심한 차별을 받았다	합계	평균
전체	68.4 (19,278)	16.7 (4,711)	9.5 (2,684)	5.3 (1,502)	100.0 (28,175)	1.52
성별						
여성	69.3	17.5	9.2	4.0	100.0	1.48
남성	66.6	14.9	10.2	8.3	100.0	1.60
연령						
24세 이하	55.7	31.9	10.3	2.1	100.0	1.59
25~29세	60.0	22.6	10.7	6.7	100.0	1.64
30~34세	60.7	17.8	13.4	8.2	100.0	1.69
35~39세	65.5	15.5	11.8	7.2	100.0	1.61
40~49세	69.3	17.0	9.4	4.3	100.0	1.49
50세 이상	77.4	12.4	6.1	4.1	100.0	1.37
혼인상태						
미혼	61.3	22.6	11.5	4.6	100.0	1.59
유배우	67.7	16.7	9.9	5.7	100.0	1.54
사별	87.9	3.2	4.1	4.8	100.0	1.26
이혼/별거	70.8	20.6	6.9	1.7	100.0	1.39
출신국적						
중국	67.9	17.8	9.5	4.9	100.0	1.51
중국(한국계)	84.0	9.1	3.4	3.5	100.0	1.26
대만, 홍콩	21.4	22.3	34.0	22.3	100.0	2.57
일본	49.6	28.7	16.5	5.2	100.0	1.77
몽골	51.5	19.4	19.4	9.7	100.0	1.87
베트남	59.5	19.9	15.8	4.8	100.0	1.66
필리핀	58.8	31.8	7.6	1.8	100.0	1.52
태국	64.1	17.8	3.6	14.6	100.0	1.69
캄보디아	54.5	36.4	4.5	4.5	100.0	1.59
우즈베키스탄	43.8	18.8	31.3	6.3	100.0	2.00
러시아	46.2	38.5	7.7	7.7	100.0	1.77
북미	43.9	20.8	24.0	11.3	100.0	2.03
동남아 기타	48.3	16.0	19.5	16.2	100.0	2.04
남부아시아	39.1	17.6	25.8	17.6	100.0	2.22
서유럽대양주	45.8	29.7	21.3	3.2	100.0	1.82
기타	45.2	42.3	5.8	6.7	100.0	1.74

부록 표-6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직장/일터에서 차별받은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차별 받지 않았다	별로 차별 받지 않았다	조금 차별을 받았다	심한 차별을 받았다	합계	평균
전체	16.8 (4,646)	23.0 (6,355)	38.8 (10,711)	21.4 (5,913)	100.0 (27,625)	2.65
성별						
여성	17.2	24.2	39.6	19.0	100.0	2.60
남성	16.0	20.5	37.1	26.5	100.0	2.74
연령						
24세 이하	35.8	18.2	37.8	8.3	100.0	2.19
25~29세	22.9	33.7	38.1	5.4	100.0	2.26
30~34세	22.6	22.9	39.3	15.1	100.0	2.47
35~39세	19.2	20.7	35.4	24.8	100.0	2.66
40~49세	14.8	25.6	39.2	20.3	100.0	2.65
50세 이상	11.5	18.5	40.1	29.9	100.0	2.88
혼인상태						
미혼	6.3	18.8	51.4	23.5	100.0	2.92
유배우	17.9	23.1	37.9	21.1	100.0	2.62
사별	15.9	39.9	28.3	15.9	100.0	2.44
이혼/별거	10.7	17.7	46.4	25.3	100.0	2.86
출신국적						
중국	14.2	21.8	41.7	22.3	100.0	2.72
중국(한국계)	8.0	22.6	42.9	26.5	100.0	2.88
대만, 홍콩	49.3	21.6	21.3	7.8	100.0	1.88
일본	42.2	22.5	22.5	12.9	100.0	2.06
몽골	15.7	26.2	45.0	13.1	100.0	2.56
베트남	24.4	21.3	38.8	15.5	100.0	2.45
필리핀	35.8	23.6	25.4	15.3	100.0	2.20
태국	17.0	41.5	24.9	16.6	100.0	2.41
캄보디아	25.0	43.8	31.2	0.0	100.0	2.06
우즈베키스탄	16.7	33.3	33.3	16.7	100.0	2.50
러시아	62.5	12.5	25.0	0.0	100.0	1.63
북미	41.0	33.0	16.3	9.7	100.0	1.95
동남아 기타	37.0	14.7	33.5	14.9	100.0	2.26
남부아시아	4.7	38.6	28.3	28.3	100.0	2.80
서유럽대양주	50.0	18.5	28.5	3.0	100.0	1.84
기타	24.9	25.4	36.3	13.5	100.0	2.38

■ 부록 표-7 ■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차별받은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차별 받지 않았다	별로 차별 받지 않았다	조금 차별을 받았다	심한 차별을 받았다	합계	평균
전체	66.5 (7,442)	20.2 (2,267)	7.8 (876)	5.4 (609)	100.0 (11,194)	1.52
성별						
여성	62.9	23.6	7.4	6.2	100.0	1.57
남성	75.7	11.8	9.0	3.5	100.0	1.40
연령						
24세 이하	58.9	23.2	6.3	11.6	100.0	1.70
25~29세	60.4	26.6	9.5	3.5	100.0	1.56
30~34세	69.9	16.3	8.2	5.6	100.0	1.49
35~39세	59.3	30.8	6.9	3.0	100.0	1.54
40~49세	67.3	16.4	7.4	8.9	100.0	1.58
50세 이상	80.6	10.6	8.8	0.0	100.0	1.28
혼인상태						
미혼	56.6	27.5	3.7	12.2	100.0	1.71
유배우	65.8	20.3	8.4	5.5	100.0	1.54
사별	100.0	0.0	0.0	0.0	100.0	1.00
이혼/별거	77.2	21.0	0.0	1.8	100.0	1.26
출신국적						
중국	63.8	24.4	5.5	6.3	100.0	1.54
중국(한국계)	80.3	14.1	2.2	3.4	100.0	1.29
대만, 홍콩	63.5	19.1	10.2	7.1	100.0	1.61
일본	66.2	13.5	15.2	5.1	100.0	1.59
몽골	46.2	26.9	23.1	3.8	100.0	1.85
베트남	55.9	20.6	14.7	8.8	100.0	1.76
필리핀	62.9	25.8	5.6	5.6	100.0	1.54
태국	56.5	37.3	0.0	6.2	100.0	1.56
캄보디아	58.8	29.4	11.8	0.0	100.0	1.53
우즈베키스탄	66.7	16.7	16.7	0.0	100.0	1.50
러시아	33.3	33.4	33.3	0.0	100.0	2.00
북미	68.5	16.9	12.4	2.2	100.0	1.48
동남아 기타	50.2	28.3	7.1	14.3	100.0	1.86
남부아시아	55.5	33.6	0.0	10.9	100.0	1.66
서유럽대양주	68.4	18.7	6.4	6.4	100.0	1.51
기타	63.1	16.5	13.6	6.8	100.0	1.64

■ 부록 표-8 ■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차별시정 요구 경험

(단위: %, 명)

구분	차별시정 요구 경험 있음	차별시정 요구 경험 없음	합계
전체	35.1 (10,738)	64.9 (19,832)	100.0 (30,569)
성별			
여성	33.4	66.6	100.0
남성	39.1	60.9	100.0
연령			
24세 이하	20.5	79.5	100.0
25~29세	36.9	63.1	100.0
30~34세	37.5	62.5	100.0
35~39세	31.7	68.3	100.0
40~49세	32.0	68.0	100.0
50세 이상	41.4	58.6	100.0
혼인상태			
미혼	37.5	62.5	100.0
유배우	33.7	66.3	100.0
사별	49.7	50.3	100.0
이혼/별거	43.9	56.1	100.0
출신국적			
중국	31.7	68.3	100.0
중국(한국계)	40.2	59.8	100.0
대만, 홍콩	41.3	58.7	100.0
일본	31.6	68.4	100.0
몽골	37.5	62.5	100.0
베트남	25.7	74.3	100.0
필리핀	23.5	76.5	100.0
태국	33.2	66.8	100.0
캄보디아	20.7	79.3	100.0
우즈베키스탄	27.8	72.2	100.0
러시아	73.3	26.7	100.0
북미	35.9	64.1	100.0
동남아 기타	45.6	54.4	100.0
남부아시아	47.3	52.7	100.0
서유럽대양주	37.3	62.7	100.0
기타	39.4	60.6	100.0

부록 표-9 |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차별하지 말라고 요구하지 않은 이유(복수 응답)

(단위: %, 명)

구분	한국어가 서툴러서	다른사람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던 것을 알기 때문에	가족이 못하게 해서	모국 출신 친구들이 못하게 해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기타
전체	26.1 (5,171)	30.9 (6,120)	2.6 (512)	2.5 (495)	39.6 (7,851)	13.0 (2,573)	6.8 (1,342)
성별							
여성	30.0	29.5	2.9	2.3	38.0	12.3	6.0
남성	16.3	34.2	1.8	2.9	43.5	14.6	8.7
연령							
24세 이하	73.4	15.9	1.1	0.0	18.4	6.3	1.4
25~29세	47.5	22.4	2.5	0.0	27.0	19.7	8.1
30~34세	31.4	23.6	2.6	3.2	34.6	23.6	7.0
35~39세	27.6	30.0	3.4	1.2	37.5	17.1	7.9
40~49세	22.4	35.1	1.4	5.0	42.8	11.6	6.9
50세 이상	8.5	36.0	4.1	1.0	48.7	5.3	6.4
혼인상태							
미혼	17.3	23.4	0.0	5.7	51.2	15.4	8.6
유배우	28.1	30.5	2.3	2.1	38.3	13.9	6.8
사별	3.1	29.3	12.3	0.0	61.5	0.0	0.0
이혼/별거	11.8	38.0	3.1	7.0	43.8	5.7	8.3
출신국적							
중국	22.6	36.3	2.4	0.8	41.9	10.9	6.9
중국(한국계)	7.0	31.4	2.7	5.8	50.0	9.1	6.0
대만, 홍콩	19.6	30.9	3.7	2.1	27.6	29.9	11.2
일본	33.9	28.1	2.9	1.5	30.1	11.6	16.5
몽골	40.7	33.3	7.4	0.0	25.9	25.9	3.7
베트남	70.1	14.9	1.9	0.0	20.5	13.1	1.1
필리핀	66.0	15.8	4.0	2.0	29.7	14.2	0.0
태국	69.7	19.9	0.0	0.0	25.3	14.9	5.0
캄보디아	69.6	17.4	4.3	0.0	21.7	8.7	4.3
우즈베키스탄	46.2	38.5	0.0	0.0	15.4	38.5	0.0
러시아	50.0	0.0	0.0	0.0	50.0	0.0	0.0
북미	41.1	24.8	2.1	0.0	24.5	30.5	13.9
동남아 기타	33.0	39.2	0.0	0.0	27.9	16.8	11.1
남부아시아	25.2	24.5	0.0	0.0	41.5	25.9	8.2
서유럽대양주	37.9	24.2	0.0	0.0	19.6	30.4	9.2
기타	56.3	41.3	5.6	5.6	26.2	39.7	11.1

부록 2 다문화가족 자녀의 차별경험 관련 통계표

■ 부록 표-10 ■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여부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합계
전체	9.7 (596)	90.3 (5,559)	100.0 (6,155)
성별			
여성	6.1	93.9	100.0
남성	13.2	86.8	100.0
연령			
9~11세	12.7	87.3	100.0
12~14세	10.4	89.6	100.0
15~17세	2.8	97.2	100.0
18세 이상	5.8	94.2	100.0
외국 성장 여부			
국내 성장	10.6	89.4	100.0
외국 성장	6.2	93.8	100.0
외국계 부모 출신 국적			
중국	12.8	87.2	100.0
중국(한국계)	5.6	94.4	100.0
대만, 홍콩	4.4	95.6	100.0
일본	5.6	94.4	100.0
몽골	16.0	84.0	100.0
베트남	7.1	92.9	100.0
필리핀	12.1	87.9	100.0
태국	13.8	86.2	100.0
캄보디아	46.0	54.0	100.0
우즈베키스탄	14.7	85.3	100.0
러시아	11.7	88.3	100.0
북미	9.8	90.2	100.0
동남아 기타	14.8	85.2	100.0
남부아시아	22.1	77.9	100.0
서유럽/대양주	12.1	87.9	100.0
기타	27.8	72.2	100.0



■ 부록 표-11 ■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경험 (복수응답)

(단위: %, 명)

구분	말로 하는 협박, 욕설	집단 따돌림	강제 심부름 등 괴롭힘	돈, 물건을 빼앗김	맞거나 간힘	성적인 행동	인터넷, 휴대 전화 욕설 등	기타
전체	61.0 (364)	35.0 (209)	8.2 (49)	11.5 (68)	19.2 (115)	8.1 (48)	8.2 (49)	0.5 (3)
성별								
여성	77.5	20.7	0.0	11.9	15.1	0.0	10.3	0.0
남성	53.5	41.6	11.9	11.3	21.2	11.8	7.2	0.8
연령								
9~11세	60.9	39.2	1.9	10.1	26.4	2.4	8.2	0.0
12~14세	65.1	36.8	7.1	16.7	12.2	19.6	10.2	1.5
15~17세	17.5	0.0	82.5	0.0	0.0	0.0	0.0	0.0
18세 이상	0.0	0.0	0.0	0.0	0.0	0.0	0.0	0.0
외국 성장 여부								
국내 성장	62.1	37.1	9.5	6.7	21.1	9.4	9.5	0.6
외국 성장	54.3	22.1	0.0	41.1	7.7	0.0	0.0	0.0
외국계 부모 출신 국적								
중국	45.5	19.1	0.0	34.5	10.7	10.7	17.7	0.0
중국(한국계)	62.7	29.4	37.3	0.0	0.0	0.0	0.0	0.0
대만, 홍콩	59.5	22.7	0.0	0.0	36.9	0.0	0.0	22.7
일본	83.8	0.0	16.2	15.6	48.5	16.2	0.0	0.0
몽골	72.7	27.3	0.0	0.0	0.0	0.0	0.0	0.0
베트남	0.0	100.0	0.0	0.0	0.0	0.0	0.0	0.0
필리핀	86.0	57.0	28.0	14.0	42.0	14.0	0.0	0.0
태국	46.4	0.0	0.0	0.0	100.0	0.0	0.0	0.0
캄보디아	100.0	0.0	0.0	0.0	0.0	0.0	0.0	0.0
우즈베키스탄	0.0	100.0	0.0	0.0	0.0	0.0	0.0	0.0
러시아	100.0	0.0	0.0	0.0	100.0	0.0	0.0	0.0
북미	33.8	46.5	0.0	0.0	28.5	0.0	0.0	0.0
동남아 기타	100.0	100.0	0.0	0.0	0.0	78.2	21.8	0.0
남부아시아	100.0	100.0	0.0	0.0	100.0	0.0	0.0	0.0
서유럽/대양주	10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76.4	37.1	0.0	0.0	0.0	0.0	23.6	0.0

■ 부록 표-12 ■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폭력 대응방법 (복수응답)

(단위: %, 명)

구분	선생님께 말씀드릴	부모님께 말씀드릴	학교 홈페이지, 카페 등에 글	경찰에 신고	친구들과 상의	참았음	그냥 넘어감
전체	51.2 (305)	64.1 (382)	1.8 (11)	0.5 (3)	10.3 (61)	26.8 (160)	2.9 (18)
성별							
여성	50.7	65.4	0.0	0.0	9.3	24.8	0.0
남성	51.5	63.5	2.6	0.8	10.7	27.7	4.3
연령							
9~11세	46.7	65.8	3.2	0.0	6.9	26.0	5.2
12~14세	49.4	60.7	0.0	1.5	18.5	26.5	0.0
15~17세	82.5	100.0	0.0	0.0	0.0	0.0	0.0
18세 이상	100.0	0.0	0.0	0.0	0.0	100.0	0.0
외국 성장 여부							
국내 성장	52.6	66.8	2.1	0.6	10.7	25.2	3.4
외국 성장	42.9	47.4	0.0	0.0	7.7	36.7	0.0
외국계 부모 출신 국적							
중국	48.6	54.5	0.0	0.0	0.0	30.1	8.4
중국(한국계)	37.3	70.6	0.0	0.0	0.0	29.4	0.0
대만, 홍콩	58.3	77.3	0.0	22.7	19.0	41.7	0.0
일본	48.5	47.9	0.0	0.0	0.0	35.9	0.0
몽골	50.0	54.6	0.0	0.0	0.0	0.0	22.7
베트남	0.0	100.0	0.0	0.0	0.0	0.0	0.0
필리핀	42.0	57.0	14.0	0.0	29.0	43.0	0.0
태국	100.0	100.0	0.0	0.0	0.0	46.4	0.0
캄보디아	100.0	0.0	0.0	0.0	0.0	0.0	0.0
우즈베키스탄	0.0	100.0	0.0	0.0	0.0	0.0	0.0
러시아	100.0	100.0	0.0	0.0	0.0	100.0	0.0
북미	53.5	91.2	0.0	0.0	0.0	0.0	0.0
동남아 기타	100.0	21.8	0.0	0.0	100.0	21.8	0.0
남부아시아	100.0	100.0	0.0	0.0	0.0	100.0	0.0
서유럽/대양주	42.3	100.0	42.3	0.0	42.3	0.0	0.0
기타	57.9	60.6	0.0	0.0	23.6	18.5	0.0

■ 부록 표-13 ■ 다문화가족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당한 경험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합계
전체	15.9 (1,878)	84.1 (9,909)	100.0 (11,787)
성별			
여성	14.0	86.0	100.0
남성	17.7	82.3	100.0
연령			
9~11세	19.1	80.9	100.0
12~14세	15.1	84.9	100.0
15~17세	9.2	90.8	100.0
18세 이상	16.3	83.7	100.0
외국 성장 여부			
국내 성장	12.2	87.8	100.0
외국 성장	20.6	79.4	100.0
외국계 부모 출신 국적			
중국	15.6	84.4	100.0
중국(한국계)	12.8	87.2	100.0
대만, 홍콩	18.0	82.0	100.0
일본	10.9	89.1	100.0
몽골	22.0	78.0	100.0
베트남	20.9	79.1	100.0
필리핀	12.3	87.7	100.0
태국	53.8	46.2	100.0
캄보디아	0.0	100.0	100.0
우즈베키스탄	12.0	88.0	100.0
러시아	8.8	91.2	100.0
북미	24.4	75.6	100.0
동남아 기타	24.0	76.0	100.0
남부아시아	22.1	77.9	100.0
서유럽/대양주	0.0	100.0	100.0
기타	28.5	71.5	100.0

■ 부록 표-14 ■ 다문화가족 자녀를 차별하거나 무시한 사람: 친구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차별받지 않았다	차별받지 않았다	약간 차별 받았다	심한 차별을 받았다	합계	평균
전체	35.5 (667)	27.0 (507)	26.9 (505)	10.6 (199)	100.0 (1,878)	2.13
성별						
여성	31.9	31.4	28.2	8.5	100.0	2.13
남성	38.1	23.8	26.0	12.1	100.0	2.12
연령						
9~11세	26.3	15.3	41.6	16.9	100.0	2.49
12~14세	30.8	27.3	35.9	6.0	100.0	2.17
15~17세	31.7	26.0	23.1	19.2	100.0	2.30
18세 이상	42.5	33.3	16.6	7.6	100.0	1.89
외국 성장 여부						
국내 성장	24.3	22.2	39.3	14.3	100.0	2.44
외국 성장	43.9	30.6	17.6	7.9	100.0	1.89
외국계 부모 출신 국적						
중국	27.0	41.3	26.7	5.0	100.0	2.10
중국(한국계)	64.2	5.4	17.1	13.3	100.0	1.79
대만, 홍콩	54.5	29.0	16.5	0.0	100.0	1.62
일본	18.2	29.5	52.3	0.0	100.0	2.34
몽골	29.5	12.8	15.4	42.3	100.0	2.70
베트남	37.9	0.0	62.1	0.0	100.0	2.24
필리핀	0.0	37.4	38.2	24.4	100.0	2.87
태국	11.9	48.9	25.6	13.7	100.0	2.41
캄보디아	-	-	-	-	-	-
우즈베키스탄	0.0	0.0	100.0	0.0	100.0	3.00
러시아	100.0	0.0	0.0	0.0	100.0	1.00
북미	33.1	31.2	23.8	11.9	100.0	2.14
동남아 기타	34.2	8.7	0.0	57.2	100.0	2.80
남부아시아	100.0	0.0	0.0	0.0	100.0	4.00
서유럽/대양주	-	-	-	-	-	-
기타	0.0	46.2	33.6	20.2	100.0	2.74

■ 부록 표-15 ■ 다문화가족 자녀를 차별하거나 무시한 사람: 교사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차별받지 않았다	차별받지 않았다	약간 차별 받았다	심한 차별을 받았다	합계	평균
전체	75.0 (1,064)	14.9 (212)	8.7 (123)	1.4 (20)	100.0 (1,419)	1.36
성별						
여성	75.6	18.3	3.9	2.2	100.0	1.33
남성	74.5	12.2	12.6	0.7	100.0	1.40
연령						
9~11세	83.3	4.1	9.9	2.8	100.0	1.32
12~14세	77.9	16.7	5.4	0.0	100.0	1.27
15~17세	63.5	27.1	4.7	4.7	100.0	1.51
18세 이상	67.4	22.3	10.3	0.0	100.0	1.43
외국 성장 여부						
국내 성장	69.2	15.9	12.4	2.5	100.0	1.48
외국 성장	82.5	13.7	3.8	0.0	100.0	1.21
외국계 부모 출신 국적						
중국	54.6	29.4	15.9	0.0	100.0	1.61
중국(한국계)	91.0	9.0	0.0	0.0	100.0	1.09
대만, 홍콩	81.8	18.2	0.0	0.0	100.0	1.18
일본	92.1	7.9	0.0	0.0	100.0	1.08
몽골	40.9	0.0	42.3	16.7	100.0	2.35
베트남	100.0	0.0	0.0	0.0	100.0	1.00
필리핀	62.6	24.4	13.0	0.0	100.0	1.50
태국	57.0	29.3	13.7	0.0	100.0	1.57
캄보디아	-	-	-	-	-	-
우즈베키스탄	100.0	0.0	0.0	0.0	100.0	1.00
러시아	100.0	0.0	0.0	0.0	100.0	1.00
북미	81.6	6.5	11.9	0.0	100.0	1.30
동남아 기타	42.8	57.2	0.0	0.0	100.0	1.57
남부아시아	100.0	0.0	0.0	0.0	100.0	1.00
서유럽/대양주	-	-	-	-	-	-
기타	67.8	21.6	10.7	0.0	100.0	1.75

■ 부록 표-16 ■ 다문화가족 자녀를 차별하거나 무시한 사람: 친척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차별받지 않았다	차별받지 않았다	약간 차별 받았다	심한 차별을 받았다	합계	평균
전체	85.1 (1,599)	12.3 (231)	1.4 (26)	1.2 (22)	100.0 (1,878)	1.19
성별						
여성	81.5	16.2	2.3	0.0	100.0	1.21
남성	87.7	9.6	0.8	2.0	100.0	1.17
연령						
9~11세	91.1	7.2	1.7	0.0	100.0	1.11
12~14세	89.0	5.6	0.0	5.4	100.0	1.22
15~17세	92.5	2.8	0.0	4.7	100.0	1.17
18세 이상	79.8	18.4	1.9	0.0	100.0	1.22
외국 성장 여부						
국내 성장	88.3	7.9	1.1	2.7	100.0	1.18
외국 성장	82.8	15.5	1.7	0.0	100.0	1.19
외국계 부모 출신 국적						
중국	72.8	27.2	0.0	0.0	100.0	1.27
중국(한국계)	100.0	0.0	0.0	0.0	100.0	1.00
대만, 홍콩	82.1	17.9	0.0	0.0	100.0	1.18
일본	92.1	7.9	0.0	0.0	100.0	1.08
몽골	57.7	0.0	25.6	16.7	100.0	2.01
베트남	100.0	0.0	0.0	0.0	100.0	1.00
필리핀	61.8	38.2	0.0	0.0	100.0	1.38
태국	100.0	0.0	0.0	0.0	100.0	1.00
캄보디아	-	-	-	-	-	-
우즈베키스탄	100.0	0.0	0.0	0.0	100.0	1.00
러시아	100.0	0.0	0.0	0.0	100.0	1.00
북미(미국, 캐나다)	76.2	11.9	11.9	0.0	100.0	1.36
동남아 기타	100.0	0.0	0.0	0.0	100.0	1.00
남부아시아	100.0	0.0	0.0	0.0	100.0	1.00
서유럽/대양주	-	-	-	-	-	-
기타	77.3	10.7	0.0	12.1	100.0	1.47

■ 부록 표-17 ■ 다문화가족 자녀를 차별하거나 무시한 사람: 이웃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차별받지 않았다	차별받지 않았다	약간 차별 받았다	심한 차별을 받았다	합계	평균
전체	66.5 (1,249)	22.7 (426)	9.9 (185)	0.9 (18)	100.0 (1,878)	1.45
성별						
여성	57.7	34.8	5.2	2.3	100.0	1.52
남성	72.7	14.2	13.1	0.0	100.0	1.40
연령						
9~11세	85.7	5.8	8.5	0.0	100.0	1.23
12~14세	70.3	24.3	5.4	0.0	100.0	1.35
15~17세	73.3	22.0	4.7	0.0	100.0	1.31
18세 이상	54.0	31.5	12.7	1.9	100.0	1.62
외국 성장 여부						
국내 성장	79.9	11.9	8.1	0.0	100.0	1.28
외국 성장	56.5	30.7	11.2	1.7	100.0	1.58
외국계 부모 출신 국적						
중국	45.0	40.5	14.4	0.0	100.0	1.69
중국(한국계)	81.9	4.8	13.3	0.0	100.0	1.31
대만, 홍콩	67.1	32.9	0.0	0.0	100.0	1.33
일본	92.1	7.9	0.0	0.0	100.0	1.08
몽골	40.9	29.5	29.5	0.0	100.0	1.89
베트남	100.0	0.0	0.0	0.0	100.0	1.00
필리핀	62.6	12.2	25.2	0.0	100.0	1.63
태국	100.0	0.0	0.0	0.0	100.0	1.00
캄보디아	-	-	-	-	-	-
우즈베키스탄	100.0	0.0	0.0	0.0	100.0	1.00
러시아	100.0	0.0	0.0	0.0	100.0	1.00
북미(미국, 캐나다)	63.7	24.4	0.0	11.9	100.0	1.60
동남아 기타	31.8	68.2	0.0	0.0	100.0	1.68
남부아시아	100.0	0.0	0.0	0.0	100.0	1.00
서유럽/대양주	-	-	-	-	-	-
기타	67.8	10.7	21.6	0.0	100.0	1.54

【부록 표-18】 다문화가족 자녀를 차별하거나 무시한 사람: 모르는 사람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차별받지 않았다	차별받지 않았다	약간 차별 받았다	심한 차별을 받았다	합계	평균
전체	54.0 (1,014)	21.1 (397)	18.3 (343)	6.6 (124)	100.0 (1,878)	1.78
성별						
여성	50.0	30.5	17.9	1.6	100.0	1.71
남성	56.8	14.6	18.5	10.2	100.0	1.82
연령						
9~11세	75.9	9.8	13.4	0.8	100.0	1.39
12~14세	61.7	36.8	1.4	0.0	100.0	1.40
15~17세	48.9	19.2	31.9	0.0	100.0	1.83
18세 이상	40.3	22.5	24.5	12.7	100.0	2.10
외국 성장 여부						
국내 성장	70.2	16.3	11.5	2.1	100.0	1.45
외국 성장	41.9	24.7	23.3	10.0	100.0	2.01
외국계 부모 출신 국적						
중국	33.5	30.7	35.8	0.0	100.0	2.02
중국(한국계)	54.5	11.7	7.2	26.6	100.0	2.06
대만, 홍콩	63.6	5.5	19.0	11.9	100.0	1.79
일본	92.1	7.9	0.0	0.0	100.0	1.08
몽골	53.7	16.7	16.7	12.8	100.0	1.89
베트남	68.9	0.0	31.1	0.0	100.0	1.62
필리핀	75.6	12.2	12.2	0.0	100.0	1.37
태국	74.4	11.9	13.7	0.0	100.0	1.39
캄보디아	-	-	-	-	-	-
우즈베키스탄	100.0	0.0	0.0	0.0	100.0	1.00
러시아	0.0	100.0	0.0	0.0	100.0	2.00
북미(미국, 캐나다)	63.7	24.4	11.9	0.0	100.0	1.48
동남아 기타	20.8	56.0	23.2	0.0	100.0	2.02
남부아시아	0.0	100.0	0.0	0.0	100.0	2.00
서유럽/대양주	-	-	-	-	-	-
기타	67.8	22.7	9.5	0.0	100.0	1.42



■ 부록 표-19 ■ 다문화가족 자녀가 차별받았을 때 대응 방법 (복수응답)

(단위: %, 명)

구분	상대방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	부모님, 선생님께 말씀드렸다	친구들과 상의하였다	카페,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참았다	별 생각없이 그냥 넘어갔다	기타
전체	10.0 (187)	32.5 (611)	7.6 (143)	0.3 (6)	48.1 (903)	20.1 (3770)	0.9 (16)
성별							
여성	12.7	42.9	11.4	0.0	44.6	18.6	0.0
남성	8.0	25.3	4.9	0.6	50.5	21.2	1.5
연령							
9~11세	16.0	57.7	20.2	1.2	39.1	3.0	0.0
12~14세	26.8	27.7	5.5	0.0	40.5	14.4	0.0
15~17세	2.6	17.1	0.0	0.0	47.6	45.0	4.7
18세 이상	2.4	22.4	2.4	0.0	55.4	28.0	1.1
외국 성장 여부							
국내 성장	16.1	47.0	13.8	0.8	41.8	13.4	2.0
외국 성장	5.4	21.7	3.0	0.0	52.7	25.1	0.0
외국계 부모 출신 국적							
중국	3.3	22.9	2.4	0.0	58.4	17.9	0.0
중국(한국계)	6.9	0.0	5.4	0.0	48.5	39.2	0.0
대만, 홍콩	24.7	29.6	3.1	0.0	30.3	36.3	0.0
일본	18.6	33.1	27.4	0.0	61.8	7.6	8.1
몽골	28.2	40.9	0.0	0.0	25.6	16.7	16.7
베트남	37.9	100.0	37.9	0.0	0.0	0.0	0.0
필리핀	37.4	49.6	13.0	12.2	25.2	0.0	0.0
태국	0.0	39.3	0.0	0.0	68.9	17.4	0.0
캄보디아	-	-	-	-	-	-	-
우즈베키스탄	0.0	0.0	0.0	0.0	100.0	0.0	0.0
러시아	0.0	0.0	100.0	0.0	0.0	0.0	0.0
북미(미국, 캐나다)	6.5	64.8	7.7	0.0	52.4	0.0	0.0
동남아 기타	23.2	79.2	0.0	0.0	68.2	20.8	0.0
남부아시아	0.0	0.0	0.0	0.0	100.0	0.0	0.0
서유럽/대양주	-	-	-	-	-	-	-
기타	0.0	67.8	0.0	0.0	41.7	0.0	0.0



2013 정책연구-12

## 서울시 다문화가족 생활실태분석을 통한 정착 및 사회통합지원방안 연구

발행인 이숙진  
연구자 강희영, 권용희  
발행일 2013년 12월  
인쇄처 행복한나무  
발간등록번호 51-B552561-000013-01  
발행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전 화 02-810-5101(代)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함께해요 청림실천, 신뢰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www.seoulwomen.or.kr](http://www.seoulwomen.or.kr)

